아주신씨(鵝州申氏) 호계(虎溪) 가문(家門) 고문서(古文書) 전(全)

교령류(敎令類)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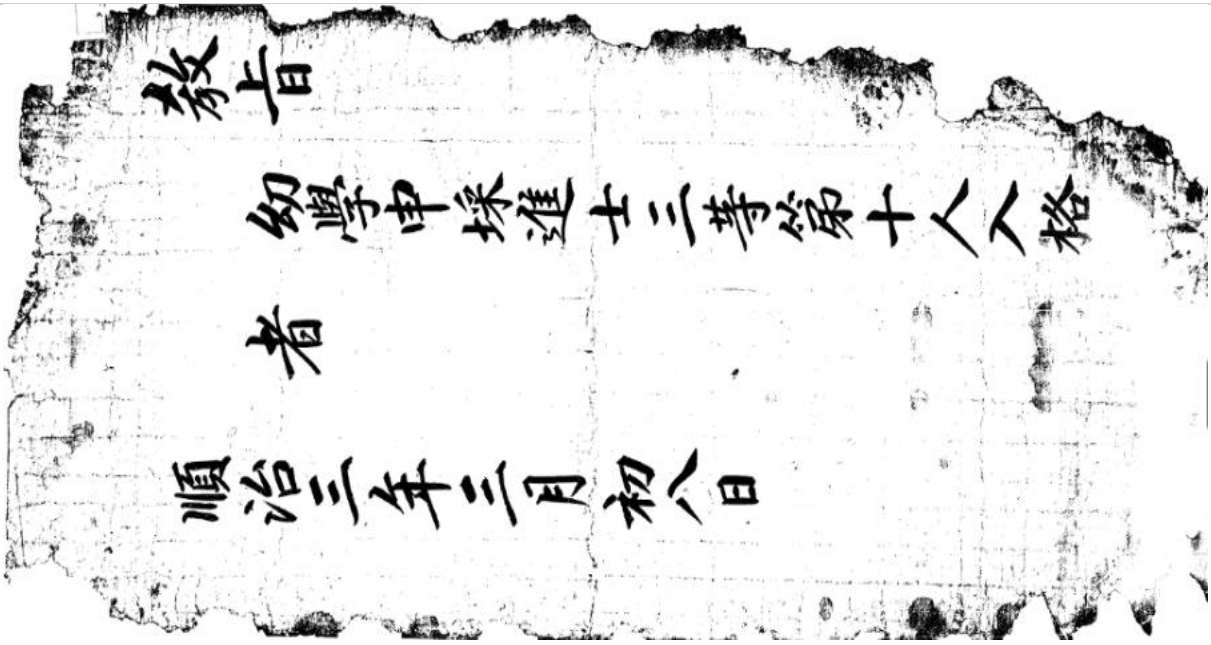
백패(白牌) (1)

1646년 신채(申埰) 백패(白牌)

분류	고문서-교령류-백패 / 정치·행정-과거-백패
· 작성주체	발급: 국왕:인조(國王:仁祖) / 수취: 신채(申埰)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6 년
· 형태사항	크기: 94x4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1. 교령류 / (1) 백패 / 백패 / 3 ~쪽



백패(白牌)

생원·진사과는 그 복시에서 각각 1 등 5 인, 2 등 25 인, 3 등 70 인으로 각 100 인을 합격시켰는데, 시험결과에 대한 전형(銓衡)이 끝나면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써서 국왕에게 올린 뒤 이를 발표, 즉 궤방(掛榜)하였다.

합격자들은 길일을 택하여 전정(殿庭)에서 방방의(放榜儀)라는 의식을 하였는데, 생원은 동쪽에 진사는 서쪽에 줄지어 서서 국왕에게 사배(四拜)를 올린 뒤에 합격증서로서 백패와 주과(酒果)를 받았다.

백패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합격한 사람의 직위·성명·합격등급·성적순위를 기입하고 연월일을 쓴 다음에 그 사이에 어보(御寶)를 찍었다.

고신(告身) (1)

1481년 신후정(申後艇) 고신(告身)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수취: 신준정(申俊禎)
· 작성지역	한성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81 년 / 성화 17 년 8 월 일
· 형태사항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 점련자료	1481 년 신후정(申後艇) 고신(告身)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안내정보

1481 년신준정을 종사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481 년(성종 12) 이조(吏曹)에서 신준정(申俊禎)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장사랑(將仕郞) 의성훈도 (義城訓導)인 그를종사랑(從仕郞)행(行) 의성훈도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즉, 종(從) 9 품(品) 장사랑 에서 정(正) 9 품 종사랑 으로 한 등급 승진시킨 것이다. 그 이유는 연월일 기록 왼쪽에 좀 더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 이 해 5 월에 내려진 특별 승진 때문이었다. 이달에는 명나라사신이 방문하 여 황제의 칙서(勅書)와 정현왕후(貞顯王后)를 조선 국왕의 계비(繼妃)로 삼는다는 문서를 전하였다. 이에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전 관료를 한 등급 승진시키고 작은 죄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면령을 내렸다.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를 폐위시키고 후궁 가운데 한 사람을 계비로 삼은 것이 명의 인정을 얻어 순조롭게 마무리 된 일이었다. 이에 지방 향교의 선생인 신준정도 그 품계를 한 등급 올릴 수 있었다.

상세정보

1481 년(성종 12)신준정을 종사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成化 17 年(1481)8 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俊禎에게 내린 告身이다. 지난 6 월 29 일에 내려진 成宗(재위 1469~1494)의 명을 받들어 將仕郞義城訓導신준정을 從仕郞行義城訓導에 임명하 였다. 즉, 從 9 品 將仕郞에서 正 9 품 從仕郞으로 品階를 한 資級 올려준 고신이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年號의 左傍에 附記되어 있다. 먼저 좀 더 큰 글씨로 "資級修改"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치 公文書에서 연호 기록 옆에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과 유사하게 '자급을 고치는 것'이라고 본 고신의 목적을 적기하였다. 이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예이다.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기록된 "辛五別加"와 같은 류가 보통 많이 보인다. 당해가 辛丑年(1481)이므로 당해 5 월에 베풀어진 別加로 인해 승자시킨다는 말이다. 이때 명의 사신이 황제의 勅書와 貞顯王后를 조선 국왕의 繼妃로 삼는다는 誥命을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경하하기 위해 百官을 加資하고 赦免令을 내렸다. 신준정도 이러한 恩典을 입어 가자된 것이다.

訓導는 漢陽의 四學과 지방의 鄕校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이다. 대소과에 합격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신준정은 향리에서 학문을 인정받아 의성훈도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5 대조 申允濡는 麗末에 居昌에 세거하다가 尙州 望京山아래 丹密로 移居하였다. 그 후 신준정의 아버지 申錫命대에 다시 義城 읍내로 이주하여, 의성鵝州申氏 邑派를 이루게 되었다.

본 고신은 1646 년(인조 24)에 申埰(1610~72)가 작성한 試券의 여백에 배접되어 있다. 시권은 두터운 종이를 사용하니 여기에 배접하여 말아두는 방식으로 선대의 고신을 보관하였던 것 같다. 이 댁에서 발견된 15 세기 고문서 몇 점도 이러한 방식으로 家傳되었다. 신채는 신준정의 6 세손이 된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成化十七年六
月二十九日奉
敎 將仕郞義城訓導
申俊禎爲從仕郞

行義城訓導者
成化十七年八月日
資級修改辛五別加
正郎臣鄭
判書參判參議臣金[着名]
佐郎臣李[着名]

고신(告身)

오늘날의 사령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직첩이라고 불렀으며, 관직자의 처에게도 주었다. 고려 때에는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새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모두 대간이 서경한 뒤에 고신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선 건국 직후 개혁되어 관교와 교첩의 2가지로 나누어졌다. 관교는 4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시명지보'라는 임금의 도장을 찍어 임금이 교지로 직접 내리는 것이고, 직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의 판서·참판·참의·정랑·좌랑이 순서대로 서명하고, '이조지인' 또는 '병조지인'을 찍어 발행하는 것이다.

당상관과 당하관의 처에게 주는 고신도 각각 서식이 달랐다. 관교를 받는 4품 이상의 관직자는 서경을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관직자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죄를 지으면 고신에서 품계를 강등하거나 고신을 빼앗아 관직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고신은 가문의 명예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현재 여러 종류의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조사첩(朝謝帖) (3)

1402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분류	고문서-교령류-조사첩 / 정치·행정-임면-조사첩
· 작성주체	발급: 병조(兵曹) / 수취: 신사렴(申士廉)
· 작성지역	병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02 년 / 건문 4 년 5 월 30 일
· 형태사항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帖 1 개
· 서명(개)	착명:1 서압:3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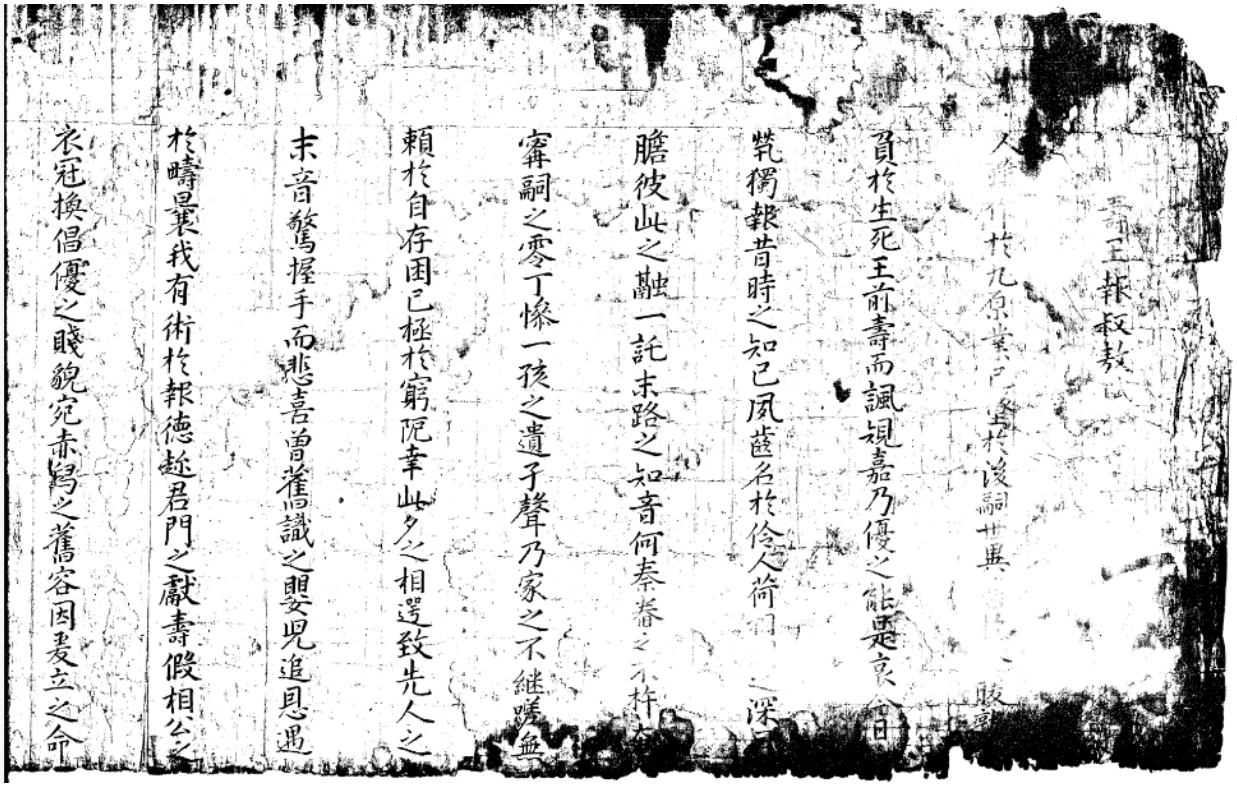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8 ~쪽

안내정보

1402 년 신사렴 관리임명장

1402 년(태종 2)신사렴(申士廉)을 부사정(副司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서경(署經)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주로 5 품 이하의 관료들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사헌부 (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임명대 상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서명을 하였다. 하급관리에 내정된 신사렴 또한 사헌부에서 서경을 거쳤다는 공문을 보내왔기에 병조에서 본 문서를 내려 임명을 한 것이다.



壽王報叔敖

人[illegible]於九原業已墜於後嗣世異[illegible]

負於生死王前壽而諷規嘉乃優之能是哀[illegible]日

煢獨報昔時之知己夙蓋名於伶人荷[illegible]之深[illegible]

膽彼此之融一託末路之知音何秦眷之不杵[illegible]

甯嗣之零丁慘一孩之遺子聲乃家之不繼嗟無

賴於自存困已極於窮阨幸此夕之相遇致先人之

末音驚握手而悲喜曾舊識之嬰兒追恩遇

於疇曩我有術於報德趂君門之獻壽假相公之

衣冠換倡優之賤貌宛赤舄之舊容因麦立之命

衣冠換倡優之賤貌宛赤舄之舊容因麦立之命

援婦言而善諷曰叔敖之為人位具瞻於黃閣一乃

心於王室對鴻基於伯業功莫大於生前祿宜[illegible]

身後慨後昆之零落任長貧於一生身朝夕之負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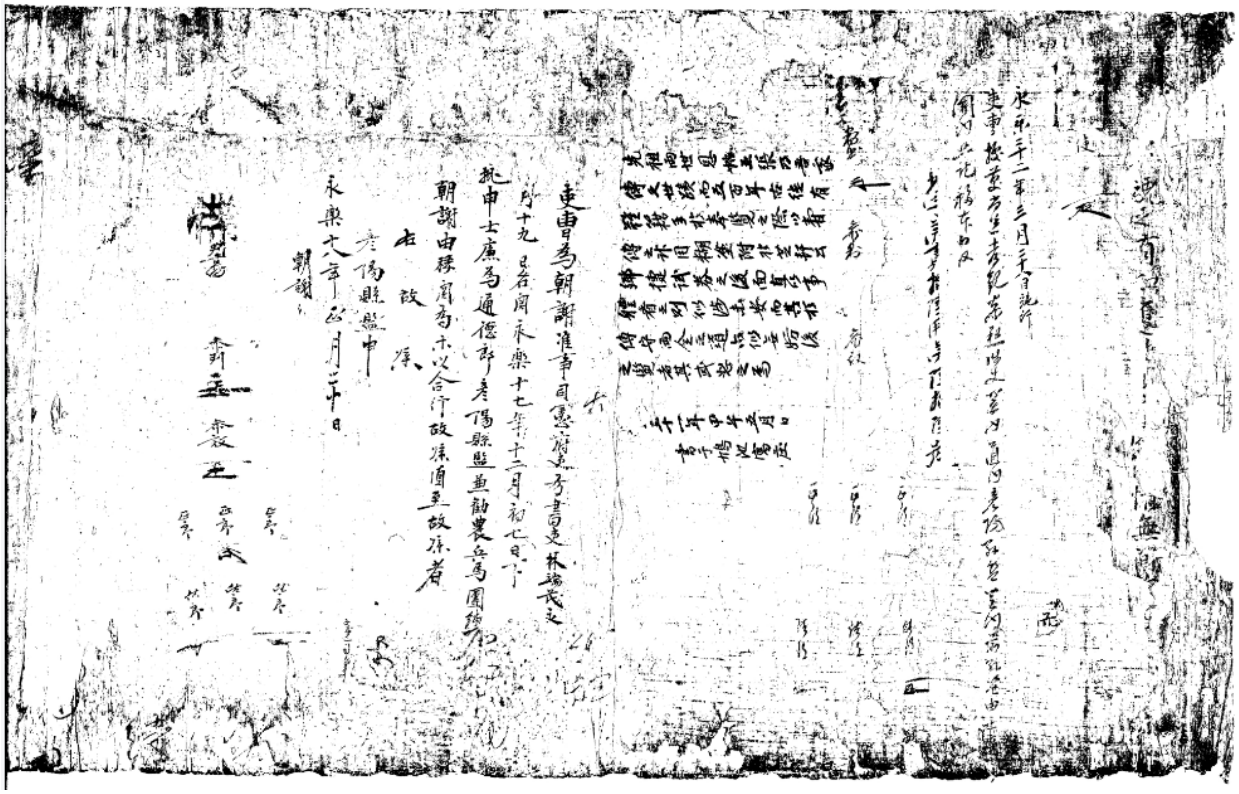
室四壁之徒立公卿子於庶人何一寒之若此倘有如

於斯人寧此命之自決言言出於剴切實規諷之微

意果宸心之改[illegible]仁[illegible]等之茅[illegible]

溢寵渥於遺徹渙[illegible]有[illegible]之[illegible]

噫優孟之壽王實善[illegible]異言事雖近於滑稽



1403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 **분류**	고문서-교령류-조사첩 / 정치·행정-임면-조사첩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수취: 신사렴(申士廉)
· **작성지역**	이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03 년 / 영락원년 2 월초 6 일
· **형태사항**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牒 1 개
· **서명(개)**	서압:5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8 ~쪽

안내정보

1403 년 신사렴 관리임명장

1403 년(태종 2)신사렴(申士廉)을 선무랑(宣務郞) 여미감무(餘美監務)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무랑은 종 6 품 문신의 품계이다. 4 품 이상의 고관은 왕명으로 직접 임명하나, 5 품 이하의 관료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서경(署經)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사헌부 (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이를 담당하였다. 본 문서에도 신사렴에 대한 서경을 거쳤다는 사헌부의 공문을 접수한 후에 이조에서 본 인사문서를 발급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상세정보

1403 년(태종 3)서경을 마친 신사렴을 해미감무에 제수하는 임명장.

1403 년에 해당하는 영낙원년(永樂元年)2 월 초 6 일 사헌부(司憲府)의 서경(署經)을 마친 申士廉 을 선무랑 여미감무겸권농병마단련판관(宣務郞餘美監務兼勸農兵馬團練判官)에 임명 하는 문서 이다. 선무랑은 종 6 품 하계 문신의 품계이다. 4 품 이상은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으로 직접 임명하나, 5 품 이하는 서경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왕지(王旨)가 아니라 조사첩(朝謝牒)의 형식을 띠고 있다. 신사렴을 여미감무에 제수한다는 왕명이 내려진 것은 정월 초 7 일의 일이었다. 이후 사헌부에서 서경을 마치고, 이방서리(吏房書吏)가 이에 관한 관문 (關文)을 이조(吏曹)로 보낸 것은 2 월 5 일이었다. 이조에서는 바로 다음 날 본 문서를 발급하여 신사렴에게 새 관직을 내린 것이다. 같은 해 7 월 22 일에 발급된 정전(鄭悛)의 조사첩(朝謝牒)도 남아 있어 좋은 비교가 된다. 당시 정전은 정 5 품인 통덕랑좌헌납(通德郞左獻納)에 임명 되었다. 형식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와 같이 서경을 거치는 인사문서는『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오품 이하고신(五品以下告身)으로 통일되어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바로 전 해인 1402 년에 신사렴은 승의부위중군부사정(承義副尉中軍副司正)에 임명되어 관련 인사문서가 함께 전한다. 이 문서는 하첩(下帖)의 형식을 띠고 있고, '비(批)'대신 '判'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승의부위는 정 8 품 무신의 품계이다. 당시에는 참하(參下)인 경우에는 고첩(故牒) 대신 하첩(下帖)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09 년심언충(沈彦冲)이 받은 조사첩(朝謝帖)과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다. 당시 심언충역시 참하인 종 8 품의 수의부위(修義副尉)에 제수되었다.

신사렴은 신광부(申光富)의 아들로, 거제의 속현이었던 아주현(鵝州縣)의 권지호장신영미 (權知戶長 申英美)의 후손이다. 증조부 신윤유(申允濡)가 고려(高麗)의 몰락을 비통해하여 상주(尙州) 망경산 아래에 우거(寓居)함에 따라, 의성에 세거(世居)하게 되었다. 신광부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를 내부 령공파(內府令公派) 혹은 邑派라고

부른다. 망경산아래 단밀에 살다가 신사렴의 아들 신석명(申錫命) 대에 의성읍으로 이거(移居)하였기 때문이다. 읍파가 번창하게 된 계기는 신석명의 증손인 신원록 (申元祿)(1516~76)의 학문과 학연에 있었다. 신원록은 주세붕을 사사하였고, 퇴계와 남명과 종유하였다. 신원록의 둘째 아들 신흘(申屹) 은 적도, 달도, 열도(適道, 達道, 悅道)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여헌(旅軒)의 문인으 로 학문과 행적이 뛰어났던 선비들이었다. 호계(虎溪)는 신적도의 호이다. 호계가문은 신적도후손가를 칭하는 말이다.

호계가문의 가전문서(家傳文書)인 본 자료는 17 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우석(申禹錫) (1638~95)의 시권(試券) 배면에 배접된 문서이다. 본 자료 외에도 비슷한 시기의 자료 3 점이 함께 배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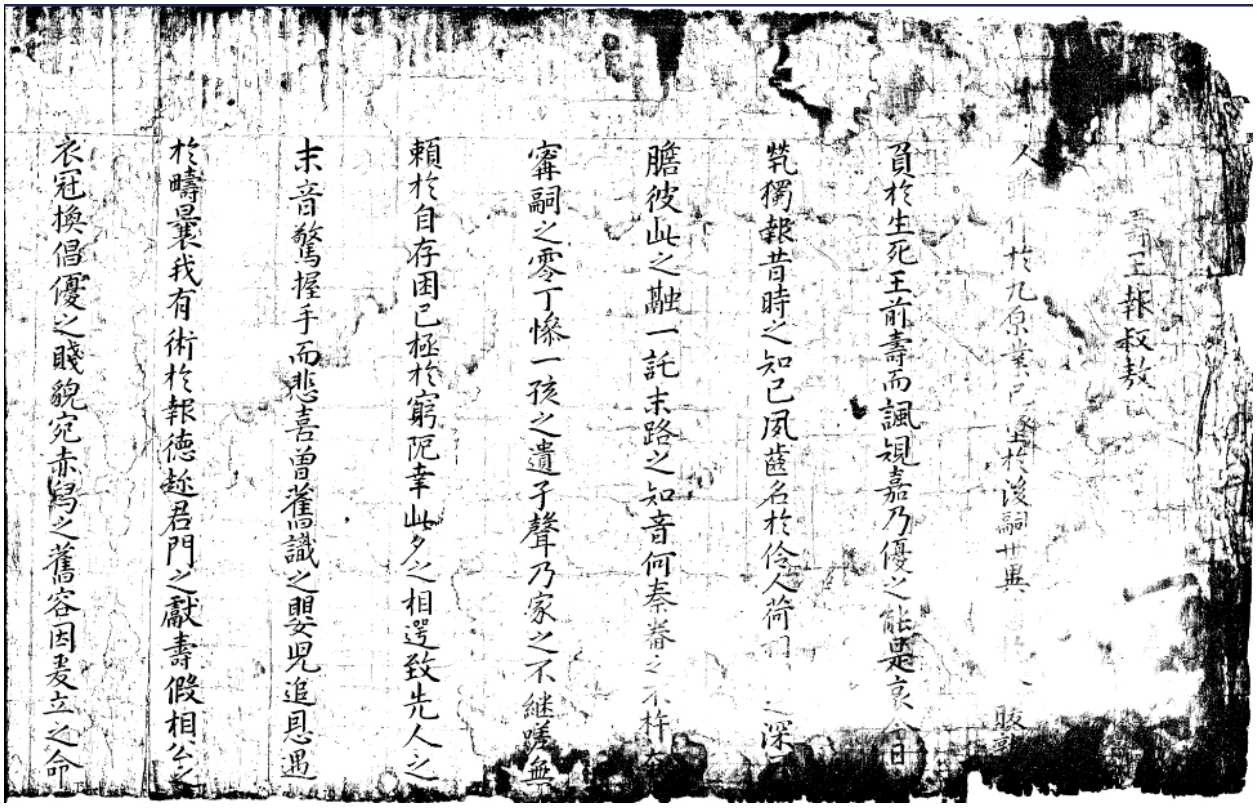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 의성아주신씨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박준호, 『고문서연구』31, 한국고문서학회, 2007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曺爲朝謝准事司憲府吏房書吏李符永樂元年二▣
五日名關永樂元年正月初七日下
批申士廉爲宣務郎餘美監務兼勸農兵馬團練判官
朝謝由移關爲等以合行故牒須至故牒者
右故牒
餘美監務申
永樂元年二月初六日
朝謝准事

吏房▣...▣

[印: 牒]
議郎[署押] 正郎佐郎[署押]
判事典書[署押] 知事
議郎正郎[署押] 佐郎[署押]



壽王報叔敖

人[illegible]於九原業已墜於後嗣世異[illegible]

負於生死王前壽而諷規嘉乃優之能是哀今日

煢獨報昔時之知己夙蓋名於伶人荷[illegible]之深[illegible]

膽彼此之融一託末路之知音何秦眷之不杵[illegible]

甯嗣之零丁慘一孩之遺子聲乃家之不繼嗟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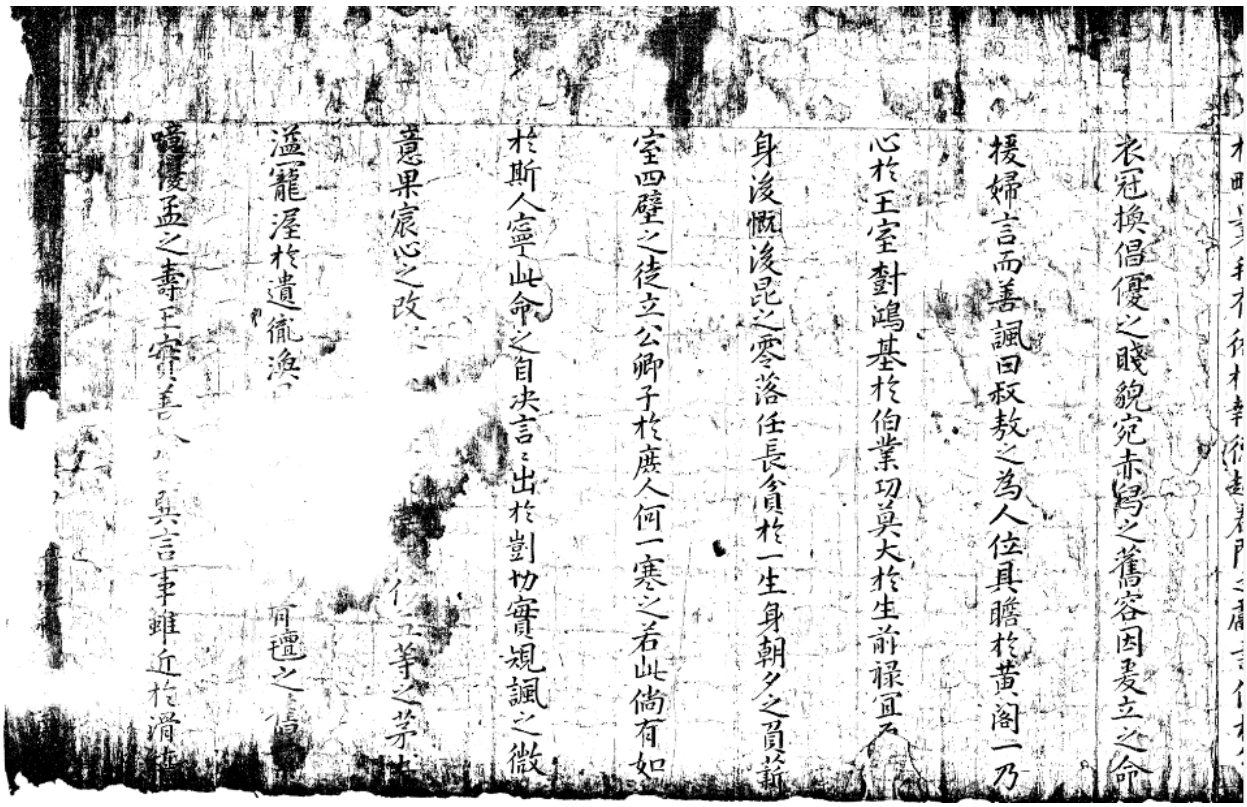
賴於自存困已極於窮阨幸此夕之相遇致先人之

末音驚握手而悲喜曾舊識之嬰兒追恩遇

於疇曩我有術於報德趂君門之獻壽假相公之

衣冠換倡優之賤貌宛赤舄之舊容因爰立之命

衣冠換倡優之賤貌宛赤舄之舊容因爰立之命



援婦言而善諷曰叔敖之為人位具瞻於黃閣一乃

心於王室對鴻基於伯業功莫大於生前祿宜[illegible]

身後慨後昆之零落任長貧於一生身朝夕之負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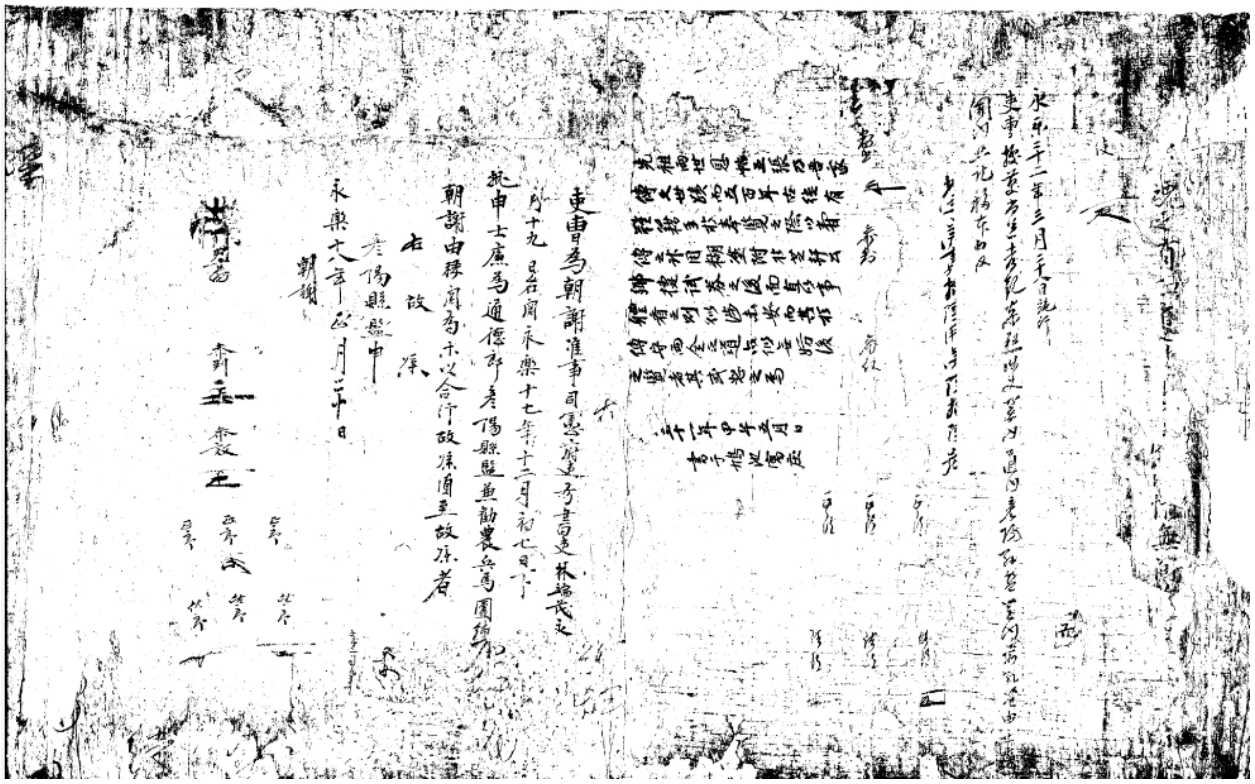
室四壁之徒立公卿子於庶人何一寒之若此倘有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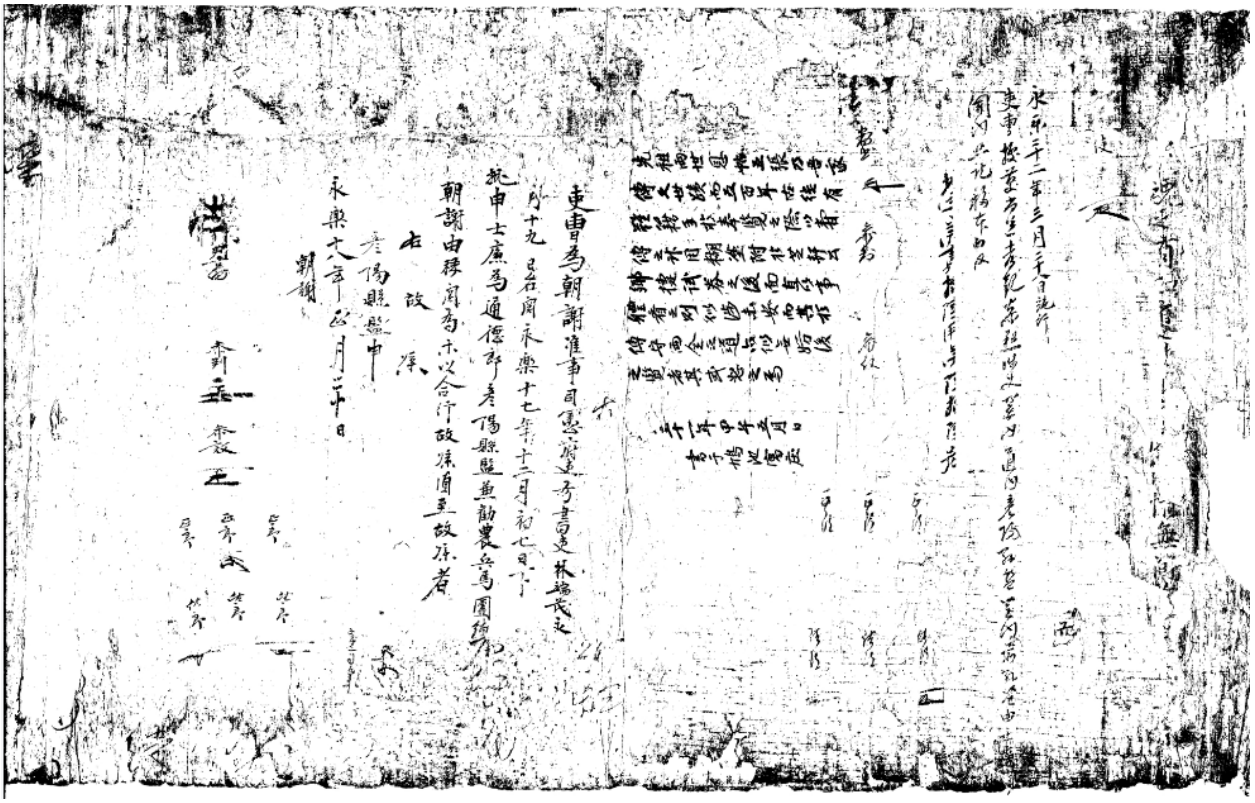
於斯人寧此命之自決言言出於剴切實規諷之微

意果宸心之改[illegible]仁五等之茅[illegible]

溢寵渥於遺胤渙[illegible]何氊之[illegible]

噫優孟之壽王實善[illegible]異言事雖近於滑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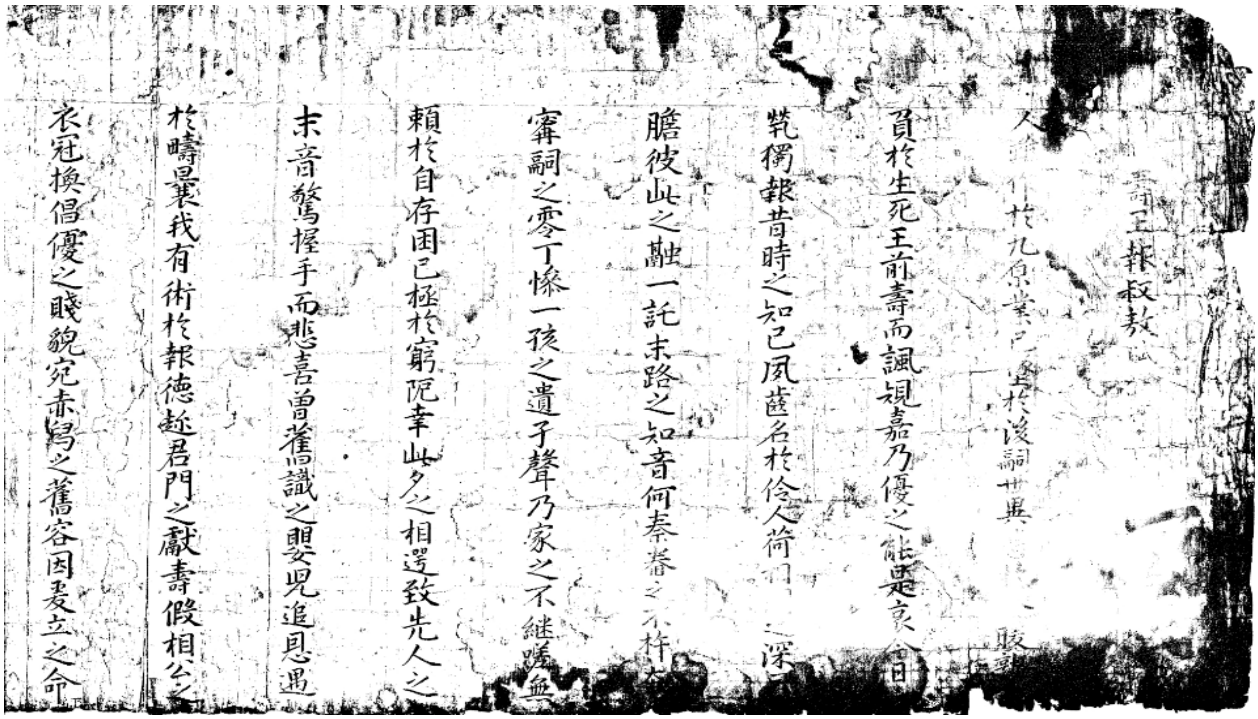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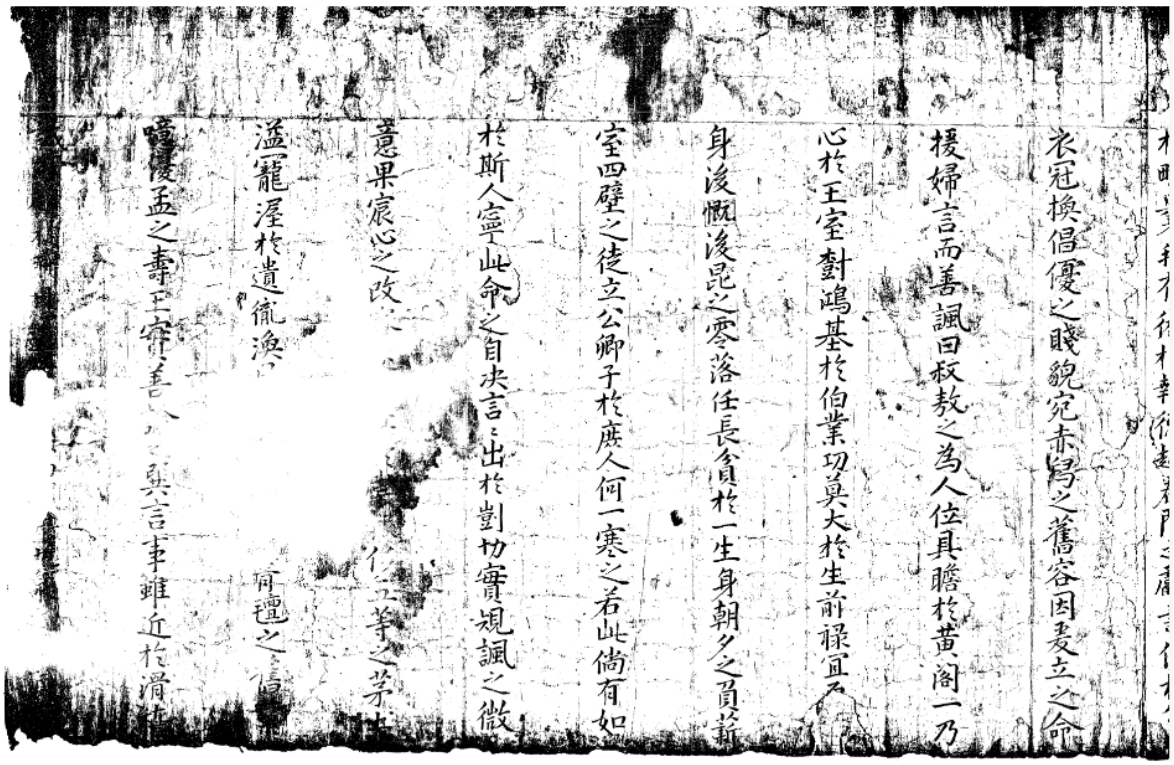
1420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 분류	고문서-교령류-조사첩 / 정치·행정-임면-조사첩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수취: 신사렴(申士廉)
· 작성지역	이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20 년 / 영락 18 년 1 월 20 일
· 형태사항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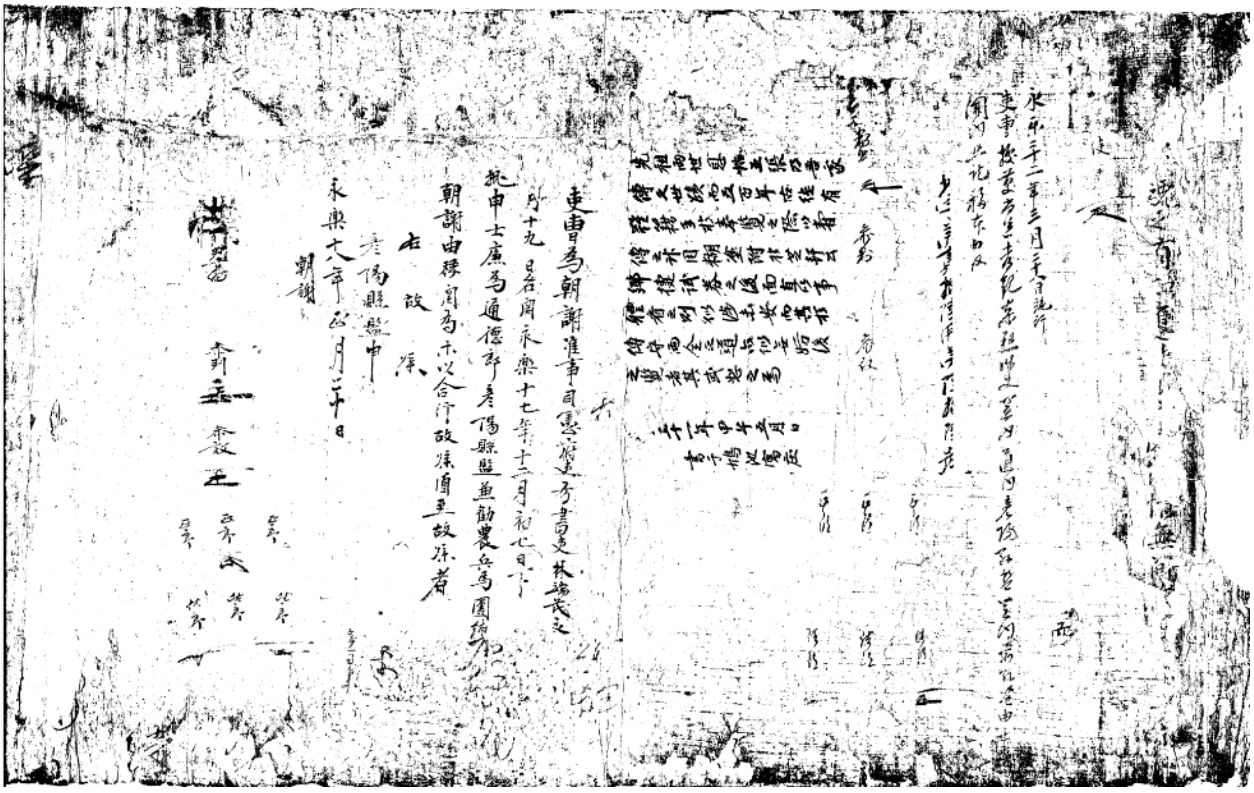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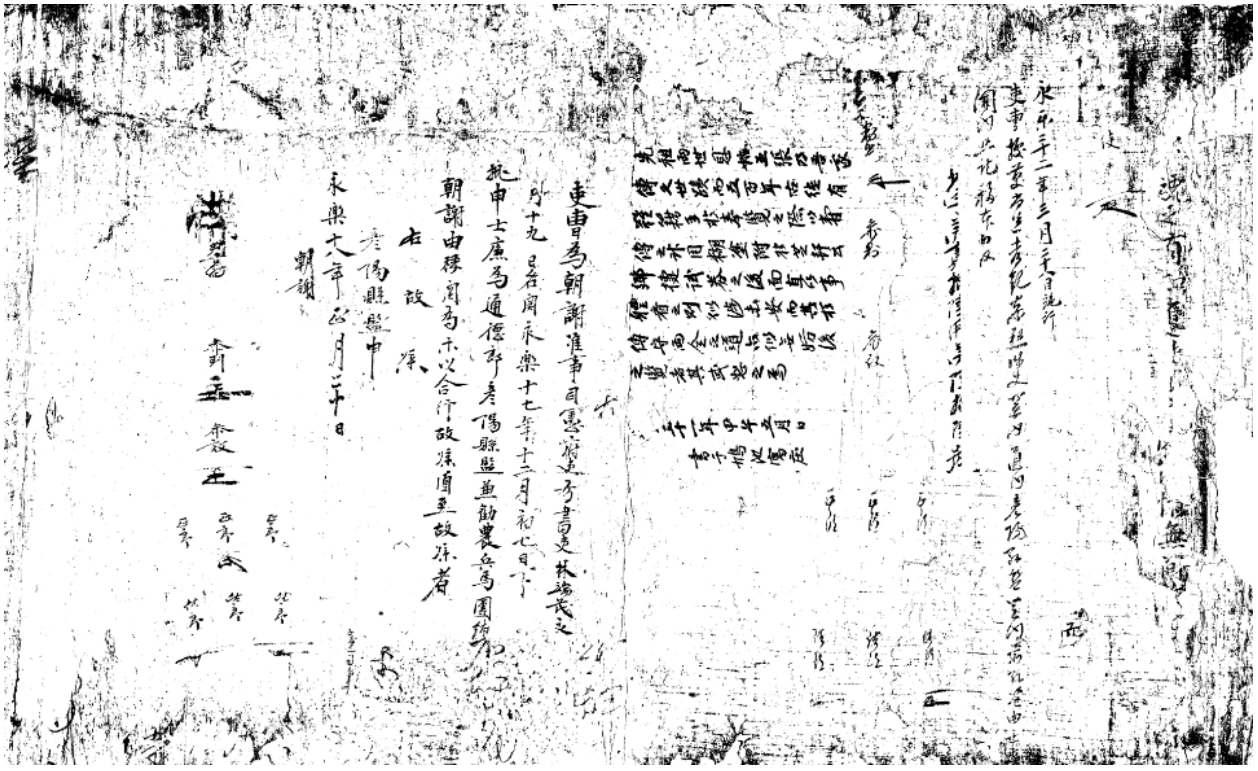


衣冠換倡優之賤貌宛赤舄之舊容因爰立之命
援婦言而善諷曰叔敖之為人位具瞻於黃閣一乃
心於王室對鴻基於伯業功莫大於生前祿宜及
身後慨後昆之零落任長貧於一生身朝夕之負薪
室四壁之徒立公卿子於庶人何一寒之若此倘有如
於斯人寧此命之自決言言出於剴切實規諷之微
意果宸心之改[illegible]仁立等之茅[illegible]
溢寵渥於遺胤渙[illegible]荷氊之[illegible]
噫優孟之壽王實善[illegible]異言事雖近於滑稽



永樂二十二年三月二十日[illegible]
吏事[illegible]
[illegible]

吏曹為朝謝准事司憲府吏方書吏林端茂之
月十九日名聞永樂十七年十二月初七日下
批申士廉為通德郎秦陽縣監兼勸農兵馬團練
朝謝由稼周為不以合行故牒須至故牒者
右故牒
秦陽縣監申
永樂十八年正月二十日
朝謝



소차계장류 (7)

소지(所志) (7)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이노명위산송사소지(以奴名爲山訟事所志),
상인여제류산송소지(常人與儕類山訟所志), 채송소지(債訟所志), 사부가단묘직탈역소지(士夫家單墓直頉役所志),
탈면환호소지(頉免還戶所志), 목부사도리배수유소지(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 이방성명소지(吏房姓名所志),
절각소지(折脚所志), 위친환용전우고소지(爲親患用全牛膏所志), 원역연로자대소지(員役年老子代所志),
가권봉적후입지소지(家券逢賊後立旨所志), 전답문권실화후입지소지(田畓文券失火後立旨所志),
권매전답불환퇴소지(權賣田畓不還退所志), 구타소지(歐打所志) 등 소지의 구체적인 서식이 실려 있다.

민원에 관한 일은 고대 사회부터 있어왔으나 '소지'라는 용어와 문서 형식은 현재 전해지는 자료 중 고려시대의 지정 14 년 노비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 보물 제 483 호)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형식이 거의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속 쓰였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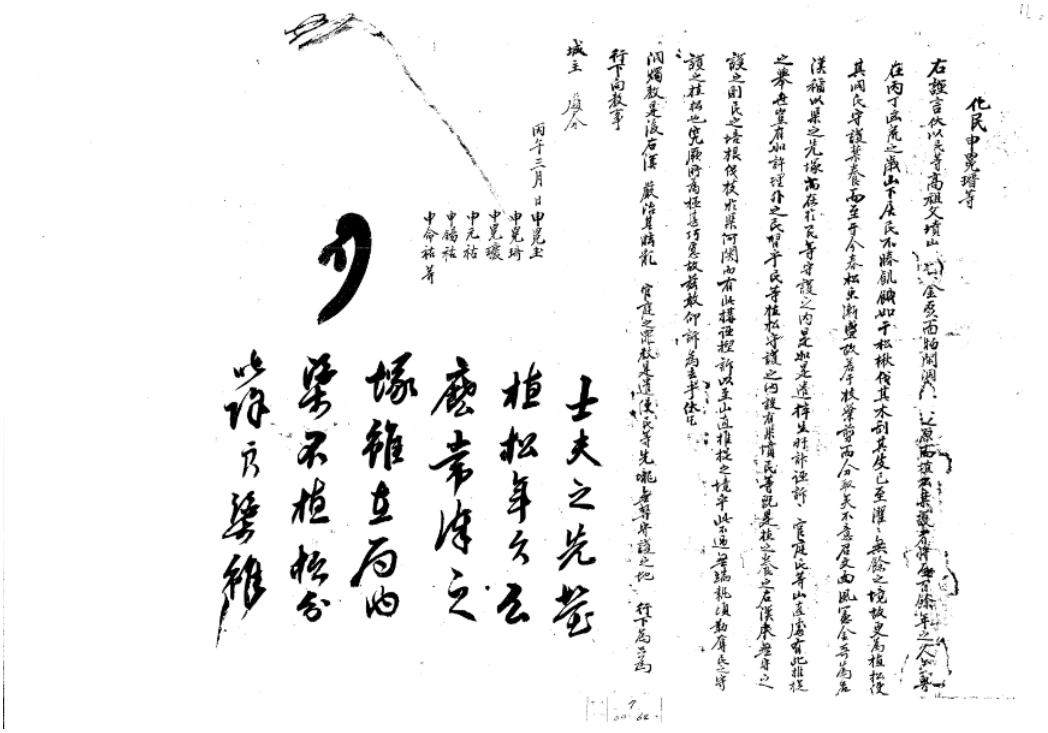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소지에는 연호를 써서 소지를 올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의 소지에는 간지(干支)로 표시되어 있어서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어떤 가문의 일괄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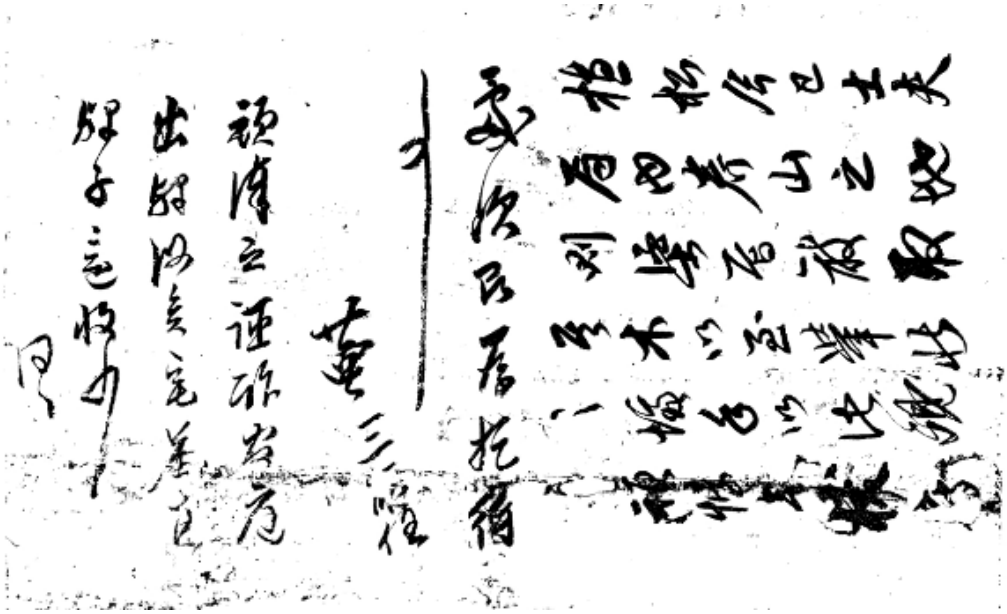
1846년 신면진(申冕璡)등 소지(所志)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면진(申冕璡)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시기	1846 년
· 형태사항	크기: 60x6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4 ~5 쪽





아주신씨 내부령공파 고문서 중의 소지류는 모두 7 점으로 대부분 19 세기의 것이다. 주로 투장(偸葬)과 금송(禁松)에 관한 것으로 단독으로 또는 연명하여 올린 것이다.

이들 소지 중에서 제위답(祭位畓)의 납징(納徵)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있는데、계묘년(1903) 10 월에 신상하(申相夏)·찬호(纘祜)·돈식(敦植) 등이 전래되어 온 제위답 6 두락지에 대한 정세의 억울함을 경주군수겸 봉세관(慶州郡守兼捧稅官)에게 호소한 소지이다. 이 제위답은 본래 서원답 (書院畓)이었는데、포청(砲廳)에 빼앗겨 읍의 포답(砲畓)이 되었다가 포군(砲軍)이 혁파된 뒤에 빈 무용지(無用地)로 남은 것을 군부(軍府)와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방매하는 공문을 보고서 매득하였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어사(御史) 조모(曺某)가 와서 이 답이 헐값에 방매되었다 하여 그 차액을 매 두(斗)에 10 여량씩 내어 공납하도록 하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감영(大邱監營)의 오리(吳吏)와 순교(巡校)가 와서 매 두락에 4, 50 량씩을 독촉하였고、또 몇 개월 지나서는 갑자기 내장원(內藏院)에 속공(屬公)되어 돈을 내라하니、이를 봉세관이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소지이다. 이에 대해 봉세관은 도조(賭租)의 가감은 색사(穡事)의 풍·불풍(豊 ·不豊)에 있으니、영구히 정하는 것은 논의할 바가 아니다 하고、 그 판결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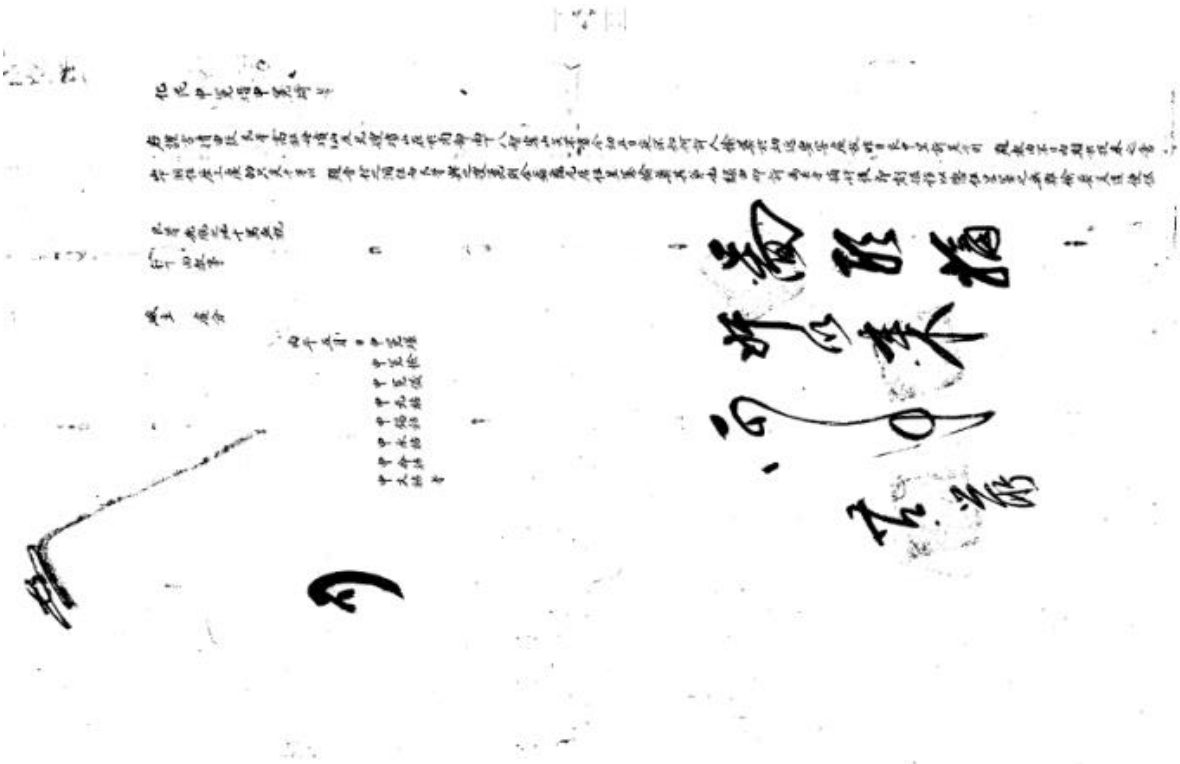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의 성주(城主) 패지(牌旨)에서는 성주가 상고해보니 당초 답안(畓案)의 권순석이란 자의 선제원 3두락지 답이 잘못되었으니 도조를 마땅히 감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1846년 신면진(申冕瑨)·신면기(申冕琦)등 소지(所志)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면진(申冕瑨) , 신면기(申冕琦)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남부면 하팔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 **작성시기**	1846 년
· **형태사항**	크기: 105x6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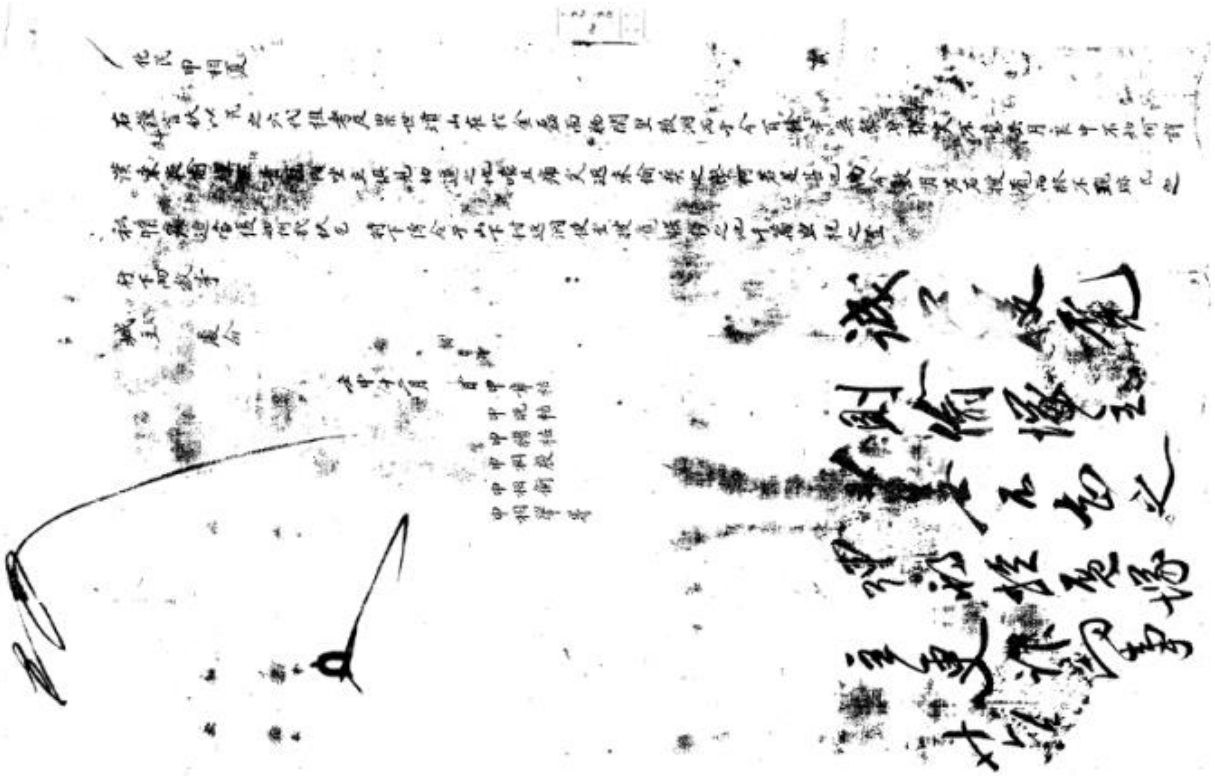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6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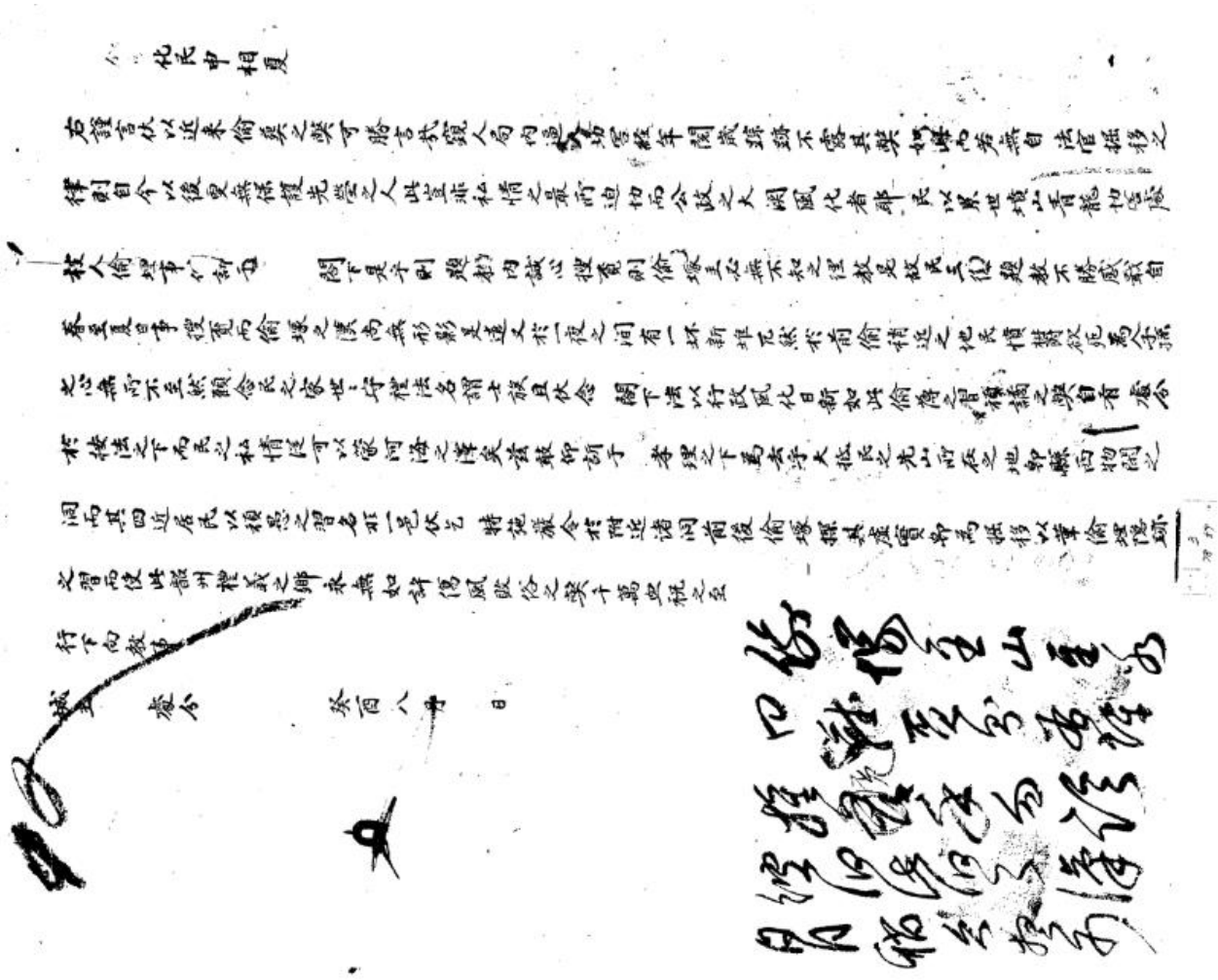
1872년 신상하(申相夏) 등 소지(所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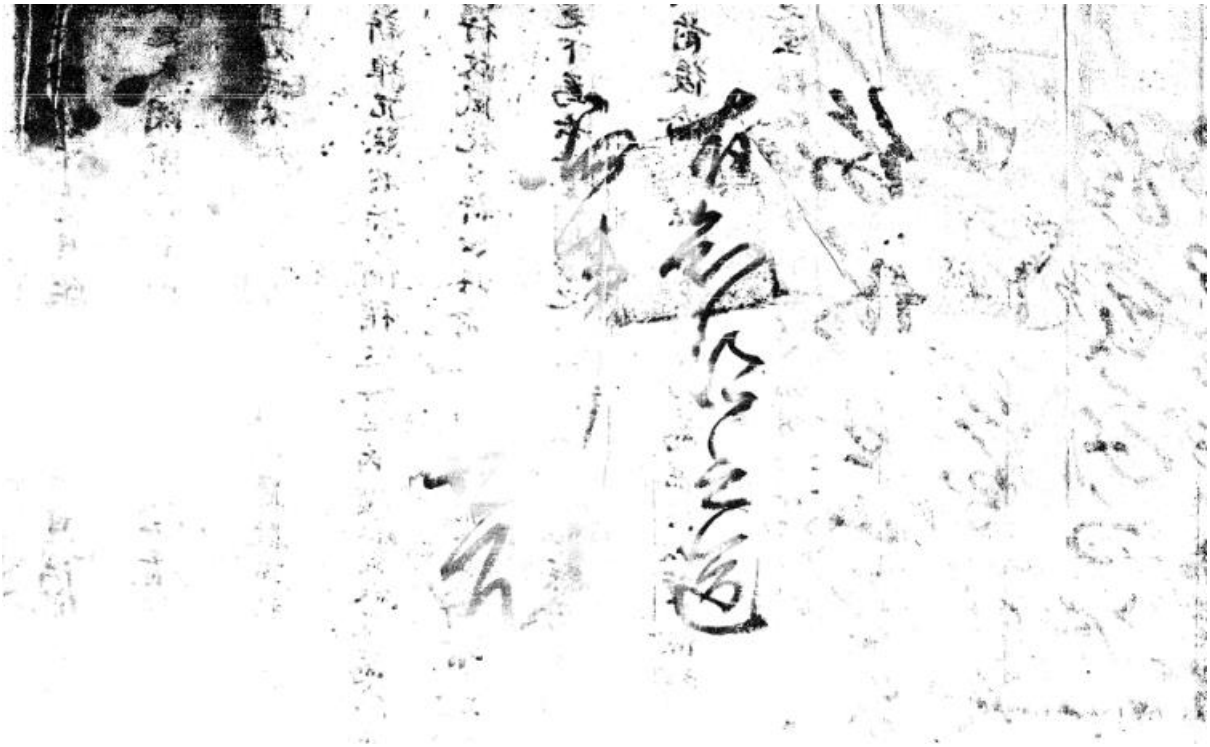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금뇌면 물한리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 작성시기	1872 년
· 형태사항	크기: 84x5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873년 신상하(申相夏) 소지(所志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금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 작성시기	1873 년
· 형태사항	크기: 78x5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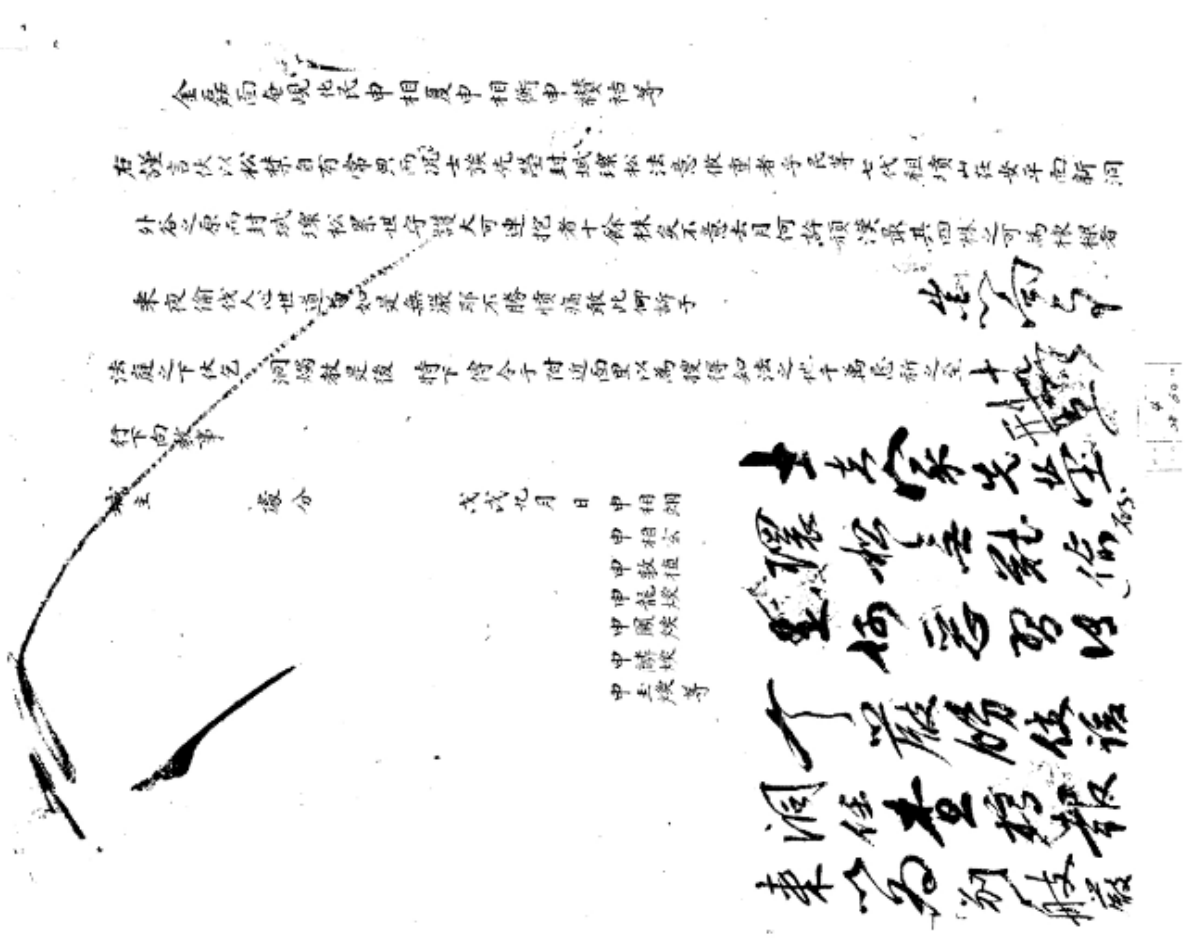


1898년 신상하(申相夏)·신상형(申相衡)·신찬우(申纘祐) 등 소지(所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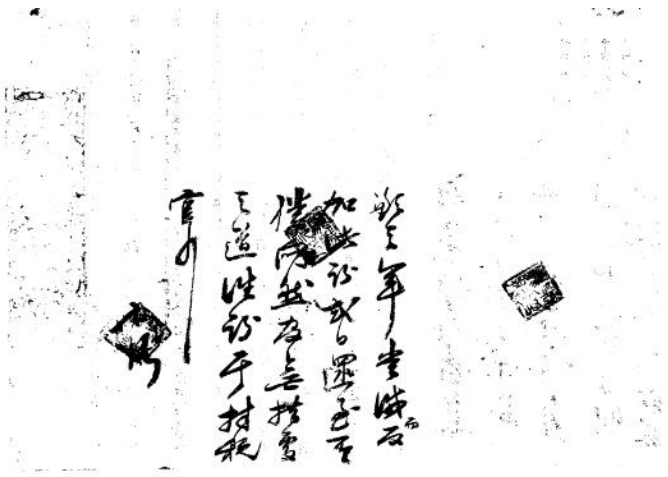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신상형(申相衡) , 신찬우(申纘祐)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금뇌면 엄현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 **작성시기**	1898 년
· **형태사항**	크기: 68x6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10 ~쪽



1903년 신상하(申相夏)·신상헌(申相憲)·신찬우(申纘祐) 등 소지(所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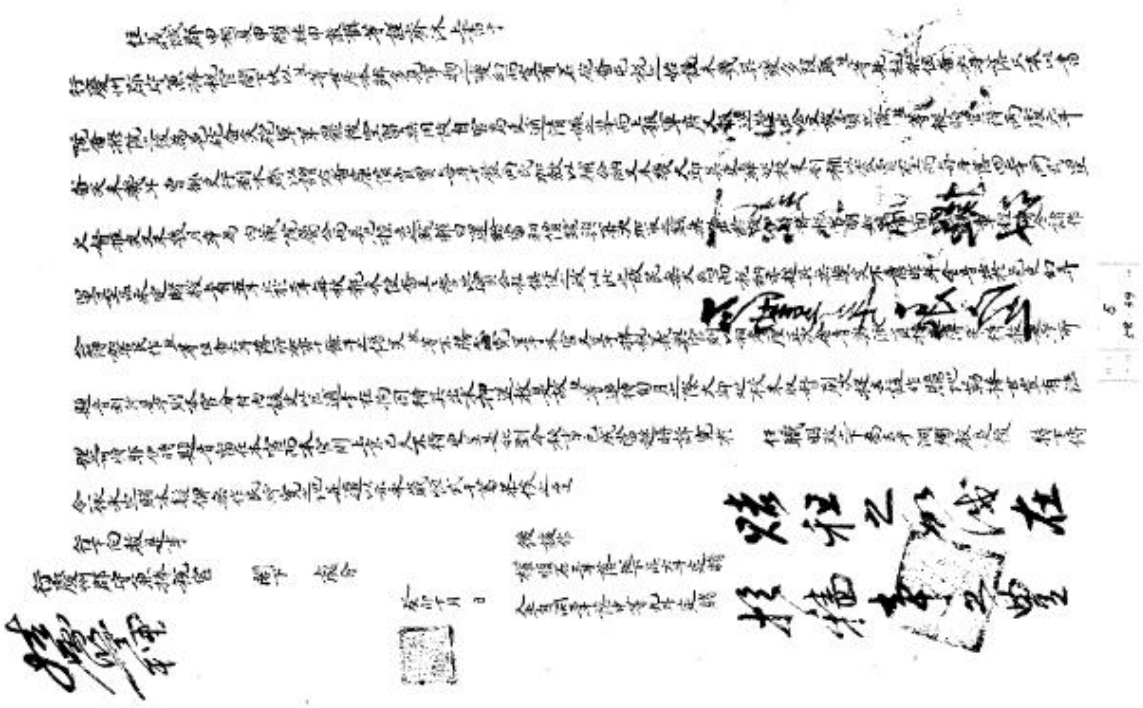
1903년 신상하(申相夏)·신찬우(申纘祐)·신돈식(申敦植) 등 상서(上書)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신찬우(申纘祐) , 신돈식(申敦植) / 수취: 봉세관(捧稅官)
· 작성지역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903 년
· 형태사항	크기: 58x3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11 ~1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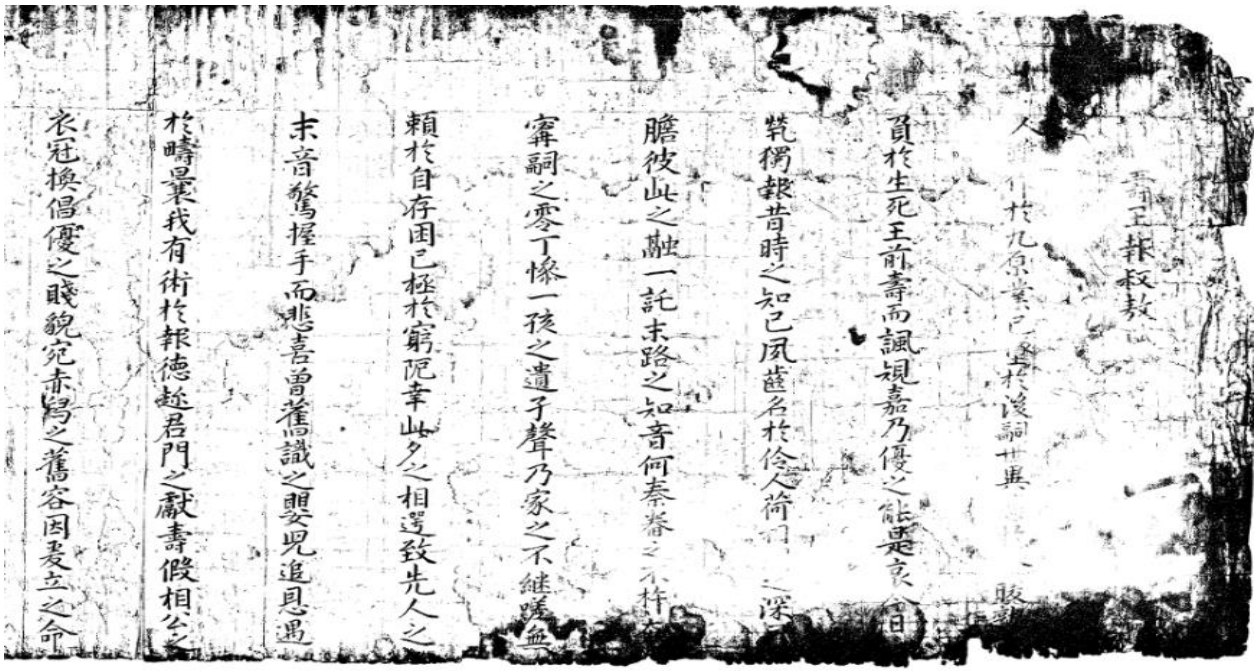
첩관통보류 (1)

관(關) (1)

1424년 이조(吏曹) 관(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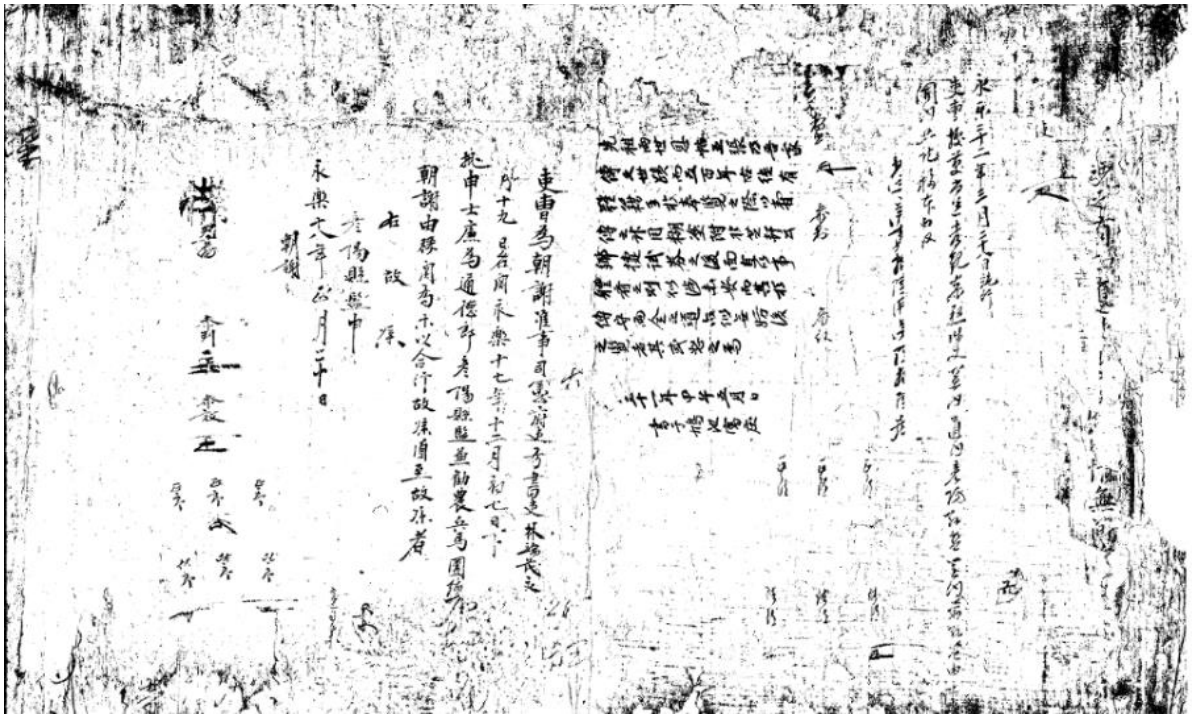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정치·행정-명령-관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수취: 신사렴(申士廉)
· 작성지역	이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24 년 / 영락 24 년 3 월 28 일
· 형태사항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17세기 중엽 신우석(申禹錫) 시권(試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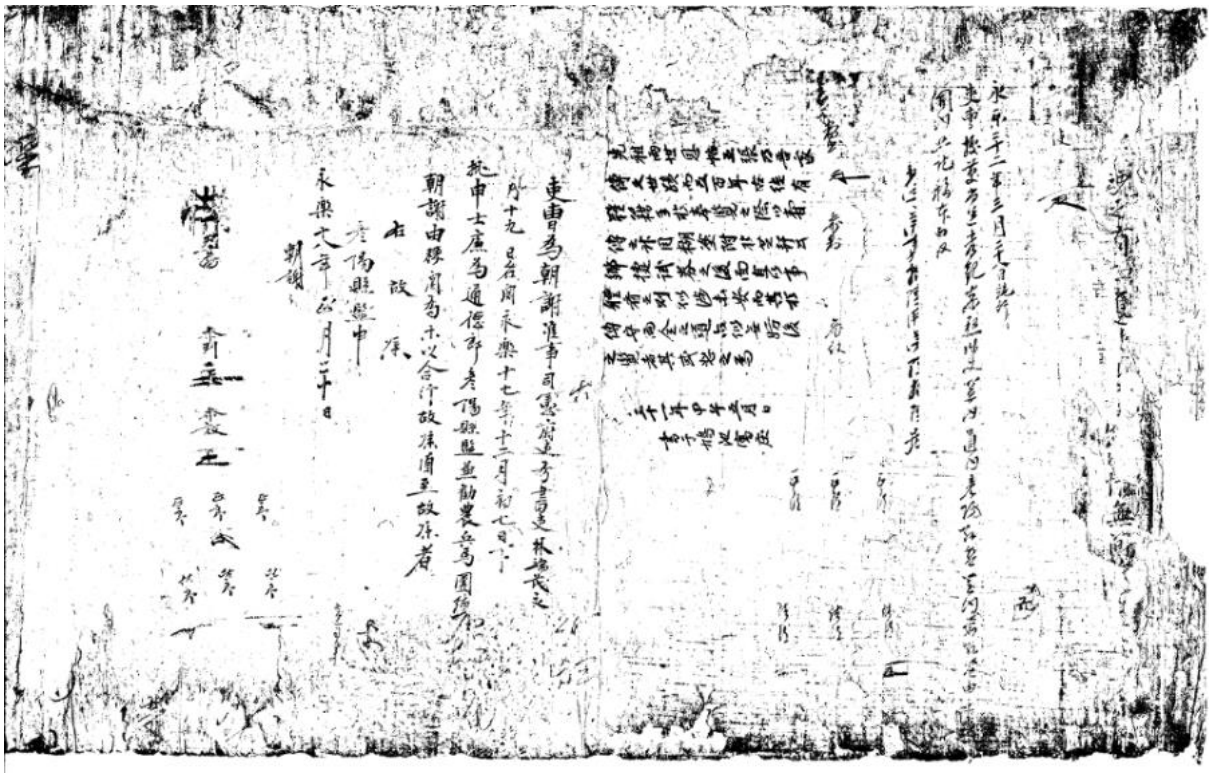


17세기 중엽 신우석(申禹錫) 시권(試券)

1424년 이조(吏曹) 관(關)



1420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시권(試券)

과거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

시지(試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한다. 시권의 종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제술(製述) 시권, 강서(講書) 시권, 사자(寫字)·역어(譯語) 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제술은 문장 구사능력과 대체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을 시험하였다. 따라서 제술 시권은 시험 과목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응시자 자신이 스스로 창안해서 작성하는 논술시험 답안지이다.

글을 시권에 쓴다는 의미에서는 잡과(雜科)의 사자(寫字) 시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사자가 단순히 출제부분의 내용을 베껴쓰는 데 비하여 제술은 응시한 당사자가 새로운 글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제술 시권에 기재되는 내용은 크게 응시자 본인이 기록한 것과 시관(試官) 내지 사관(四館)에서 기록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응시자가 녹명(錄名)하기 전에 시권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① 시험 답안, ② 응시자 본인의 직역(職役)·성명·나이·본관·거주지, ③ 부·조·증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성명·본관(생부가 있으면 외조 옆에 기록)이 있다.

시관이나 사관(四館)에서 기록·확인하는 사항은 ④ 자호(字號), ⑤ 과차(科次)와 점수, ⑥ 등수, ⑦ 근봉(謹封) 여부, ⑧ 착인(着印 : 科擧之寶)이다. 이 가운데 자호는 천자문(千字文) 순으로 연번호(連番號)를 매기되, 천자문 위에 일(一)·이(二)·삼(三)·사(四)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 관리하는 데 편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십황(十皇)'이라 했을 때는 '황(皇)'자 축(軸)의 열번째 시권이란 표시가 된다.

자호의 기재방법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개의 경우 봉미(封彌)한 시권을 뜯기 전에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오른쪽 중간에 큰 글씨로 자호를 매기고 아울러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같은 자호를 매겼다. 그런 다음 오른쪽 중간의 자호부분을 오려내어 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했다가 당락이 결정되면 그 합격 시권의 봉미부분을 붙였다.

시험 점수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대개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등급은 9 등 내지 12 등급이 있으며, 일지상(一之上)·중(中)·하(下), 이지상(二之上)·중·하, 삼지상(三之上)·중·하,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 갱(更)·불(不) 등으로 표시하였다. 과차(科次)는 과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을 일지일(一之一)·이(二)·삼(三), 이지일(二之一)·이·삼, 삼지일(三之一)·이·삼 등으로 기재하였다.

근봉(謹封)은 본인이 직접 써 넣었으나 그 글씨를 보고 부정이 생겨 근봉이란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시권에 찍은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였다. 이 외에도 틀린 부분을 고쳐 적은 부분과 시권의 연결부분에도 이 도장을 찍었다.

과거응시자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야 했으며, 그 양식은 시(詩)·부(賦)·송(頌)·책(策)·경의(經義)·서의(書義) 등 제술과목에 따라 달랐다. 우선 공통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시제(試題)를 들 수 있다. 시·부 등 비교적 짧은 것의 시제는 그대로 베껴 썼지만, 시제가 긴 대책·경의 등의 경우에는 '문운운(問云云)' 등으로 문제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시제의 상하에 시·부·대책 등의 시험명을 써 넣었다. 시·부는 아래쪽, 대책과 경의는 대(對)·서의(書義)·예의(禮義)·역의(易義)·시의(詩義)라고 명기하여 위쪽에 기록하였다. 또한 경의나 대책 답안에는 첫부분과 끝 그리고 서술 중에 우(于)·근대(謹對)·신복유(臣伏惟)·신복독(臣伏讀)·공유(恭惟) 등의 글을 써야 했다 그리고 시·부에서는 운자(韻字)를 반드시 맞춰야 했다.

이와 같은 격식에 어긋나거나 운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웠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 밖에도 제술 답안에는 각 과목마다 답안의 분량을 정해, 경의·대책 등은 글자의 수, 시·부는 구수(句數)로써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작성해야만 입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격식에 맞지 않아 합격자가 시취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문장이 극단적인 형식 위주로 변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유교가 아닌 이단(異端)의 글을 쓰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밖에도 답안에 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나 피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불양화(祈佛禳禍) 등 이단의 풍속과 글, ② 노자·장자·순자의 글, ③ 왕의 이름(御諱), ④ 색목(色目) 발언, ⑤ 패유(悖謬)한 글, ⑥ 초서(草書) 사용, 낙서·오서(誤書)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종류와 과목이 다양했듯이 시권도 시험 과목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술시험의 시권 이외에 문·무과와 역과의 강서 시권과 사자 시권이 바로 이것들이다.

강서는 사서삼경 등 경전의 임문(臨文 : 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는 일) 또는 배강(背講)·배송(背誦)을 통해 시취(試取)하는 방법이므로 답안 작성을 위해 시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절차상 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내용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시권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작성된 시권이 바로 강서 시권이다. 즉 강서 시권이란 창작한 글을 쓴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출제 과목(주로 사서삼경)과 그 점수를 기록한 일종의 구두(口頭)시험의 채점표인 셈이다. 따라서 시권의 양식도 제술 시험과는 다르다. 강서 시권은 안동의 의성김씨 김성일(金誠一) 가문, 해남의 해남윤씨 윤선도(尹善道) 가문 등에 전하고 있다.

해남윤씨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의 시권의 경우 시험과목으로는 ≪주역 周易≫≪시전 詩傳≫·≪서전 書傳≫·≪논어 論語≫·≪맹자 孟子≫·≪중용 中庸≫·≪대학 大學≫ 등 삼경사서가 치러졌다. 그리고 과목 아래로 그 과목의 시험문제, 점수(純通·通·略·粗), 시관의 서명(署名)이 있다. 시험문제 오른쪽에는 채점된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十一分半), 그리고 천자문의 자호가 있다.

잡과의 사자(寫字) 시권도 시험명을 명시한 점, 문제와 답안을 함께 기록한 점, 사조(四祖)를 모두 기록한 점 등은 제술 시권과 같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사자할 부분을 자(自)~지(止)로 표시해 주었고, 답안 내용이 제술 답안처럼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한 책의 일부를 베꼈다는 점에서 제술 시권과 다르다.

시권의 구입은 중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시권은 크기와 품질이 일정한 규격에 맞아야 했다. 또한 격식에 맞추어 봉미(封彌)한 뒤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제출된 시권은 검사관(檢査官: 주로 搜挾官)들이 일일이 규격에 맞는지를 조사한 뒤 답인(踏印)하여 응시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응시자가 시권을 구입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시권의 품질이 다를 수 있었다. 경제력이 풍부한 양반가의 자제들은 두껍고 질이 좋은 시권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빈한한 선비들은 시권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니는 형편이었다.

≪경국대전≫이나 기타 법전에는 시권의 품질을 따로 규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하품(下品)의 도련지(濤鍊紙)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주 사치스러운 시권은 시관이 불살라 버리거나 당사자를 적발해 치죄하는 등 빈부에 따라 시권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되도록 억제하였다.

봉미법은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하여 통용해서 쓰고 있으나, 봉미와 역서는 응시자의 신분과 성명 등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호명은 말 그대로 호명지(糊名紙)를 풀로 붙여 이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과거 실시 초기에 행해졌다. 호명법은 전대에 비해서는 큰 발전이었지만 이 방법도 호명지를 들추어 이름을 엿보는 등 부정의 소지가 짙었다.

이를 개선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봉미법이었다. 봉미란 응시자의 사조·나이·성명·거주지 등 신원이 기재된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아올려, 말아올린 부분의 상단·중단·하단 세 곳에 구멍을 내고 끈으로 묶은 다음 '근봉(謹封)'이라는 글을 써 넣거나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의 봉미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방법에서 더 발전하여 봉미한 부분과 답안부분에 '감합(勘合)'을 쓰고, 그 중간을 칼로 오려내어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사사로운 행위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방법이었으나 그 일이 번거롭고 잘라낸 부분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는 등 폐단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인원수가 적은 회시·전시 등의 시험에서만 시행되었다. 응시자가 많은 지방의 향시에서는 신분기재란을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작게 만들어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으로 말아올려, 이것을 다시 끈으로 묶는 방법을 흔히 썼다.

역서법은 응시자가 작성한 문장의 필체를 시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서리를 시켜 시험내용을 다른 지면에 옮겨쓰게 한 뒤, 이를 보고 채점하도록 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봉미법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과거제 자체도 그렇지만 봉미·역서법도 중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였다.

과거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원(貢院) 내지는 녹명소(錄名所)에 제출하고, 여기서 미제출된 것이 없고 제출된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공원에 제출된 서류는 행권(行券)·가장(家狀), 그리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권이었다. 고려시대의 녹명은 예부(禮部) 공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을 제외한 대·소과에서는 대개 녹명소를 설치하고 녹명관(錄名官)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녹명은 시험 전이나 당일에 경시(京試)는 사관(四館) 관원이, 향시(鄕試)는 감사가 인원을 차정(差定)하여 담당케 했다. 복시(覆試)에서는 예비시험인 조흘강(照訖講: 學禮講, 典禮講)에 합격한 첩문(帖文)이 있어야 녹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나가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직역·성명·나이·본관·거주지와 부·조·증조·외조의 직역·성명·본관 등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였다.

서얼의 경우에는 내외 및 처변 원근족친으로서 문·무과 출신인이 착명(着名)한 보단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하게 한 것은 응시자의 사조 가운데 서얼(庶孼)이나 공·사천(公私賤)이 있는지의 여부, 정거(停擧) 또는 죄적(罪籍)에 올랐는지의 여부, 본도(本道) 거주 여부, 조정 관원이 향시에 응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본도 출신 여부를 심사하는 이유는 응시자가 원거주지가 아닌 곳, 즉 자기 소유의 노비나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관의 진성(陳省 : 지방 관서에서 중앙 관서로 보내는 각종 보고서)을 받아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오면 응시자가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서얼 허통 후에는 허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녹명 시에 확인하는 내용과 절차도 변하게 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 시권은 합격 시권과 낙방 시권 [落幅] 으로 분류된다. 합격 시권은 뒤에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와 함께 영광의 상징으로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한 시권, 즉 낙방 시권은 일괄적으로 호조에 옮겨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한 예로 ≪중종실록≫에는 함경도절도사가 빈한한 군사들에게 낙폭(落幅) 시권으로 옷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사도 있다.

증빙류 (47)

준호구(準戶口) (34)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등급하는 문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통일기의 소위 '민정문서(民政文書)' 또는 '장적(帳籍)'은 호적대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호적제도가 확립되었고, 그 원칙은 3년에 한차례 호적을 개수(改修)하는 것이었으며, 그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속되었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호적대장(戶籍大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戶主)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준호구는 소송시나 성적시(成籍時)의 첨부 자료로 서, 또는 노비 소유[추쇄]의 자료로서, 또는 신분의 증명 및 가문 과시의 자료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준호구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 년마다,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하 였다. 매 식년 초 호적 업무를 총괄하는 한성부에서 호적 작성에 관한 관문(關文)과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도를 거쳐 각 읍에 전달하였다. 그러면 각 읍에서는 임시 기구인 호적소(戶籍所)를 설치하여 해당 직임을 선출하고, 면리에 전령을 보내 민간에 호적 작성을 알렸다. 민간에서는 이에 따라 호별로 호구단자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 호구단자는 일반적으로 2 통을 제출하였는데, 관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1 통은 돌려보내고, 1 통은 해당 식년 호적 작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식년의 전년(前年) 후반기에 호구단자가 수합되면 호적소에서는 앞 식년의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戶籍中草) 와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각 면리별로 선출된 풍헌(風憲)과 이정(里正)이 맡았고, 검토한 단자를 다시 돌려줄 때 이들도 수령과 함께 수결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통호(統戶)를 정하여 돌려주는 단자를 정단(正單), 앞서 주호(主戶)가 제출한 단자를 초단 (草單)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오늘날 준호구로 알려진 것의 상당수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지급된 정단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이 준호구는 가족 관계나 노비 소유권의 확인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에 요청하면 발급 받는 것이기 하였지만 대개는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준호구 가운데 354 건을 검토한 결과 324 건이 식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준호구의 상당수는 호구 단자 제출 이후의 어떤 시기, 또는 호적 작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준호구의 규식은 1428 년(세종 10)에 정해졌는데, 그 뒤 성종대에 반포된『경국대전』에 이 규식이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준호구의 기재 내용은 등급하는 연·월·일과 등급하는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 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 조, 솔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 표시와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 등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준호구는 1490 년(성종 21) 단천군(端川郡)에서 심양(沈洋)에게 발급한 것이고, 이 외 1523 년(중종 18) 한성부에서 심수평(沈守平)에게 발급한 것이 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호적대장 등과 더불어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시대의 사회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가계의 호적은 모두 준호구(準戶口)자료로서 덕윤에서부터 인협까지 5 대에 걸쳐 이루어진 4O 점이 남아있다..

이 중 1696 년(강희 35)에 발급된 덕윤의 준호구에는 총 37 口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순천을 비롯 하여 흥양·해남·안동·상주·경주·청도 등 전남과 경상도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데、주로 흥양과 해남에 많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로 되어 있으며、구활노비(救活奴婢)도 들어 있다. 그러다가 덕윤이 61 세 되던 해의 준호구에는 매득노비 등이 더하여져 총 59 구로 늘어나 있다. 의모와 종렬을 거쳐 택기(宅起)에게 전래 되었는데、택기는 1789 년(건륭 54) 준호구에서는 만교(萬敎) 로 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때의 노비수는 48 구였다.

만교를 이어 그의 자 면목(冕穆)은 초명이 익조(翊朝)였으나、여러 차례에 걸쳐 개명을 하여 국조 (國朝 22 세) →광조(匡朝、25 세)→면목(31 세)이 되었다. 그러나 익조의 준호구에 기재된 노비 수는 불과 4 구뿐이었다. 이는 기존의 도망노비들을 기재하지 않은 결과라고 짐작된다. 이미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집에서 도망노비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노비수의 급감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구단자나 준호구 등에 아예 기재하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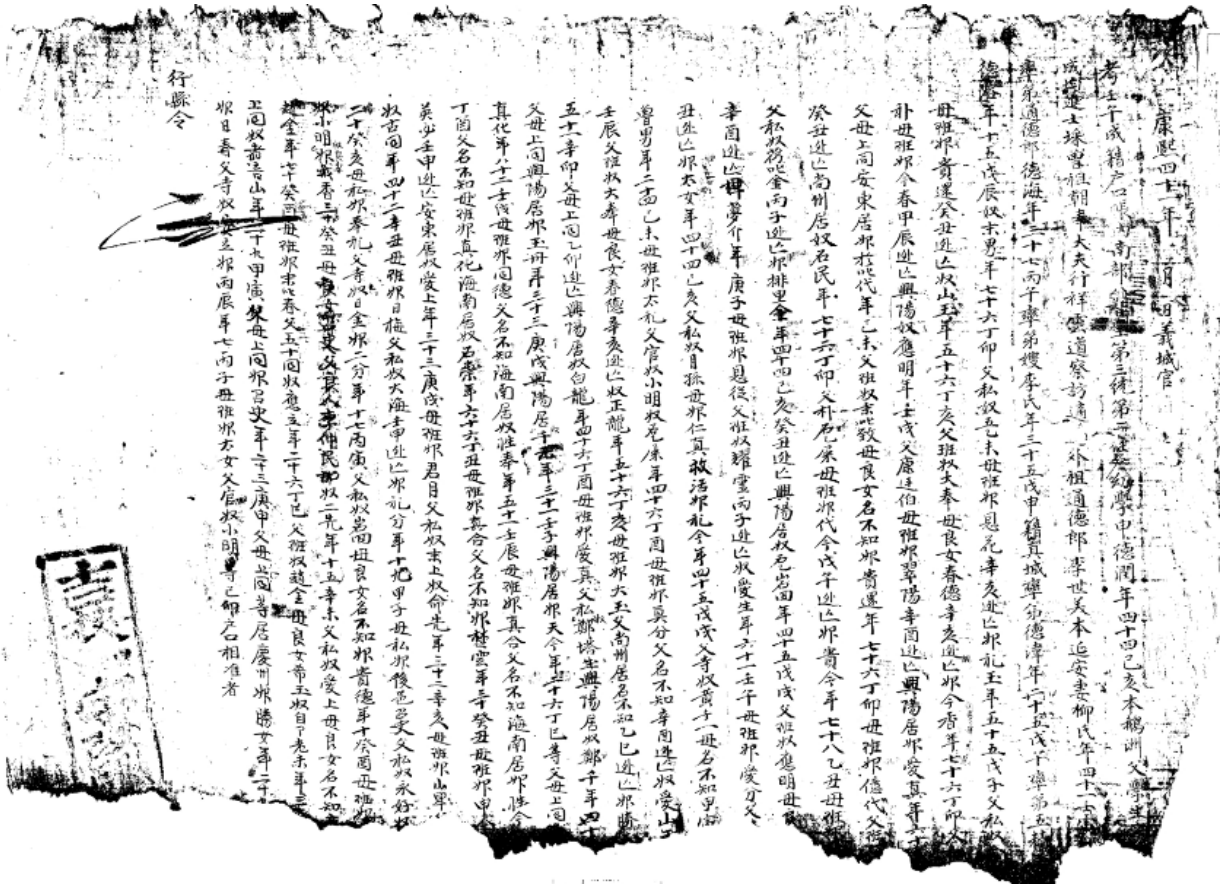
희목은 22 세 되던 해 노(奴) 정진(正辰)과 정진의 1 소생 비(婢) 원심(元心、 願心)、원심의 2 소생 손심(孫心)등 3 구를 박만금(朴萬金)에게 매수하였다.★[註 15] 그러나 정진과 손심은 도망하여 상주 내역(內驛)에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노비는 앙역비(仰役婢)인 원심뿐이었다. 면목이 도광 5 년에 그의 아들 일협(馹協)에게 전래하였으나 일협이 요절하자 비 원심은 일협의 중부인 면구 (冕九)에게 전래되었다. 일협은 개명하기 전의 인협이다

1696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696 년
· 형태사항	크기: 50x5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702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02 년
· 형태사항	크기: 50x7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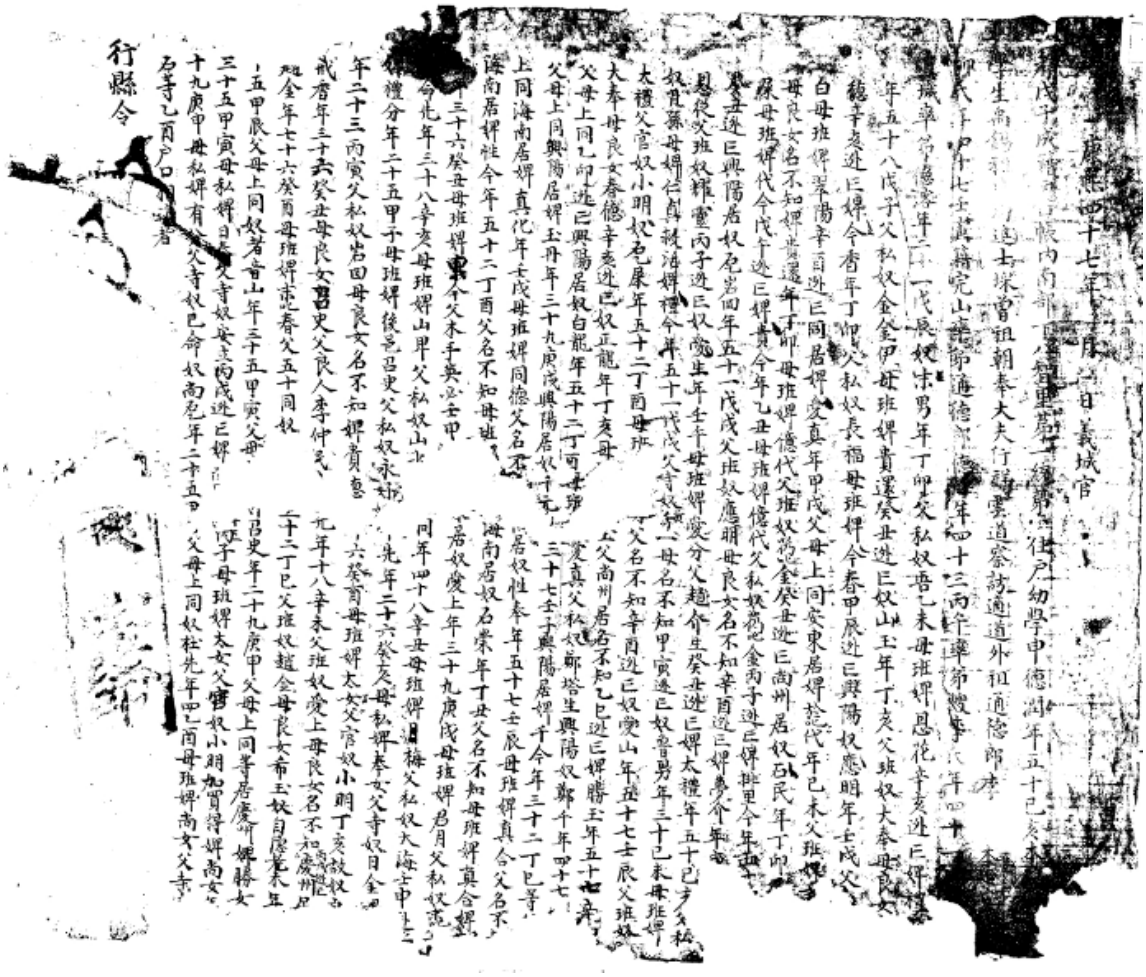


1708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08 년
· 형태사항	크기: 49x5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0 ~쪽



1711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11 년
· 형태사항	크기: 46x6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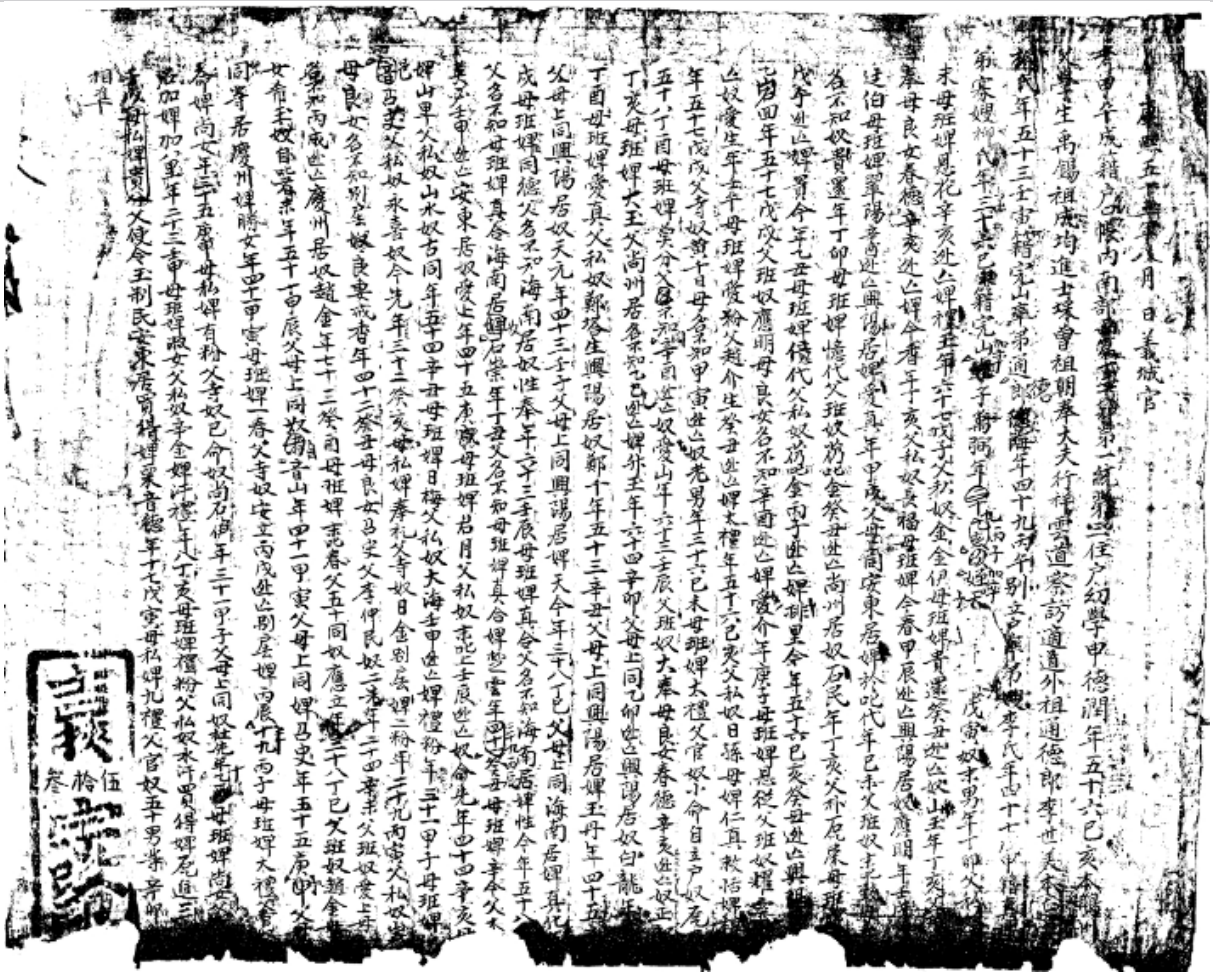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1 ~쪽

1714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14 년
· 형태사항	크기: 59x5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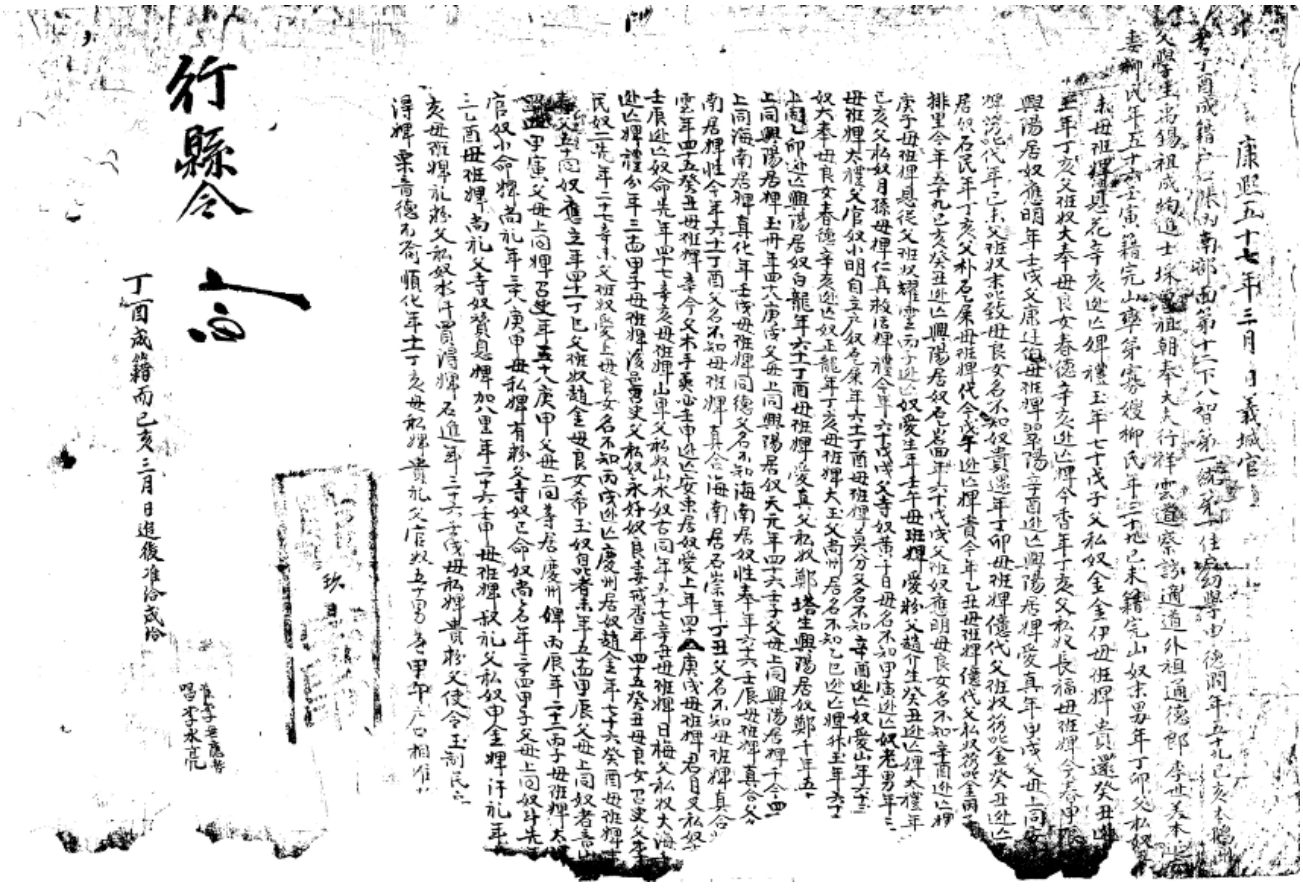


1718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18 년
· 형태사항	크기: 47x6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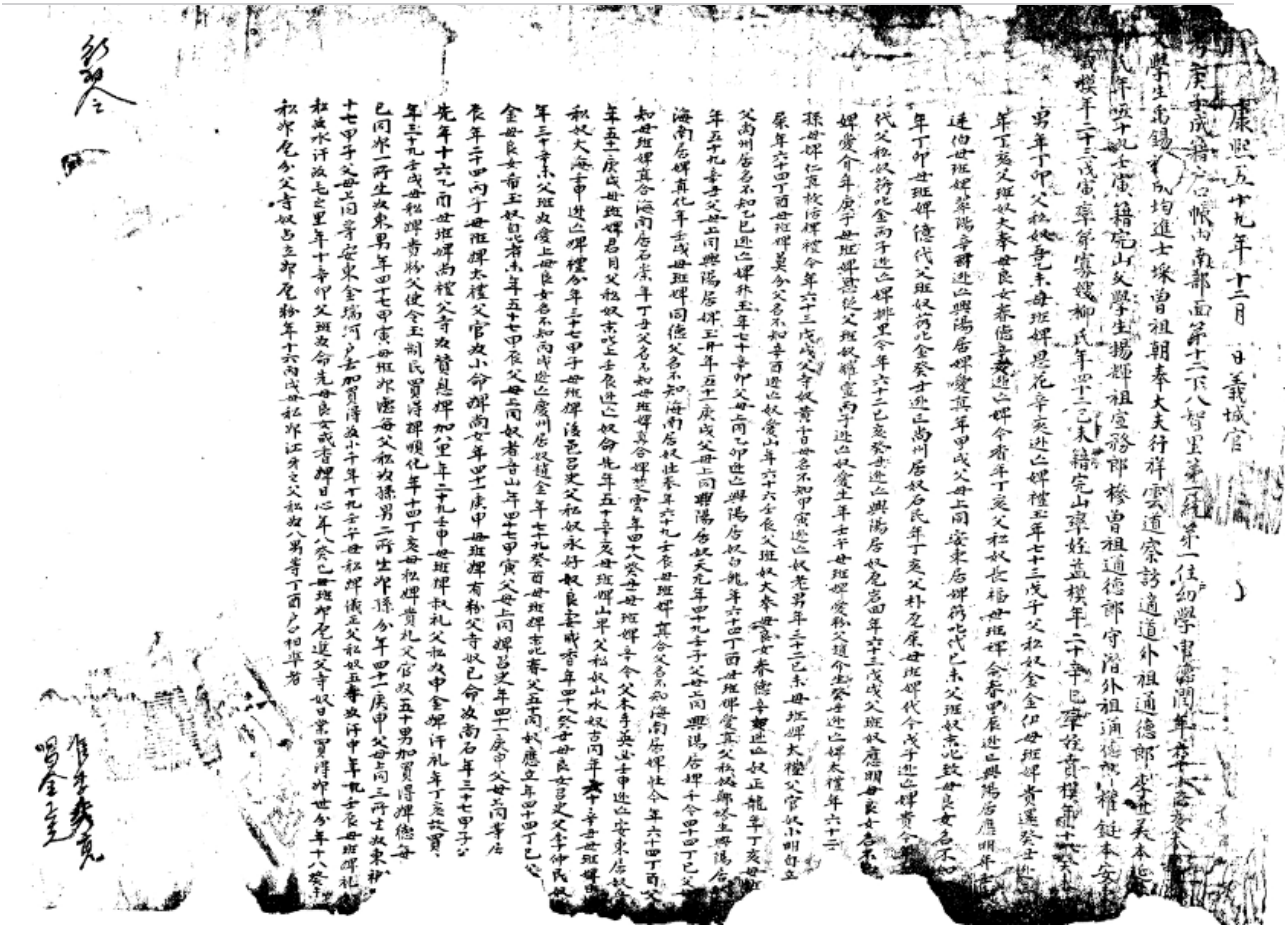


1720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20 년
· 형태사항	크기: 50x6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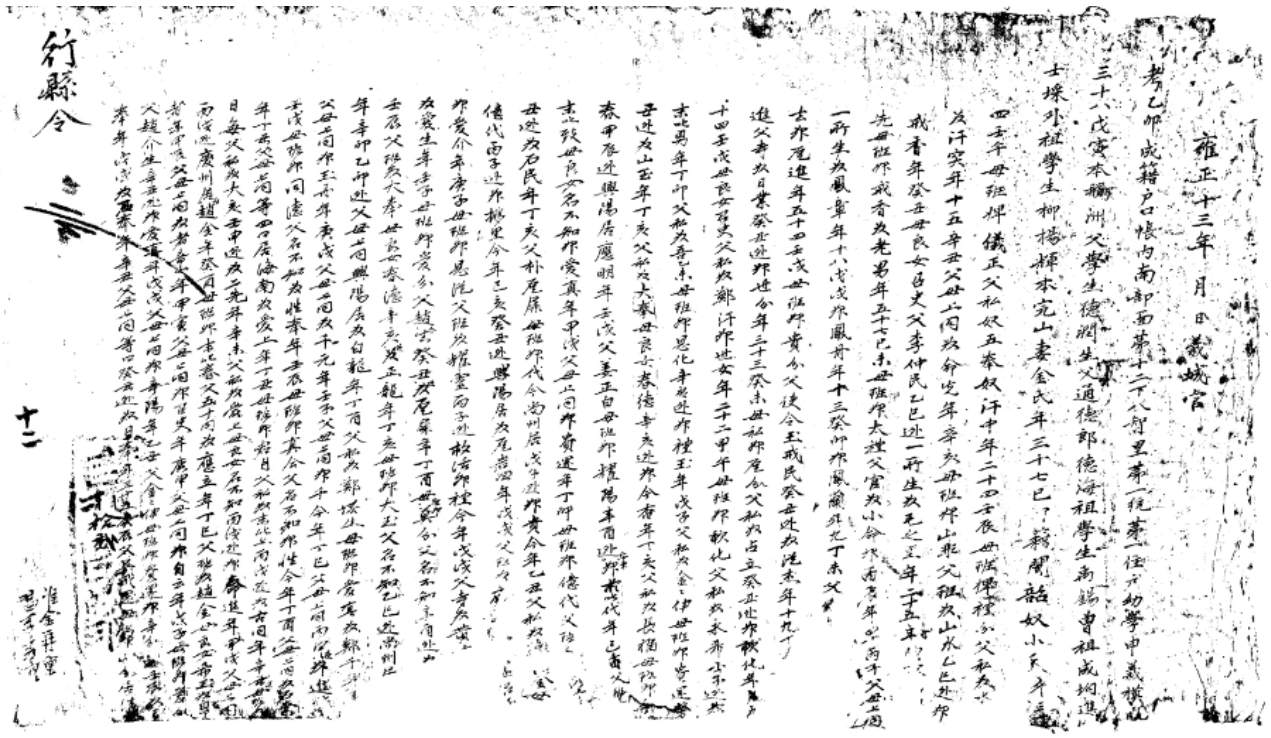


1735년 신의모(申義模)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의모(申義模)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35 년
· **형태사항**	크기: 50x8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5 ~쪽



1766년 신종렬(申宗烈) 준호구(準戶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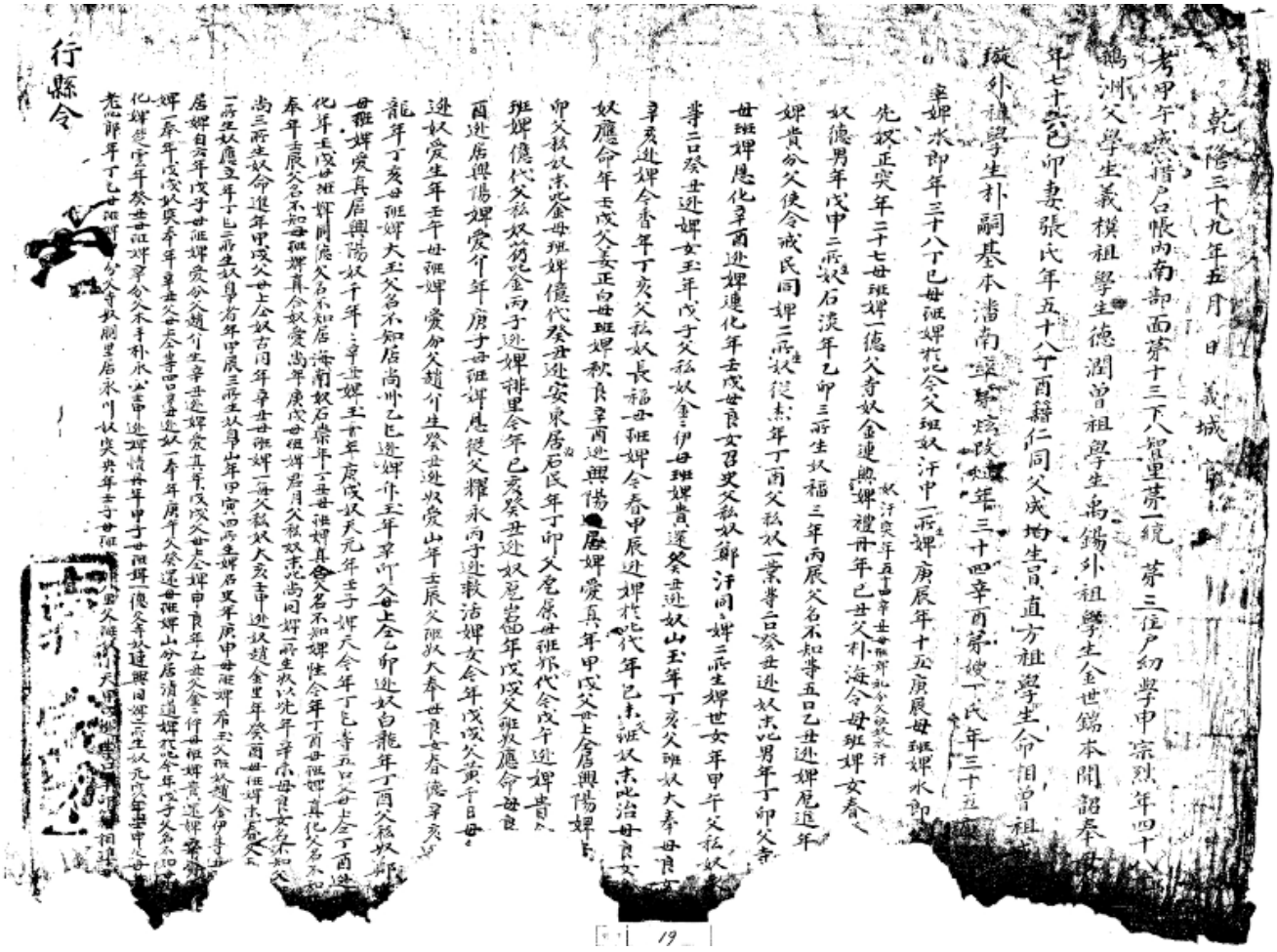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66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6 ~쪽

1774년 신종렬(申宗烈)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74 년
· 형태사항	크기: 52x7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777년 의성현령(義城縣令) 호구단자(戶口單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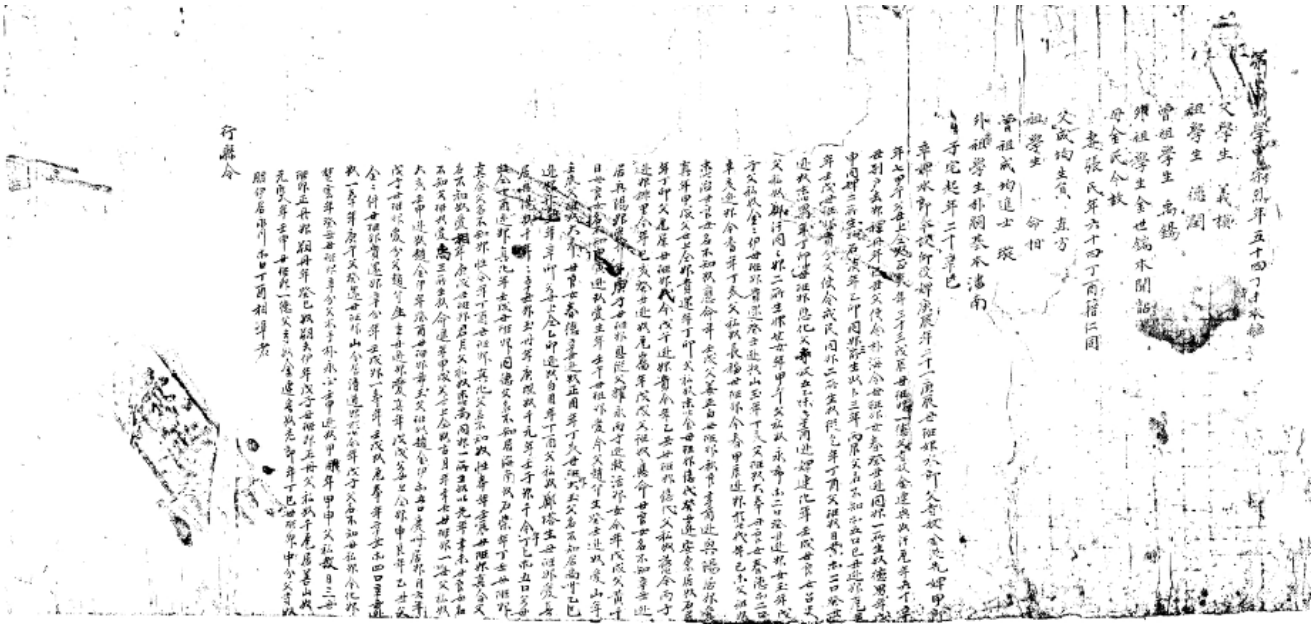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남부면 하팔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 작성시기	1777 년
· 형태사항	크기: 50x8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780년 의성현령(義城縣令) 호구단자(戶口單子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남부면 하팔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 작성시기	1780 년
· 형태사항	크기: 42x8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9 ~쪽



1783년 의성현령(義城縣令) 호구단자(戶口單子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남부면 하팔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 작성시기	1783 년
· 형태사항	크기: 42x11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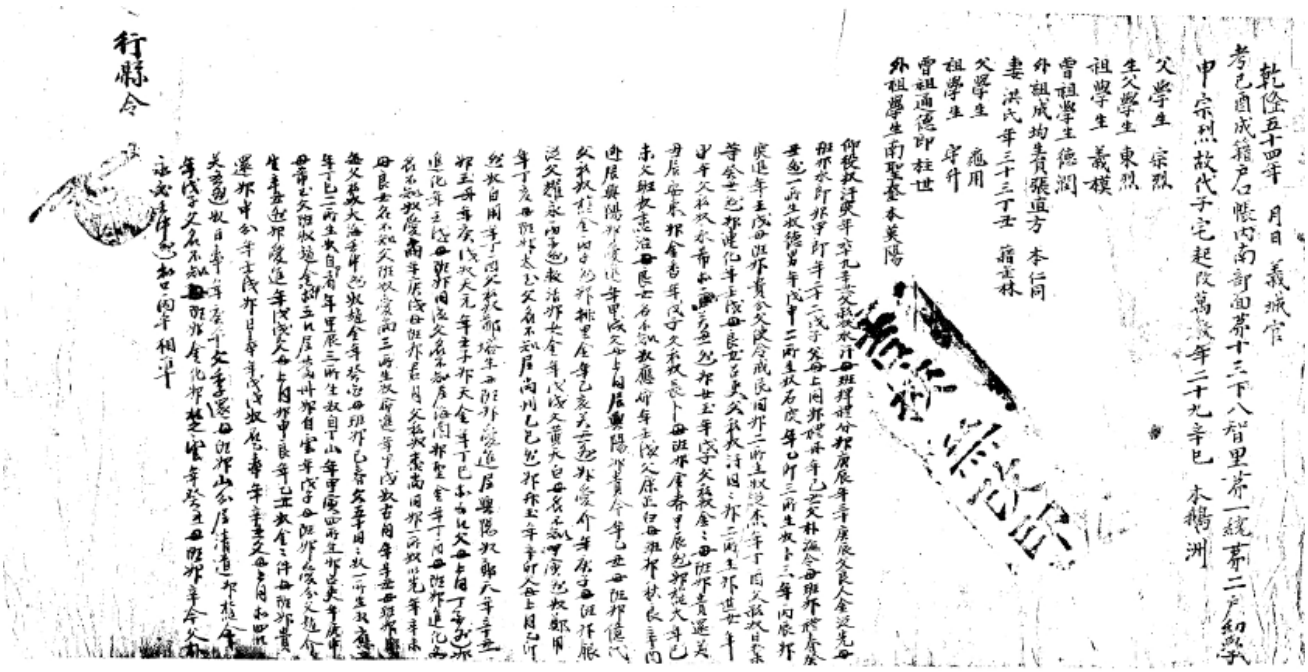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0 ~31 쪽

1789년 신만교(申萬敎)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만교(申萬敎)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89 년
· 형태사항	크기: 32x6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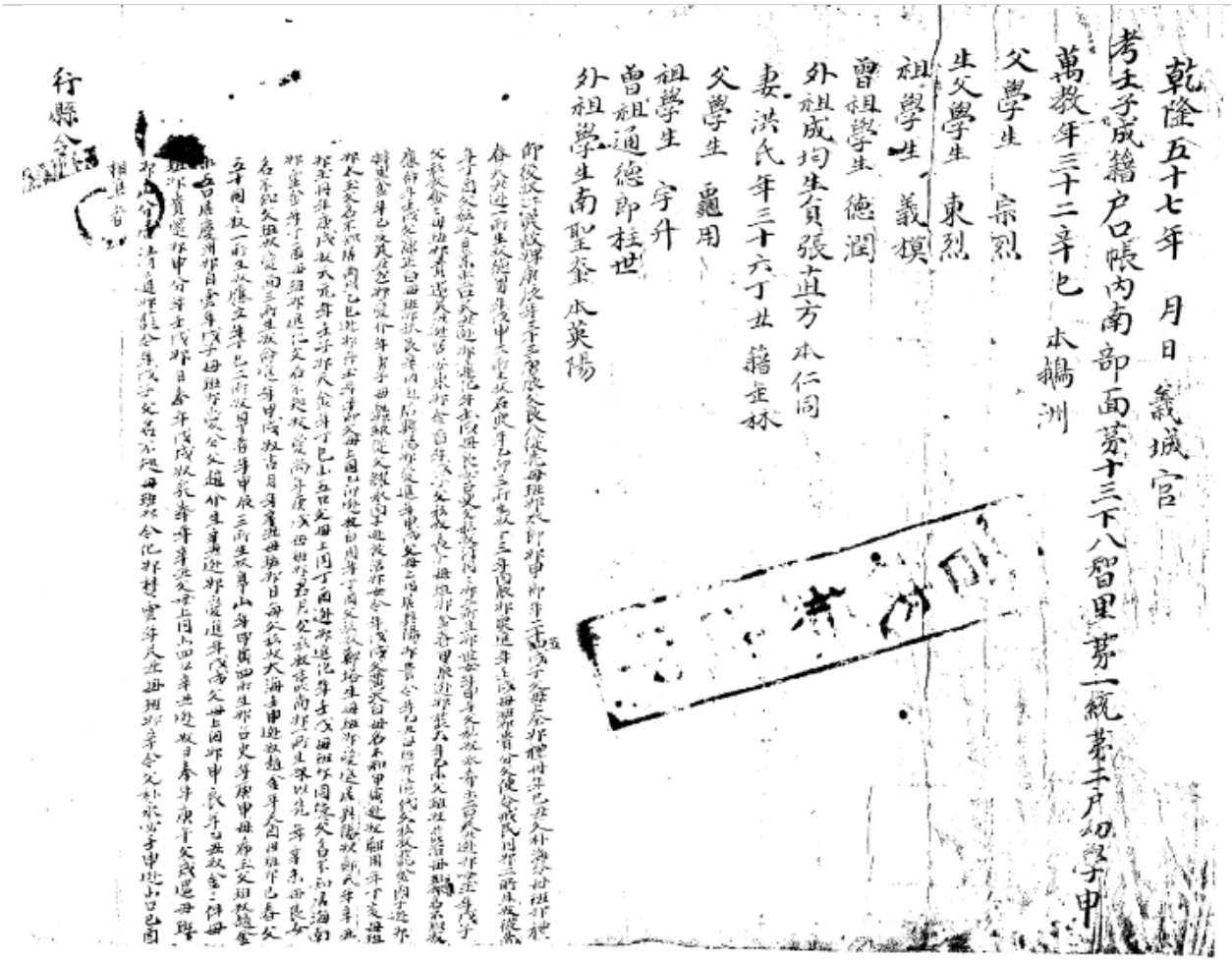


1792년 신만교(申萬敎)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만교(申萬敎)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92 년
· 형태사항	크기: 40x4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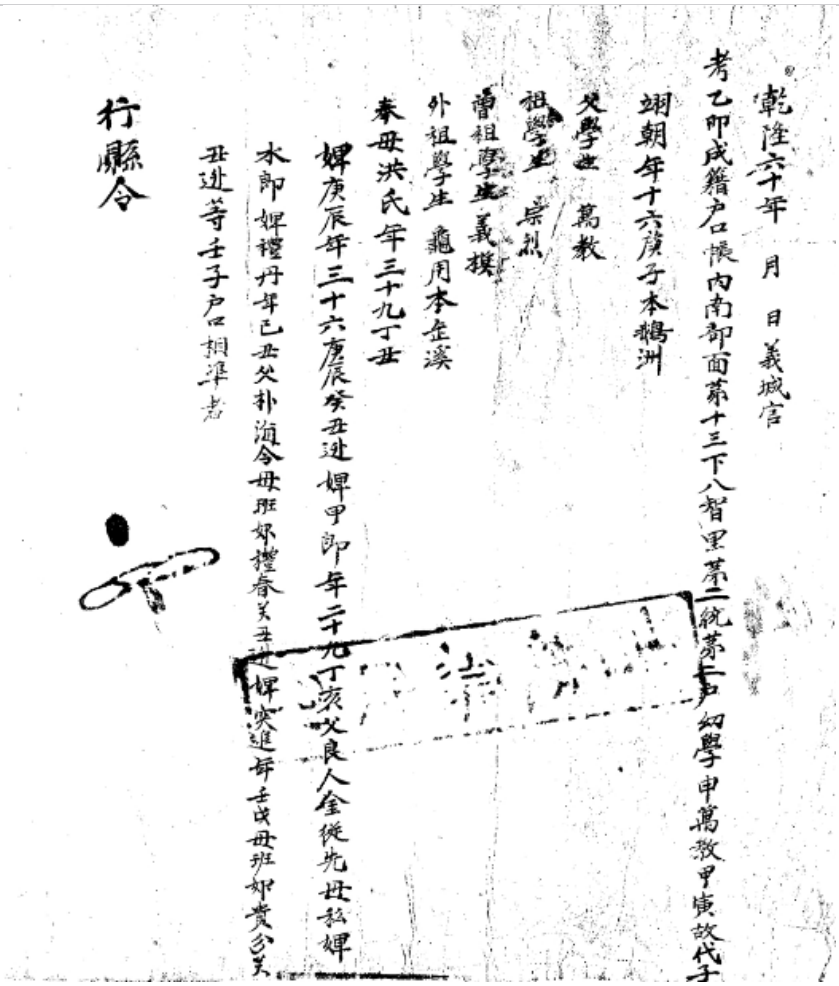


1795년 신익조(申翊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익조(申翊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95 년
· 형태사항	크기: 42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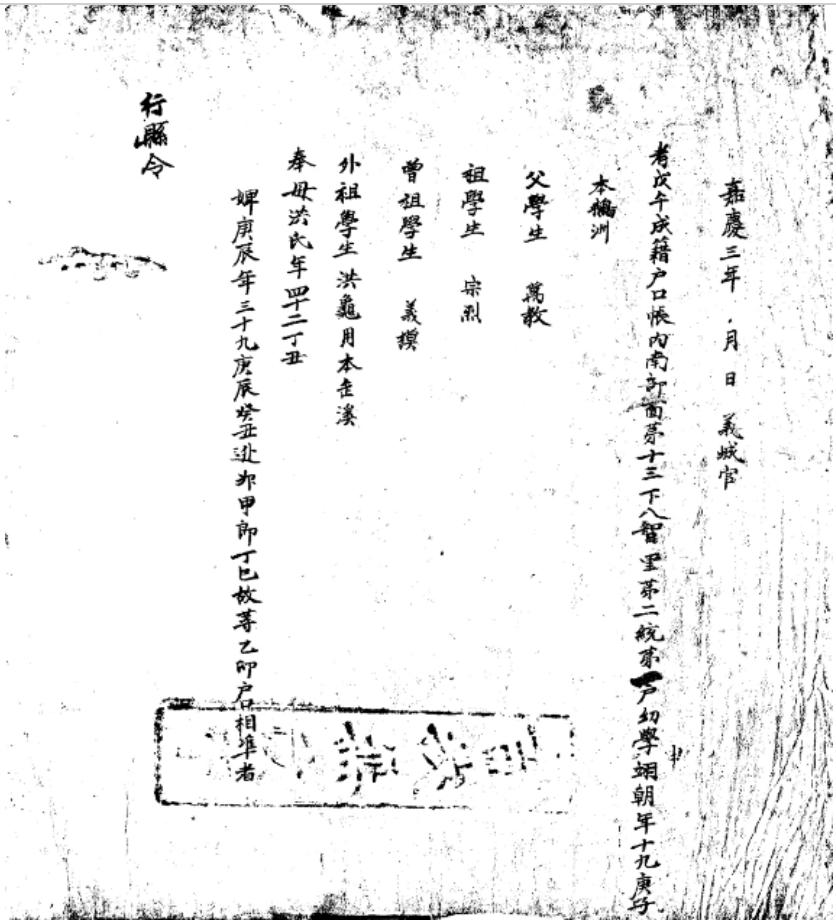


1798년 신익조(申翊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익조(申翊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98 년
· **형태사항**	크기: 42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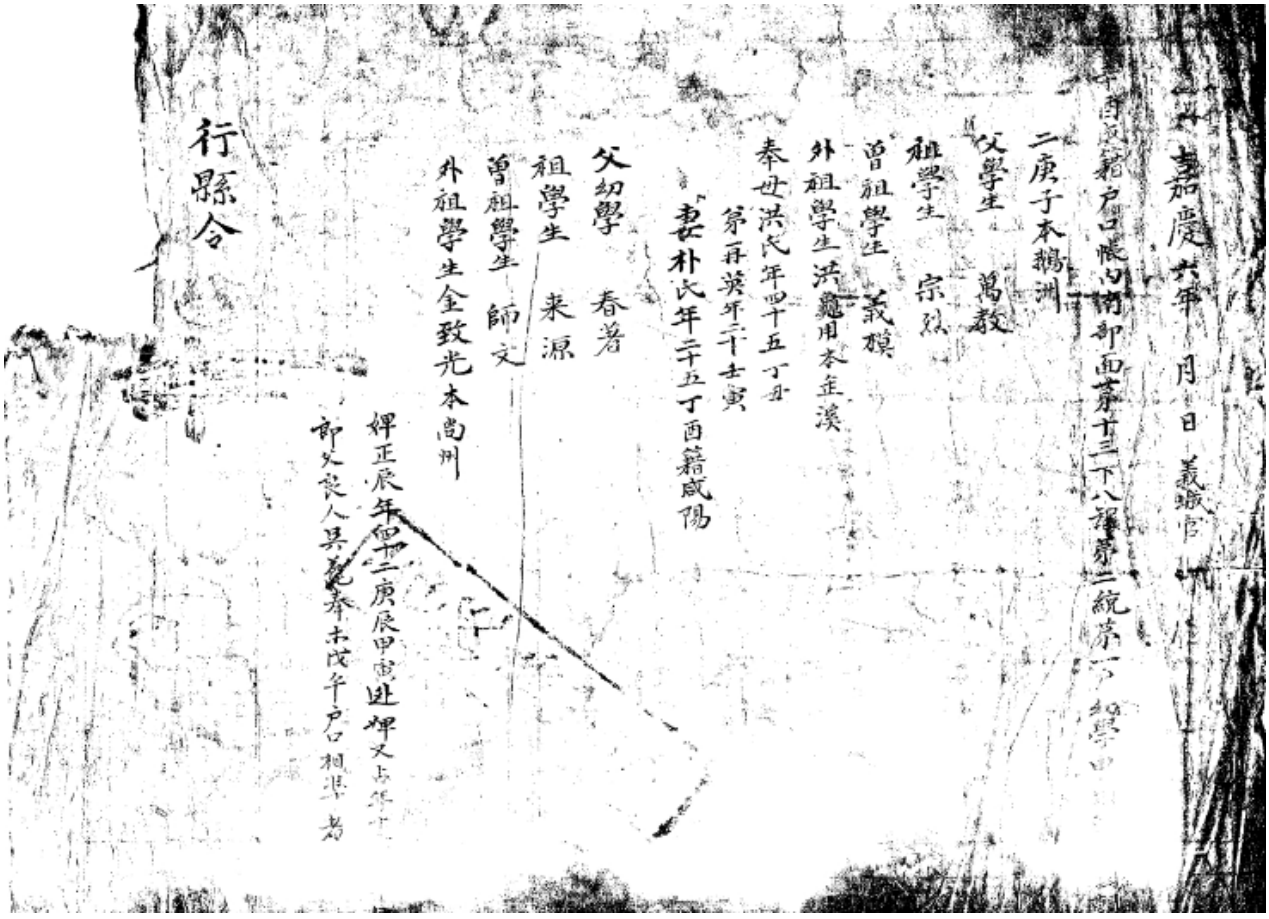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5 ~쪽



1801년 신국조(申國朝) 준호구(準戶口)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국조(申國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01 년
· 형태사항	크기: 49x5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뒷면: 가경 6 년 상주목 입안(尙州牧 立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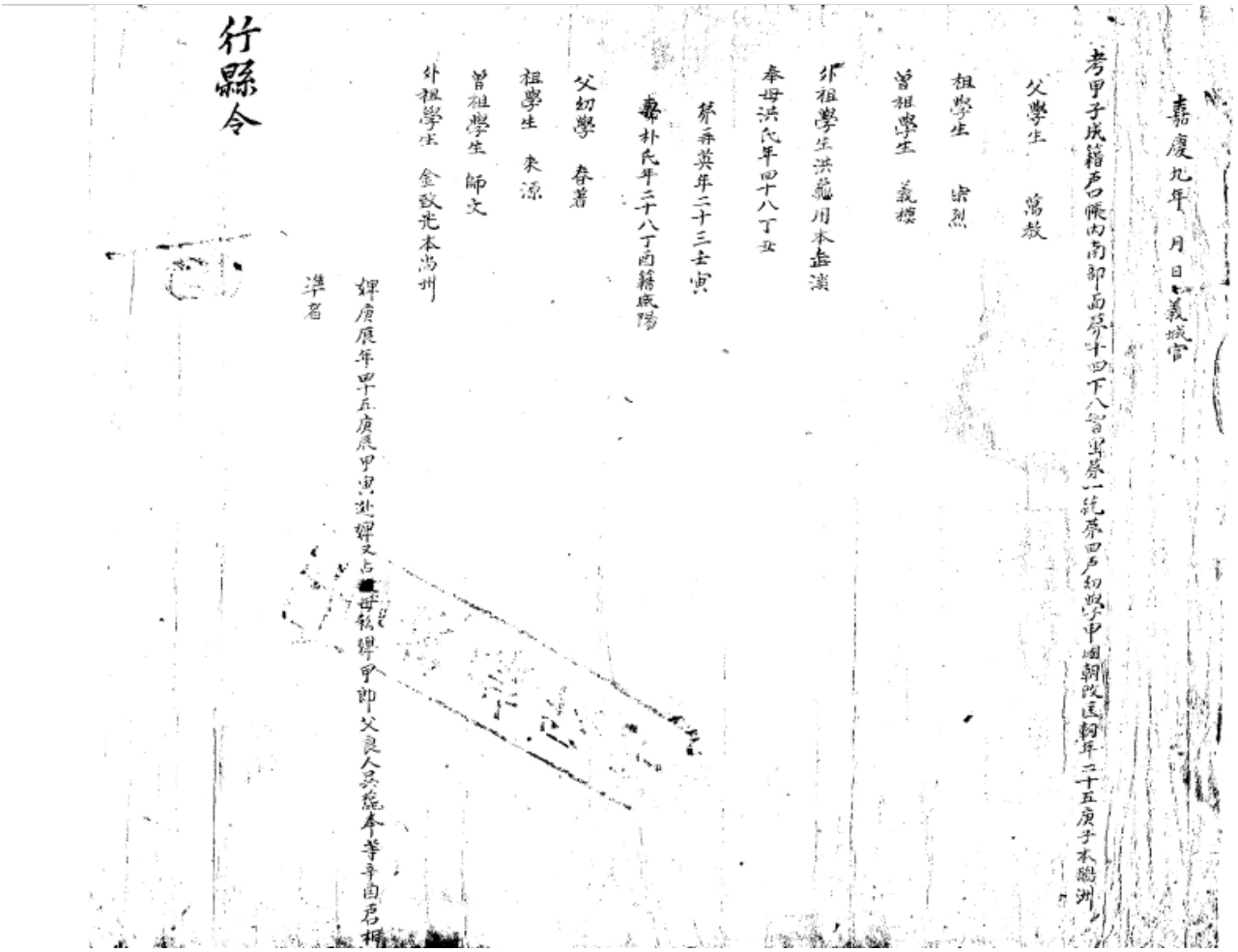


1804년 신광조(申匡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광조(申匡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04 년
· **형태사항**	크기: 47x5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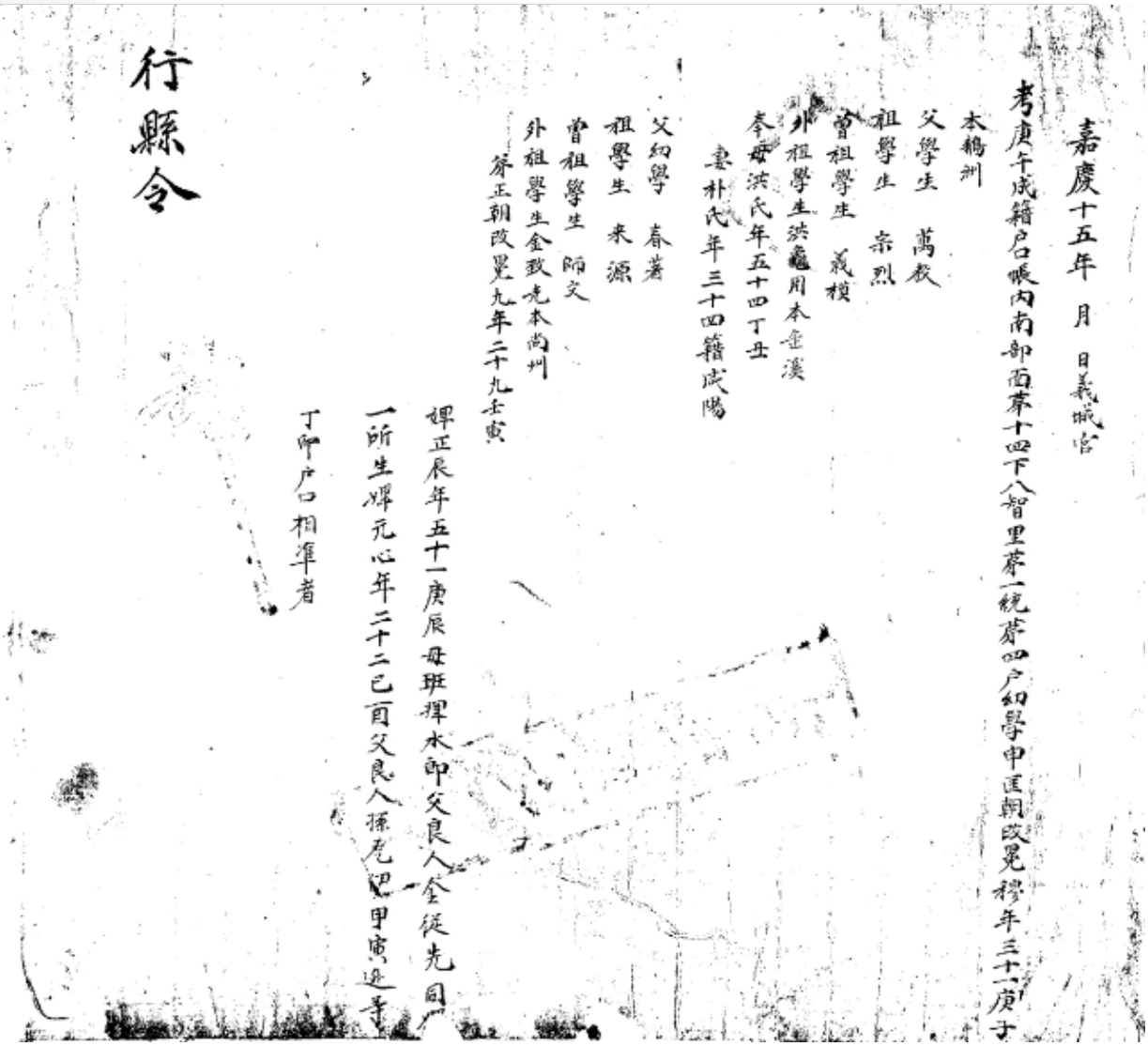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8 ~쪽



1810년 신면목(申冕穆)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목(申冕穆)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10 년
· 형태사항	크기: 41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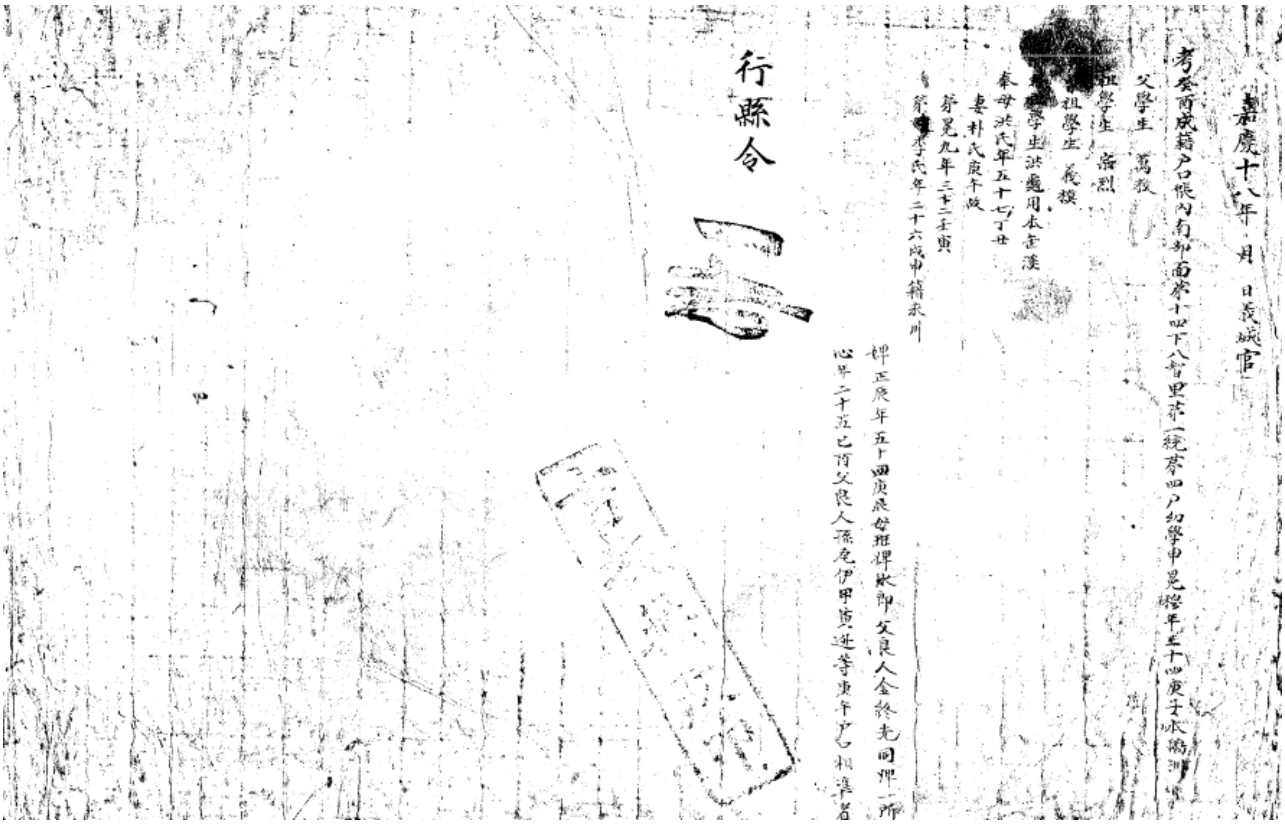


1813년 신면목(申冕穆)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목(申冕穆)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13 년
· 형태사항	크기: 47x6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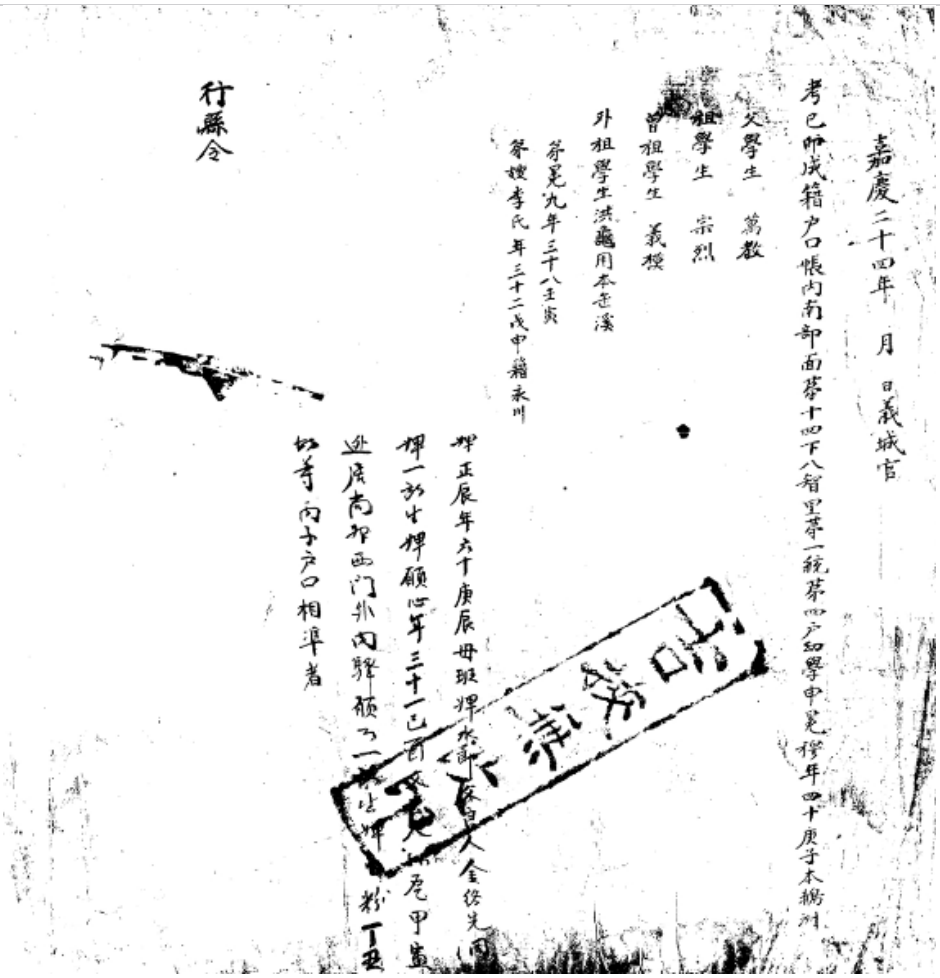


1819년 신면목(申冕穆)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목(申冕穆)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19 년
· 형태사항	크기: 44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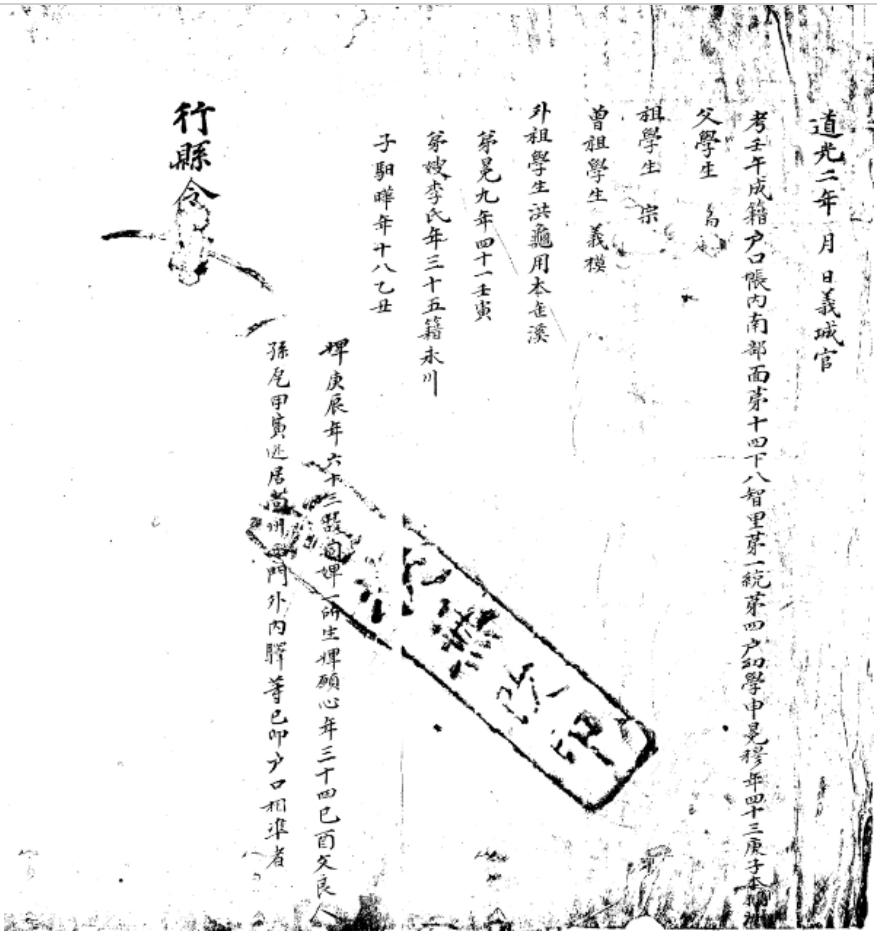


1822년 신면목(申冕穆)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목(申冕穆)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22 년
· **형태사항**	크기: 40x5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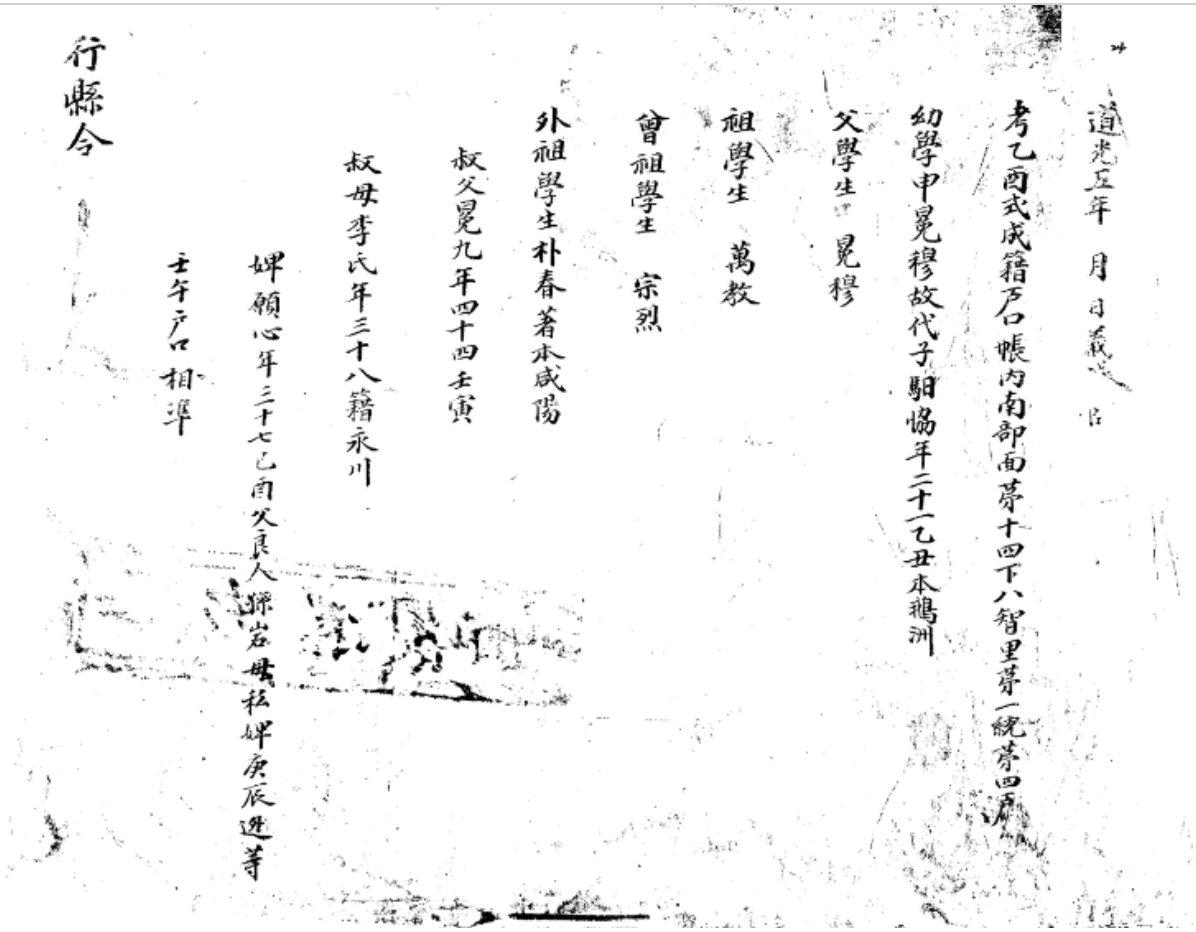


1825년 신일협(申馹協)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일협(申馹協)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25 년
· 형태사항	크기: 37x4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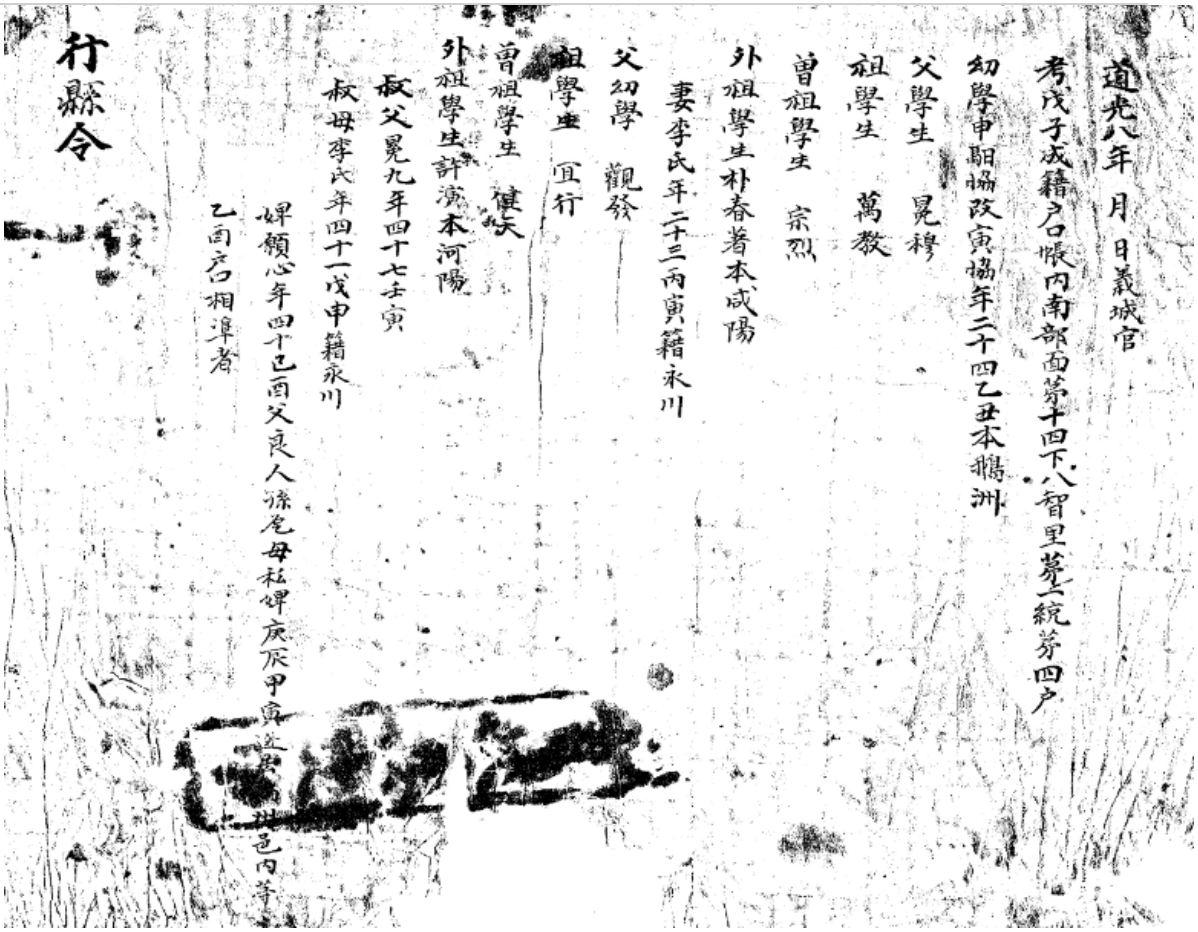


1828년 신일협(申馹協)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인협(申寅協)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28 년
· 형태사항	크기: 44x5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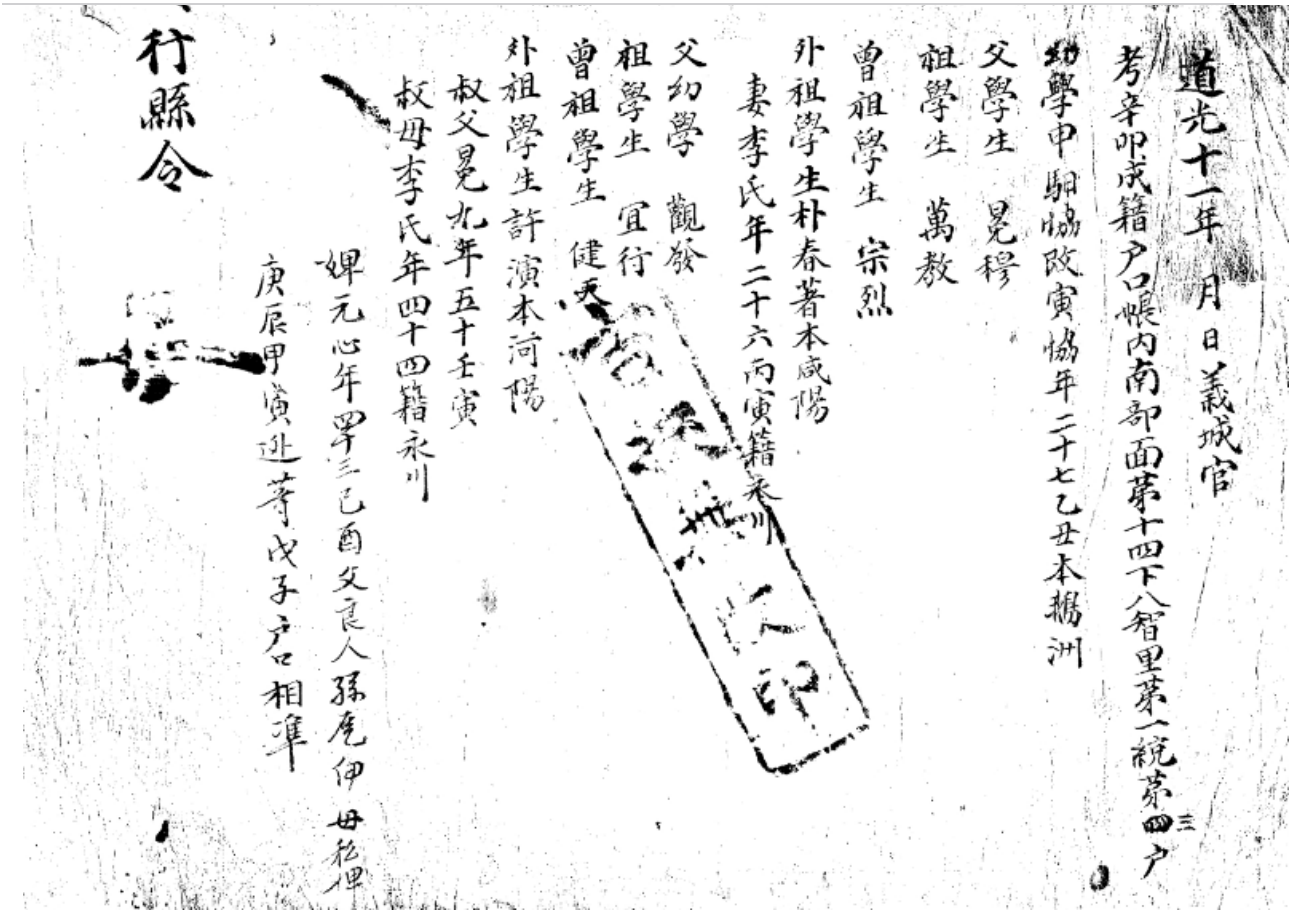


1831년 신일협(申馹協)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인협(申寅協)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31 년
· 형태사항	크기: 36x4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5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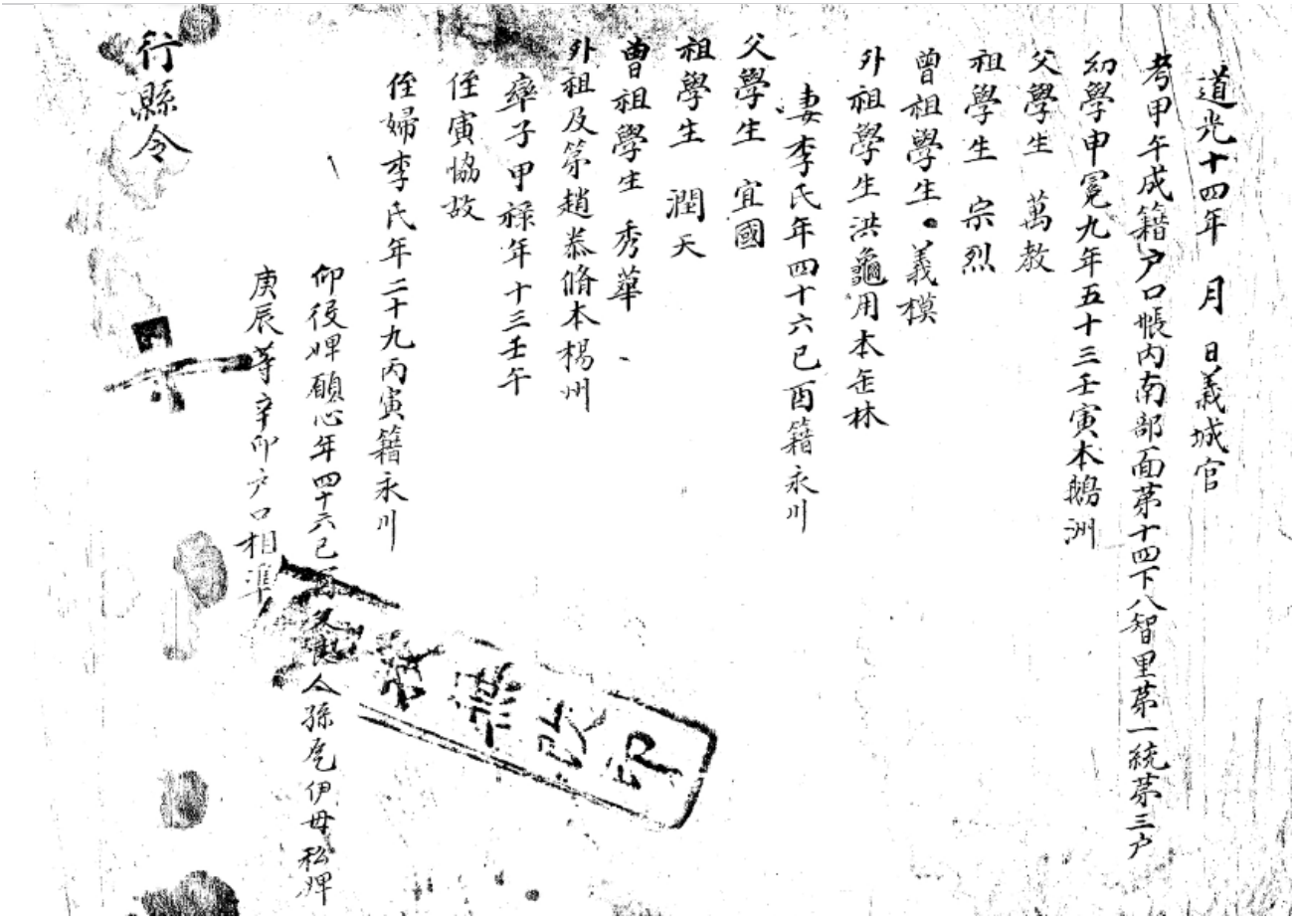


1834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34 년
· 형태사항	크기: 40x5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6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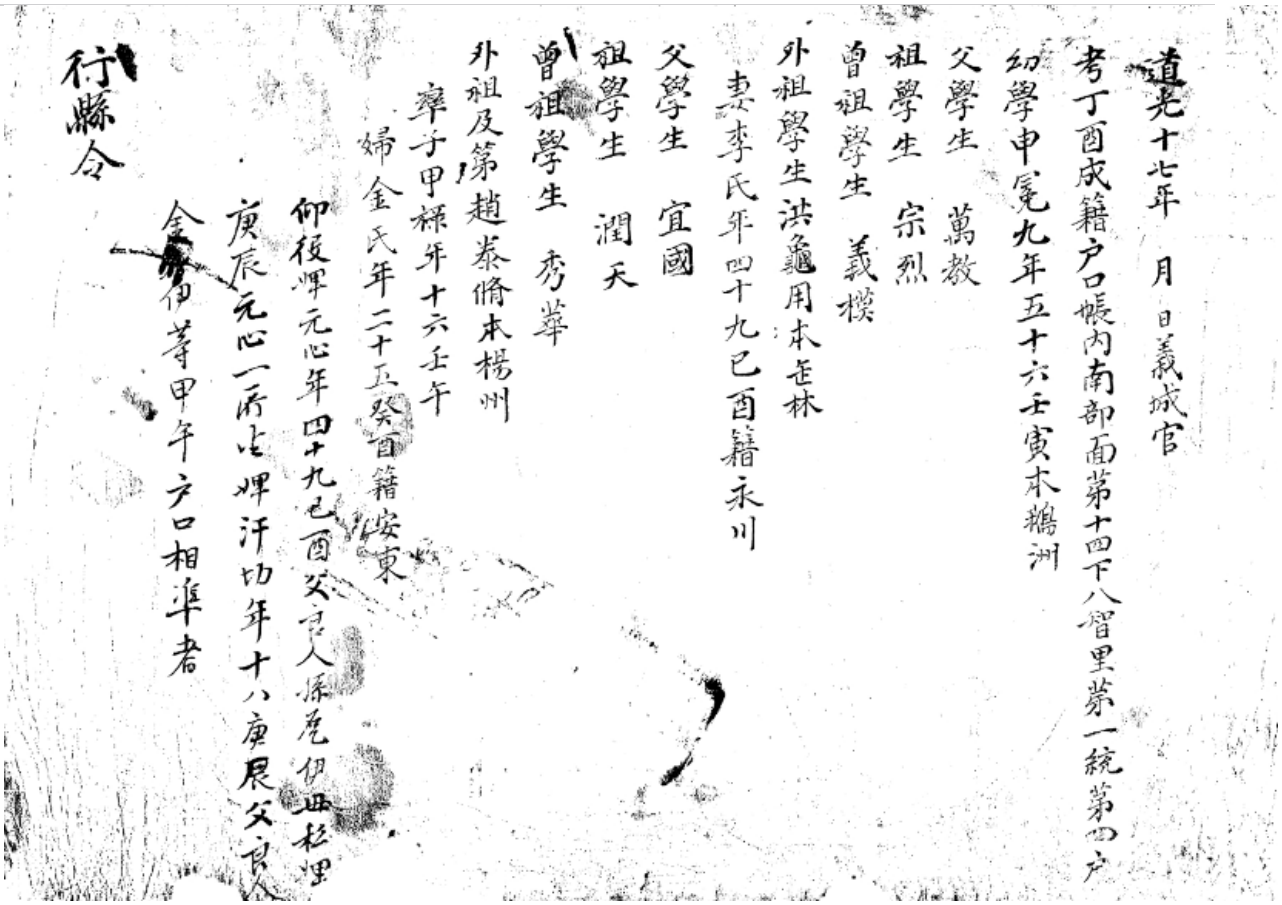


1837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37 년
· 형태사항	크기: 40x5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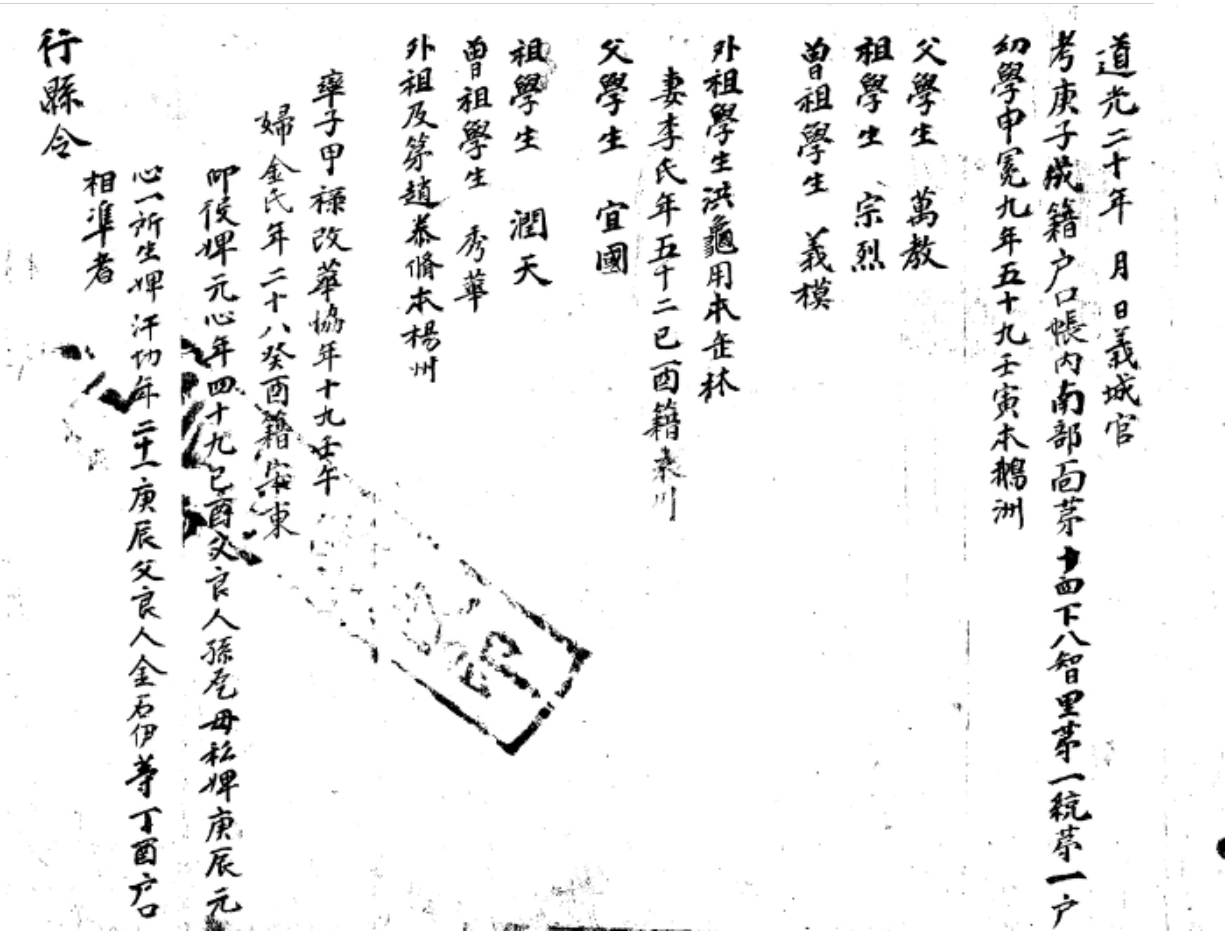


1840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40 년
· 형태사항	크기: 39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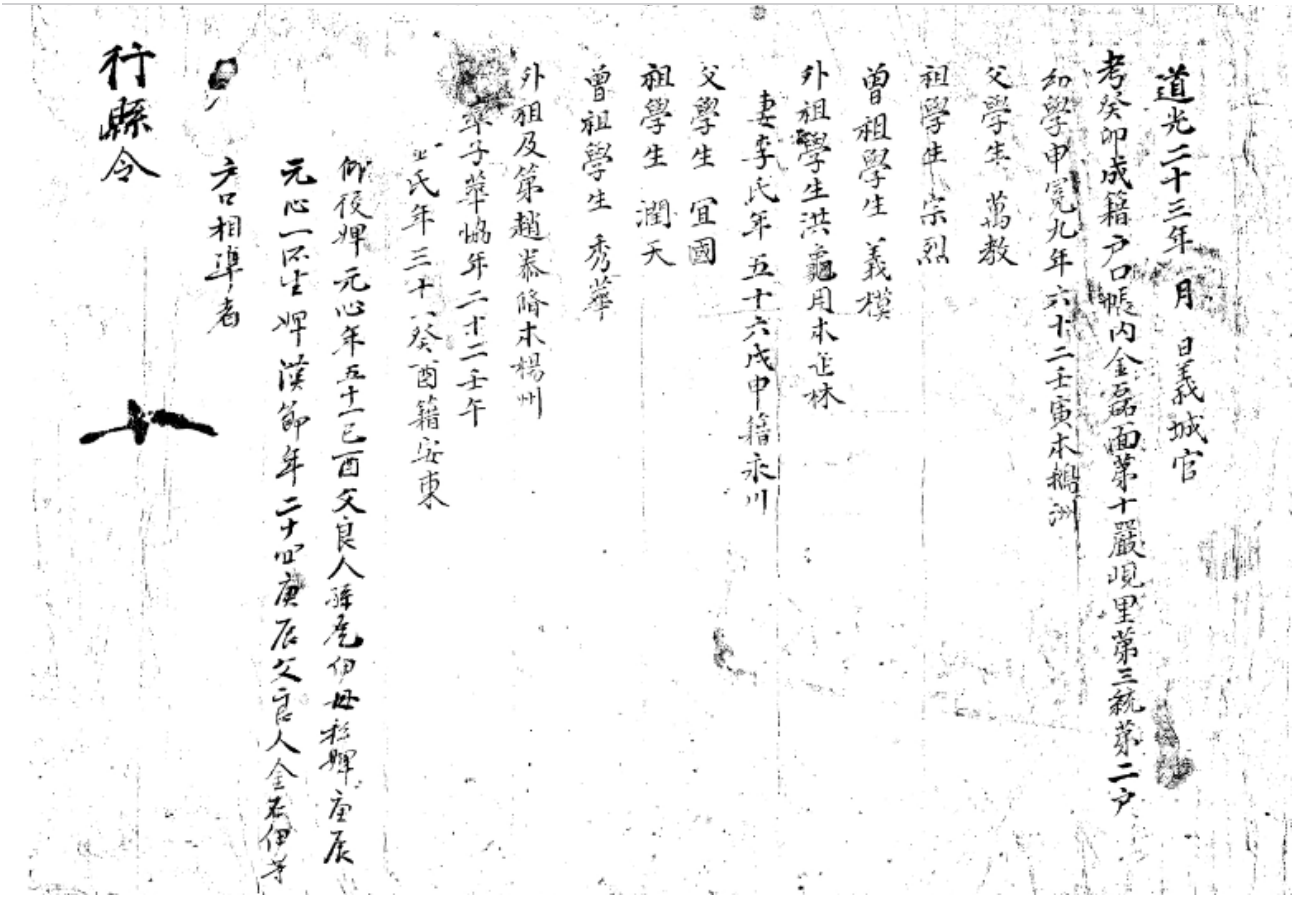


1843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43 년
· 형태사항	크기: 35x4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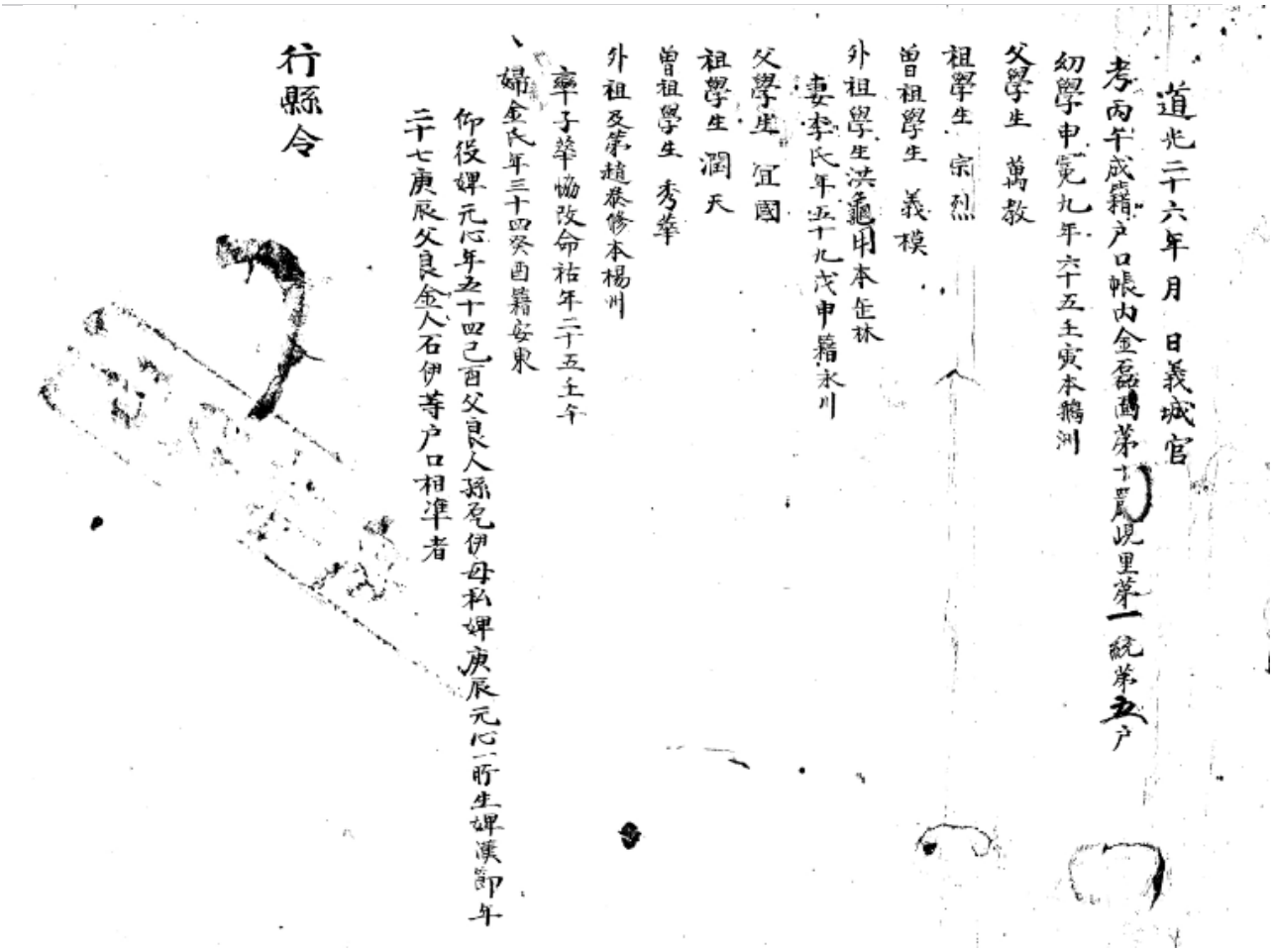


1846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46 년
· 형태사항	크기: 35x4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5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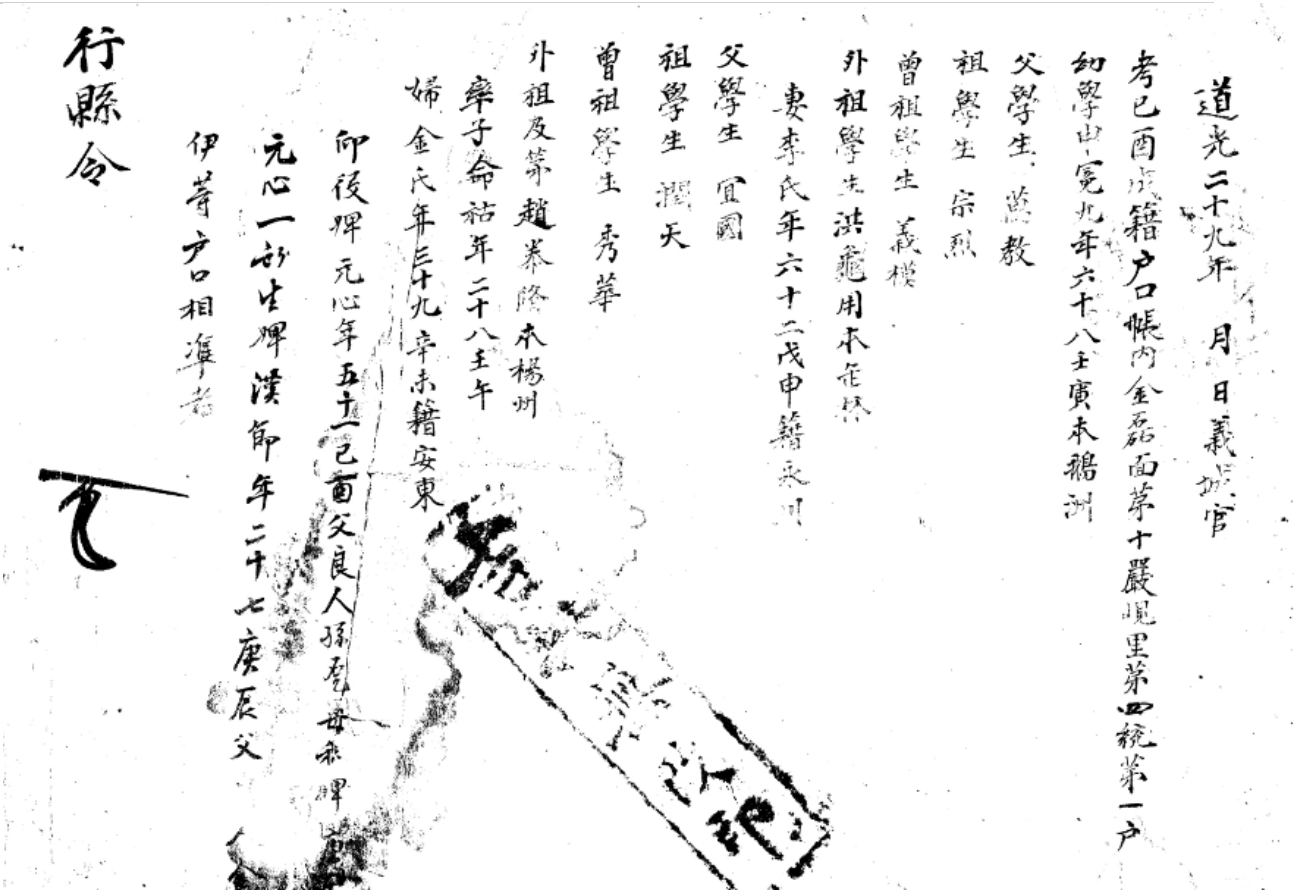


1849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49 년
· 형태사항	크기: 39x5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5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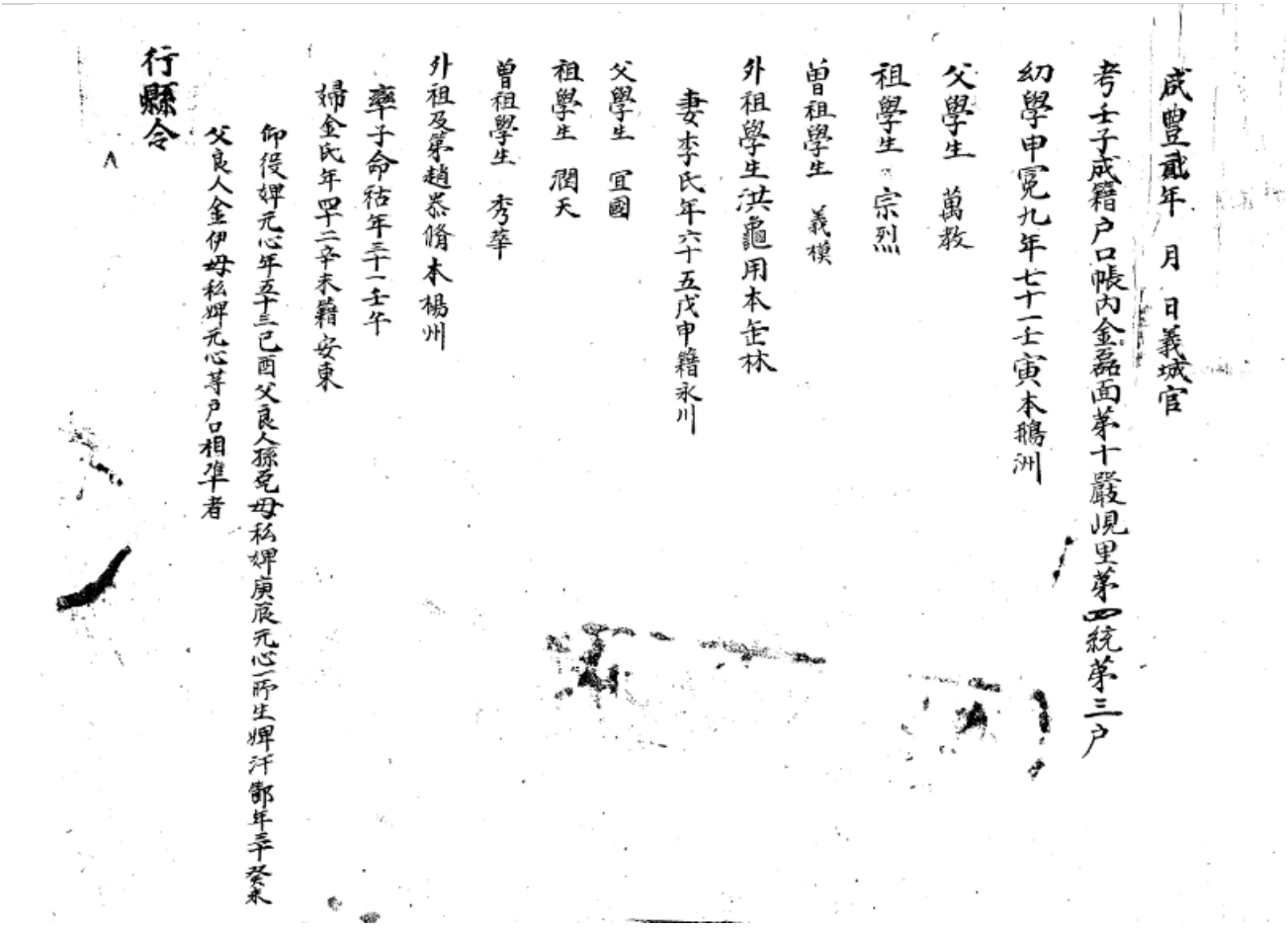


1852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52 년
· 형태사항	크기: 39x4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5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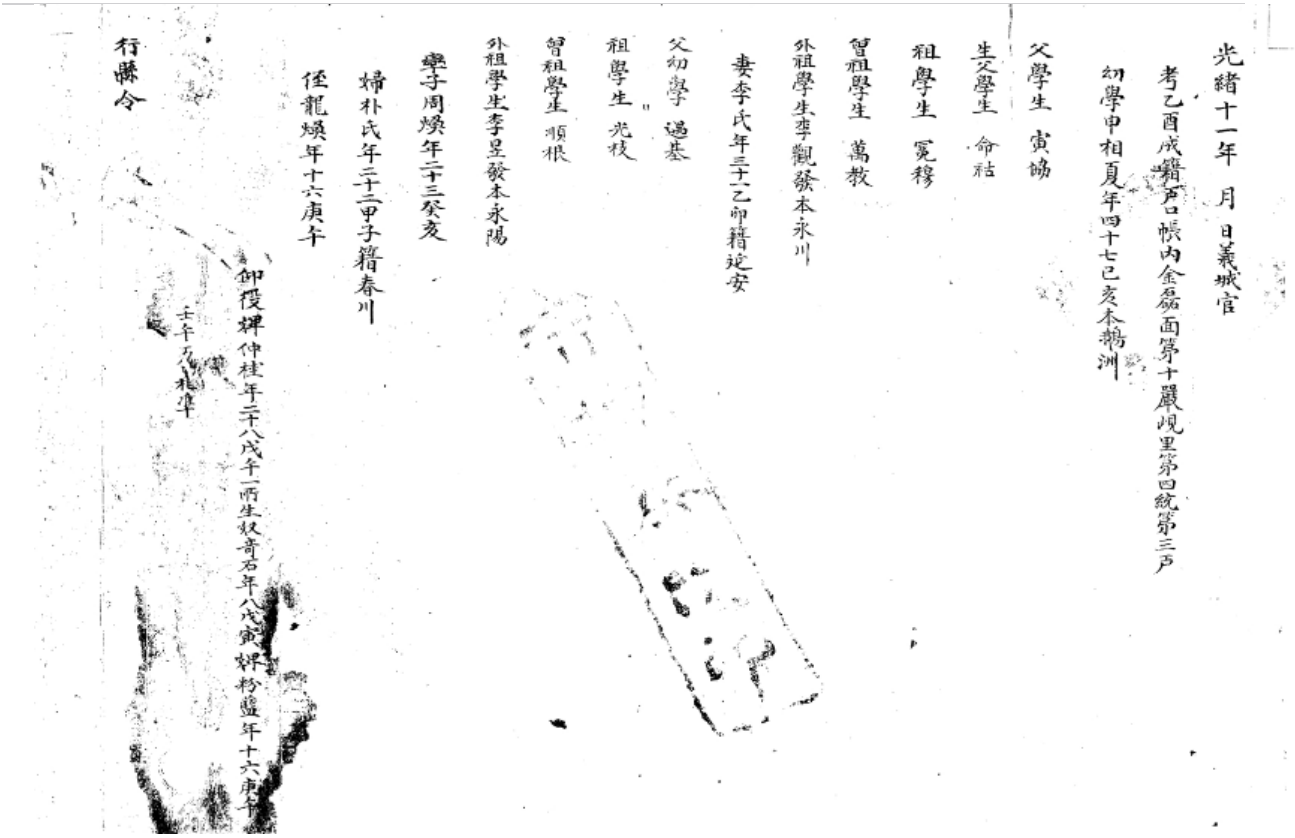


1885년 신상하(申相夏)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상하(申相夏)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85 년
· 형태사항	크기: 32x4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5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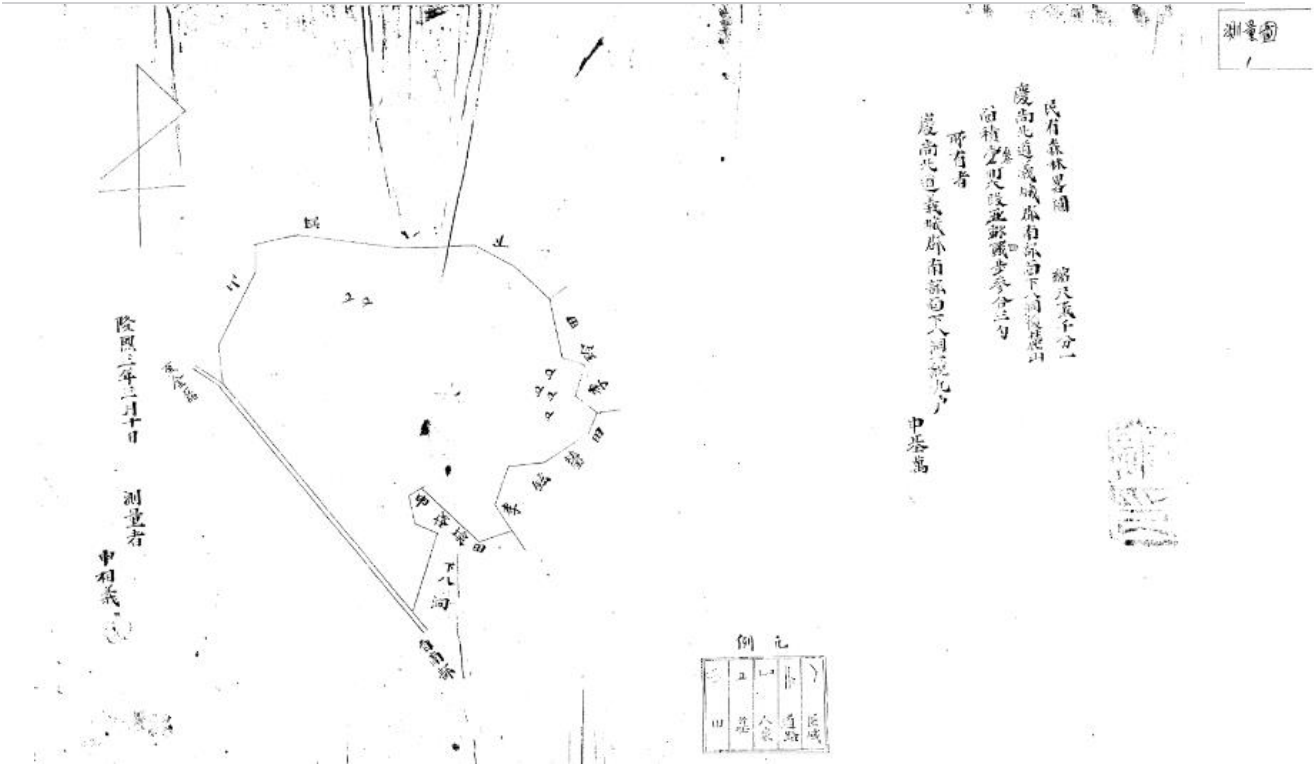
측량도 (1)

1909년 신상의(申相義) 측량도(測量圖)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 사회-지리-지도
· 작성주체	발급: 신상의(申相義) / 수취: 신기만(申基萬)
·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남부면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909 년
· 형태사항	크기: 24x3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2) 측량도 / 측량도 / 54 ~쪽



시권 (12)

과거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

시지(試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한다. 시권의 종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제술(製述) 시권, 강서(講書) 시권, 사자(寫字)·역어(譯語) 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제술은 문장 구사능력과 대체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을 시험하였다. 따라서 제술 시권은 시험 과목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응시자 자신이 스스로 창안해서 작성하는 논술시험 답안지이다.

글을 시권에 쓴다는 의미에서는 잡과(雜科)의 사자(寫字) 시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사자가 단순히 출제부분의 내용을 베껴쓰는 데 비하여 제술은 응시한 당사자가 새로운 글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제술 시권에 기재되는 내용은 크게 응시자 본인이 기록한 것과 시관(試官) 내지 사관(四館)에서 기록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응시자가 녹명(錄名)하기 전에 시권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① 시험 답안, ② 응시자 본인의 직역(職役)·성명·나이·본관·거주지, ③ 부·조·증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성명·본관(생부가 있으면 외조 옆에 기록)이 있다.

시관이나 사관(四館)에서 기록·확인하는 사항은 ④ 자호(字號), ⑤ 과차(科次)와 점수, ⑥ 등수, ⑦ 근봉(謹封) 여부, ⑧ 착인(着印 : 科擧之寶)이다. 이 가운데 자호는 천자문(千字文) 순으로 연번호(連番號)를 매기되, 천자문 위에 일(一)·이(二)·삼(三)·사(四)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 관리하는 데 편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십황(十皇)'이라 했을 때는 '황(皇)'자 축(軸)의 열번째 시권이란 표시가 된다.

자호의 기재방법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개의 경우 봉미(封彌)한 시권을 뜯기 전에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오른쪽 중간에 큰 글씨로 자호를 매기고 아울러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같은 자호를 매겼다. 그런 다음 오른쪽 중간의 자호부분을 오려내어 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했다가 당락이 결정되면 그 합격 시권의 봉미부분을 붙였다.

시험 점수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대개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등급은 9 등 내지 12 등급이 있으며, 일지상(一之上)·중(中)·하(下), 이지상(二之上)·중·하, 삼지상(三之上)·중·하,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 갱(更)·불(不) 등으로 표시하였다. 과차(科次)는 과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을 일지일(一之一)·이(二)·삼(三), 이지일(二之一)·이·삼, 삼지일(三之一)·이·삼 등으로 기재하였다.

근봉(謹封)은 본인이 직접 써 넣었으나 그 글씨를 보고 부정이 생겨 근봉이란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시권에 찍은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였다. 이 외에도 틀린 부분을 고쳐 적은 부분과 시권의 연결부분에도 이 도장을 찍었다.

과거응시자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야 했으며, 그 양식은 시(詩)·부(賦)·송(頌)·책(策)·경의(經義)·서의(書義) 등 제술과목에 따라 달랐다. 우선 공통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시제(試題)를 들 수 있다. 시·부 등 비교적 짧은 것의 시제는 그대로 베껴 썼지만, 시제가 긴 대책·경의 등의 경우에는 '문운운(問云云)' 등으로 문제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시제의 상하에 시·부·대책 등의 시험명을 써 넣었다. 시·부는 아래쪽, 대책과 경의는 대(對)·서의(書義)·예의(禮義)·역의(易義)·시의(詩義)라고 명기하여 위쪽에 기록하였다. 또한 경의나 대책 답안에는 첫부분과 끝 그리고 서술 중에 우(于)·근대(謹對)·신복유(臣伏惟)·신복독(臣伏讀)·공유(恭惟) 등의 글을 써야 했다 그리고 시·부에서는 운자(韻字)를 반드시 맞춰야 했다.

이와 같은 격식에 어긋나거나 운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웠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 밖에도 제술 답안에는 각 과목마다 답안의 분량을 정해, 경의·대책 등은 글자의 수, 시·부는 구수(句數)로써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작성해야만 입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격식에 맞지 않아 합격자가 시취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문장이 극단적인 형식 위주로 변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유교가 아닌 이단(異端)의 글을 쓰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밖에도 답안에 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나 피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불양화(祈佛禳禍) 등 이단의 풍속과 글, ② 노자·장자·순자의 글, ③ 왕의 이름(御諱), ④ 색목(色目) 발언, ⑤ 패유(悖謬)한 글, ⑥ 초서(草書) 사용, 낙서·오서(誤書)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종류와 과목이 다양했듯이 시권도 시험 과목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술시험의 시권 이외에 문·무과와 역과의 강서 시권과 사자 시권이 바로 이것들이다.

강서는 사서삼경 등 경전의 임문(臨文 : 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는 일) 또는 배강(背講)·배송(背誦)을 통해 시취(試取)하는 방법이므로 답안 작성을 위해 시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절차상 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내용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시권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작성된 시권이 바로 강서 시권이다. 즉 강서 시권이란 창작한 글을 쓴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출제 과목(주로 사서삼경)과 그 점수를 기록한 일종의 구두(口頭)시험의

채점표인 셈이다. 따라서 시권의 양식도 제술 시험과는 다르다. 강서 시권은 안동의 의성김씨 김성일(金誠一) 가문, 해남의 해남윤씨 윤선도(尹善道) 가문 등에 전하고 있다.

해남윤씨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의 시권의 경우 시험과목으로는 ≪주역 周易≫≪시전 詩傳≫·≪서전 書傳≫·≪논어 論語≫·≪맹자 孟子≫·≪중용 中庸≫·≪대학 大學≫ 등 삼경사서가 치러졌다. 그리고 과목 아래로 그 과목의 시험문제, 점수(純通·通·略·粗), 시관의 서명(署名)이 있다. 시험문제 오른쪽에는 채점된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十一分半), 그리고 천자문의 자호가 있다.

잡과의 사자(寫字) 시권도 시험명을 명시한 점, 문제와 답안을 함께 기록한 점, 사조(四祖)를 모두 기록한 점 등은 제술 시권과 같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사자할 부분을 자(自)~지(止)로 표시해 주었고, 답안 내용이 제술 답안처럼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한 책의 일부를 베꼈다는 점에서 제술 시권과 다르다.

시권의 구입은 중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시권은 크기와 품질이 일정한 규격에 맞아야 했다. 또한 격식에 맞추어 봉미(封彌)한 뒤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제출된 시권은 검사관(檢查官: 주로 搜挾官)들이 일일이 규격에 맞는지를 조사한 뒤 답인(踏印)하여 응시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응시자가 시권을 구입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시권의 품질이 다를 수 있었다. 경제력이 풍부한 양반가의 자제들은 두껍고 질이 좋은 시권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빈한한 선비들은 시권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니는 형편이었다.

≪경국대전≫이나 기타 법전에는 시권의 품질을 따로 규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하품(下品)의 도련지(濤鍊紙)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주 사치스러운 시권은 시관이 불살라 버리거나 당사자를 적발해 치죄하는 등 빈부에 따라 시권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되도록 억제하였다.

봉미법은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하여 통용해서 쓰고 있으나, 봉미와 역서는 응시자의 신분과 성명 등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호명은 말 그대로 호명지(糊名紙)를 풀로 붙여 이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과거 실시 초기에 행해졌다. 호명법은 전대에 비해서는 큰 발전이었지만 이 방법도 호명지를 들추어 이름을 엿보는 등 부정의 소지가 짙었다.

이를 개선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봉미법이었다. 봉미란 응시자의 사조·나이·성명·거주지 등 신원이 기재된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아올려, 말아올린 부분의 상단·중단·하단 세 곳에 구멍을 내고 끈으로 묶은 다음 '근봉(謹封)'이라는 글을 써 넣거나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의 봉미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방법에서 더 발전하여 봉미한 부분과 답안부분에 '감합(勘合)'을 쓰고, 그 중간을 칼로 오려내어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사사로운 행위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방법이었으나 그 일이 번거롭고 잘라낸 부분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는 등 폐단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인원수가 적은 회시·전시 등의 시험에서만 시행되었다. 응시자가 많은 지방의 향시에서는 신분기재란을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작게 만들어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으로 말아올려, 이것을 다시 끈으로 묶는 방법을 흔히 썼다.

역서법은 응시자가 작성한 문장의 필체를 시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서리를 시켜 시험내용을 다른 지면에 옮겨쓰게 한 뒤, 이를 보고 채점하도록 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봉미법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과거제 자체도 그렇지만 봉미·역서법도 중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였다.

과거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원(貢院) 내지는 녹명소(錄名所)에 제출하고, 여기서 미제출된 것이 없고 제출된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공원에 제출된 서류는 행권(行券)·가장(家狀), 그리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권이었다. 고려시대의 녹명은 예부(禮部) 공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알성시(謁聖試) 정시(庭試) 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을 제외한 대·소과에서는 대개 녹명소를 설치하고 녹명관(錄名官)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녹명은 시험 전이나 당일에 경시(京試)는 사관(四館) 관원이, 향시(鄕試)는 감사가 인원을 차정(差定)하여 담당케 했다. 복시(覆試)에서는 예비시험인 조흘강(照訖講: 學禮講, 典禮講)에 합격한 첩문(帖文)이 있어야 녹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나가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직역·성명·나이·본관·거주지와 부·조·증조·외조의 직역·성명·본관 등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였다.

서얼의 경우에는 내외 및 처변 원근족친으로서 문·무과 출신인이 착명(着名)한 보단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하게 한 것은 응시자의 사조 가운데 서얼(庶孼)이나 공·사천(公私賤)이 있는지의 여부, 정거(停擧) 또는 죄적(罪籍)에 올랐는지의 여부, 본도(本道) 거주 여부, 조정 관원이 향시에 응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본도 출신 여부를 심사하는 이유는 응시자가 원거주지가 아닌 곳, 즉 자기 소유의 노비나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관의 진성(陳省 : 지방 관서에서 중앙 관서로 보내는 각종 보고서)을 받아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오면 응시자가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서얼 허통 후에는 허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녹명 시에 확인하는 내용과 절차도 변하게 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 시권은 합격 시권과 낙방 시권 [落幅] 으로 분류된다. 합격 시권은 뒤에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와 함께 영광의 상징으로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한 시권, 즉 낙방 시권은 일괄적으로 호조에 옮겨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한 예로 ≪중종실록≫에는 함경도절도사가 빈한한 군사들에게 낙폭(落幅) 시권으로 옷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사도 있다.

1646년 신채(申埰) 시권(試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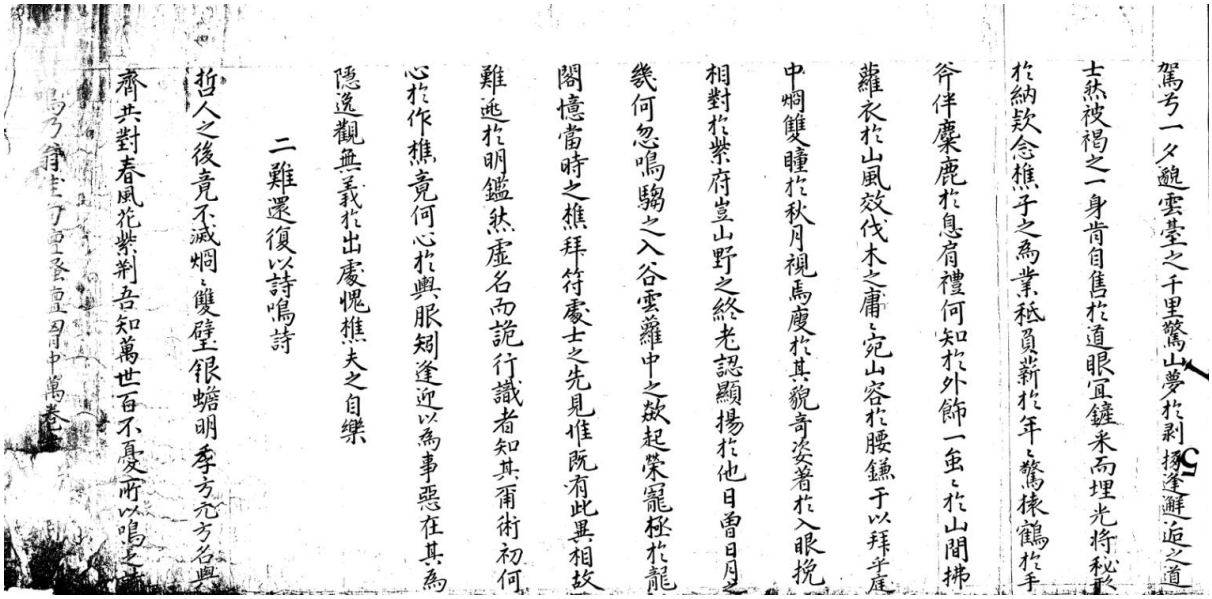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채(申埰)
· 작성시기	1646 년
· 형태사항	크기: 74x22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481 년 신후정(申後艇) 고신(告身)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1 ~183 쪽

樵夫拜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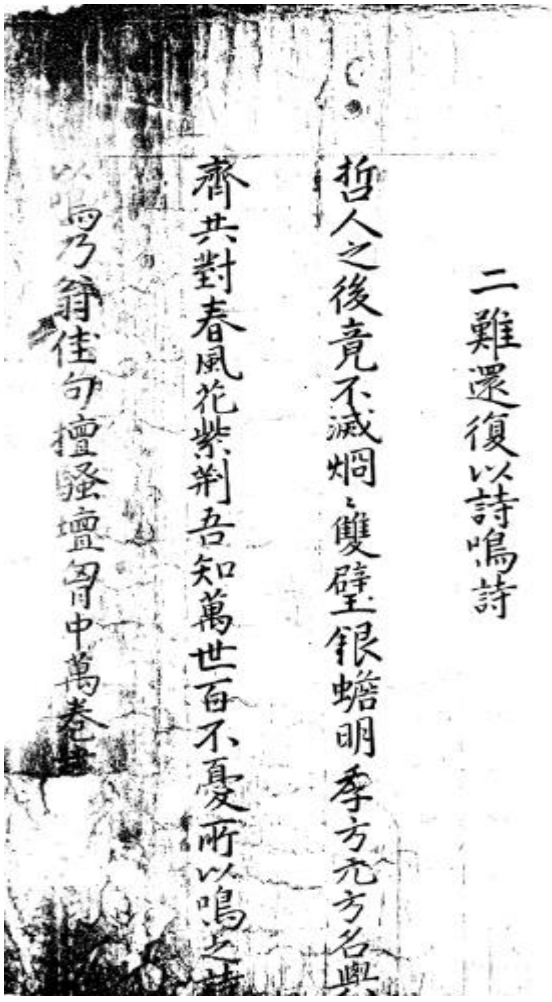
香風吹兮紫洞玉室開兮冊壑中有人兮餐霞
抱知人之高識兮樵夫以拜下異終南之逸士躡清
於下風晦形迹而自秘人沉默而尚志早脫屣於塵網
青雲外兮放身碧山裡兮忘情寄一生於樵採全素履
而貞吉時華山之有人卓層標之拔俗術既妙於黃白
道已得於玄默盍往觀乎真人有藻鑒之明識青牛
駕兮一夕過雲臺之千里驚山夢於剥啄逢避迎之道
士然被褐之一身肯自售於道眼冝鏟来而埋光將秘
於納款念樵子之為業秖員薪於年之驚棟鶴於手
谷伴麋鹿於息肩禮何知於外飾一魚之於山間拂



駕兮一夕過雲臺之千里驚山夢於剥啄逢避迎之道
士然被褐之一身肯自售於道眼冝鏟来而埋光將秘
於納款念樵子之為業秖員薪於年之驚棟鶴於手
谷伴麋鹿於息肩禮何知於外飾一魚之於山間拂
蘿衣於山風效伐木之庸之宛山容於腰鎌于以拜乎雇
中烟雙瞳於秋月視馬慶於其貌奇姿著於入眼挽
相對於紫府豈山野之終老認顯揚於他日曾日月之
幾何忽鳴騶之入谷雲蘿中之欲起榮寵極於龍
閣憶當時之樵拜符處士之先見惟既有此異相故
難逃於明鑑然虛名而詭行識者知其爾術初何
心於作樵竟何心於興眠矧逢迎以為事惡在其為
隱逸觀無義於出處愧樵夫之自樂

二難還復以詩鳴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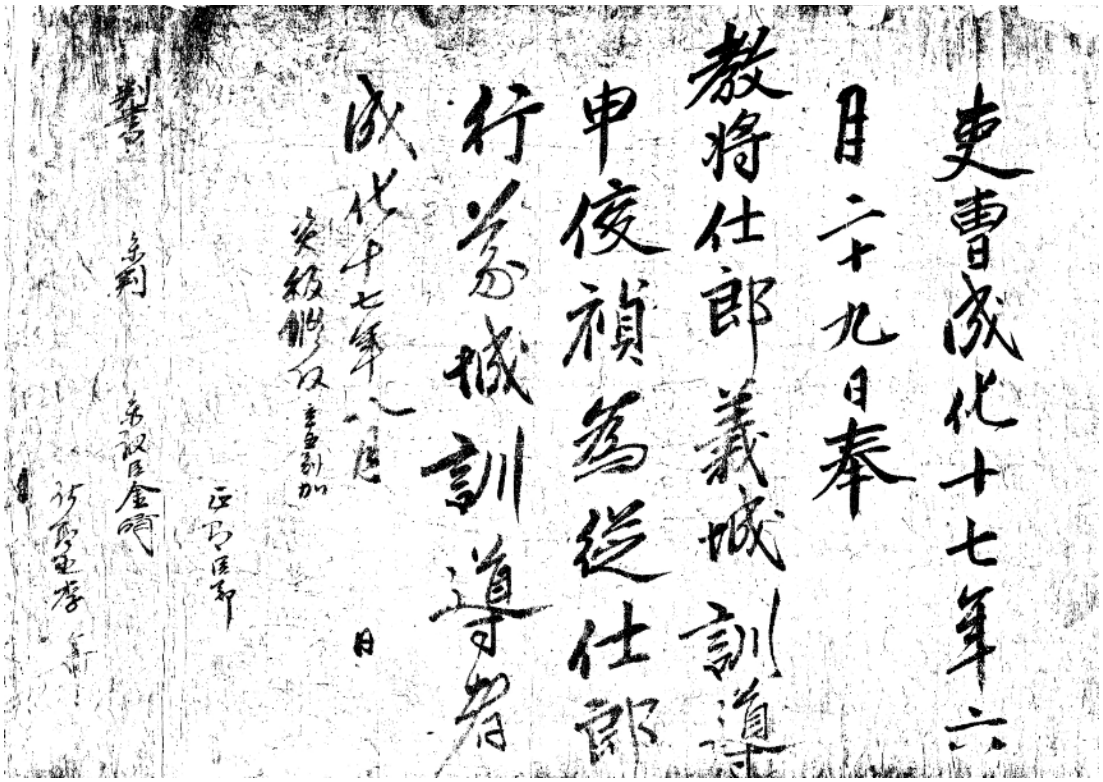
哲人之後竟不滅烟雙壁銀蟾明季方亢方名與
齊共對春風花紫荊吾知萬世百不憂所以鳴之



二難還復以詩鳴詩

哲人之後竟不滅烱烱雙璧銀蟾明季方亢方名與
齊共對春風花紫荊吾知萬世百不憂所以鳴之詩
以鳴乃翁佳句擅騷壇胷中萬卷

名不同謀璿霄文宿光晶詩卷全留天
使我一讀心魂清鴒原酬唱並馳譽一庭交開常
棣榮聲華已播四海中千載令人歎且驚莫語屈
平詞賦懸日月二子文名無與爭



吏曹成化十七年六
月二十九日奉
教將仕郎義城訓導
申俊禎為從仕郎
行義城訓導者
成化十七年八月 日
炎級[illegible]加
正[illegible]
[illegible]

1676년 신우석(申禹錫) 명지(名紙)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
· **작성주체**	발급: 신우석(申禹錫)
· **작성시기**	1676 년
· **형태사항**	크기: 70x2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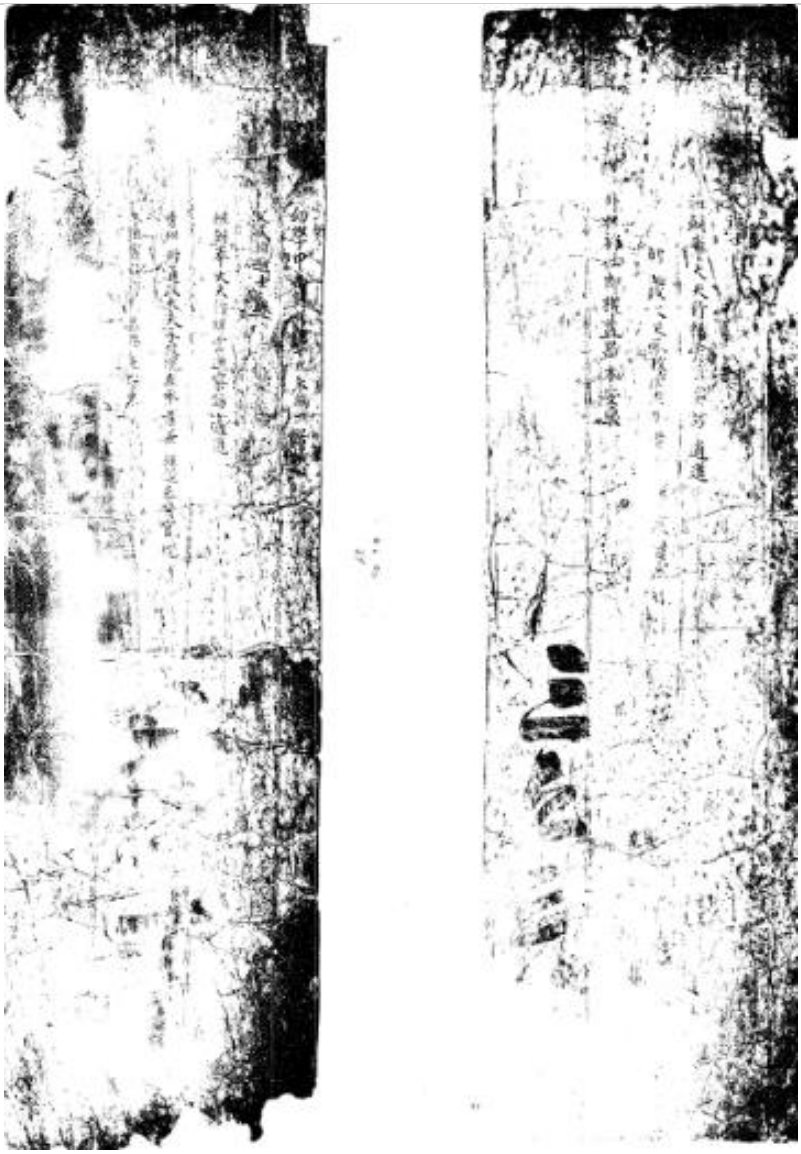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220 ~쪽

17세기 후반 신우석(申禹錫) 명지(名紙)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우석(申禹錫)
· 형태사항	크기: 70x2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22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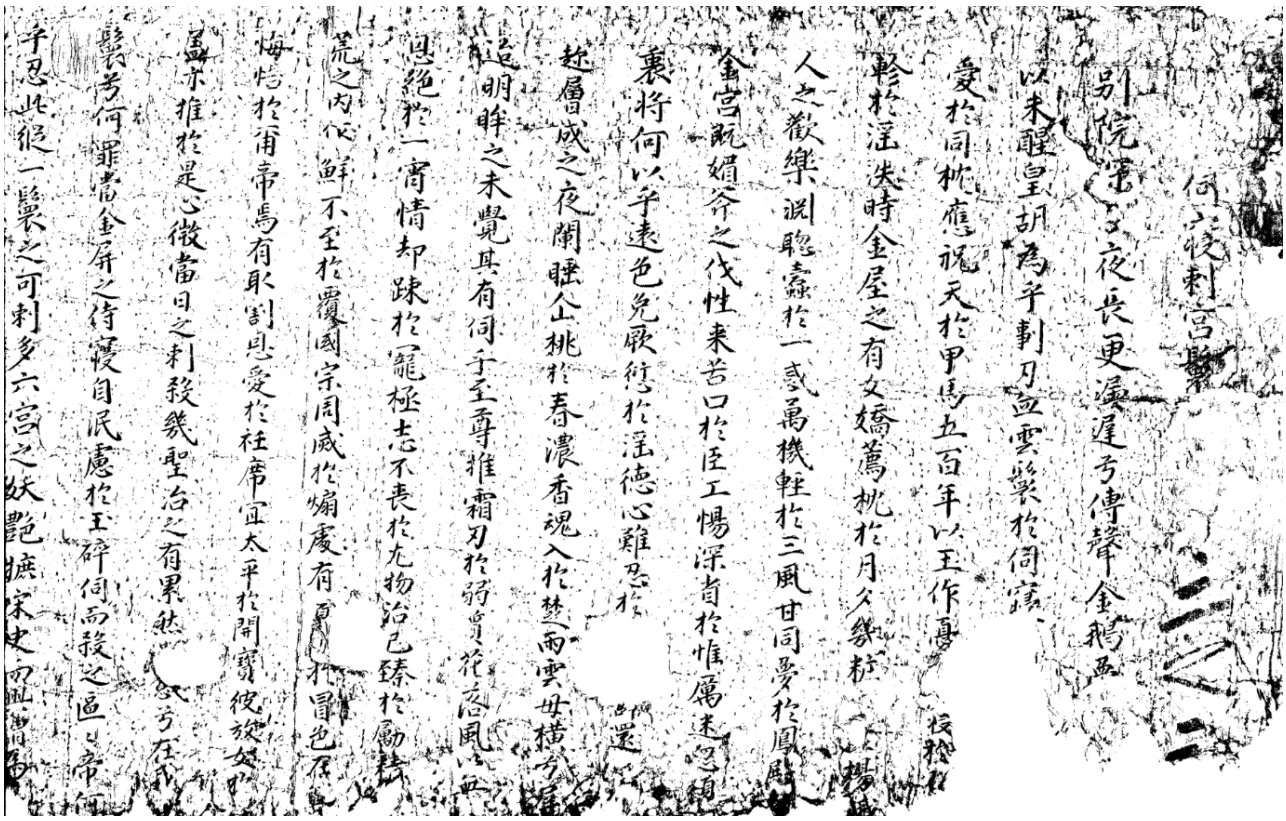


시권(試券)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형태사항	크기: 70x19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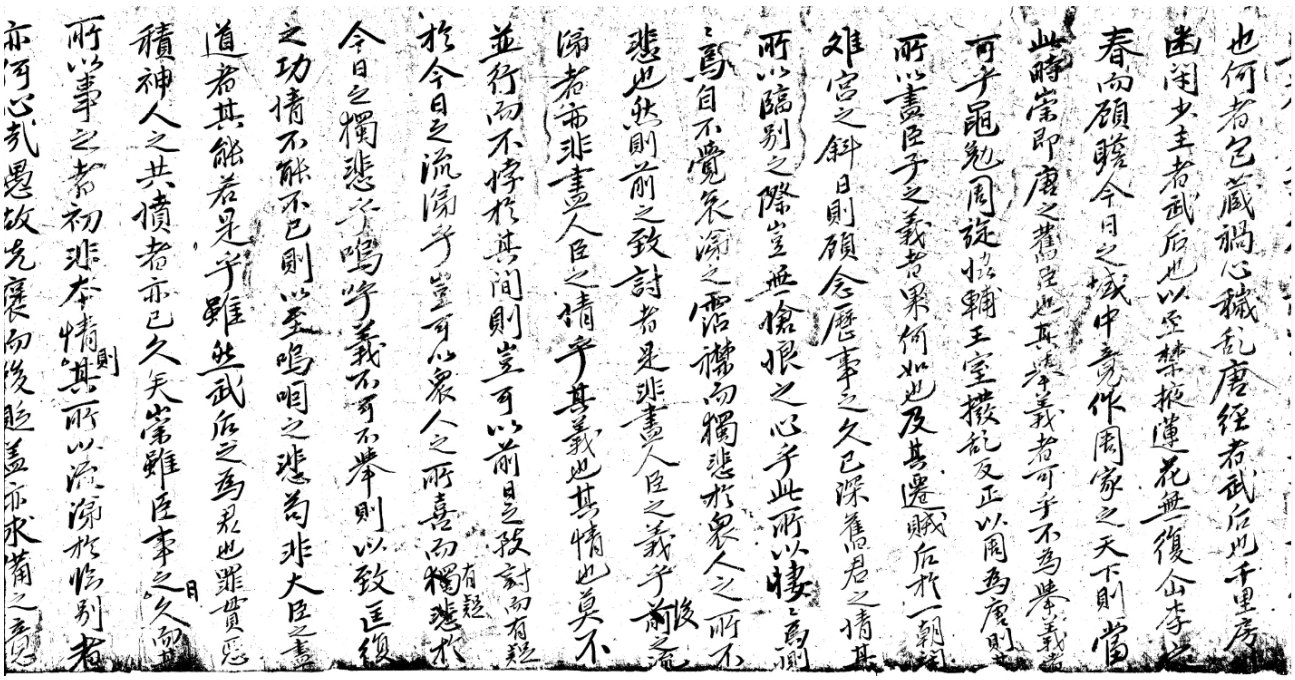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93 ~194 쪽



시권(試券)-논(論)

流涕別舊君論

論曰義可廢乎義不可廢也情可廢乎情不可廢也故在義而盡其義在情而盡其情者此人臣之道也是以事君者惟視吾情義之如何而悲哀異衆之譏有所不屑也苟或一於義不顧一於情而義不舉則是皆偏廢而不能並行惡足以盡其道哉昔武后之遷上陽宮也群臣莫不相慶而獨姚元之嗚咽流涕悲不自勝世之論者孰不曰武后唐室之賊姚尚舉義之臣也以來我之臣而泣唐室之賊今日之哀是則前日之討非也前日之討是則今日之哀非也殊不知前之所以討之者乃所以盡人臣之義也今之所以哀之者亦所以盡人臣之情也何者包藏禍心穢亂唐經者武后也千里房州幽閉少主者武后也以至禁掖蓮花無復仙李之春而顧瞻今日之域中竟作周家之天下則當此時崇即唐之舊臣也其舉義者可乎不為舉義者



也何者包藏禍心穢亂唐經者武后也千里房州幽閉少主者武后也以至禁掖蓮花無復仙李之春而顧瞻今日之域中竟作周家之天下則當此時崇即唐之舊臣也其舉義者可乎不為舉義者可乎黽勉周旋協輔王室撥亂反正以周為唐則所以盡臣子之義者果何如也及其遷賊后於一朝閉雉宮之斜日則顧念歷事之久已深舊君之情其所以臨別之際豈無愴恨之心乎此所以悽悽焉則焉自不覺哀涕之霑襟而獨悲於衆人之所不悲也然則前之致討者是非盡人臣之義乎後之流涕者亦非盡人臣之情乎其義也其情也莫不並行而不悖於其間則豈可以前日之致討而有疑於今日之流涕乎豈可以衆人之所喜而有疑獨悲於今日之獨悲乎嗚呼義不可不舉則以致匡復之功情不能不已則以至嗚咽之悲苟非大臣之盡道者其能若是乎雖然武后之為君也罪貫惡積神人之共憤者亦已久矣崇雖臣事之日久而所以事之者初非本情則其所以流涕於臨別者亦何心哉愚故先褒而後貶蓋亦求備之意

道者其能若是乎雖然武后之為君也罪貫惡
積神人之共憤者亦已久矣常雖臣事之日久而
所以事之者初非本情則其所以流涕於臨別者
亦何心哉愚故先褒而後貶蓋亦求備之意
也謹論

擬漢侍郎章請優養韋玄成勿枉其
志表

老者安之必有聖人之訓肆尚尚
賢而貴矣盍降勿枉之綸敢陳德
賢之秋
養之典欽惟 皇帝陛下 乃神乃聖 聖武神安 承祖
克寬克仁 立寢
宗顯謨顯烈治道進於三王 常念玄成之宿
敏奉先奉慈孝理著於四海 宗是邦家之
德 如或敢先之差池 恐抱風樹之悽楚 超狀望 憐亟愛
儒 察亟敢
日之捆 舍簪笏於大庭馳邁東門
去之誠 則 奉杖屨於古土拜舞奔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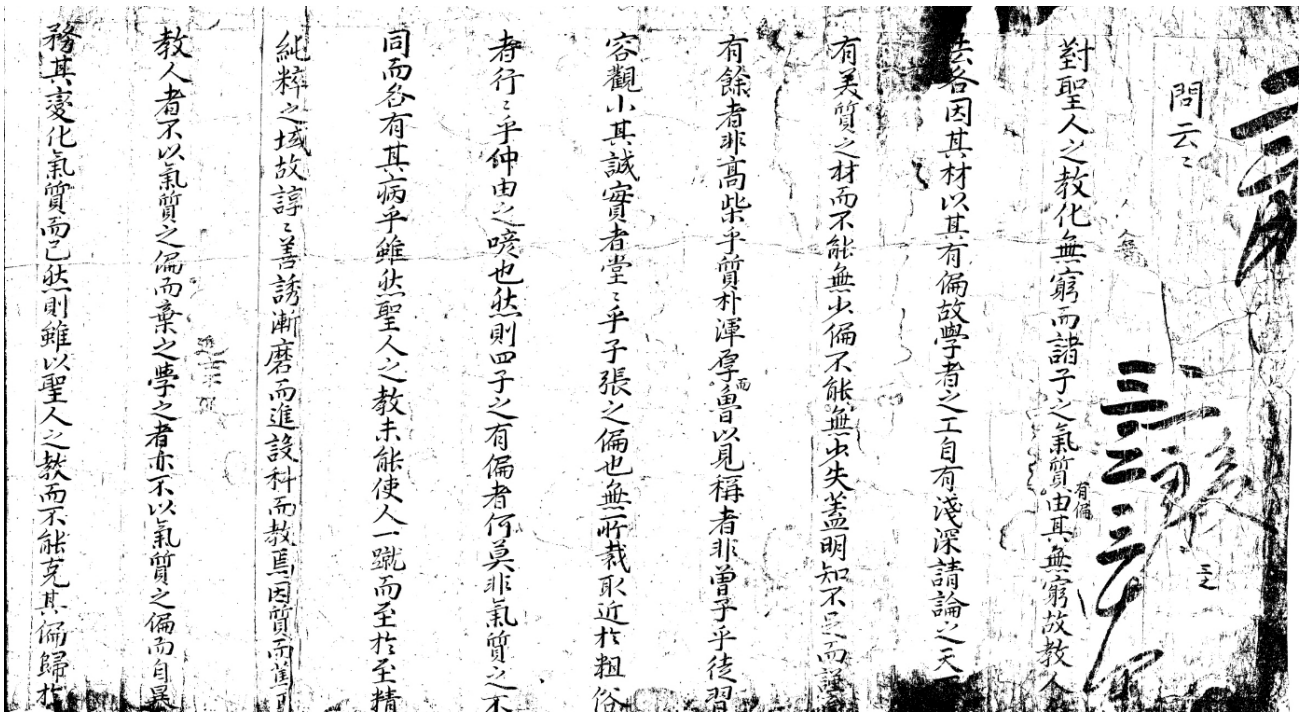
德 如或敢先之差池 恐抱風樹之悽楚 超狀望 憐亟愛
儒 察亟敢
日之捆 舍簪笏於大庭馳邁東門
去之誠 則 奉杖屨於古土拜舞奔老
之匹馬 亟謹尚 益礪初心 換繡
之聖辰 倍殫脫節 求忠
衣於南門縱未及獻芹之誠
亟於孝門 [illegible] 葵之忌

시권(試券)-대책(對策)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형태사항	크기: 68x19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99 ~202 쪽



純粹之域故諄諄善誘漸磨而進設科而教焉因質而篤[illegible]

教人者不以氣質之偏而棄之學之者亦不以氣質之偏而自暴

務其變化氣質而已然則雖以聖人之教而不能克其偏歸於

全者顧其學問之篤不篤如何耳嗚呼氣質得於有生之初而

學力得於既生之後人之所以有粹駁之不同者以其氣質之偏

也人之所以變化其氣質而終歸於同者學問之力也是以魯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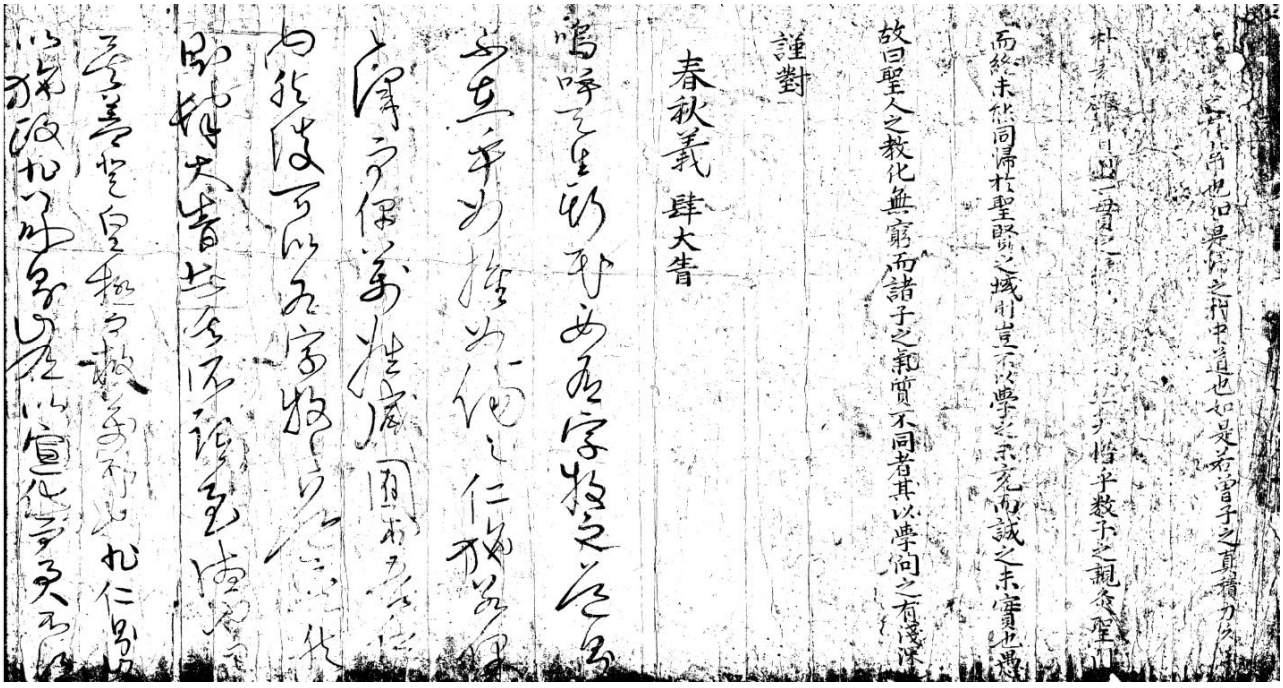
愚者雖高曾氣質之偏而終至於一貫而使夫子悅者是高曾

學力之所至也辟[illegible]嗟是由[illegible]氣質之偏而卒至升堂[illegible]

紳則是由師學力之所致也嗚呼聖人之教語不能顯默不能

[illegible]言一行無非妙道之發一靜一動無非精義之著如呼

[illegible]之[illegible]迷道而使之行高者抑[illegible]及者進[illegible]



[illegible]也如是[illegible]之行中道也如是若曾子之真積力久[illegible]

[illegible]一貫之[illegible]惜乎數子之親炙聖[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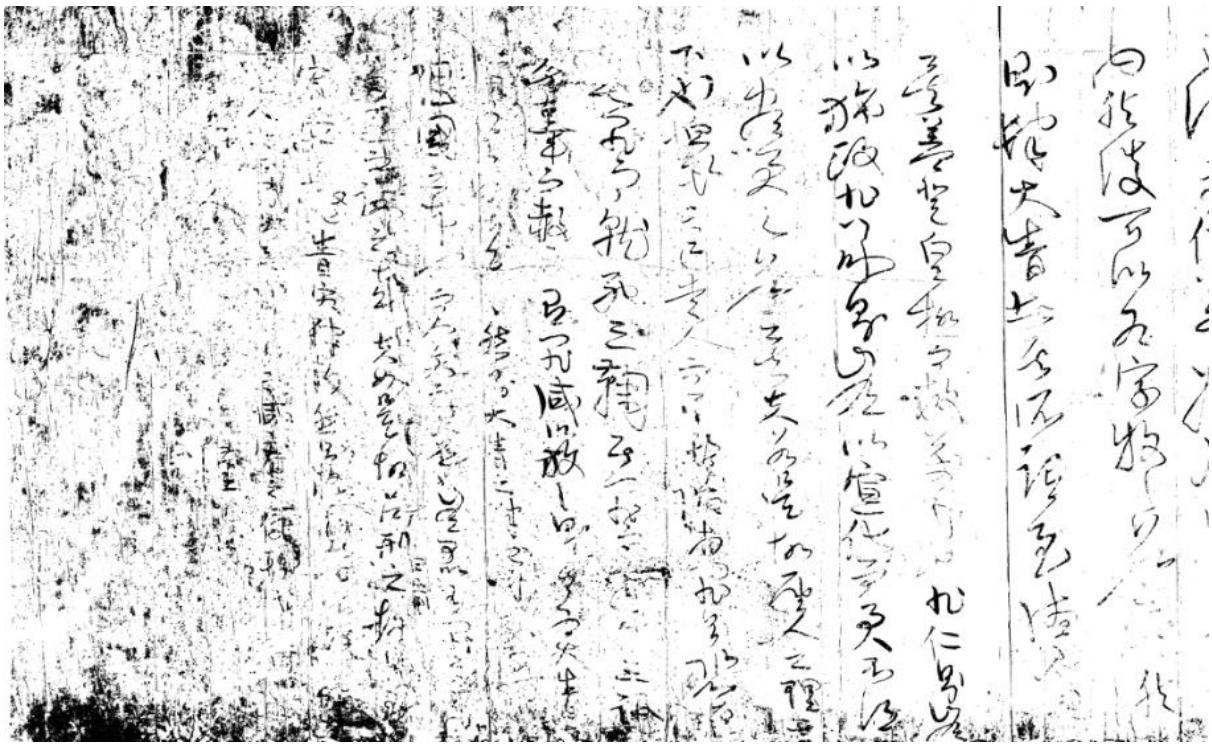
而終未然同歸於聖賢之域則豈不以學之未充而誠之未實也愚

故曰聖人之教化無窮而諸子之氣質不同者其以學問之有淺深

謹對

春秋義　肆大眚

嗚呼[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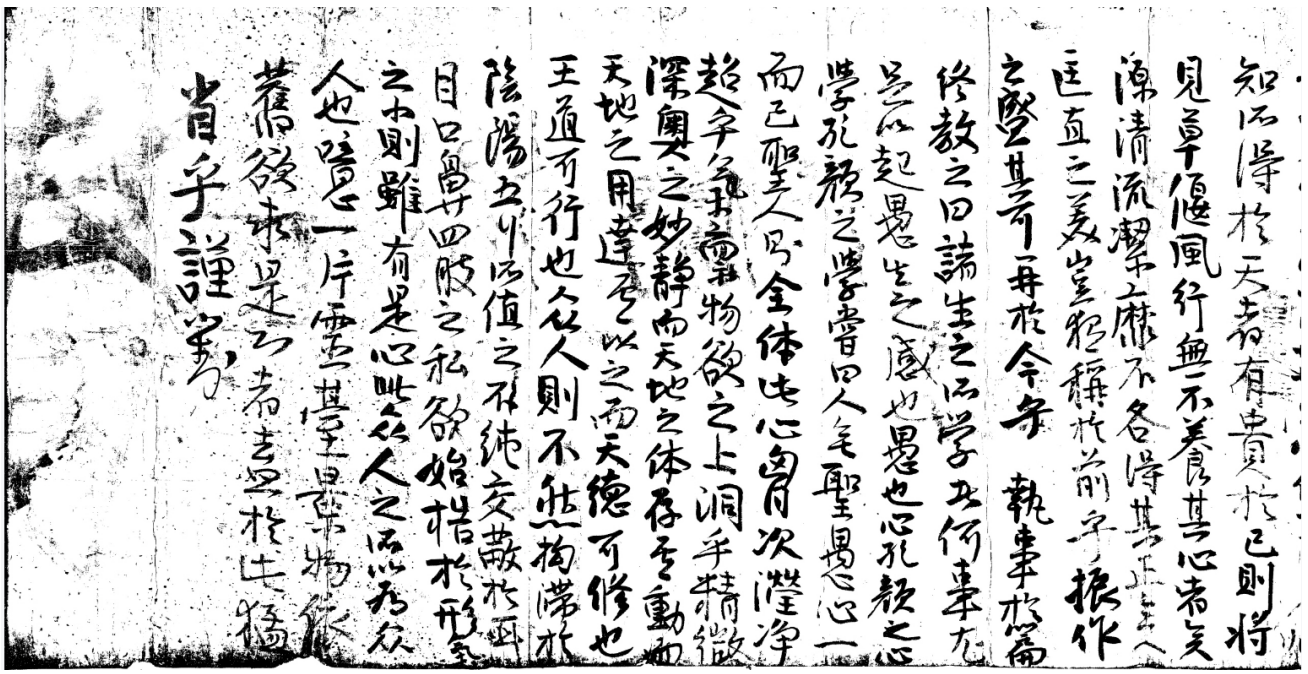
無有定時在此在彼無有定處操之匪存舍
之便亡而以至自私以賊夫仁用智以賊夫義滅却
天理都喪了本然之心体則善惡於是焉分賢
愚於是焉判危者愈危微者愈微噫此豈心
之罪哉然則包括神明者既無彼此之殊管攝
性情者亦無愚智之異而由義理發則有以全
之而洞乎精微之妙由形氣發則無以檢之而不能
主宰乎身可不戒哉可不慎哉嗚呼有是人則有是
身有是身則有是心初非產於內有何走出
於外乎人知鷄犬之求而不知求此心人知桐梓之
養而不知養此心如欲求之養之盡於腔子裏
要之乎噫收回放心者敬也[illegible]適者亦敬也
操風化之權而任觀感之[illegible]者[illegible]是先之哉
請以見質於師友者證之曰心之得失人之人不人
存焉則聖賢相傳只是心法二字而其曰道心
原於性命之正也其曰人心出於形氣之私也七情
具於中而隨感而應四端見於外而藹然難
遏此非發於心而出於心乎心統性情而發者[illegible]
之者[illegible]則[illegible]一動一靜[illegible]有体[illegible]用[illegible]之妙者矣[illegible]在誠正而[illegible]者為養[illegible]
者為治則或大或小用之方見矣面示於天者[illegible]為本然
之性拘於氣者為氣質之性則論性者無
惑乎二歧恕而為如心忠而為中心則論道者
何疑乎一貫出入無時莫知其向則[illegible]其可
舍者方時乎知誘物化遂亡其正則[illegible]其不求

之性拘於氣者為氣質之性則論性者無
惑乎二歧恕而為如心忠而為中心則論道者
何疑乎一貫出入無時莫知其向則[illegible]其可
舍者方時乎知誘物化遂亡其正則[illegible]其不求
者乘彝乎開八窓之光明而名以靈其至為
一身之主宰而歸以天君其所取義[illegible]可知
矣此心自明則如鏡之明此心自正則如水之止
聖人之心果如是夫仁為生性則穀種者是心
也身為逼宇則郛郭者是心也舍有神明
神氣之所聚也開有人鬼誠意之如何也以道
心而為帥焉以人心而為卒[illegible]誠哉是論也衆欲
之攻為仇讐百体之從為臣僕[illegible]
噫心是活物也感物遂地光明者有時而塵
焉靈靈者有是而蔽焉則又安得保其
常存乎此聖賢之所以論其体用提撕警
覺者至矣盡矣然則其橫說竪說者只是
欲人將已致之心使反西復入身來則孰先
傳之而以為治心之宗旨乎孰後倦焉而
以為不能盡至其義乎孰事必欲言之
而無已則惟敬可以存此心惟敬可以養
此心則所謂大顯臚者果不在於此乎嗚
呼大哉聖賢之訓也其所以開示後學垂
戒當時有若障[illegible]之桂指南之車則可以開

以為不能盡至盡其義乎　執事必欲言之
而無已則惟敬可以存此心惟敬可以養
此心則所謂大顯臚者果不在於此乎嗚
呼大哉聖賢之訓也其所以開示後學垂
成當時有若漳州之桂指南之車則可以開
群蒙於萬古明此心之本体而奈之何人心
陷溺聖教不明寄命于耳目騰理乎
口舌紛百慮走千歧而不知此心之所以存
任其情縱其欲而不知此心之所以養濯濯
牛山斧斤日尋而牛羊復侵乎萌蘖戛然
蹊澗茅塞已甚而茫然莫知其覺以至自
[illegible]而不可与有言自棄而不可與有為反天而
禽反人而獸悍然不顧恬不知恥則噫此何等
人心耶　執事之所哀愚亦哀之此心既亡
則善行何責於今之人乎世道漸下則良
材何望於今之世乎以言乎朝廷則恪心而輔
佐者何人宗社之岌岌也宜矣以言乎儒林
則務學而志行者伊誰元氣之萎薾
也宜矣以至黎黎居養蠶然汨喪其良徒

恨怨恨之口莫念親上之義則今之
邦本亦可謂固乎在下之人心如此故在
上之天意亦平則白虹之貫日前史之所
[illegible]太白之晝見亦罕於前史而非
常之變可愕之實咸萃於昭代則
執事所謂國家之憂不相於外而
危急之病正在心腹則噫今日之病
塞極矣今日之晦冒甚矣若使
華陀扁鵲之徒有見乎此則寧不
為之望而驚乎嗚呼人無古今則
心豈有古今而古之人何[illegible]
[illegible]以全其本然之体乎今之人何[illegible]
養其心而以喪其本然之体乎噫今
[illegible]
操存[illegible]古之人必操存而
涵養之矣今之人亦能操存而
涵養之乎古之人必体認而省察
之矣今之人亦体認而省察之乎
無操存省察之功而馳騖飛
揚以徇物欲於外則一身無主
萬事亡綱天之所以与我之心汨喪

涵養之矣今之人亦能操存而
涵養之乎古之人如体認而省察
之矣今之人亦体認而省察之乎
無操存省察之功而馳騖飛
揚以徇物欲於外則一身無主
萬事無綱天之所以与我之心汨喪
而盡亡之則今日之病頗不在於不
求乎噫求之有要敬而已矣程子嘗以主
一無適言之矣亦嘗以整齊嚴肅
言之矣謝氏之說則又有所謂常
惺惺者法焉尹氏之說則又有所謂其心
收斂不容一物者焉觀是無說則
是以見用力之方矣苟此先以敬為主而
存養乎此心省察乎此心則心能主
宰不為外物所誘許多道理推廣
得來十分明徹各以其類而應矣
雖然不有聰明睿智出於衆人之上
者有以導迪之表率之則彼罔迪
不迪之人心豈能舍惡而之善乎
誠此先正其心以正人心使一世之人咸
知所得於天者有貴於己則將
見草偃風行無不養其心者矣
源清流潔靡不各得其正矣人
匡直之義豈獨稱於前乎 振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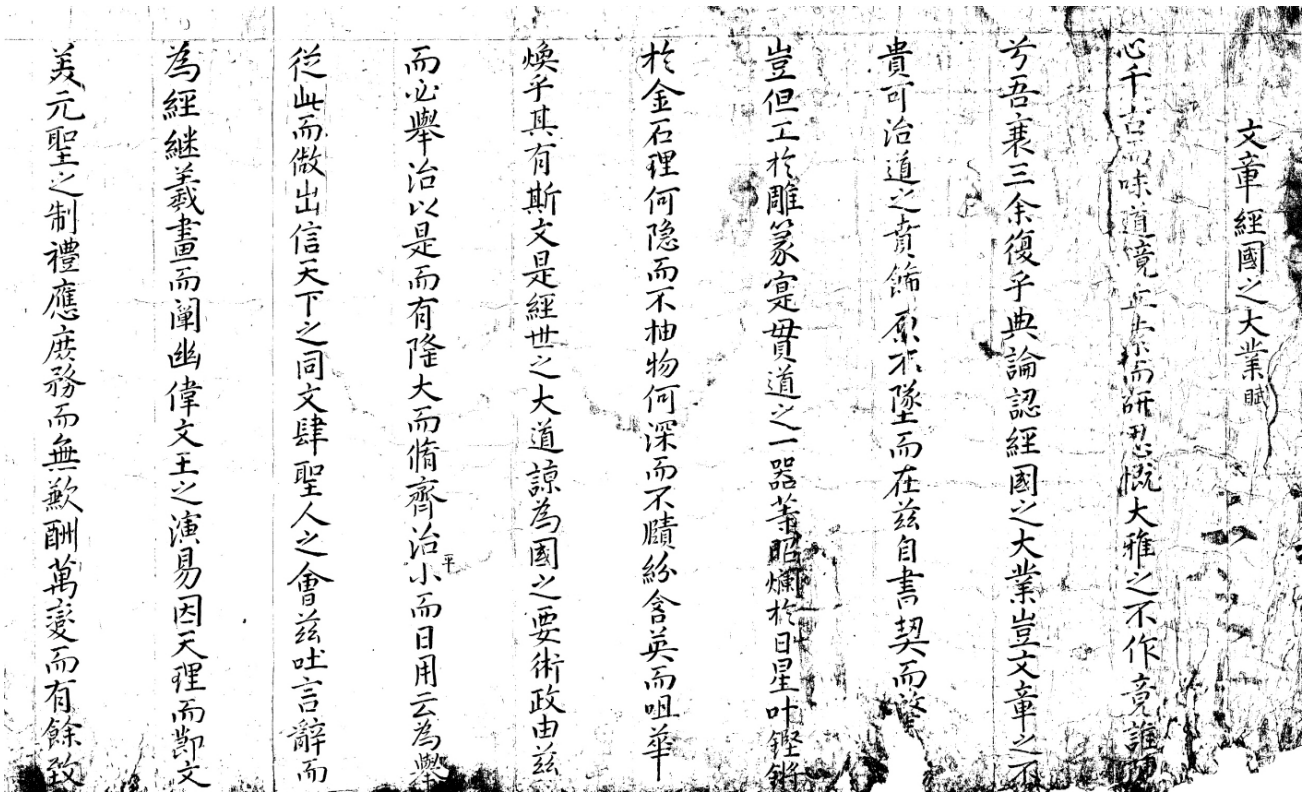
知所得於天者有貴於己則將
見草偃風行無不養其心者矣
源清流潔靡不各得其正矣人
匡直之義豈獨稱於前乎 振作
之盛其可再於今乎 執事於篇
終教之曰諸生之所學其何事尤
是以起愚生之感也愚也心孔顏之心
學孔顏之學嘗曰人無聖愚心一
而已聖人則全体此心胸次瀅淨
超乎氣象物欲之上洞乎精微
深奧之妙靜而天地之体存焉動而
天地之用達焉以之而天德可修也
王道可行也衆人則不然拘滯於
陰陽五行所值之不純交蔽於耳
目口鼻四肢之私欲始梏於形氣
之小則雖有是心此衆人之所以為衆
人也噫一片靈基是某物依
舊欲求是者去思於此猶
省乎謹案

시권(試券)-부(賦)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형태사항	크기: 70x16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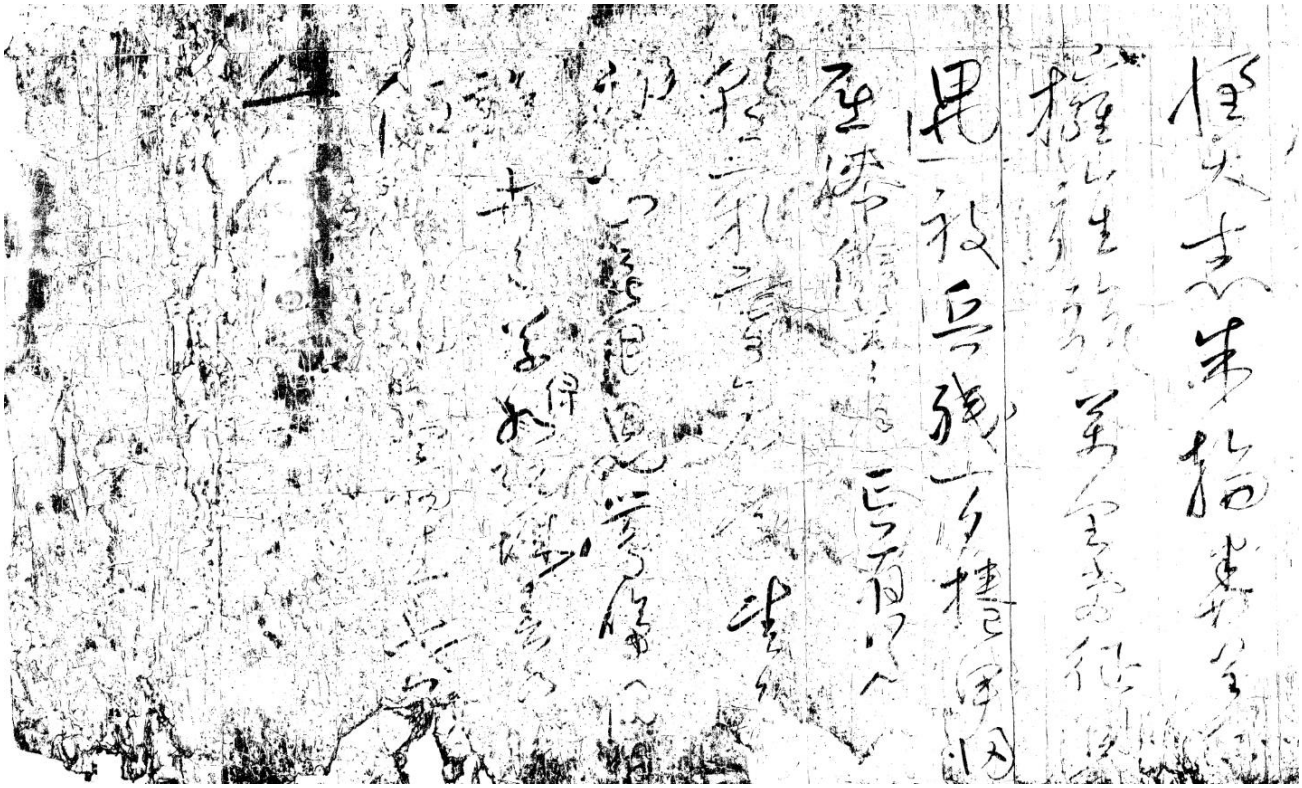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216 ~21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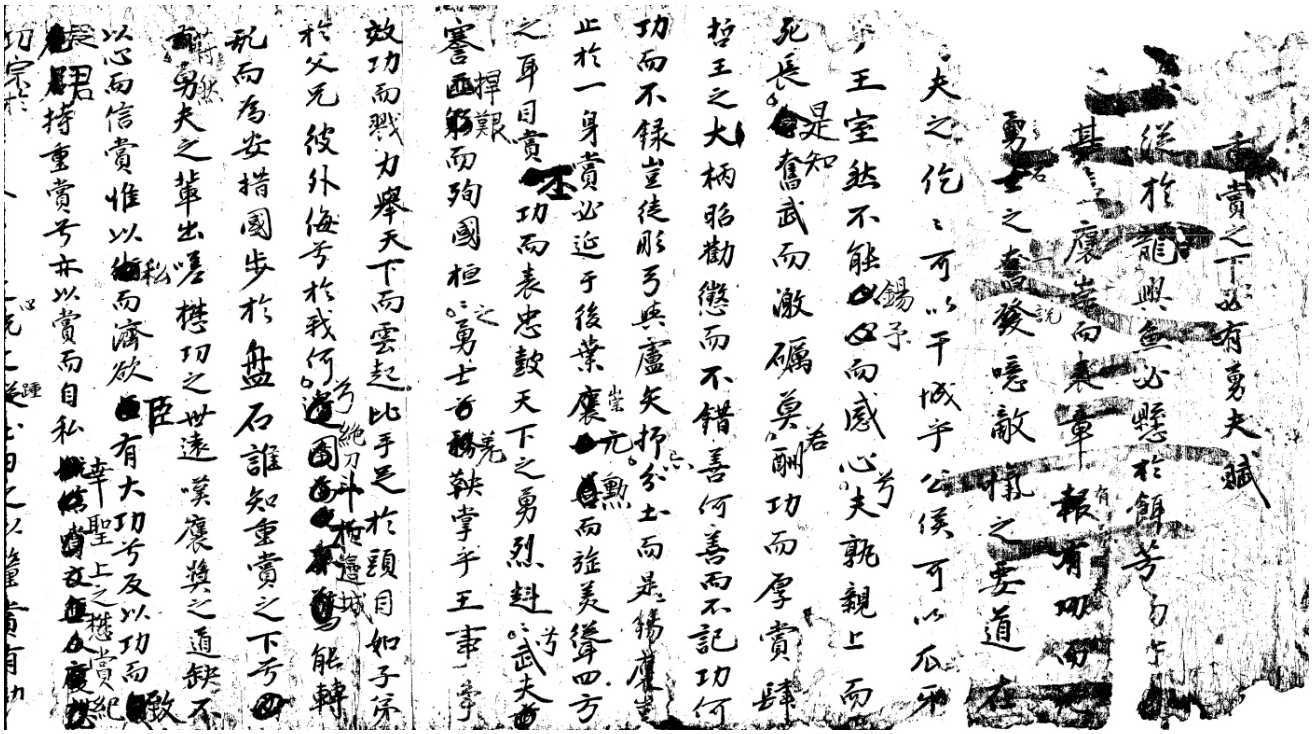


為經繼羲畫而闡幽偉文王之演易因天理而節文
美元聖之制禮應庶務而無歉酬萬變而有餘致
一世於陶鎔運四海於掌上歷宇宙而如一信文獻
之足徵約可師而可法郁郁乎其文哉著明法於丹青
開日月於晦旨儼前聖之大道千載下而瞭然何文
風之一變舉遺本而逐末既專心於詞章不足珍乎
綺麗若[illegible]之過耳類畫虎[illegible]有竟買櫝而
還珠文[illegible]文若有人兮人[illegible]經綸之大才[illegible]
鏤冰之[illegible]蟲之[illegible]苑庶皇猷
之黼黻

代[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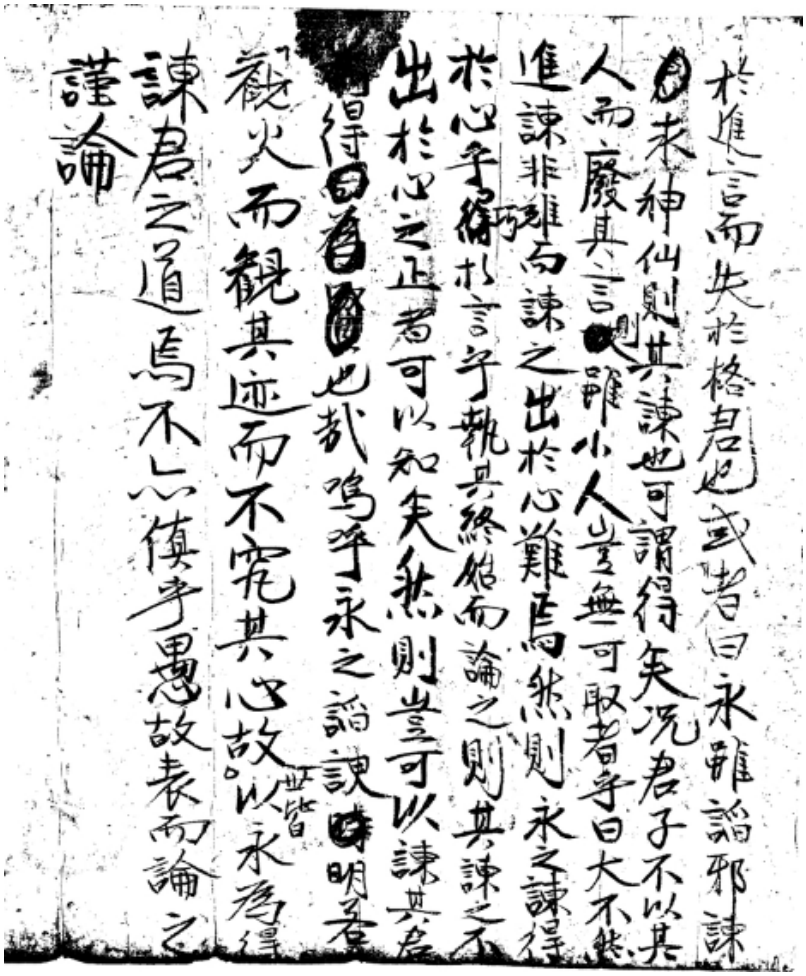


[illegible]男夫之輩出嗟懋功之世遠嘆褒獎之道缺不
以心而信賞惟以私而濟欲臣有大功乎反以功而[illegible]
君持重賞乎亦以賞而自私幸聖上之懋賞紀
功宗於當時暴形乎之心既逞土田之以釐賞有功
必厚激一代之武士起浣浣於陸南奮桓桓於北
鄙不患將士之無勇乎患所賞之或輕然有始
終願聖上乎以誠遂之箴曰誠也本當
自誠乎不誠無

谷永諫求神仙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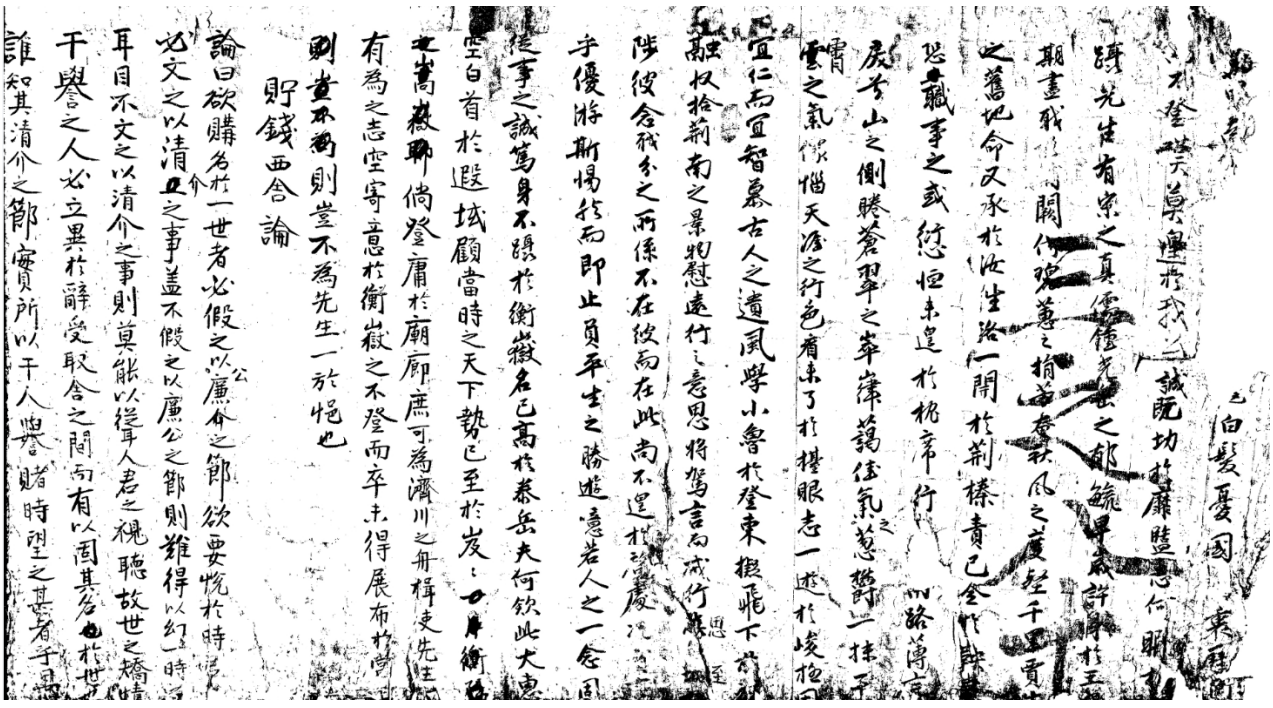
論曰有諫之以心者有諫之以言者諫之名雖同而
諫之實有異是以君子之諫非格非則不諫焉
小人之諫非容悅則亦不諫焉豈可以一時之諫
遽以為得其道乎而況小人之心倍伺其可乘
之釁而巧中人主之惑則其所以為諫者乃
所以不諫者也余於谷永之諫求神仙見之
矣嗚呼永之諫出於心乎永之諫巧其言乎
其名雖假於儒術而其心實出於諂邪則永
可謂君子乎可謂小人乎當成帝
求仙之日進其捕風之說則永之諫似出於正
也然而其心則邪其計則巧可謂諫之正者乎
而況終始失進退之道獻策售訣佞之術

其名雖假於儒術而其心實出於諂邪則永
可謂君子乎可謂小人乎當成帝
求仙之日進其捕風之說則永之諫似出於正
也然而其心則邪其計則巧可謂諫之正者乎
而況終始失進退之道獻策售訣佞之術
則永之為人可以知矣永之為諫可以推矣
其心以為黃白之術所當進諫而劉向既進其求
仙之言則盈漢庭諸臣一無格君者也我於此
而為出一言則天下孰不以為諫君之忠也我於
此而為進一說則人主豈不以為格王之直也哉此永
之所以進諫於崇神之日而以沽其直者也永之所以
專寵於侍重之時而基禍於邦家者也然則永
之諫諂也非忠也永之心阿也非直也心之阿而得
諫君之名諫之諂而見信聽主上之永可謂巧



於進言而失於格君也或者曰永雖諂邪諫
未神仙則其諫也可謂得矣況君子不以其
人而廢其言則雖小人豈無可取者乎曰大不然
進諫非難而諫之出於心難焉然則永之諫得
於心乎得於言乎執其終始而論之則其諫之不
出於心之正者可以知矣然則豈可以諫其君
得曰善也哉嗚呼永之諂諛時明若
觀火而觀其迹而不究其心故世皆以永為得
諫君之道焉不亦慎乎愚故表而論之
謹論

白髮憂國 [illegible]



不登[illegible]莫遑於我[illegible]誠既功於廉藍[illegible]
蹟先生有宋之真儒[illegible]之郁毓早歲許身於王
期盡我[illegible]闕[illegible]殉蕙之捐[illegible]春秋風之[illegible]千里賈
之舊地命又承於汝生路一開於荊榛責己全於[illegible]
恐職事之或愆恒未遑於枕席行[illegible]路薄[illegible]
處[illegible]山之側睠蒼翠之峯嶂藹佳氣之葱鬱一抹[illegible]
霄雲之氣[illegible]惱天涯之行色看來了於棲眼志一遊於峻極
宜仁而宜智慕古人之遺風學小魯於登東擬飛下於[illegible]
融收拾荊南之景物慰遠行之意思將駕言而成行[illegible]
陟彼念我分之所係不在彼而在此尚不遑於[illegible]
乎優游斯惕於而即止負平生之勝遊意若人之一念[illegible]
從事之誠篤身不躡於衡嶽名已高於泰岳夫何欽此大惠
空白首於遐域顧當時之天下勢已至於岌岌[illegible]衡[illegible]
之嵩嶽聊倘登庸於廟廊庶可為濟川之舟楫使先生[illegible]
有為之志空寄意於衡嶽之不登而卒未得展布於[illegible]
則豈不為則豈不為先生一於悒也

貯錢西舍論

論曰欲購名於一世者必假之以廉介之節欲要悅於時[illegible]
必文之以清介之事蓋不假之以廉公之節則難得以幻一時[illegible]
耳目不文之以清介之事則莫能以從耳人君之視聽故世之矯情
干譽之人必立異於辭受取舍之間而有以固其名也於世[illegible]
誰知其清介之節實所以干人譽賭時望之甚者乎[illegible]

貯錢西舍論

論曰欲購名於一世者必假之以廉介之節欲要悅於時[illegible]必文之以清介之事蓋不假之以廉公之節則難得以幻一時耳目不文之以清介之事則莫能以從耳人君之視聽故世之矯情干譽之人必立異於辭受取舍之間而有以固其名於世誰知其清介之節實所以干人譽賭時望之甚者乎[illegible]於宋劉溫叟是驗矣[illegible]蓋溫叟清介人也一身四迹已老依阿累世而諂媚一時當時人以好古執礼推夫其既購重名於一時則為溫叟計者其將為貪[illegible]之行乎抑將為清介之節乎雖匹夫之賜尚且不苟況諸戴之有賜於已乎千緡之錢思欲受之則有累於清介之節也思以辭之則有涉於郤之為不恭也千百其計[illegible]有不至其意以為長君之命已及於光義則光[illegible]之戴也以如是尊貴之人而遺如是千百之錢是[illegible]吾之[illegible]介也以吾之廉介而得君之緡錢則其可以受之而吾之節乎然而不受亦非其心之所發也此當日之所受言藏之者也越明年而討識宛然孰不曰溫叟清介苟於取與者乎是以光義論當世清節之士而以溫叟為首焉[illegible]溫叟貯錢之心至於此而大[illegible]始一念莫不以清介之節干乎世矣曾謂好古執礼之士而有如此干名[illegible]要譽之心乎世之論者不知此意而莫不以介清之名歸之豈不謬哉雖然[illegible]大隧之風起於周詩祗車轂之習譏於漢史則貯錢之事其亦遠矣噫謹論

賜金龍扇賦

驪珠璨於海蚌鳳藻映於金闕動天顏於[illegible]紆聖眷於三錫出九華之金扇賚一介之詞臣文已貴於千金物何愛於寵恩當休明之景運皇有意於好文蔚群龍之登進藹文瑞於朝廷時霜臺之有臣久騷壇之擅名發雕龍於緯槧耀靈虵於掌握才無敵於六絕譽望崇於丹極文星動於一夜錦囊入於九重回重瞳於一覽驚萬丈之光熖麗花圃之春風清玉堦之夜雨是文章之司命可皇猷之黼黻心乎愛而曰篤何以賜之予美顧手中之有物煥金龍於

入於九重回重瞳於一覽驚萬丈之光焰麗花圃之春
風清玉階之夜雨是文章之司命可皇猷之黼黻心乎
愛而曰篤何以賜之予羨顧手中之有物煥金龍於
鳳尾香風生於一揆浩氣爽於袖裡豈一扇之足愛信
兩美之相合催中官以錫予下恩賚於九霄片雲深考
牧拾孤月滿於動搖手團之一把御爐香之猶襲
寖中心之嘉貺非汝羨之為羨榮何止於簒袍寵不盡
於解裘皎一片之長揮帶九天之雨露想當日之賜扇
歎爾臣之雄詞非造鳳之逸思胡眷遇之若茲一金龍
之在手天子賜之恩光惜帝德之不一試天書之異術
卒制作之紛〻神道教弓又談微張公之謇諤幾宋
祚之顛覆彼臨終之遺表信爾帝之藥石

五家隨獵驪山圖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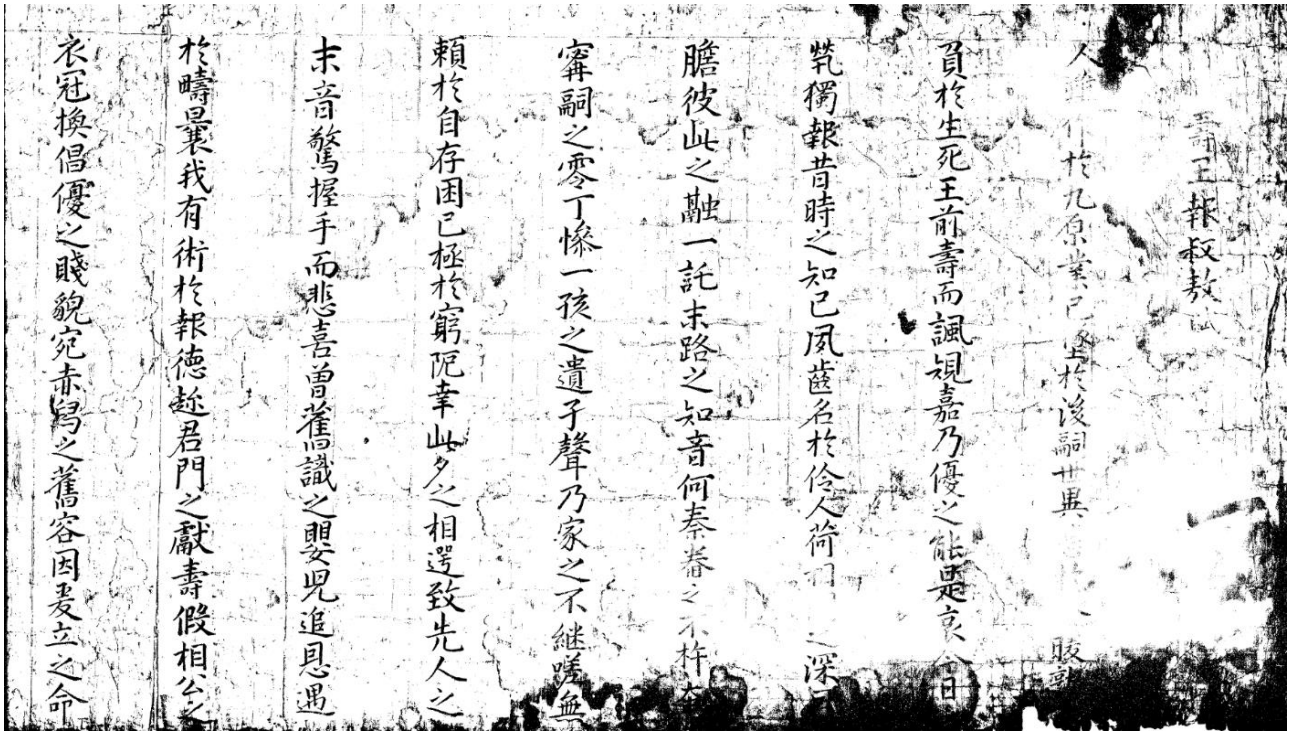
君王如帝坐法宮奈何来此驪山陽五家珠翠車

신우석(申禹錫) 시권(試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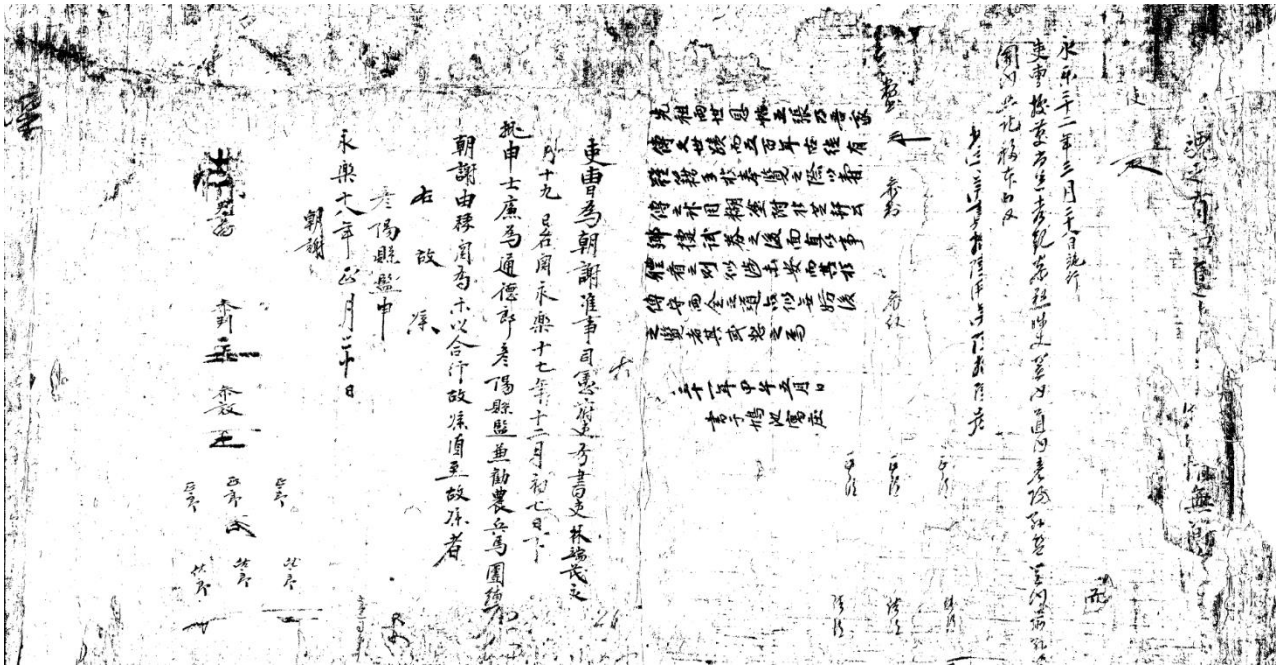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우석(申禹錫)
· **형태사항**	크기: 70x20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5 ~186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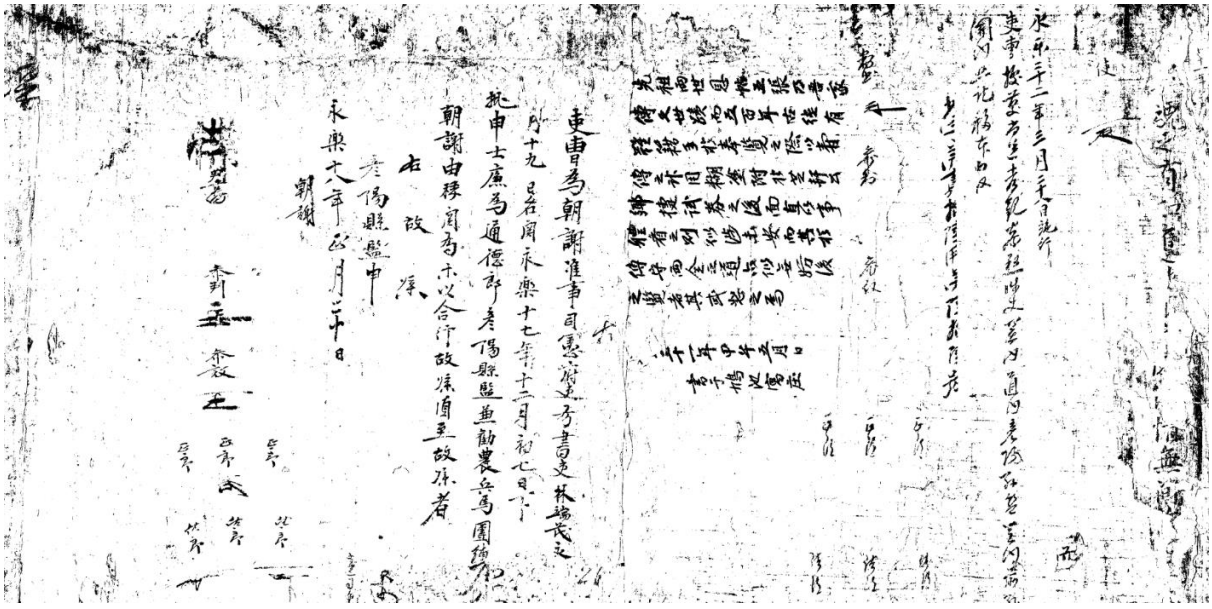
衣冠換倡優之賤貌宛赤舄之舊容因麦立之命
援婦言而善諷曰叔敖之為人位具瞻於黃閣一乃
心於王室對鴻基於伯業功莫大於生前祿宜及
身後慨後昆之零落任長貧於一生身朝夕之負薪
室四壁之徒立公卿子於庶人何一寒之若此倘有如
於斯人寧此命之自決言言出於剴切實規諷之微
意果宸心之改[illegible]仁[illegible]等之茅[illegible]
溢寵渥於遺胤渙[illegible]有氊之[illegible]
噫優孟之壽王實善[illegible]異言事雖近於滑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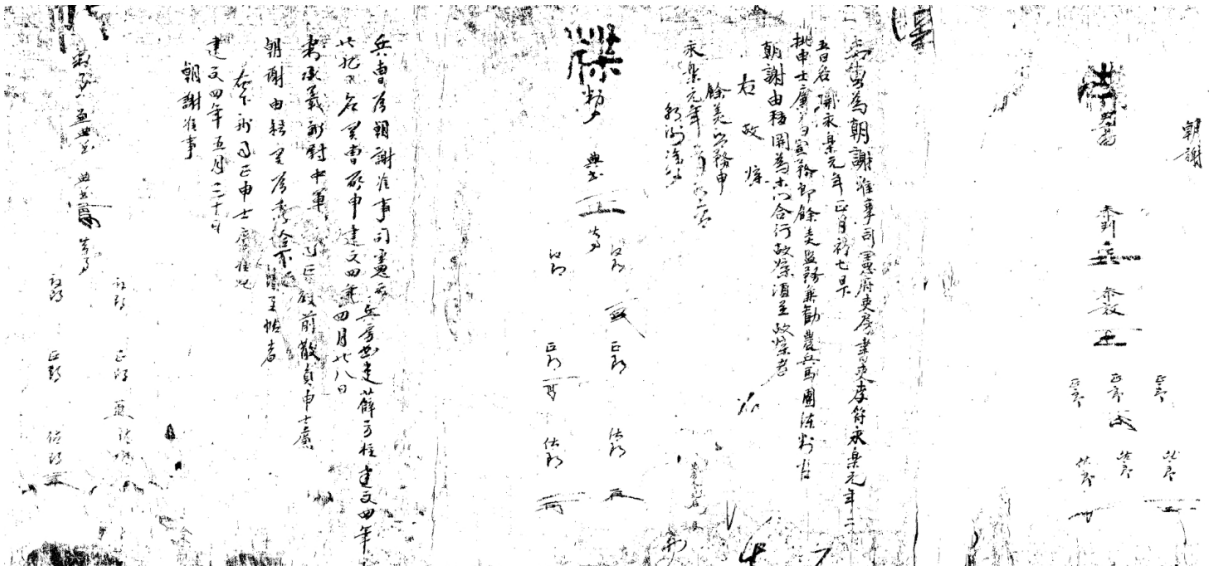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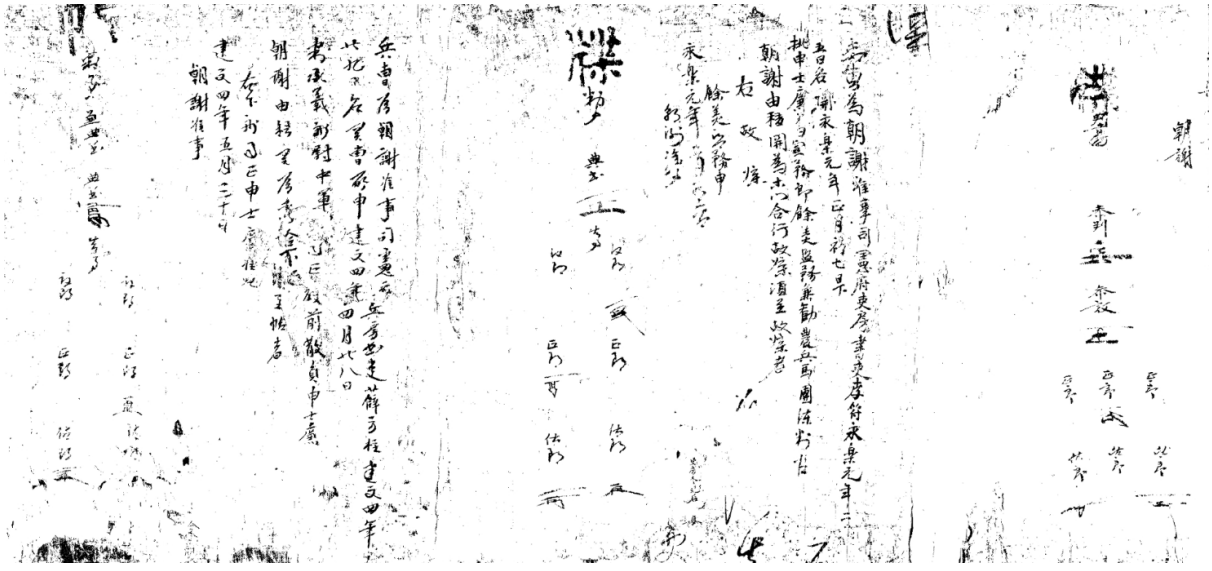
永樂三十二年三月二十日執行
吏曹[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吏曹為朝謝准事司憲府吏房書吏林端茂文
月十九日名聞永樂十七年十二月初七日下
執申士廉為通德郎參陽縣監兼勸農兵馬團練
朝謝由稱聞為未以合行故牒須至故牒者
右故牒
參陽縣監申
永樂十八年正月二十日
朝謝







명문문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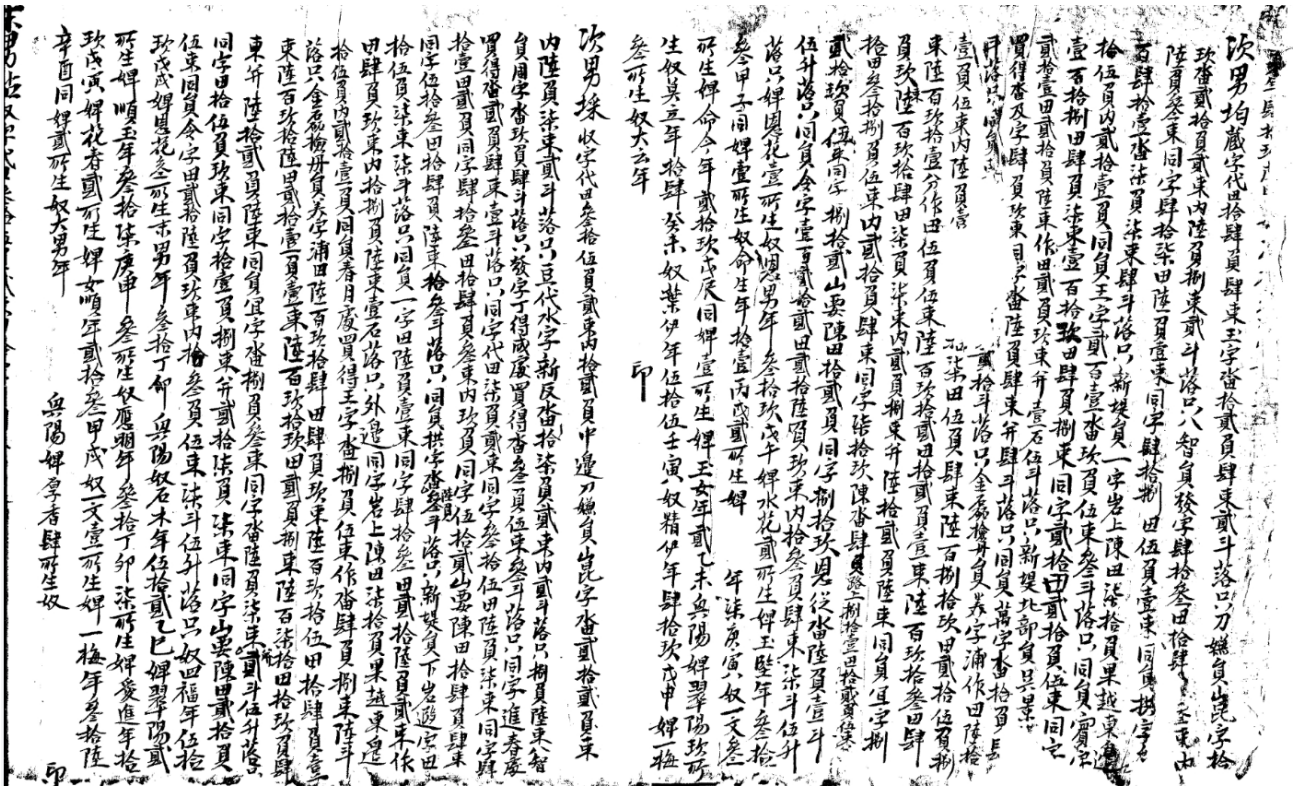
분재기 (1)

17세기 중엽 재주(財主) 신적도(申適道) 분급문기(分給文記)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 경제-상속증여-분재기
· 작성주체	발급: 신적도(申適道) / 수취: 신집(申㙫) , 신균(申均)
· 형태사항	크기: 50x17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3. 명문문기류 / (1) 분재기 / 분재기 / 15 ~17 쪽



次男怕藏字代田拾肆負肆束王字畓拾貳負肆束貳斗落只刀鰋負山兒字拾玖畓貳拾負貳束內陸負捌束貳斗落只八智負發字肆拾參田拾肆負參束同字肆拾柒田陸負壹束同字肆拾捌田伍負壹束同負捌字百肆拾壹畓柒負柒束肆斗落只新堤負一字岩上陳田落拾負果越東邊拾伍負內貳拾壹負同負王字貳百壹畓玖負伍束參斗落只同負實字壹百拾捌田肆負柒束壹百拾玖田肆負捌束同字貳拾田貳拾負伍束同字貳壹田貳拾負陸束作田貳負玖束弁壹石伍斗落只新堤北部負吳果買得畓及字肆負玖束目字畓陸負肆束弁肆斗落只同負

壹負伍束內陸負壹

束陸百玖拾壹分作田伍負伍束陸百玖拾貳田拾貳負壹束陸百玖拾參田肆負玖陸百玖拾肆田柒負柒束內貳負捌束弁陸拾貳負陸束同負宜字捌拾田參拾捌負伍束內貳拾負肆束同字陸拾玖陳畓肆負參捌拾壹田拾貳負伍束內貳拾捌負同字捌拾玖男只從畓陸負壹斗伍斗落只同負舍字壹百貳拾貳田貳拾陸負玖束內拾參負肆束柒斗伍斗落只婢奧花壹所生奴卯男年參拾玖歲戊午婢水花貳所生婢玉壁年參拾參甲午同婢壹所生奴命生年拾壹丙戌貳所生婢

年柒歲庚寅奴一文參所生婢命今年貳拾玖歲戊辰同婢壹所生婢玉女年貳七未奧陽婢翠陽玖所生奴莫立年拾肆癸未奴葉伊年伍拾伍壬寅奴精伊年肆拾玖戊申婢一極參所生奴大六年

次男操收字代田參拾伍負貳束內拾貳負中邊刀鰋負岩兒字畓貳拾貳負束內陸負柒束貳斗落只豆代水字新反畓拾柒負貳束內貳斗落只捌負陸束智負用字畓玖負肆斗落只發字得成廣買得畓參負伍束參斗落只同字進春廣買得畓貳負肆束壹斗落只同字代田柒負貳束同字參拾伍田陸負柒束同字肆拾壹田貳負同字肆拾參田拾肆負陸束同字伍拾參田拾肆負陸束拾參斗落只新堤負下岩邊堂田拾伍負柒束柒斗落只同負一字田陸負壹束同字肆拾參田貳拾陸負貳束作田肆負玖束內拾捌負果越東邊拾壹負內貳拾壹負同負春月慶買得王字畓捌負伍束作畓肆負捌束陸斗落只金爲物卅負光字浦田陸百玖拾肆田肆負柒束陸百玖拾玖田貳負捌束陸百柒拾伍田拾肆玖負捌束陸百玖拾陸田貳拾壹負壹束陸百玖拾玖田貳負捌束陸百柒拾伍田拾玖負捌束陸百柒拾陸田貳負玖束內拾參負伍束柒斗伍斗落只奴田福年伍拾玖戊戌婢奧花參所生未男年參拾丁卯奧陽奴名未年伍拾貳乙巳婢翠陽貳所生婢順玉年參拾柒庚申參所生奴應翊年參拾丁卯柒所生婢愛進年拾玖戊寅婢花春貳所生婢女順牙貳拾參甲戌奴文壹所生婢一極年參拾陸辛酉同婢貳所生奴大男年

奧陽婢翠香肆所生奴

勇右拾收字代田參拾伍負貳束內拾參負伍束柒斗伍斗落只奴田福年伍拾玖戊戌婢奧花參所生未男年參拾丁卯奧陽奴名未年伍拾貳乙巳婢翠陽貳所生婢順玉年參拾柒庚申參所生奴應翊年參拾丁卯柒所生婢愛進年拾玖戊寅婢花春貳所生婢女順牙貳拾參甲戌奴文壹所生婢一極年參拾陸辛酉同婢貳所生奴大男年

奧陽婢翠香肆所生奴

勇力拾收字代田參拾伍負貳束內拾壹負捌束南邊刀鰋負岩兒字畓貳拾貳負貳束內貳斗落只陸負柒束智負發字代田拾肆負參束內柒負同字參拾肆田伍束伍拾柒田柒束同字參拾陸田伍束伍拾柒田柒束同字拾柒田壹束伍拾捌田伍束同字拾柒田柒束同字拾柒田柒負伍束肆斗落只同負湯字壹百拾肆畓拾壹負壹束肆斗落只同負首字伍百伍拾陸畓貳負捌束貳斗伍斗落只新堤負一字參拾玖田貳拾伍負玖束壹石落只同字岩上陳田柒拾貳負內貳拾壹負同負王字金德介處負得畓伍負伍斗落只同字田捌拾壹負壹束同字捌拾伍負壹束陸百玖拾捌田陸負伍束陸百玖拾柒田柒負柒束內貳負捌束弁陸拾貳負陸束同負宜字捌拾田參拾捌負伍束內貳拾負肆束同字陸拾玖陳畓肆負參捌拾壹田拾貳負伍束內貳拾捌負同字捌拾玖男只從畓陸負壹斗伍斗落只同負舍字壹百貳拾貳田貳拾陸負玖束內拾參負肆束柒斗伍斗落只婢奧花壹所生奴卯男年參拾玖歲戊午婢水花貳所生婢玉壁年參拾參甲午同婢壹所生奴命生年拾壹丙戌貳所生婢

年柒歲庚寅奴一文參所生婢命今年貳拾玖歲戊辰同婢壹所生婢玉女年貳七未奧陽婢翠陽玖所生奴莫立年拾肆癸未奴葉伊年伍拾伍壬寅奴精伊年肆拾玖戊申婢一極參所生奴大六年

印

次女婿鄭得望年拾卅負慎字畓陸負貳束作拾伍負參束內拾負捌束貳斗伍斗落只同負棠字田貳拾柒負伍束作玖負壹束內拾捌負參束柒斗伍斗落只奧陽婢翠香年肆拾貳乙卯同婢貳所生奴太元年拾伍年參所生婢五奧年拾參甲申無住故只出赴伍印

小女婿申命元龍壹青子樓田柒斗落只新田畓捌斗落只失灘田拾斗落只同負內畓貳斗落只奧陽婢翠陽壹所生婢順葉年肆拾貳乙卯同婢壹所生奴七龍年拾貳乙酉貳所生奴春立年玖戊子參所生婢

年伍壬辰婢一極壹所生婢梅香年拾貳乙酉奴李山年參拾陸辛酉同婢奧春貳所生奴金陸年肆拾陸辛亥婢順葉肆所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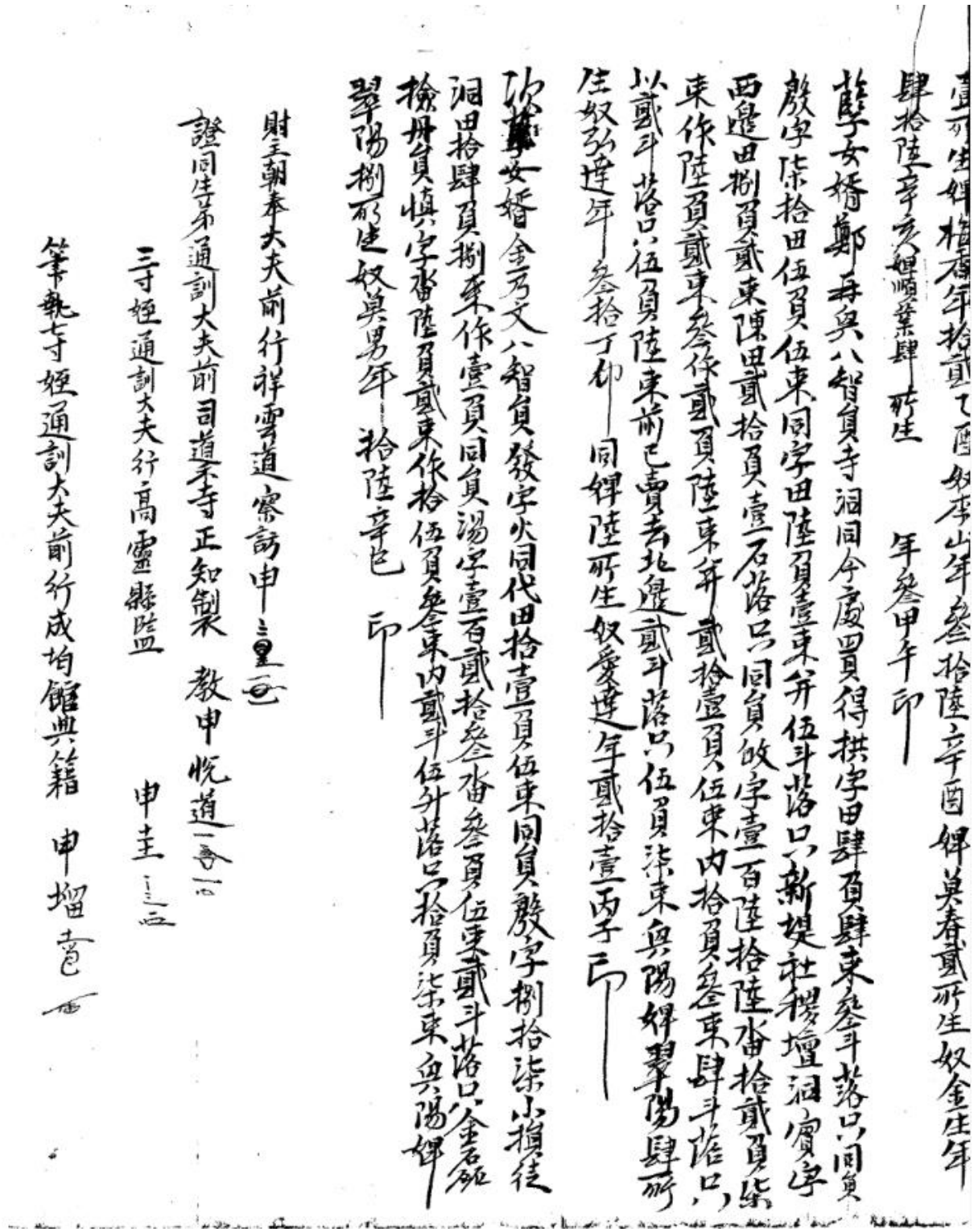
年參甲午印

壻女婿鄭得望年拾卅負慎字畓陸負貳束作拾伍負參束內拾負捌束貳斗伍斗落只同負棠字田貳拾柒負伍束作玖負壹束內拾捌負參束柒斗伍斗落只奧陽婢翠香年肆拾貳乙卯同婢貳所生奴太元年拾伍年參所生婢五奧年拾參甲申無住故只出赴伍印

長女婿金尚玹金爲物卅負棠字田貳拾柒負伍束作玖負壹束內拾捌負參束柒斗伍斗落只新堤負故字壹百陸拾壹畓拾負壹束柒斗伍斗落只新堤負一字參拾玖田貳拾伍負玖束壹石落只同字岩上陳田柒拾貳負內貳拾壹負同負王字金德介處負得畓伍負伍斗落只同字田捌拾壹負壹束同字捌拾伍負壹束陸百玖拾捌田陸負伍束陸百玖拾柒田柒負柒束內貳負捌束弁陸拾貳負陸束同負宜字捌拾田參拾捌負伍束內貳拾負肆束同字陸拾玖陳畓肆負參捌拾壹田拾貳負伍束內貳拾捌負同字捌拾玖男只從畓陸負壹斗伍斗落只同負舍字壹百貳拾貳田貳拾陸負玖束內拾參負肆束柒斗伍斗落只婢奧花壹所生奴卯男年參拾玖歲戊午婢水花貳所生婢玉壁年參拾參甲午同婢壹所生奴命生年拾壹丙戌貳所生婢

年柒歲庚寅奴一文參所生婢命今年貳拾玖歲戊辰同婢壹所生婢玉女年貳七未奧陽婢翠陽玖所生奴莫立年拾肆癸未奴葉伊年伍拾伍壬寅奴精伊年肆拾玖戊申婢一極參所生奴大六年

印



분재문기(分財文記)의 일종으로, 분깃문기 [分衿文記]·깃기 [衿記] 라고도 한다. 부모가 죽은 뒤에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와는 구별된다.

분급문기의 구성은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과 분급 대상자, 분급하는 사유와 당부하는 말, 자녀별로 나누어주는 몫 [衿], 재주·증인·필집(筆執)의 이름과 수결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경국대전』의 분재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균등분배를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남자우대, 장자우대로 변화하였다. 분급한 재산을 축내지 말 것, 형제간에 우애하고 도와줄 것, 조상과 부모의 제사를 지성으로 지낼 것 등은 당부하는 말에 반드시 들어갔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하지 말고 딸들에게 분재하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도 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가족제도 등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분깃문서 [分衿文書] ·분깃 [分衿] ·분급(分給)·깃득 [衿得] ·허여(許與)·허급(許給)·분파(分派)·분집(分執)·분금(分襟)·구별(區別)·결급(決給)·분호(分戶)·깃기 [衿記] ·장기(掌記)·분기(分記)·화회(和會)·화의(和議)라고도 한다. 재산의 상속과 분배가 문서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의 분재기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분재기는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분재기를 통하여 본 이 당시 재산상속의 내역은 가옥·토지·노비·가재도구 등인데 주로 노비나 토지의 상속 및 분배가 많았다.

분재기를 작성하는 목적은 조상의 유산이 혈족 이외의 타인에게 전계(傳係)되는 것과 상속 및 분배 뒤의 논란과 이의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분재기는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화회문기·분급문기·깃부문기 [衿付文記] ·별급문기(別給文記)·허여문기로 나누어진다.

화회문기는 부모 모두의 사망 뒤에 형제자매의 화회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이다. 재산은 재주(財主)의 생전에 재주의 의사에 의하여 분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생전에 분재의 지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죽은 뒤에 그 자녀들의 화회에 의하여 분배한다.

화회문기는 대개 부모의 사망 뒤 3년 상을 마친 뒤에 작성되며, 부모 생전에 분배하고 남은 재산 또는 화회분배한 뒤에 나타난 재산도 다시 화회분배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화회문기의 형식은 보통 서두·본문·말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두에는 부모가 미처 분급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미분(未分)을 형제자매가 화회분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본문에는 분재수량을, 말미에는 분재당사자의 이름을 쓴다. 화회문기는 당사자 모두가 한 통씩 갖기 때문에 문기의 말미에 작성문기의 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분급문기는 재주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문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주의 유언 등으로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하는 문서를 뜻하기도 한다. 분급문기는 한통만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형식은 화회문기와 같이 서두·본문·말미로 구성되는데, 서두에는 문기작성일자와 사유, 분재원칙, 재주의 자손에 대한 당부 등을 적고, 본문에는 분재수량, 말미에는 재주와 보증인·집필자·상속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의 내용 앞에 말미의 내용이 기재된 분급문기도 있다.

깃부문기는 분급문기와 같이 재주의 생전에 작성되는 분재문서이지만 구별되는 것은 형제자매의 분급내용

을 같은 문서에 표시하지 않고 자녀 각각의 몫을 따로 작성하여주는 문서이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 전원 또는 각 개인의 상속내용을 기록하였느냐에 따라 전자를 도문기(都文記)라고 하고 후자를 별문기(別文記)라고 한다. 도문기는 피상속인의 수만큼 작성되는 것이 관례이다. 별문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주가 재산을 지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과거급제나 생일·혼인·병치료·득남 등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때, 특별히 빈곤하거나 기특한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별문기는 일반적인 재산상속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즉, 재주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별급대상자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별급의 사유와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별급된 재산은 재산분배 때 또는 화회 때에 분배되는 재산 이외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문기의 양식은 본문과 말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서두와 본문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문기의 맨 앞에는 문기작성의 일자와 피별급자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별급사유와 별급물목이 기재된다. 말미에는 재주·보증인·집필자의 서명날인이 있는데, 때로는 재주가 집필자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인의 수도 일정하지 않다.

재주의 신분이 높으면 문서작성에 참여하는 증인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허여문기는 재산을 급여하는 문서이다. 허여는 직계존속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계 및 인척에 의한 경우도 많다.

분급이나 화회와 같이 정식의 재산분배가 아니고 별급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급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재산분쟁의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허여문기는 관의 입안(立案)을 받았다. 고려말에는 허여문기가 작성된 뒤 수취자와 증(證)·필(筆)의 입안청원을 위한 소지(所志)를 문기에 첨부하여 관에 올리면 관에서 확인한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수취자의 입안청원소지는 고려 말기와 같으나 재주와 증인·집필자의 급여사실 및 동참에 대한 진술서가 첨부되는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이 관의 입안을 받는 분재문기를 관서문기(官署文記)라고 하고, 관을 거치지 않는 문기를 백문문기(白文文記)라 하였다.

분재문기의 대부분이 백문문기이나 재주와 수급자와의 관계가 혈족 사이가 아닐 수도 있는 허여문기나 별문기의 경우 관서문기가 흔히 작성된다.

조선시대의 문서는 그 서식이 ≪경국대전≫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분재기는 다른 사문서(私文書)와 함께 예전입안식조(禮典立案式條)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서식을 보면 처음에 작성연월일을 적고, 이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적는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기록하되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의 일인 조상관계·종가관계, 즉 봉사(奉祀)와 묘지기 [墓直] 등을 먼저 적고 다음에 피상속인을 서열순으로 기재해나간다.

그 마지막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과 당사자의 신분과 성명을 적고 그 아래에 수결(手決)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필집(筆執)'이라 하여 작성자를 표시한다.

분재기는 토지매매문서나 노비매매문서와 달리 재주·증인·필집의 순서가 아니고, 피상속자를 서열순으로 기록하고 마지막에 필집을 적는다. 그러나 재주나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신분·성명 위에 '필집'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일종의 서명 또는 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결은 여자나 천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식은 종서로 1행에 20자 내외가 보통이고, 간혹 30자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지의 형편에 따르는 것 같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되며 대부분 한자, 또는 한자와 이두문을 겸용하여 기록한다. 서체는 정자체보다 초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분재기는 횡축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종이의 질은 닥나무 속껍질로 만든 질긴 종이가 보통이다.

분재기는 모든 계층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분재기를 남긴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대부분이 양반계층에 속하고 있어, 이들의 재산 및 제사상속제도를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현존하는 분재기는 수없이 많다. 규장각소장 분재기와 ≪한국고문서연구≫ 중의 분재기, ≪경북지방고문서집성≫ 중의 분재기가 대표적인 것이다.

현존하는 분재기 중 <서애선생모부인곤문기 西厓先生母夫人昆文記>와 <율곡선생남매분재기>는 각각 보물 제460호와 제477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기의 분재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허여(許與)、화회(和會)、분급(分給)、분깃(分衿)、허급(許給)、별급(別給) 등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쓰였다. 따라서 분재방식과 분재기의 종류는 재산을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인가、또 그 시기가 재주의 생전인가 사후인가、분재하는 재산이 재주의 재산 전체인가 부분인가、재산을 물려받는 수급자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분배의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있다.

아주신씨 내부령공파 소장의 분재기는 신적도(申適道)가 생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 것으로서 하나의 허여문기(許與文記)이다. 적도는 집(墐)·균(均)·채(埰)·점(坫)의 4 남과 얼녀(孼女) 둘을 포함하여 5 녀를 두었다.

이 분재기의 앞부분은 산일되어 장남인 집의 분재 몫은 알 수 없고、차남인 균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재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재주인 적도가 90 세까지 장수하여 1663 년(현종 4、계묘)에 졸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문기의 증필(證筆)인 적도의 아우 열도(悅道)가 1659 년(효종 10、기해)에 졸하였고、같은 증인인 조카 규(圭)가 1656 년(효종 7、병신)에 졸한 것을 족보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생전이었던 1656 년 이전에 분재기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장남인 집의 생전인지 아닌지는 이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참고로 집은

l637 년(인조 15)에 조졸(早卒)하였다. 아무튼 17 세기 중엽이라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 허여문기는 균분상속제의 분재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대개 봉사조(奉祀條)는 16 세기 중반 이후 장자 중심으로 집중되어 갔으며、차등상속제 또한 17 세기 후반이후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볼 때 이 문기에서 봉사조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차녀에게 분재 몫을 주면서「무후고지출사위 (無後故只出祀位)」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윤회봉사(輪回奉祀)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그러면서 딸들에게는 일정의 법전적 비율이 적용되었던 것 같다.)

서간통고류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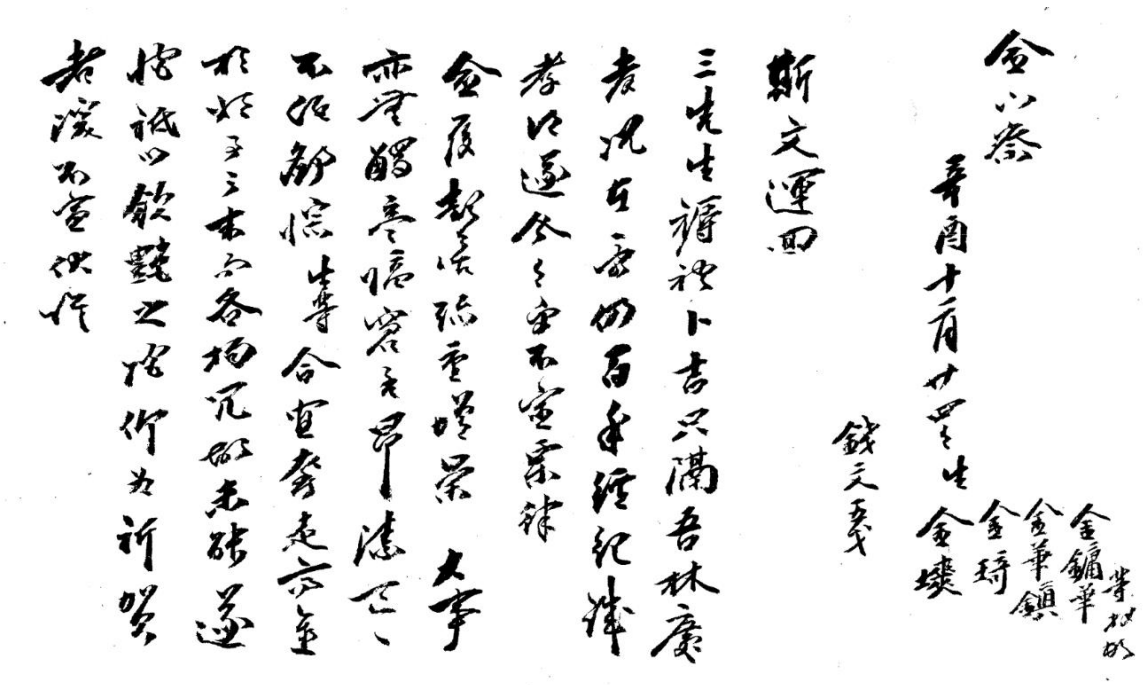
서간(書簡) (2)

신유년 김기(金琦)·김화진(金華鎭) 등 간찰(簡札)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김기(金琦) , 김화진(金華鎭)
· 작성시기	신유
· 형태사항	크기: 28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1) 간찰 / 간찰 / 9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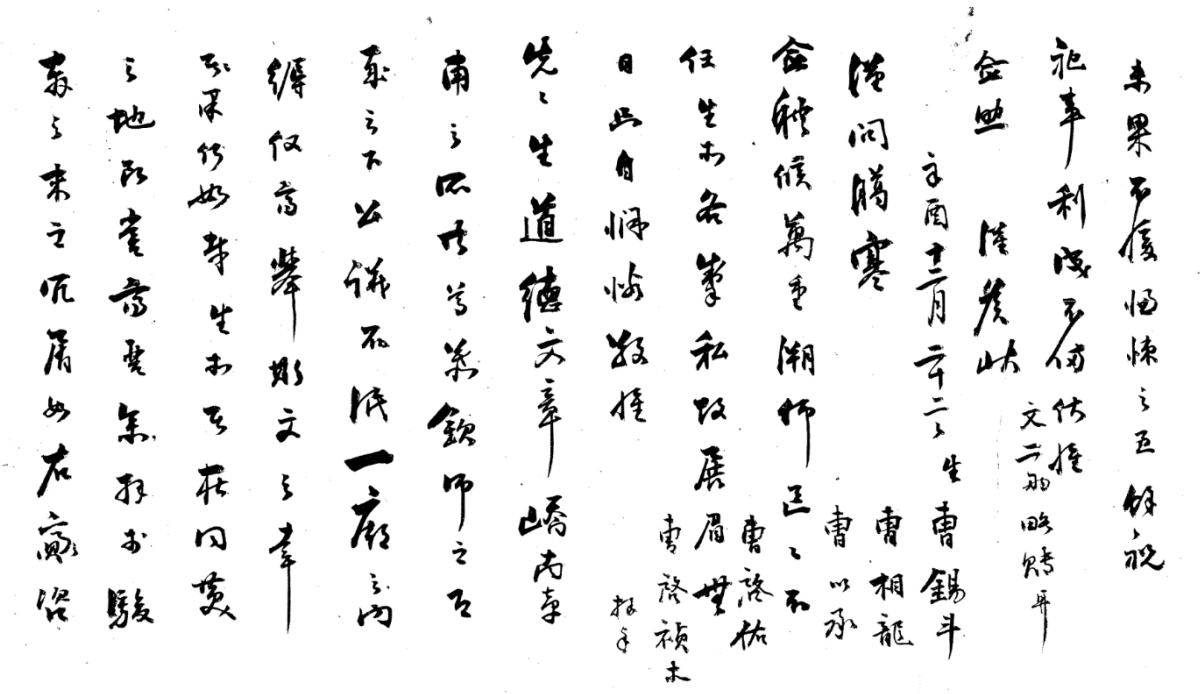


신유년 조석두(曺錫斗)·조상룡(曺相龍) 등 간찰(簡札)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조석두(曺錫斗) , 조상룡(曺相龍)
· 작성시기	신유
· 형태사항	크기: 24x3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1) 간찰 / 간찰 / 9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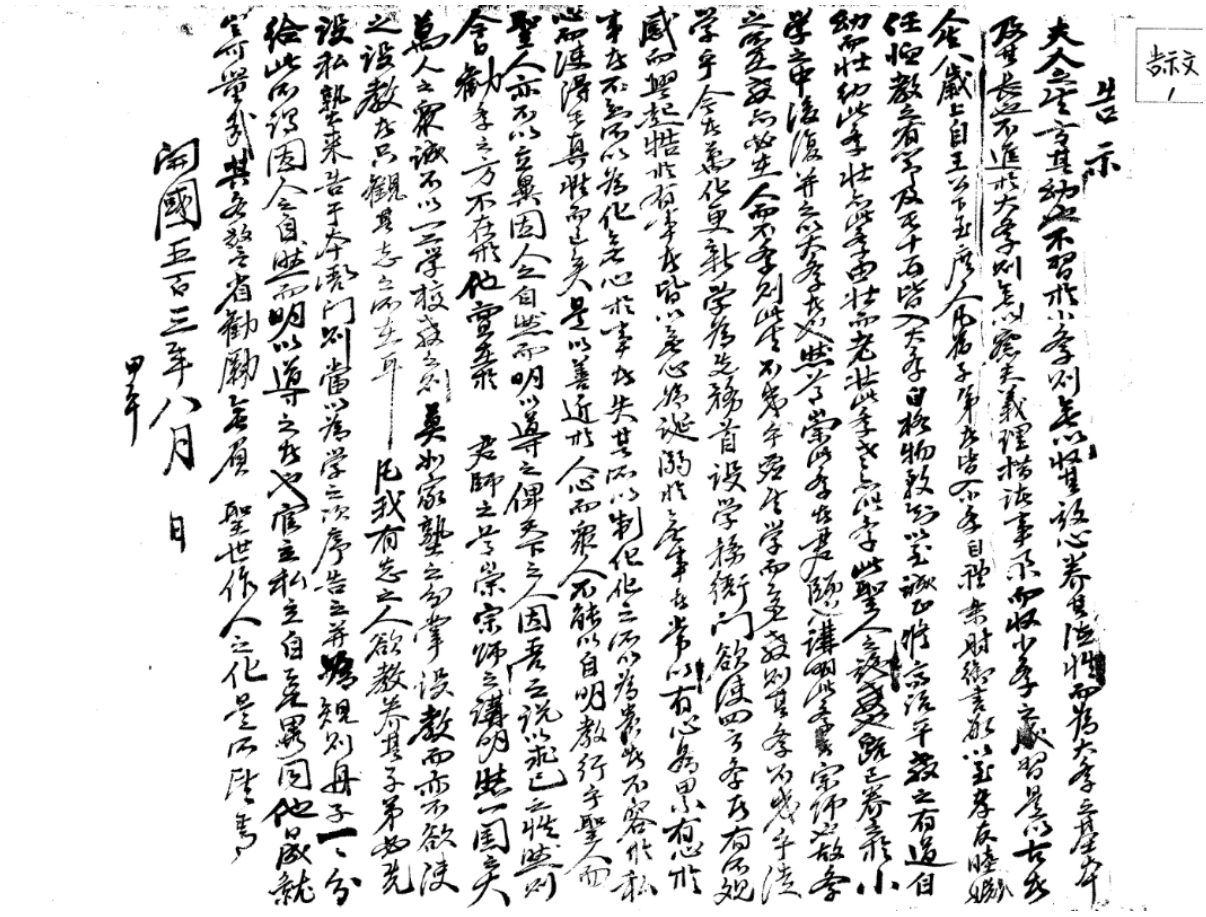
고시 (1) 행정 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글로 써서 보임

1894년 고시(告示)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고시 / 법제-법령-고시
· 작성시기	1894 년
· 형태사항	크기: 24x3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2) 고시 / 고시 / 9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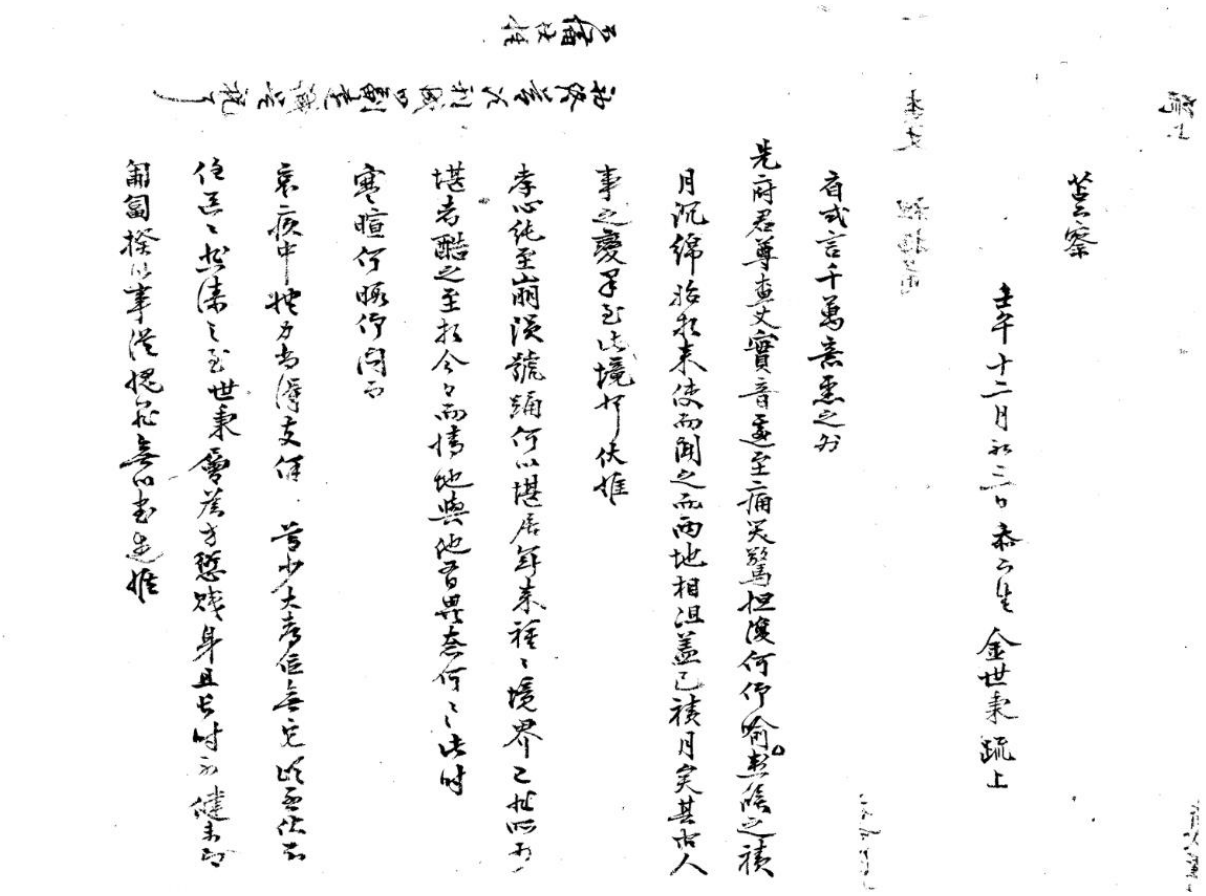
위장 (47) 위로하고 문안하는 편지

1882년 김세병(金世秉)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위로하고 문안하는 편지)
· 작성주체	발급: 김세병(金世秉) / 수취: 사장(査丈)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30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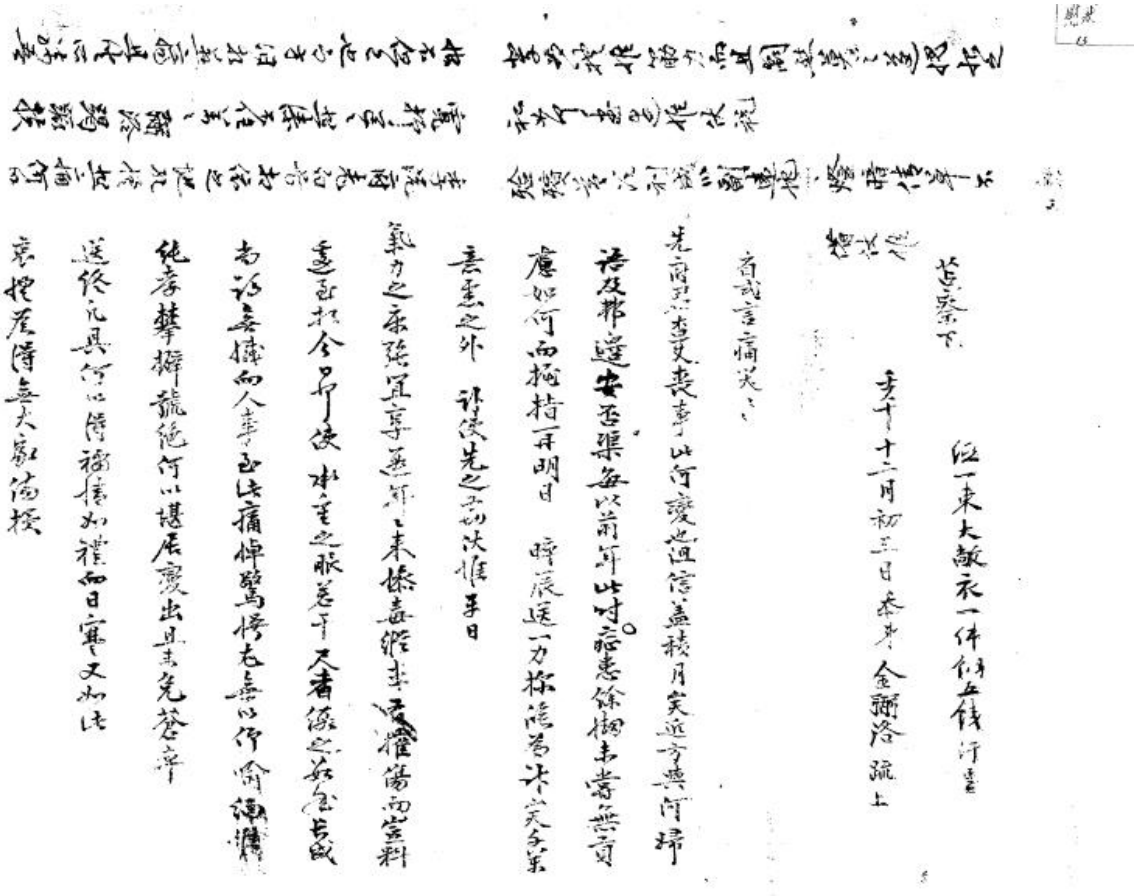


1882년 김필락(金弼洛)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필락(金弼洛)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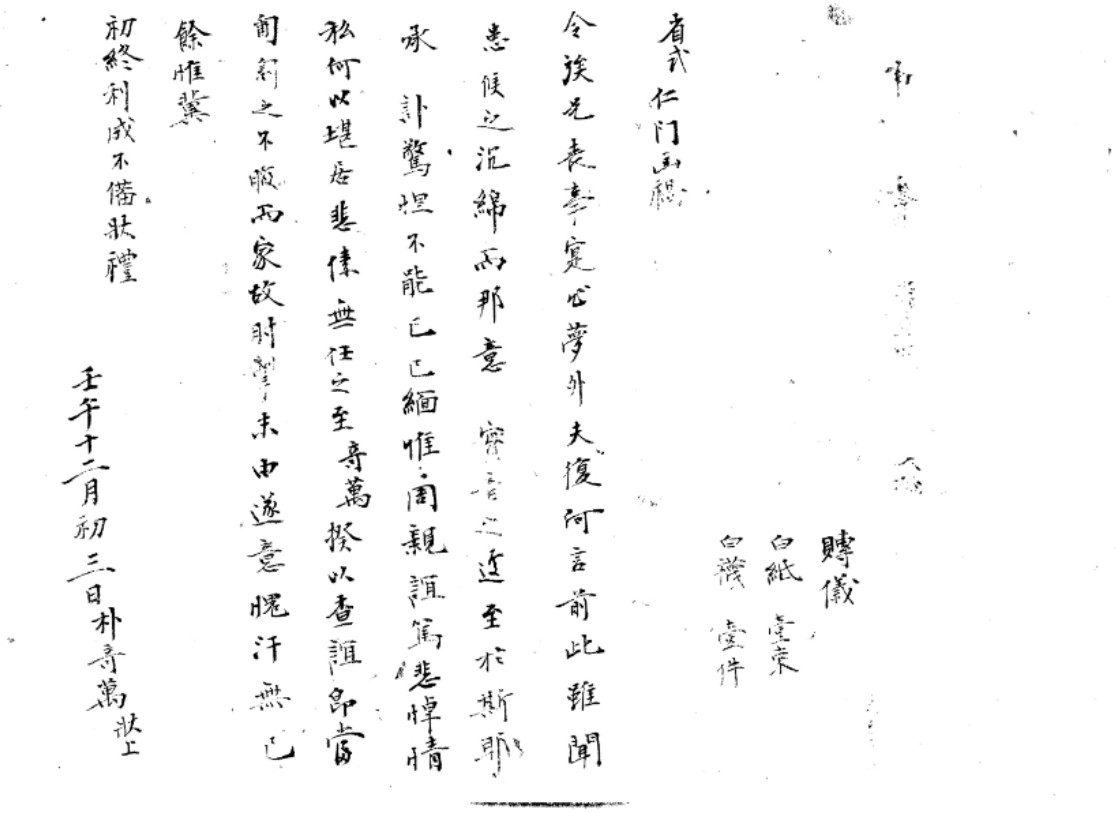


1882년 박기만(朴奇萬)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기만(朴奇萬)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27x3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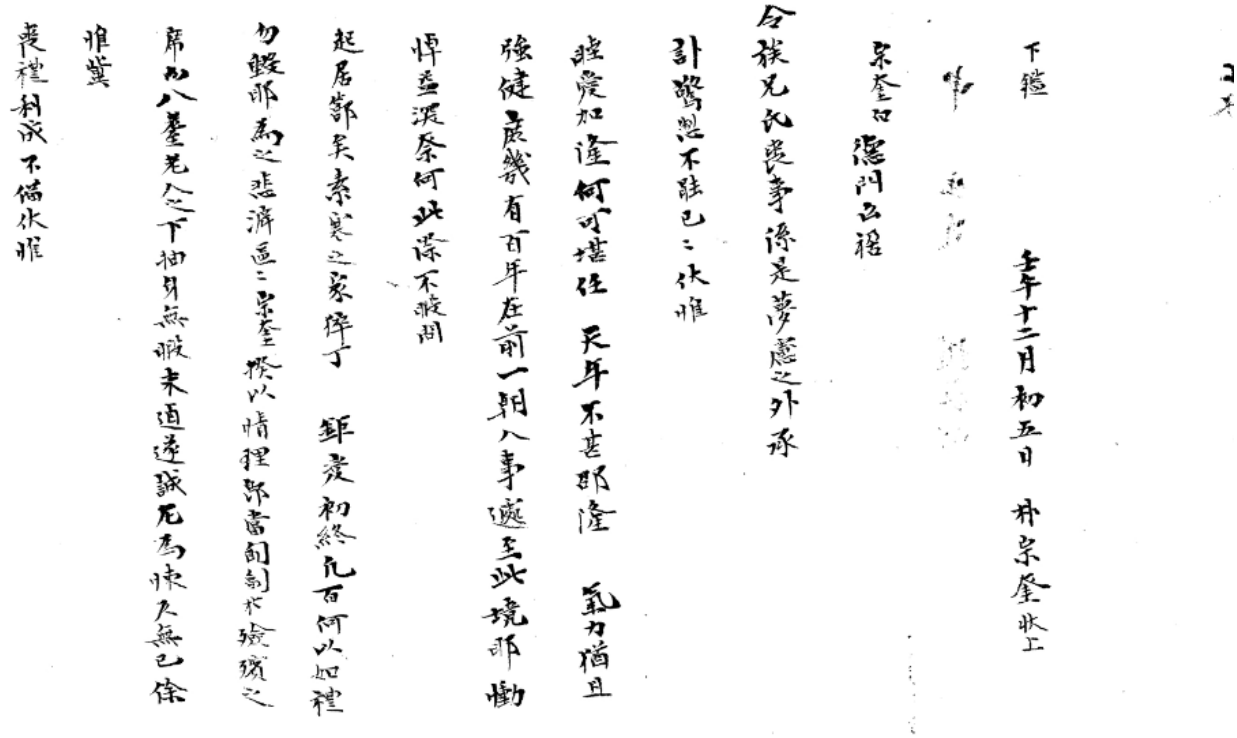


1882년 박종규(朴宗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종규(朴宗奎)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30x4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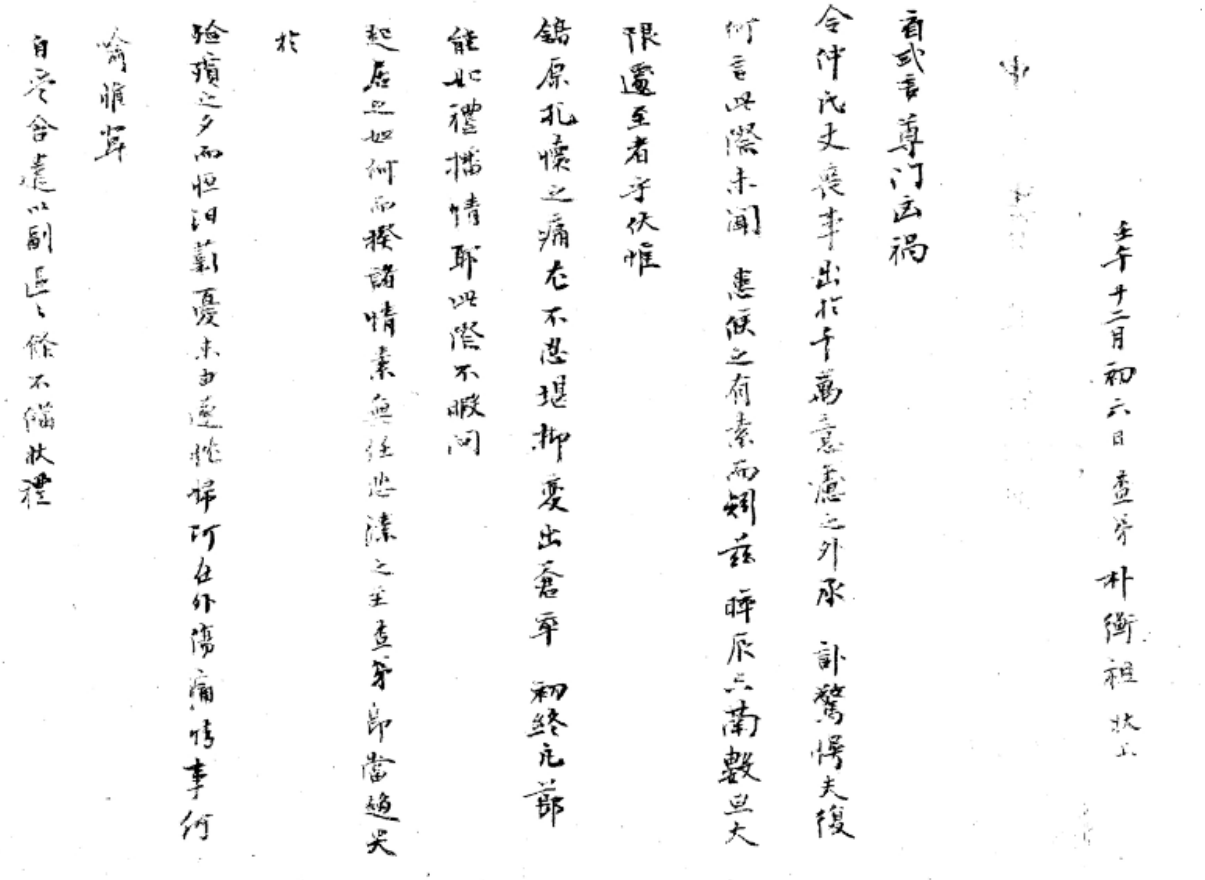


1882년 사제(査弟) 박형조(朴衡祖)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형조(朴衡祖)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30x4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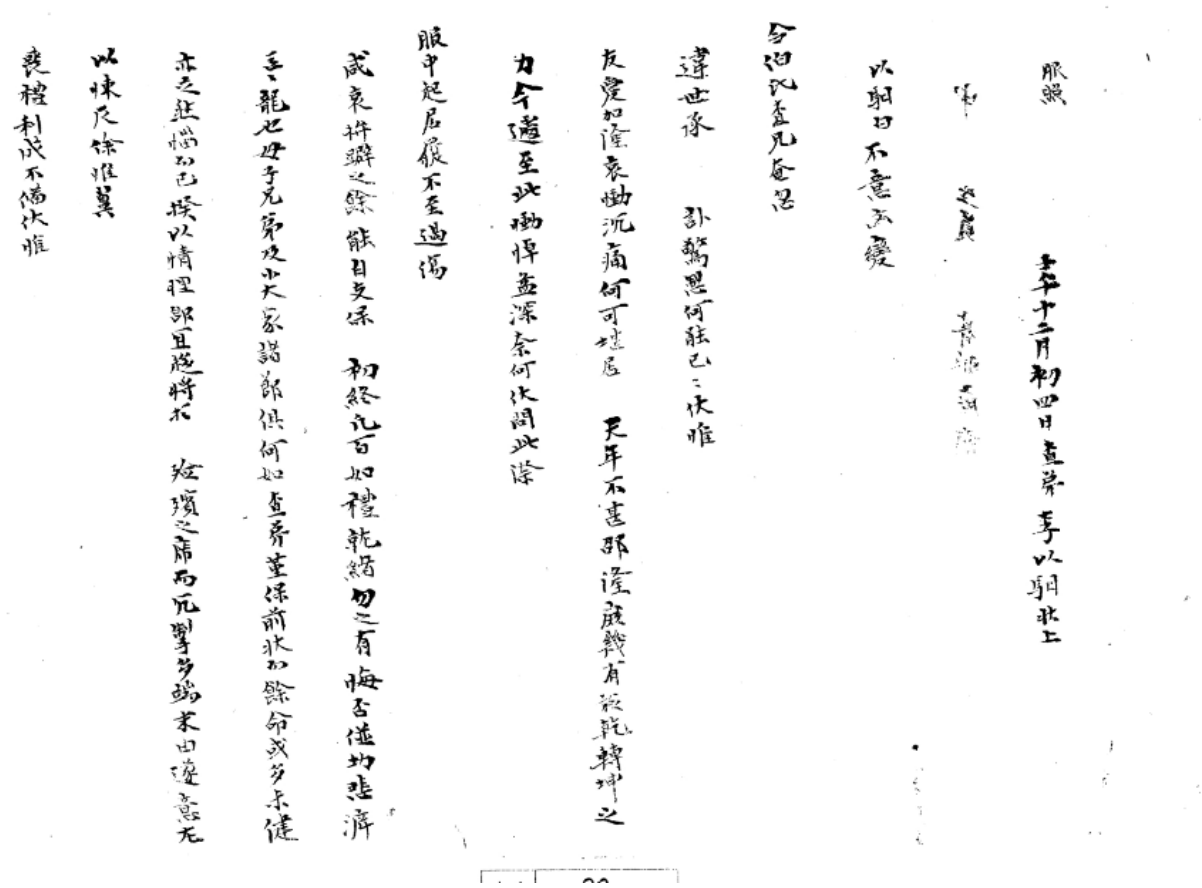


1882년 사제(査弟) 이이일(李以馹)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이일(李以馹)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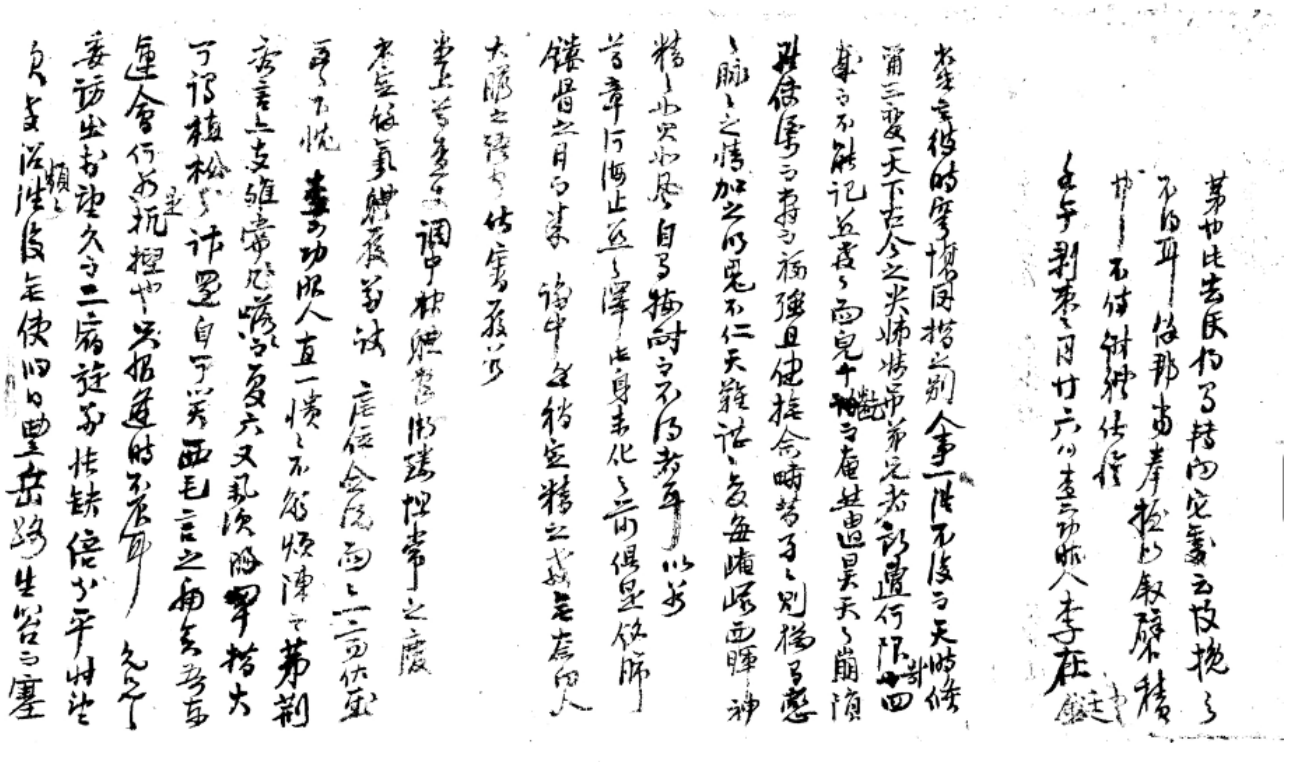


1882년 이재정(李在鋌)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재정(李在鋌)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20x4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6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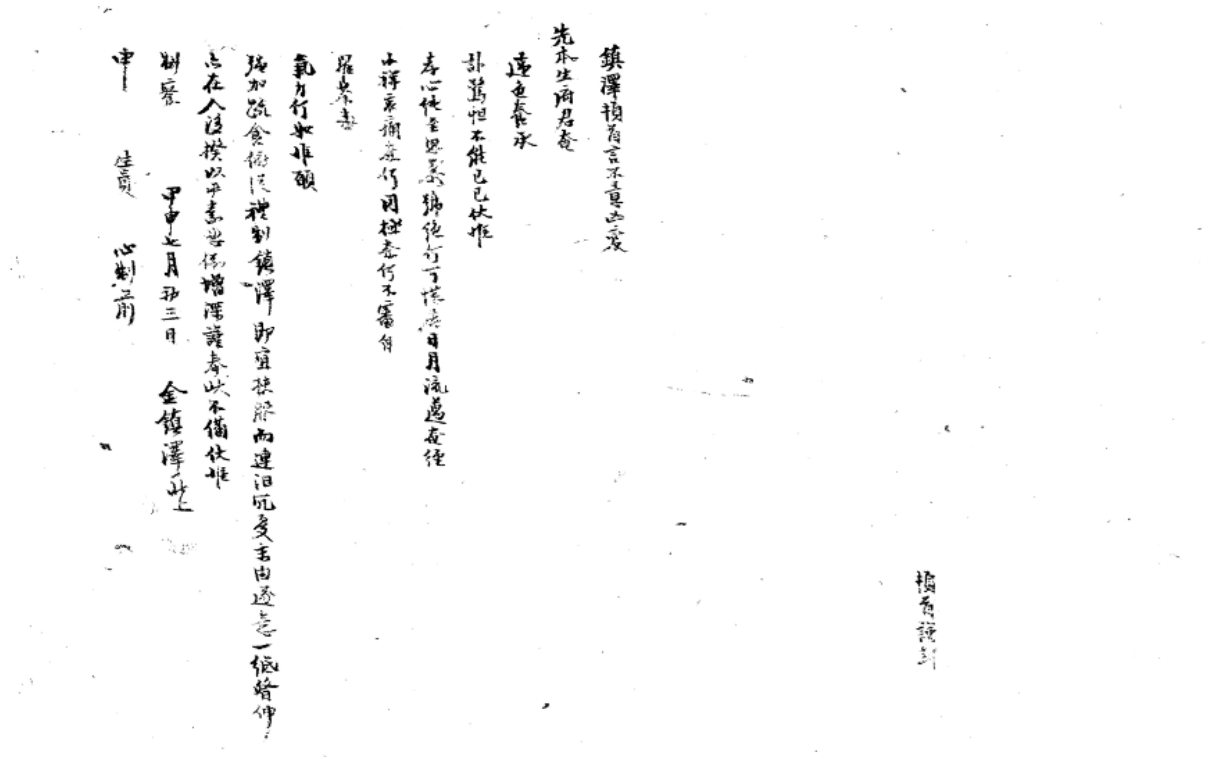


1884년 김진택(金鎭澤)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진택(金鎭澤)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4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6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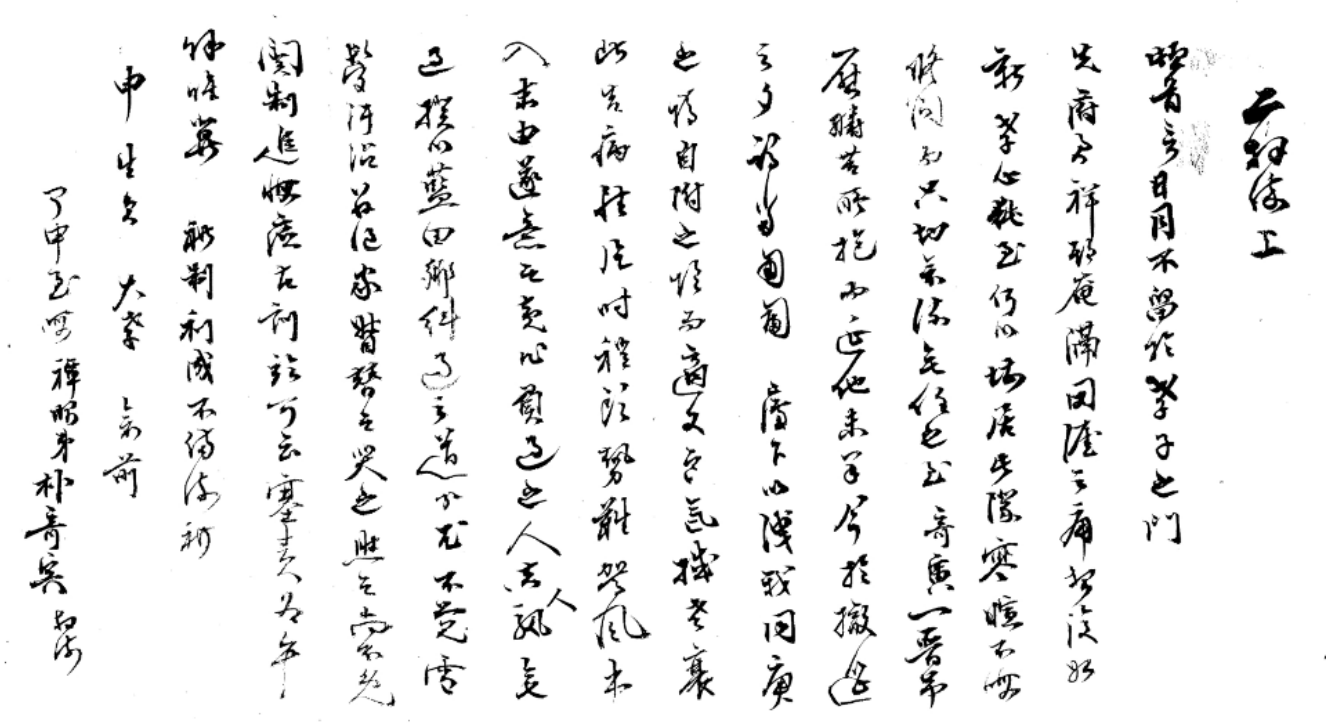


1884년 박기인(朴奇寅)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기인(朴奇寅)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4 년
· 형태사항	크기: 24x4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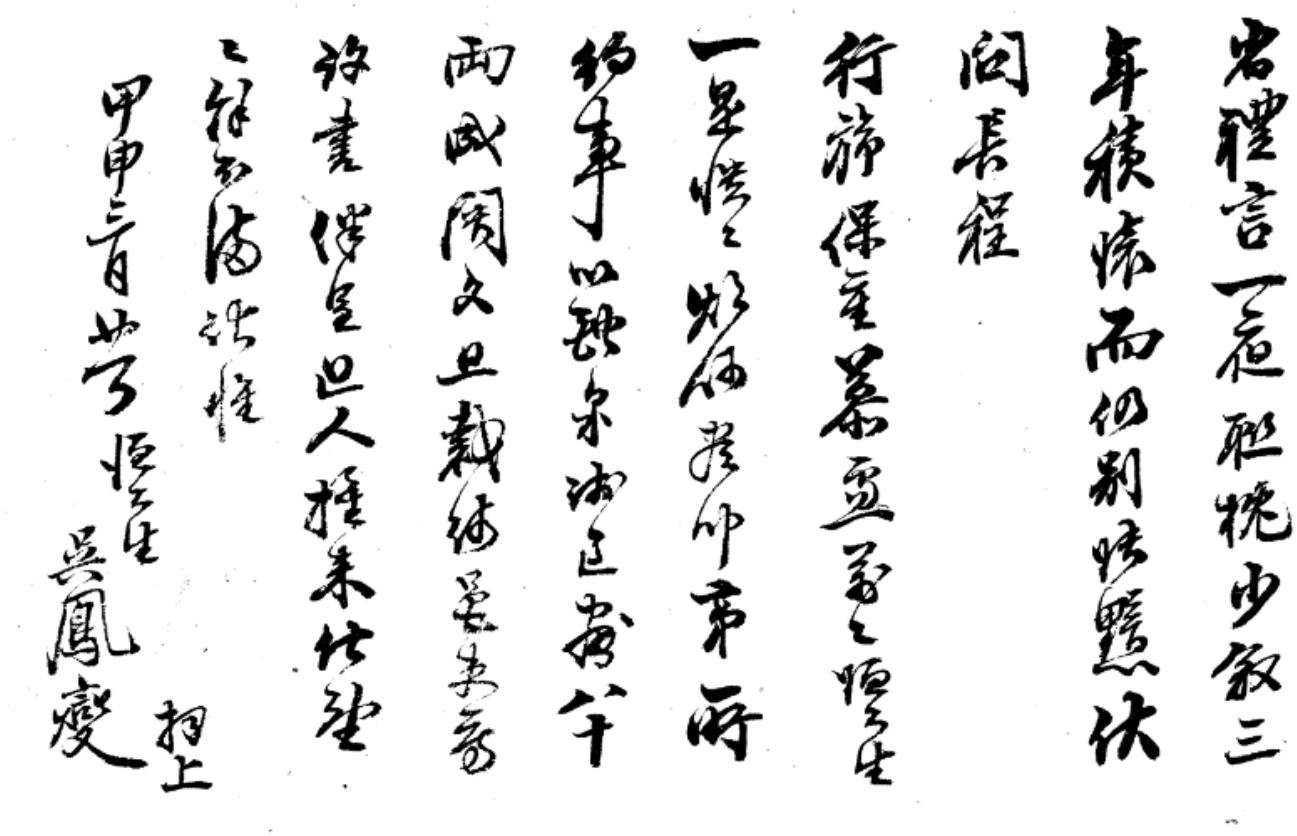


1884년 오봉섭(吳鳳燮)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오봉섭(吳鳳燮)
· 작성시기	1884 년
· 형태사항	크기: 18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5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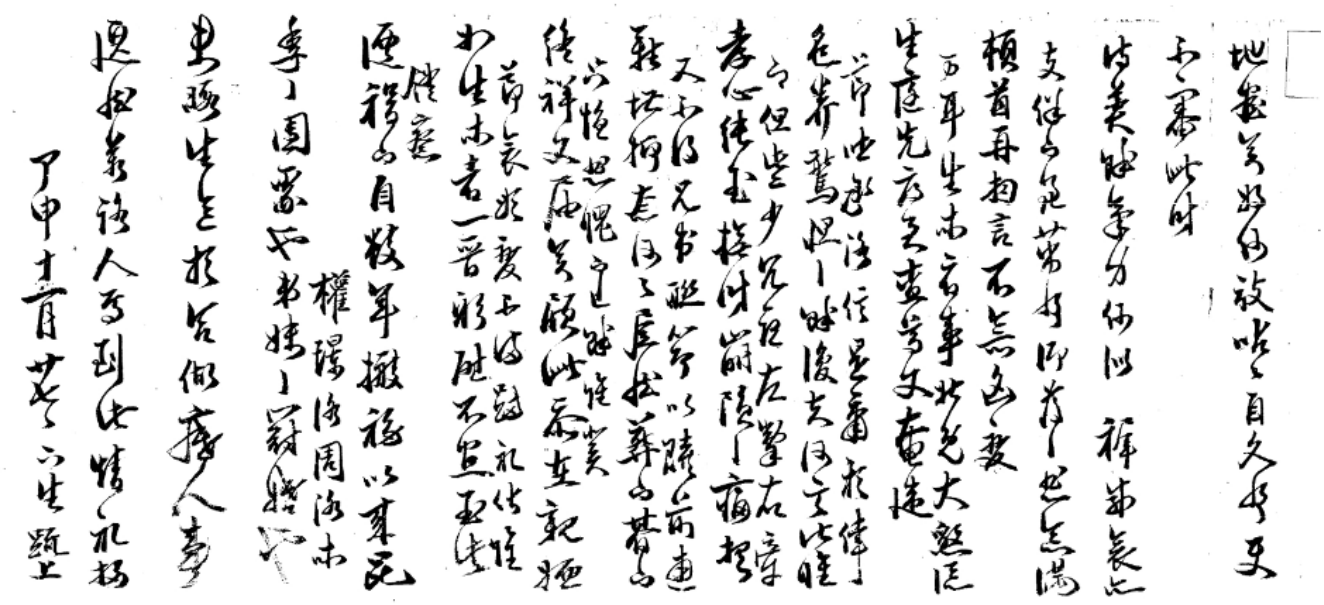


1884년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시기**	1884 년
· **형태사항**	크기: 15x2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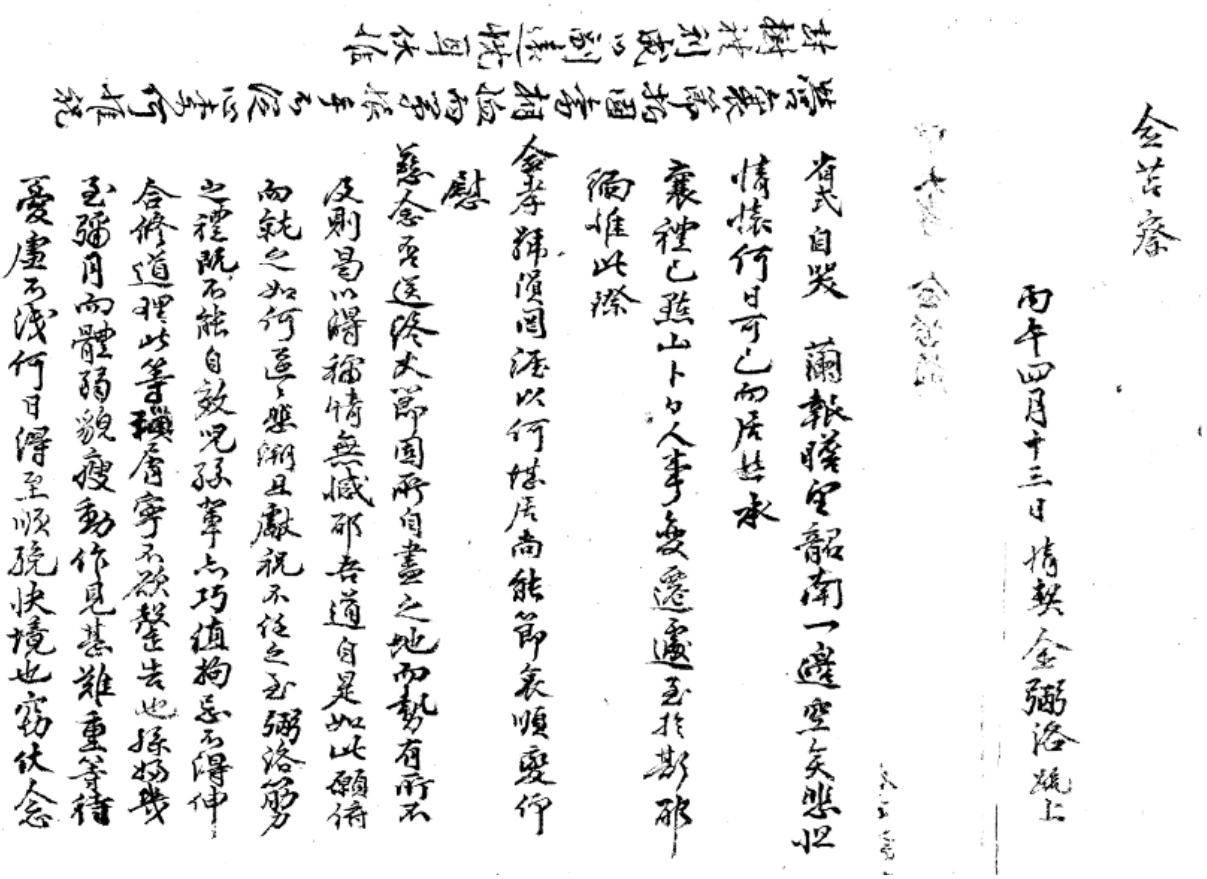


1906년 김필락(金弼洛)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필락(金弼洛)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5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6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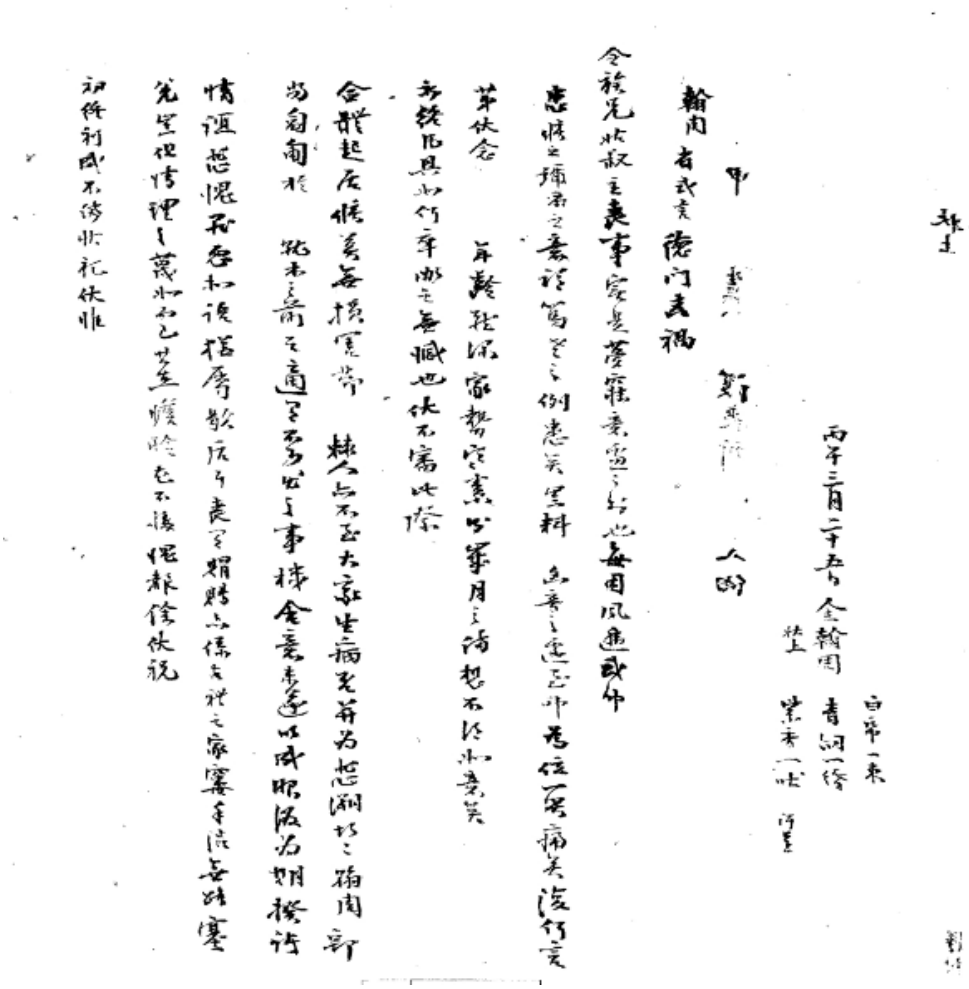


1906년 김한주(金翰周)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한주(金翰周)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8x3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5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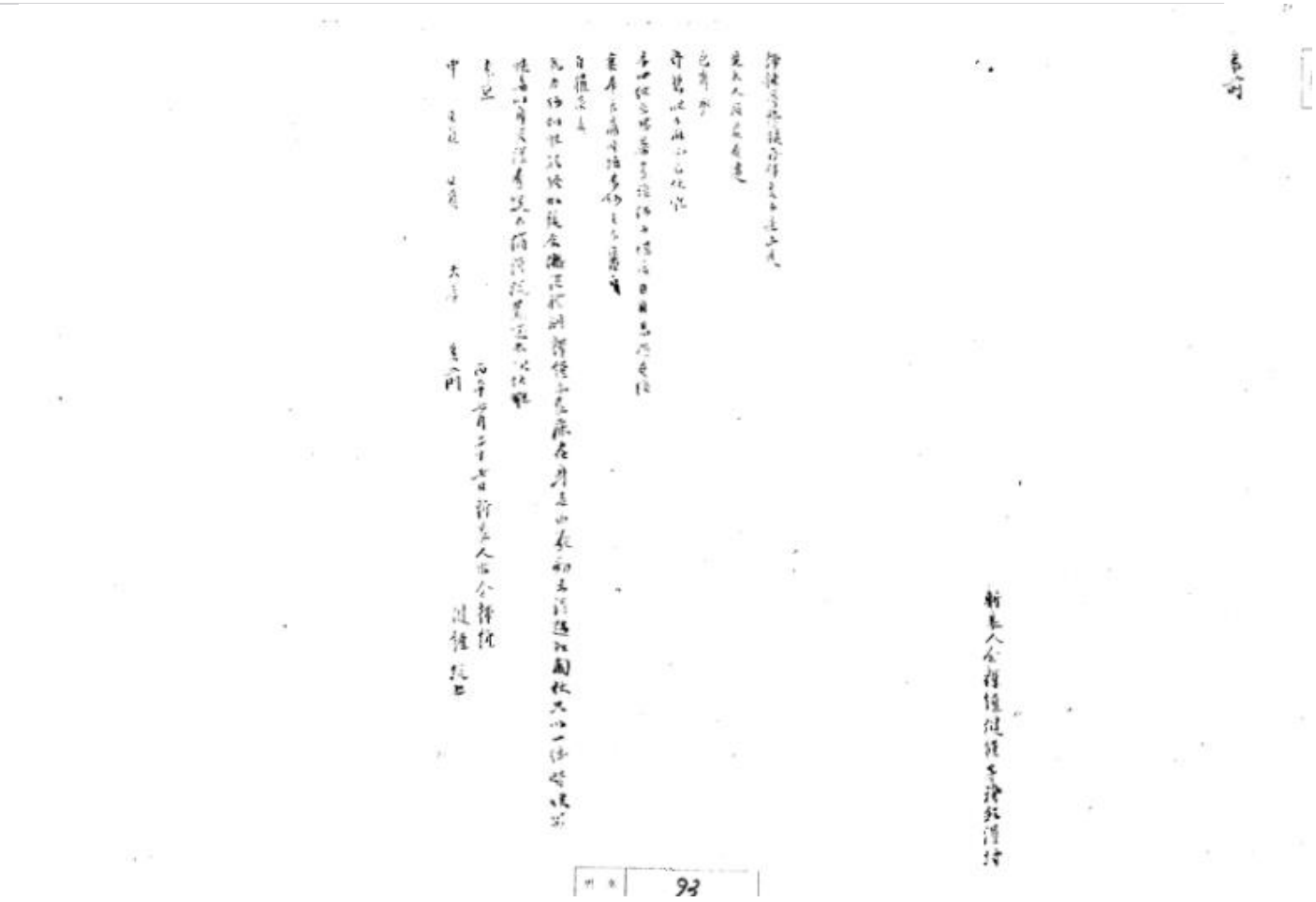


1906년 김휘종(金輝鍾)·健鍾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휘종(金輝鍾) , 김건종(金健鍾)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0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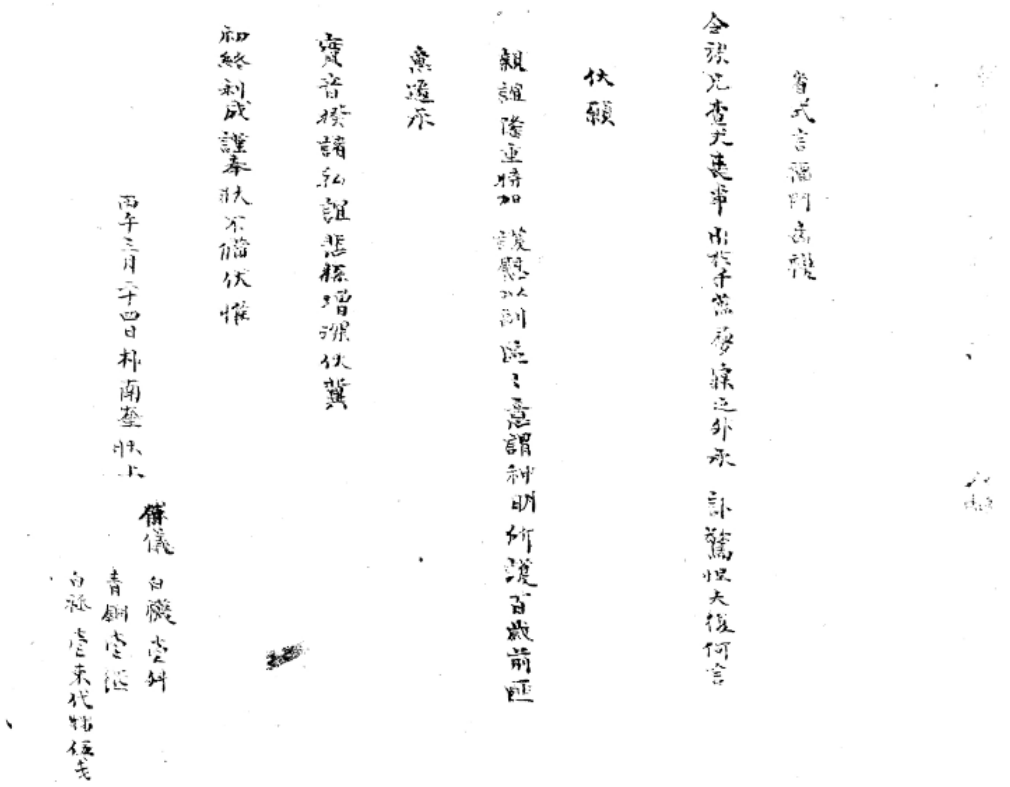


1906년 박남규(朴南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남규(朴南奎)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7x2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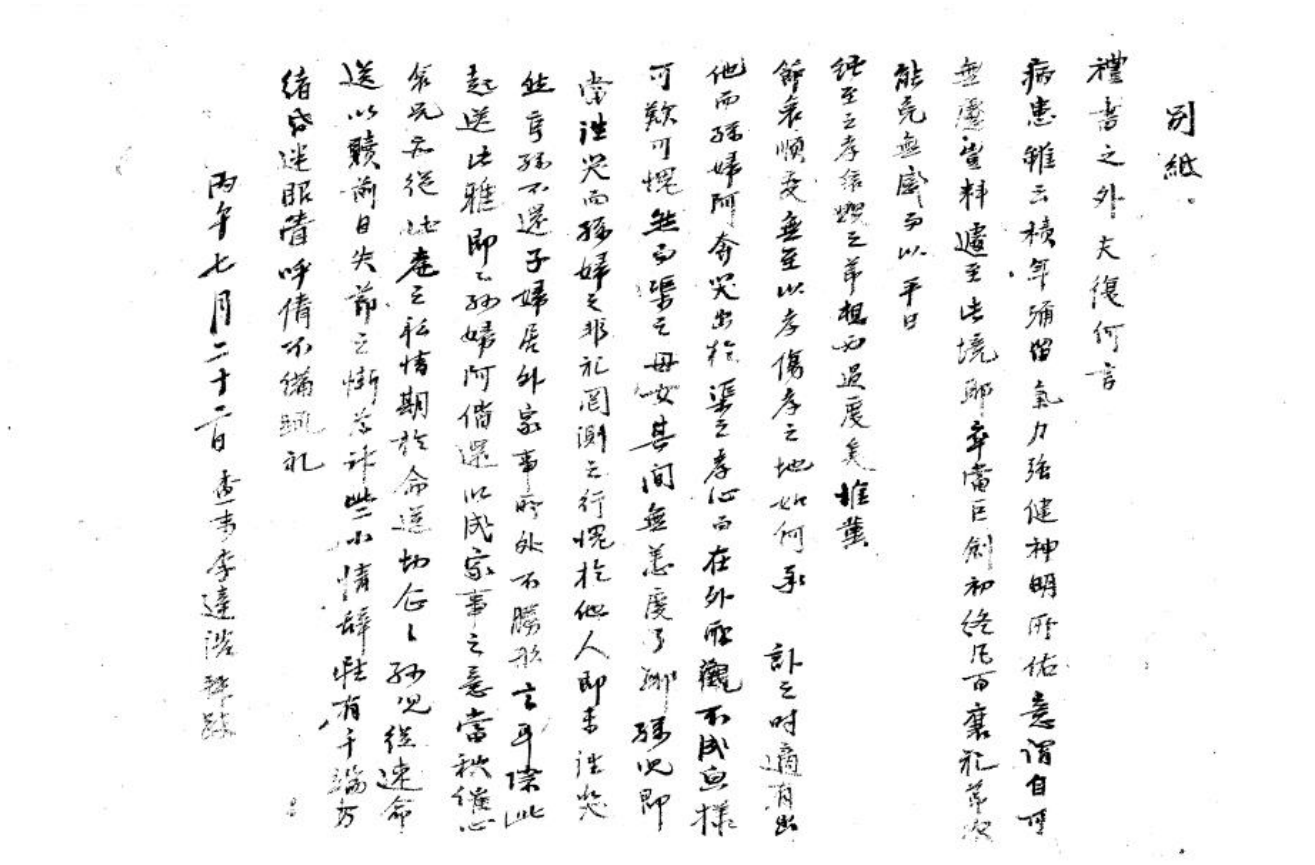


1906년 사제(査弟) 이원호(李遠浩)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원호(李遠浩)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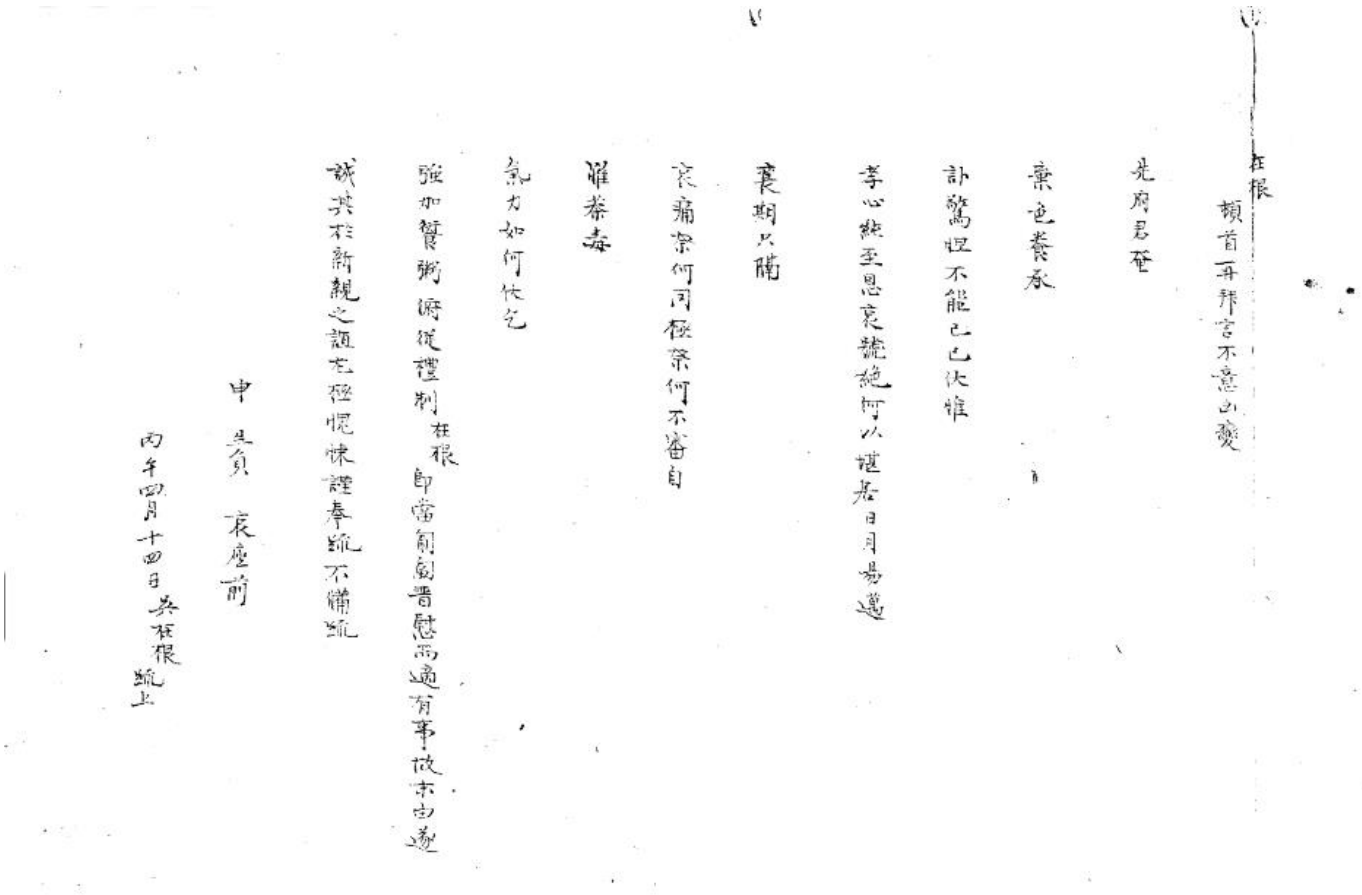


1906년 오재근(吳在根)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오재근(吳在根)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2x4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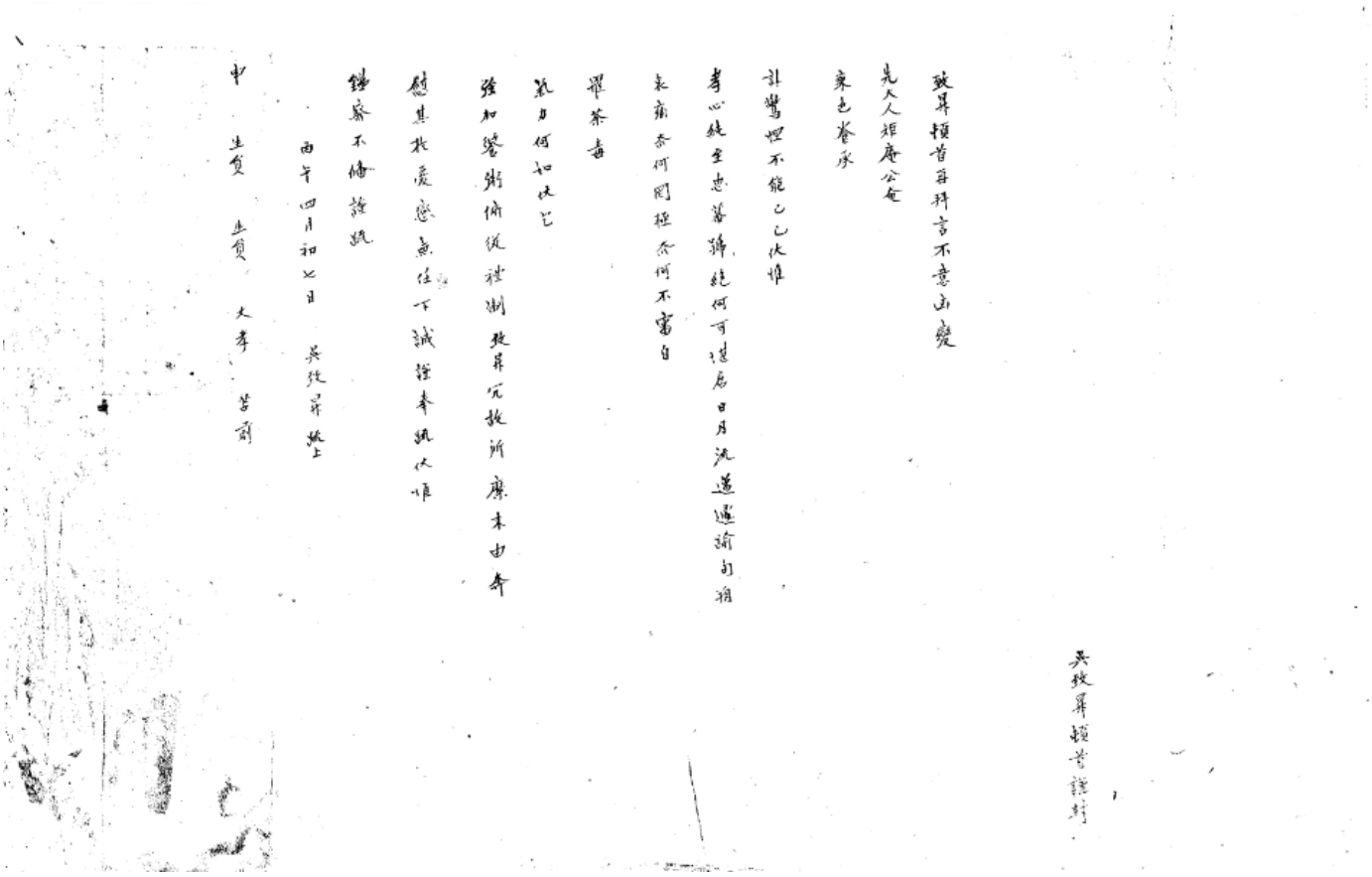


1906년 오치승(吳致昇)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오치승(吳致昇)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50x4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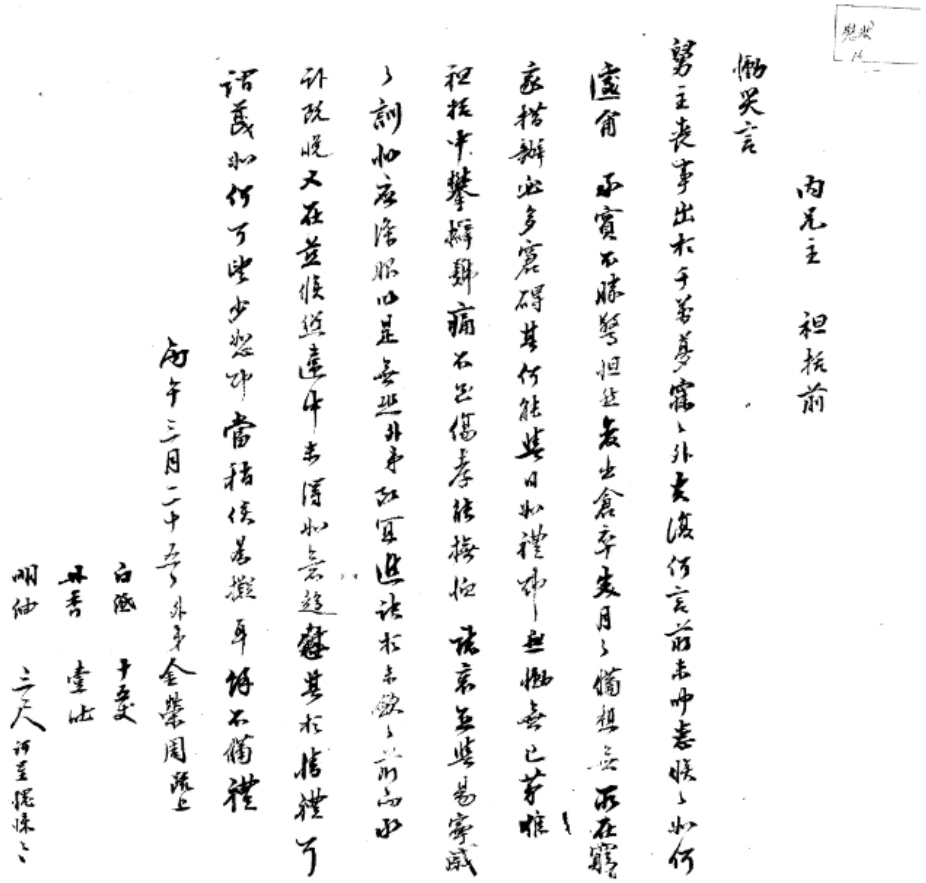


1906년 외제(外弟) 김영주(金榮周)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영주(金榮周) / 수취: 내형(內兄)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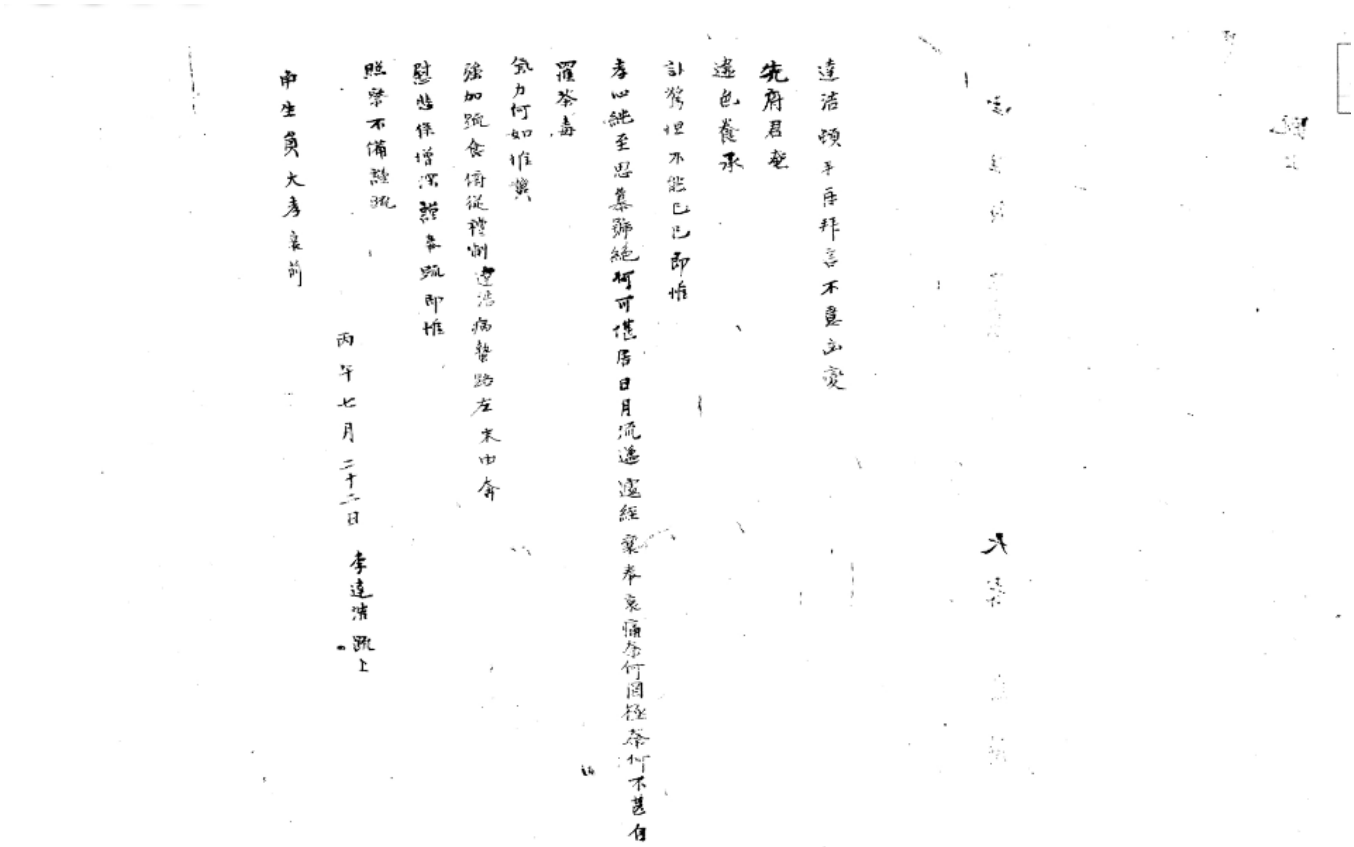


1906년 이달호(李達浩)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달호(李達浩)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6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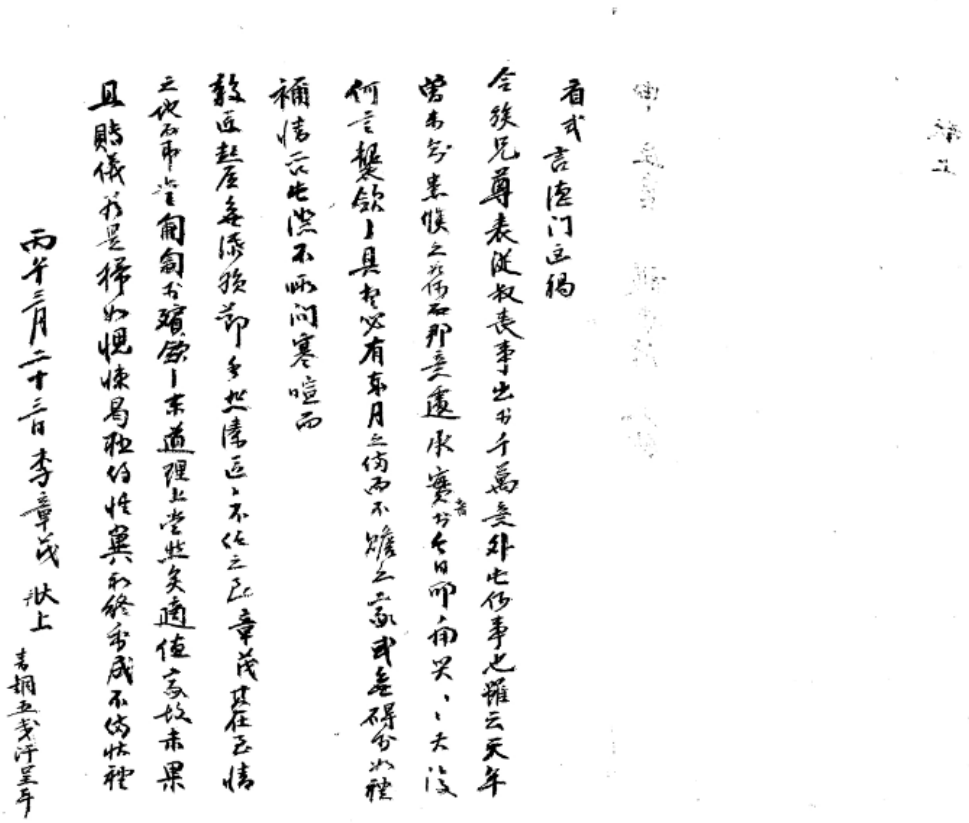


1906년 이장무(李章茂)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장무(李章茂)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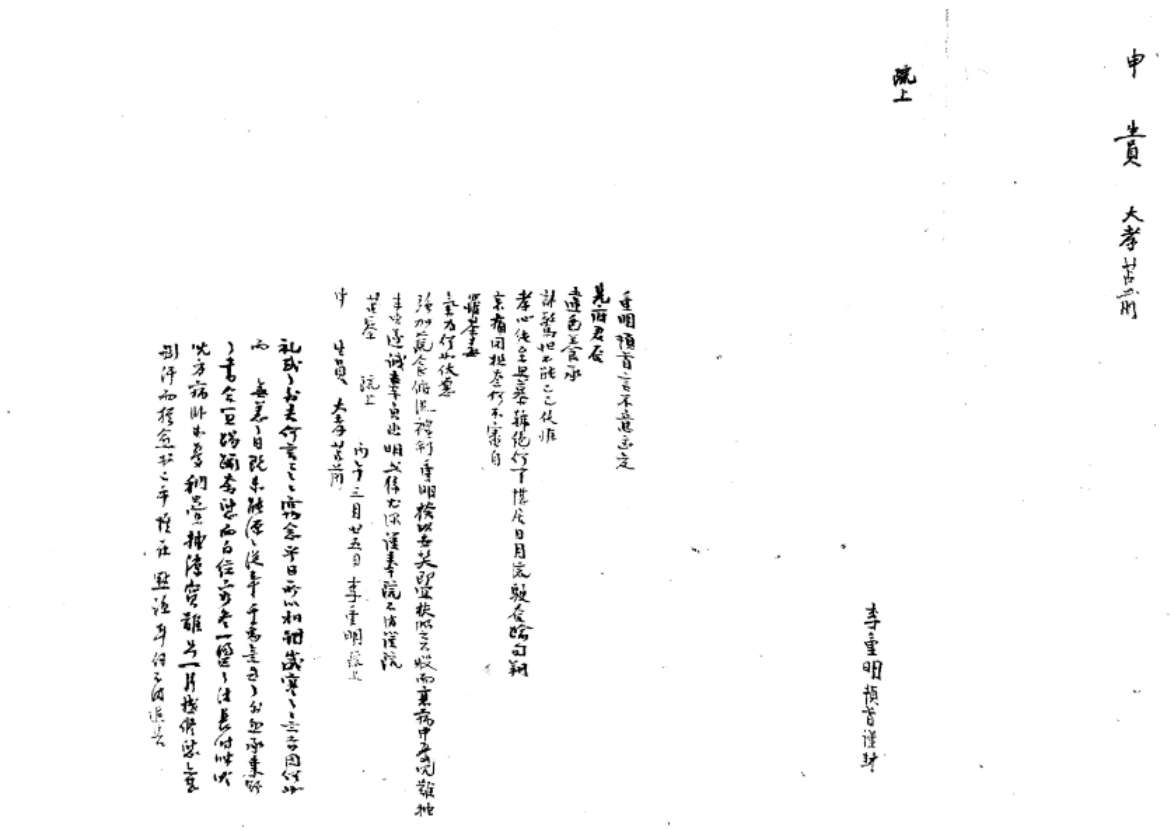


1906년 이중명(李重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중명(李重明)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5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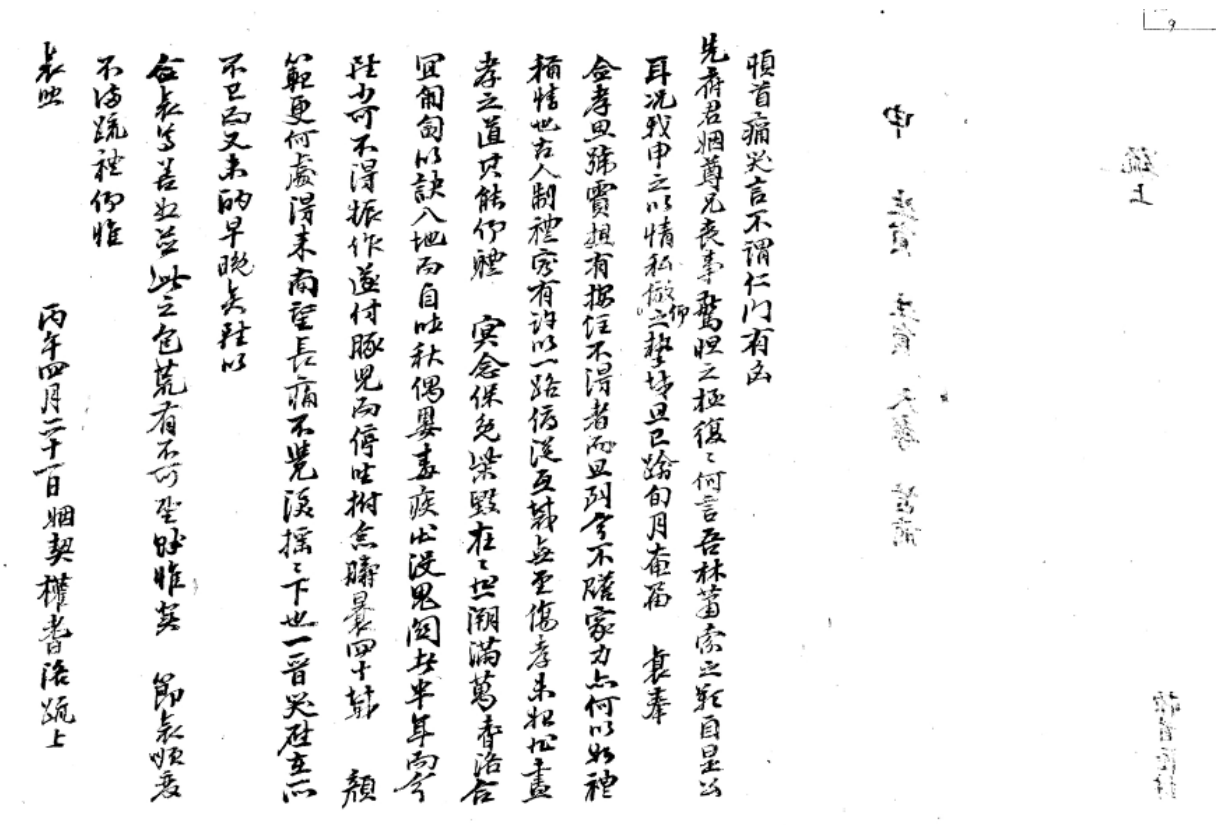


1906년 인계(姻契) 권기락(權耆洛)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권기락(權耆洛)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6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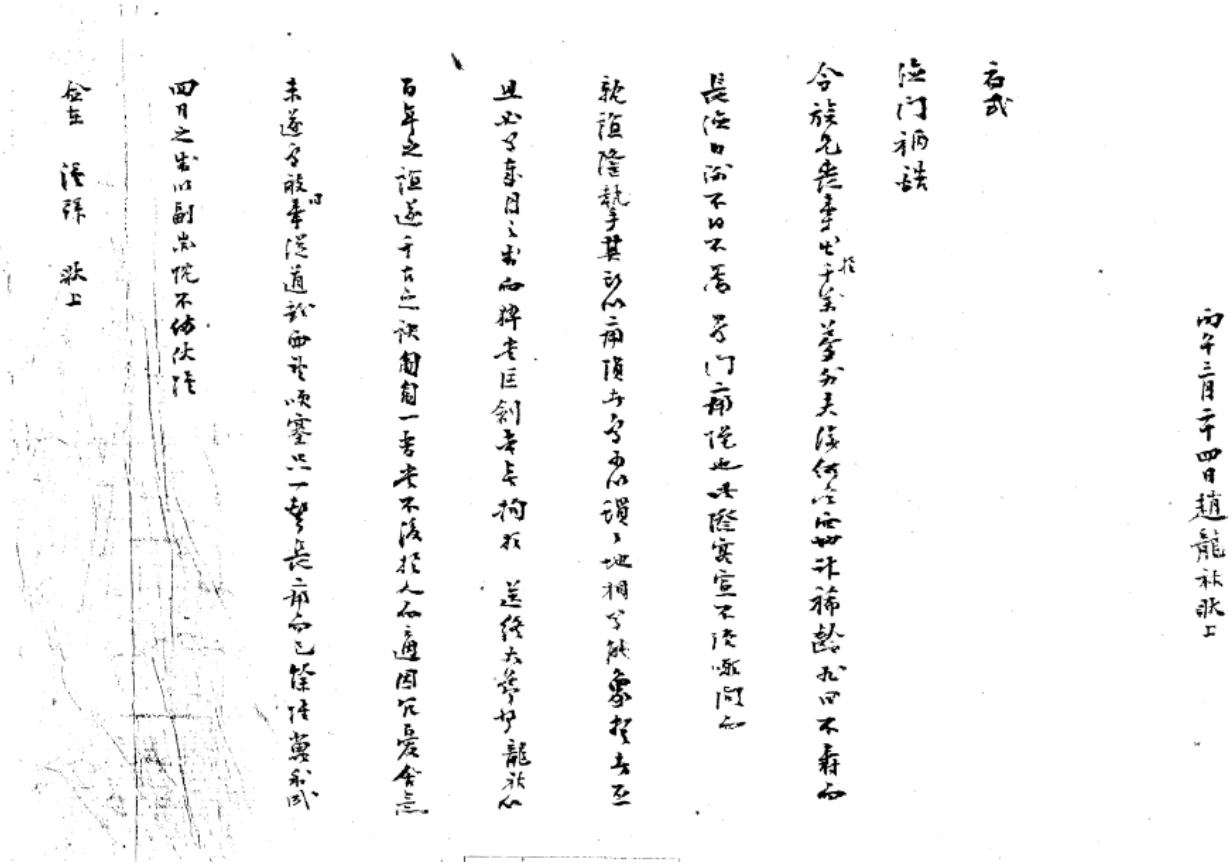


1906년 조룡추(趙龍秋)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조용추(趙龍秋)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7x4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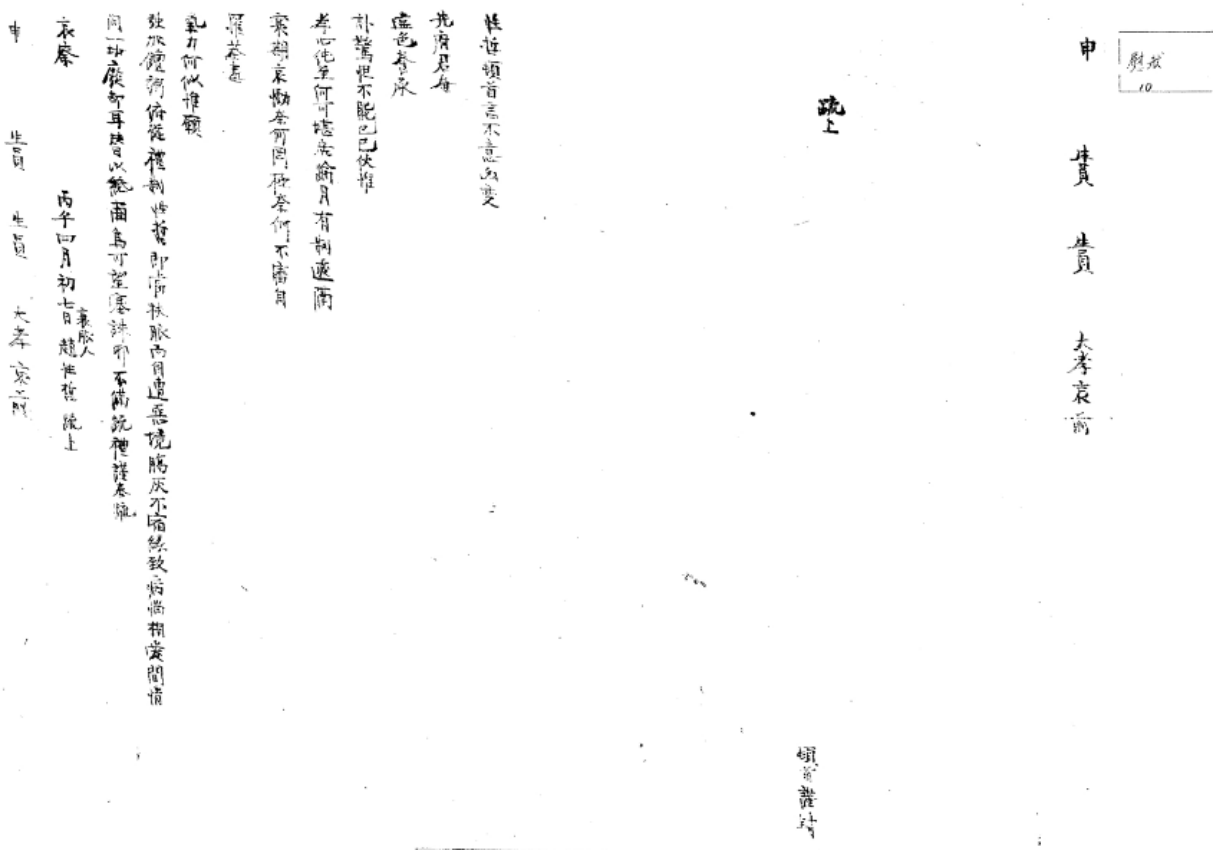


1906년 조성철(趙性哲)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조성철(趙性哲)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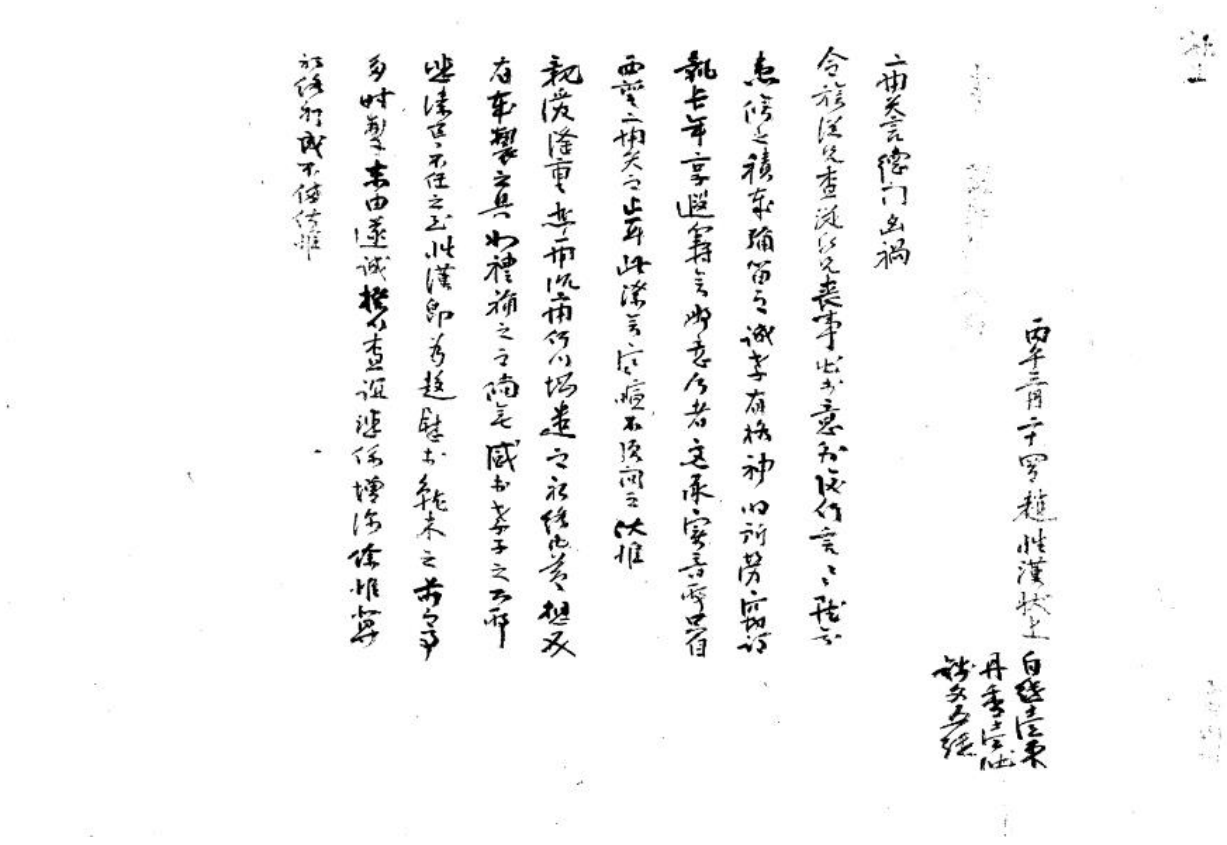


1906년 조성한(趙性漢)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조성한(趙性漢)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6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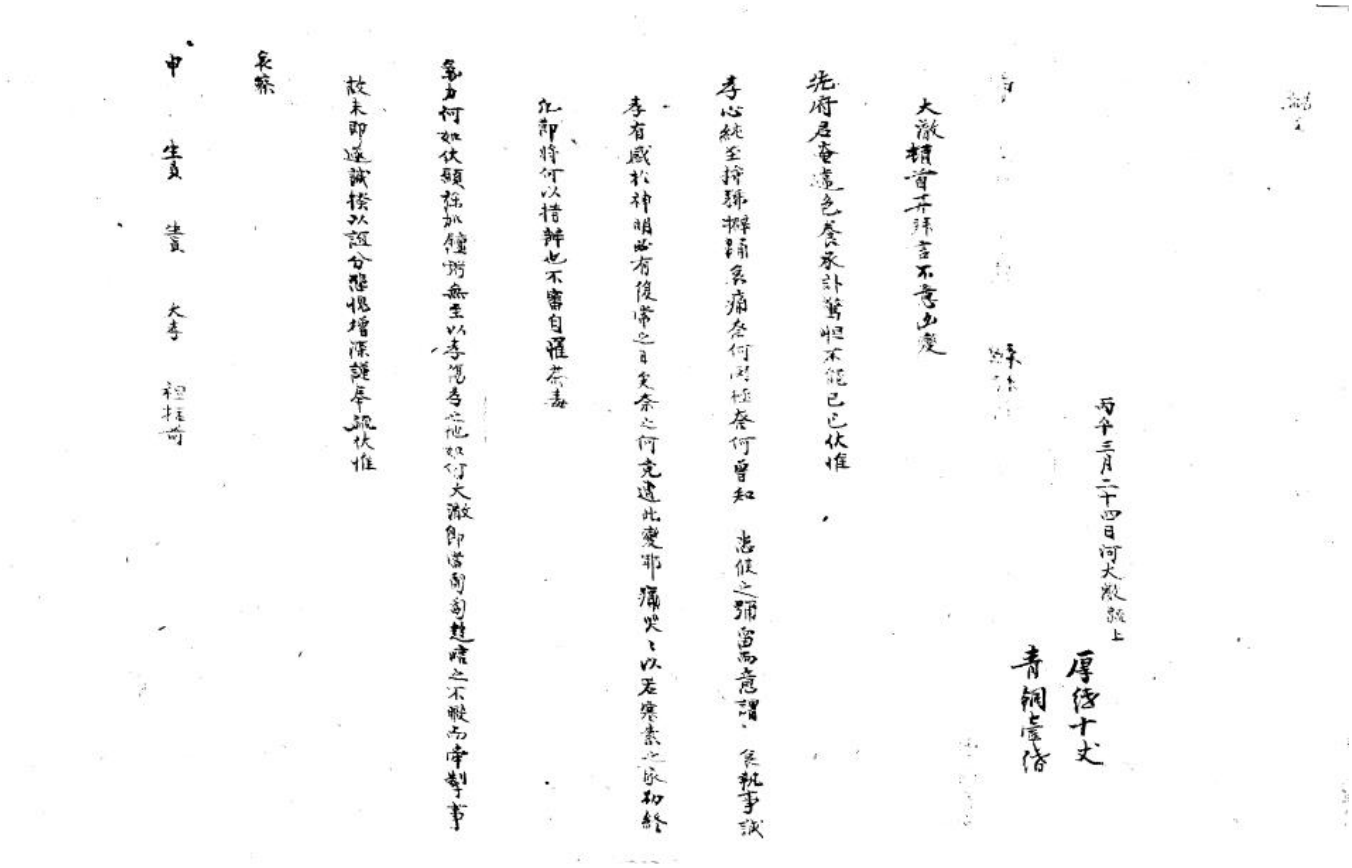


1906년 하대철(河大澈)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하대철(河大澈)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2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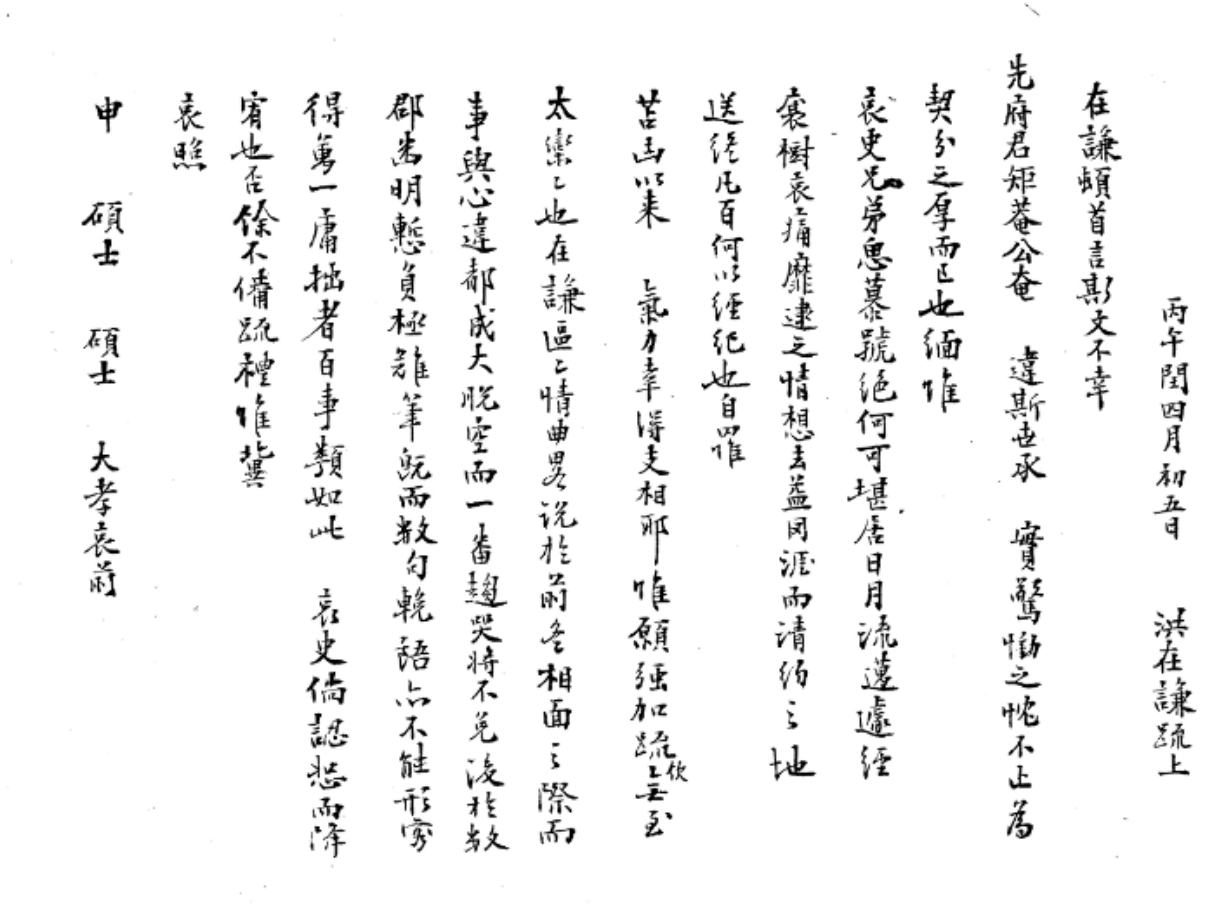


1906년 홍재겸(洪在謙)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홍재겸(洪在謙)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5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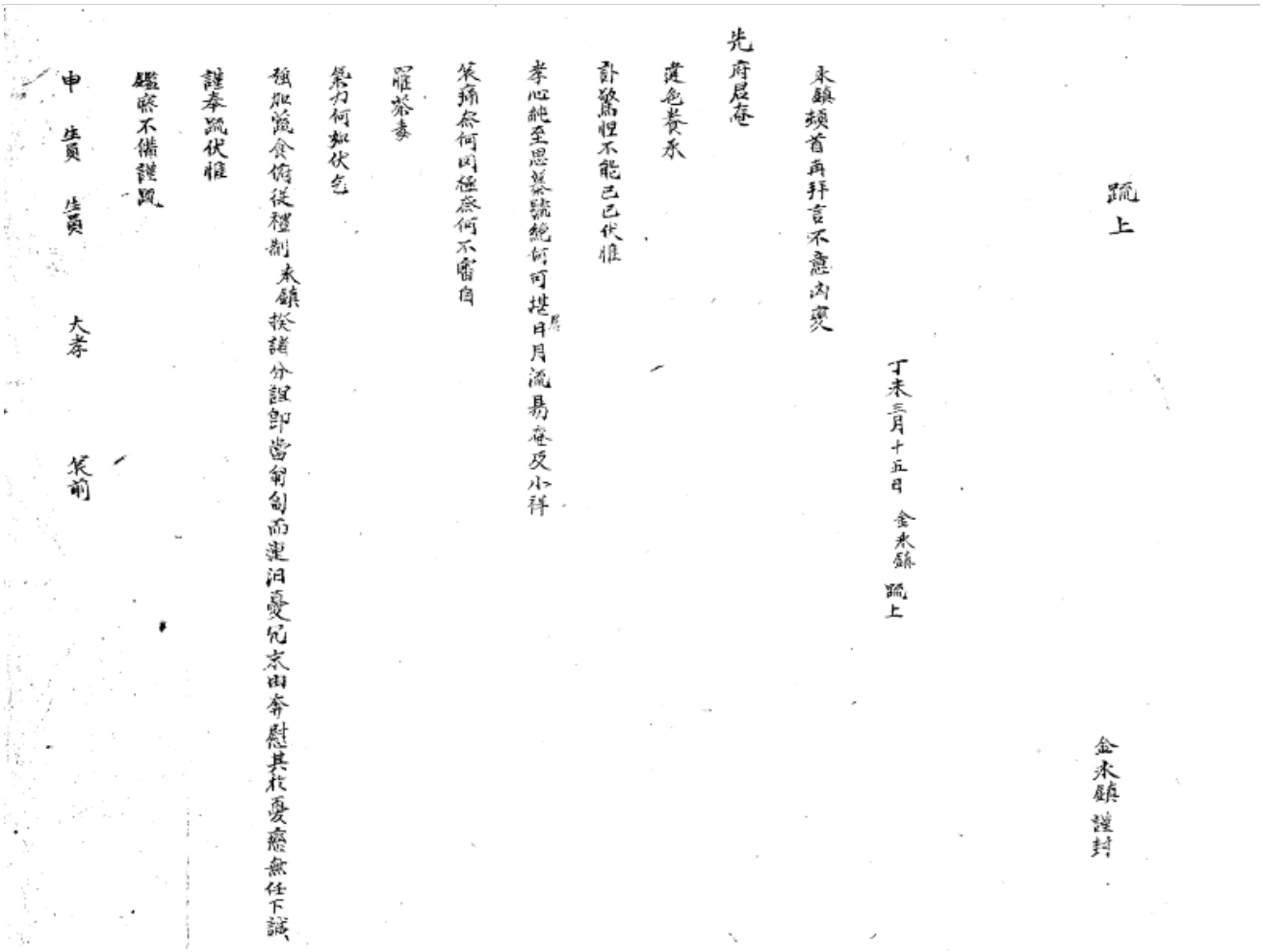


1907년 김영진(金永鎭)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영진(金永鎭)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40x4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7 ~쪽



疏上

丁未三月十五日 金永鎭 疏上

金永鎭 謹封

永鎭頓首再拜言不意凶變

先府君奄

違色養承

訃驚惶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日月流易奄及小祥

筴痛奈何因極奈何不審自

罹荼毒

氣力何如伏乞

強加寬食俯從禮制 永鎭揆諸分誼卽當匍匐而連汨憂冗未由奔慰其於憂癒無任下誠

謹奉疏伏惟

鑑察不備謹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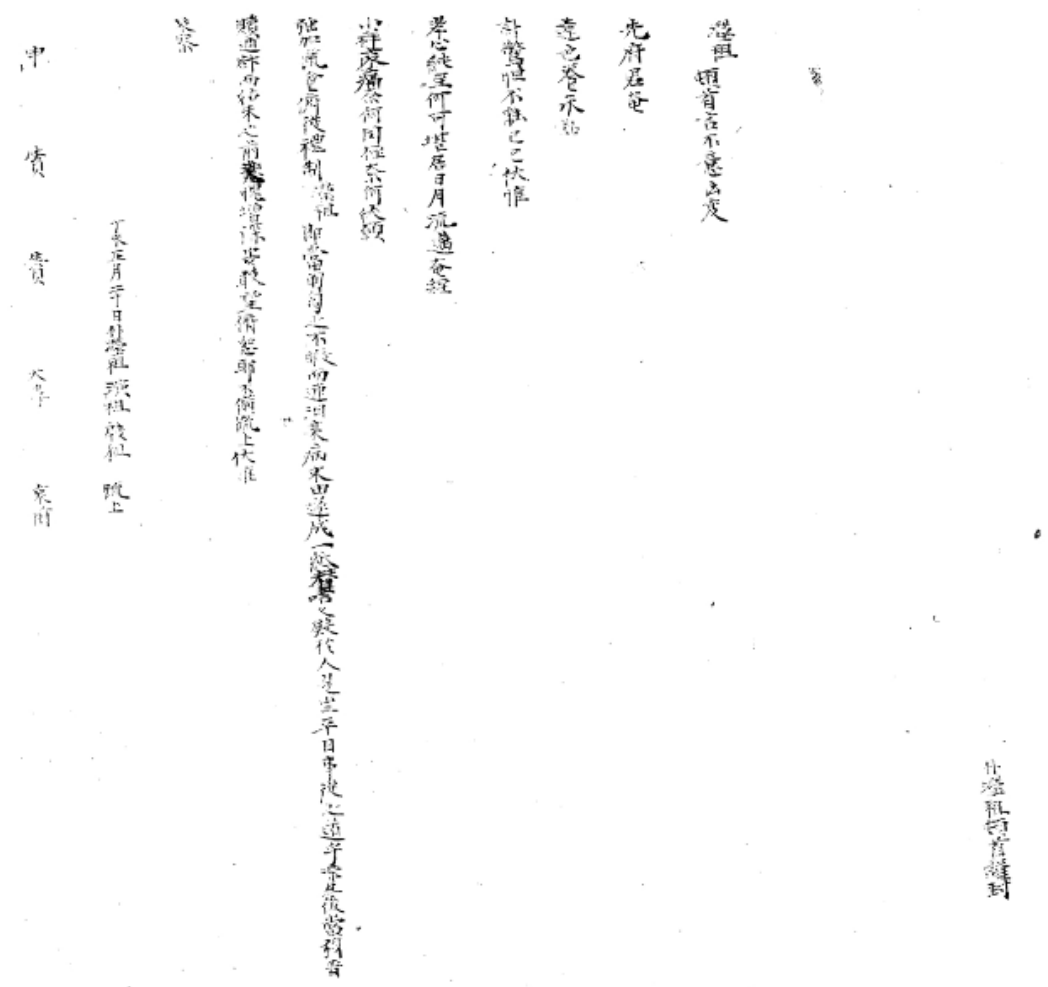
申 生員 生員 大孝 筴前

1907년 박영조(朴瀅祖)·박연조(朴演祖) 등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영조(朴瀅祖) , 박연조(朴演祖)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24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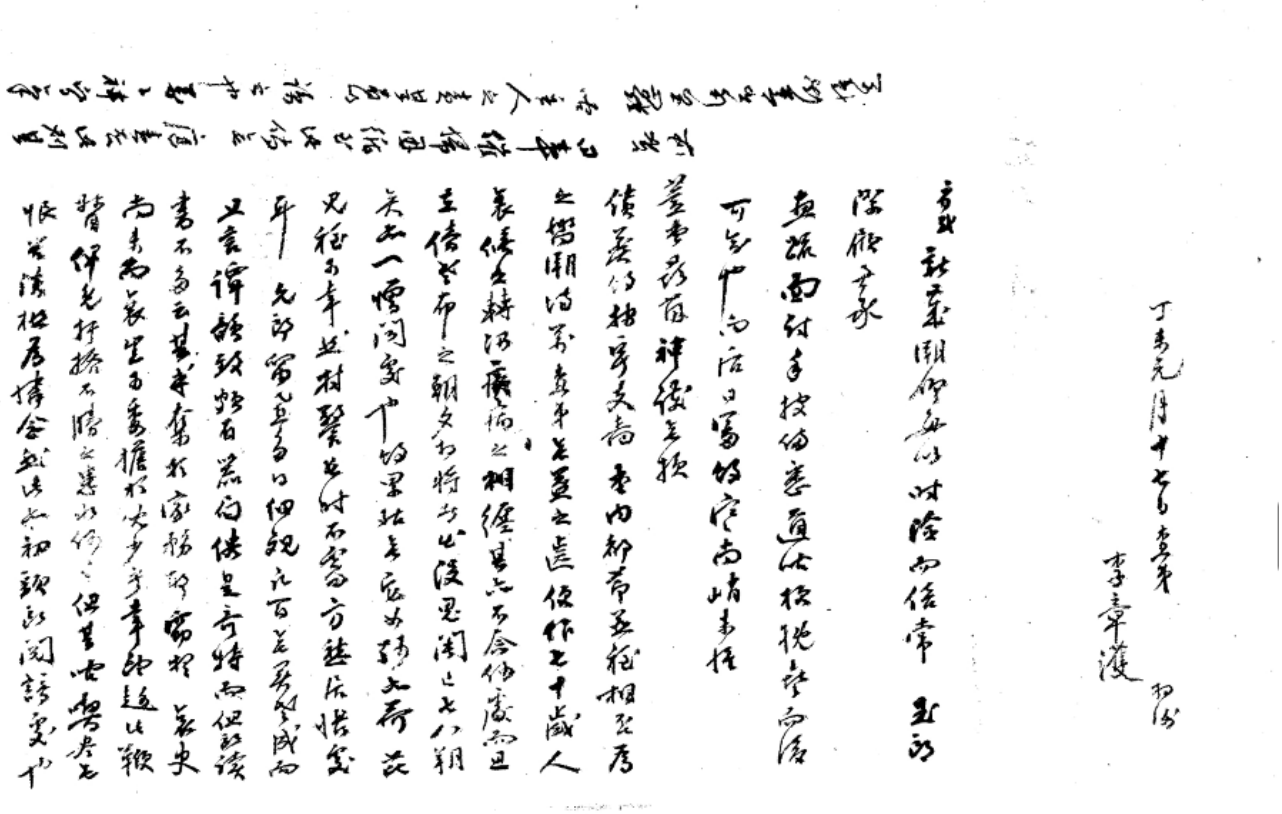


1907년 사제(査弟) 이장호(李章濩)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장호(李章濩)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23x3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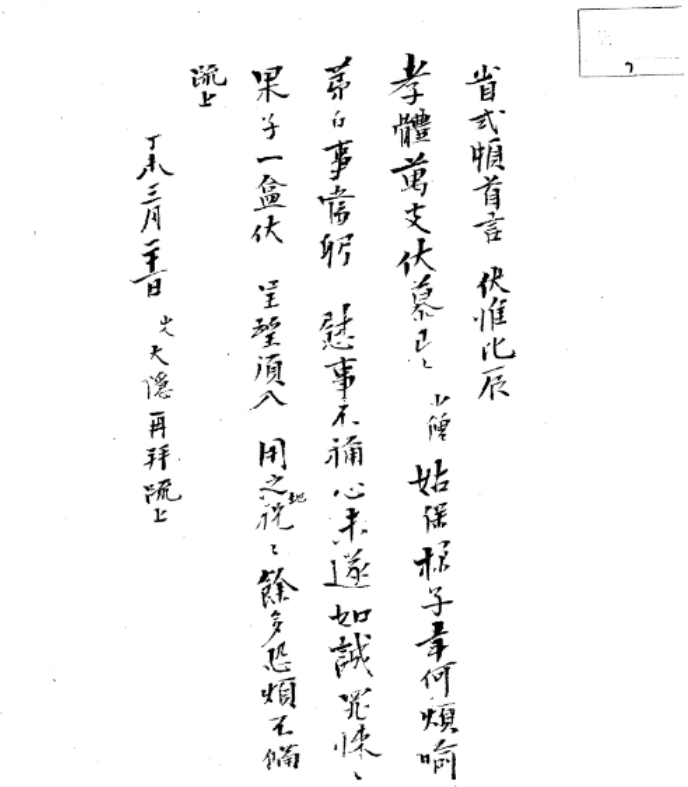


1907년 산인대은(山人大隱)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산인대은(山人大隱)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24x1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6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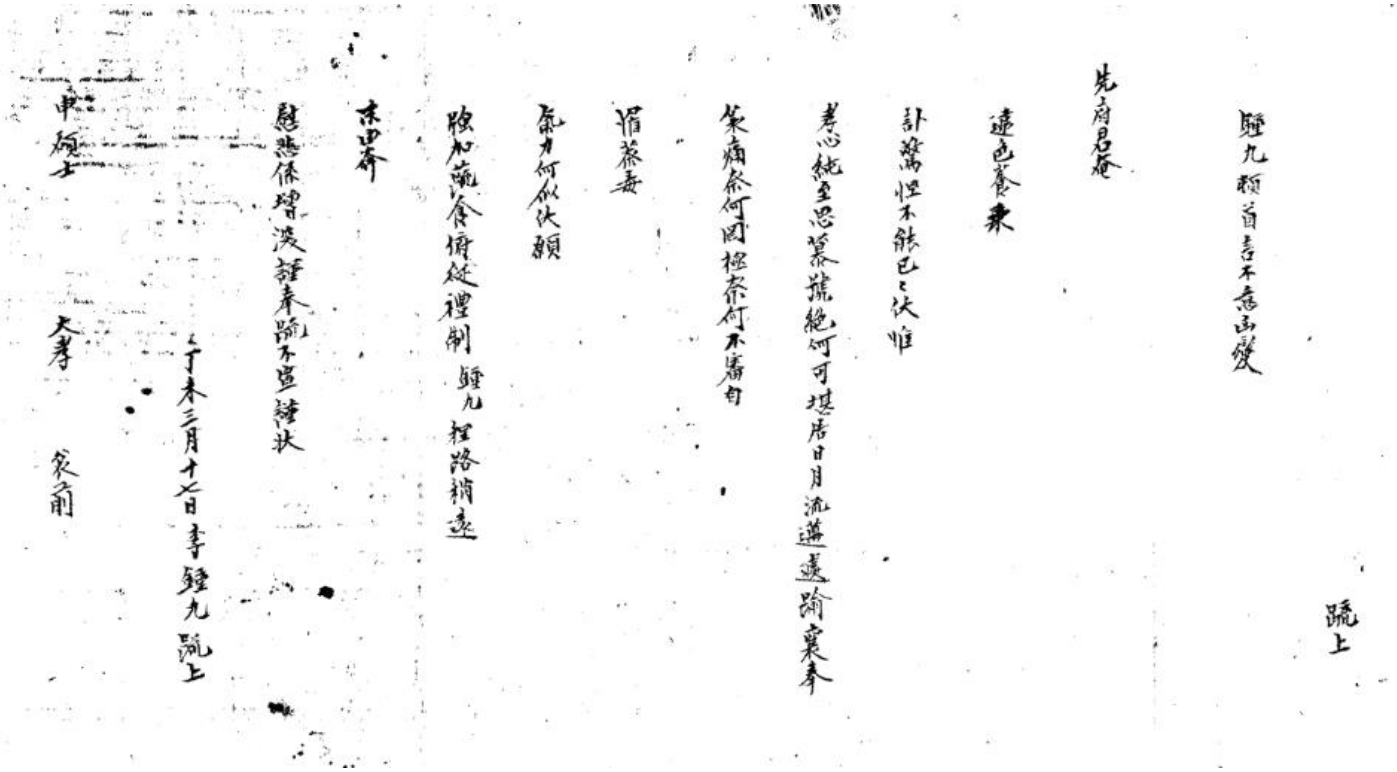


1907년 이종구(李鍾九)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종구(李鍾九)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62x3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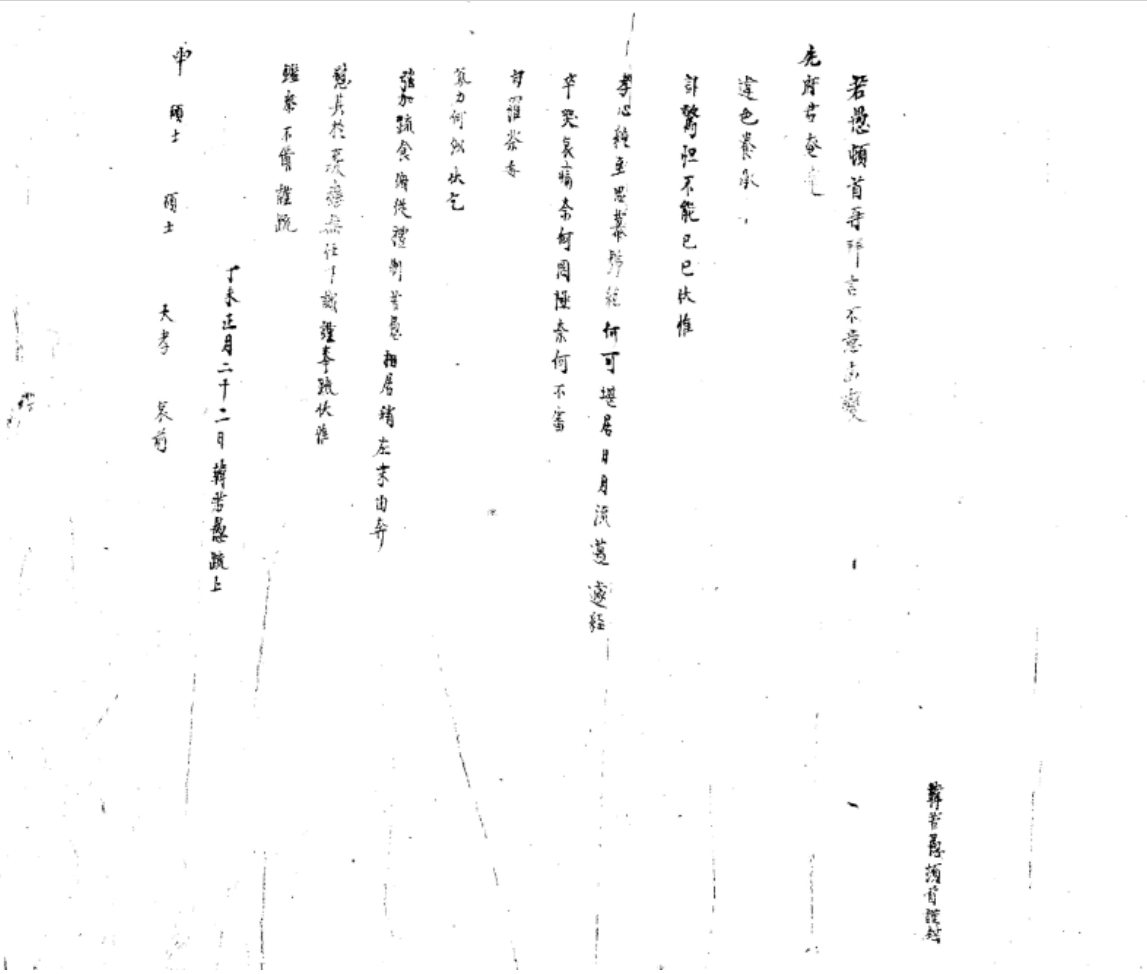


1907년 한약우(韓若愚)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한약우(韓若愚)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60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5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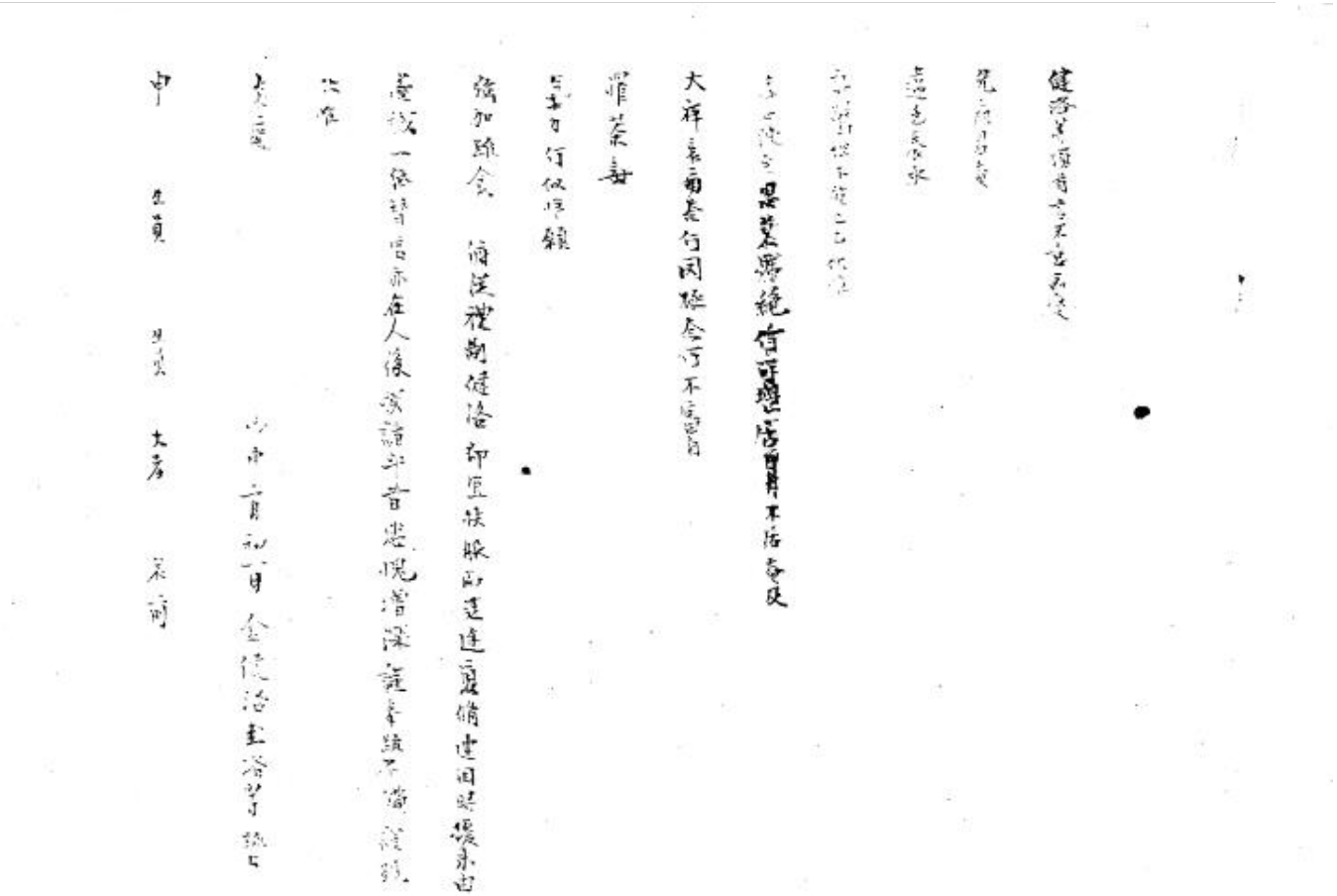


1908년 김건락(金健洛)·김규락(金圭洛) 등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건락(金健洛) , 김규락(金圭洛)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8 년
· **형태사항**	크기: 23x3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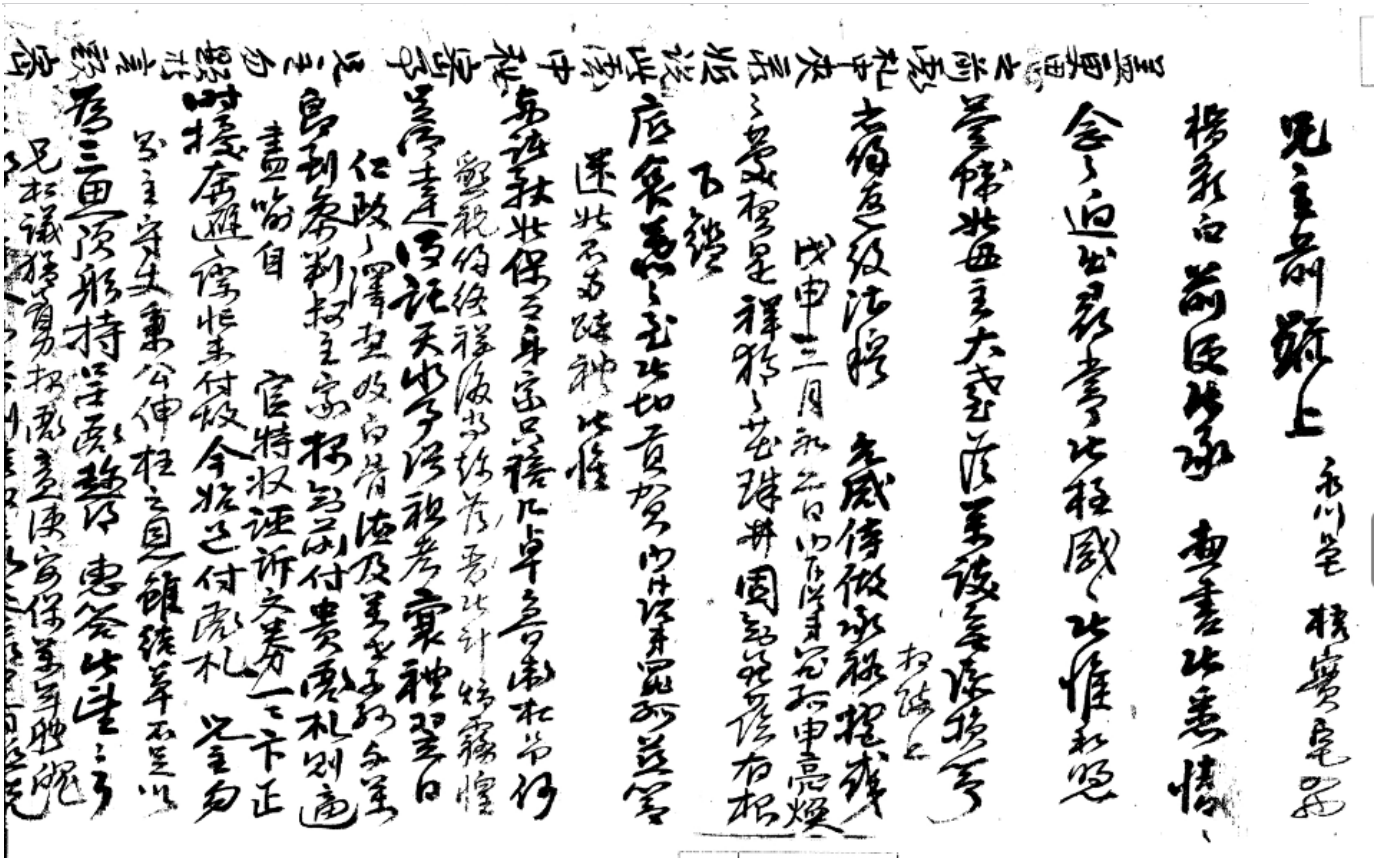


1908년 내재종제(內再從弟) 신양환(申亮煥) 간찰(簡札)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신양환(申亮煥) / 수취: 영천 오관댁(永川 梧寬宅)
· 작성시기	1908년
· 형태사항	크기: 23x5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908년 내재종제(內再從弟) 신양환(申亮煥) 간찰(簡札)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3 ~134쪽



간찰(簡札)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주고받는 글. 간독·척독·함찰·서간·서찰·한찰·어안·어복·수묵·수찰·수한·수자·수간·화전·화한·총전·전찰·전독·척소·편전·타운·신식·신음·신편·함서·함한·함음·적독·소간

간찰(簡札)은 오늘날의 편지를 일컫는 말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안부·소식·용무 따위를 적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간찰은 봉투인 피봉과 내지로 이루어졌으며, 내지는 머리말인 서두를 비롯하여 상대방의 안부를 묻은 후문, 보내는 이의 근황인 자서, 사연을 적은 술사, 그리고 결미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 간찰을 비롯해서 서찰(書札)·서간(書簡)이 편지의 일반 명칭으로 많이 쓰였고, 문학에서는 문체(文體)의 명칭으로 서독(書牘)·간독(簡牘)·척독(尺牘)이 주로 쓰였다.

간찰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는 함신(函信)·함독(函牘)·함서(函書)·함찰(函札)·서한(書翰)·한찰(翰札) 한독(翰牘) 한묵(翰墨)·어안(魚雁)·어복(魚腹)·어전(魚箋)·어백(魚帛)·어함(魚函)·어신(魚信)·어신(魚訊)·어서(魚書)·어함(魚緘)·안족(雁足)·안서(雁書)·안음(雁音)·안홍(雁鴻)·운함(雲函)·편저(片楮)·안백(雁帛)·수묵(手墨)·수찰(手札)·수한(手翰)·수자(手滋)·수간(手簡)·수간(手柬)·화전(華箋)·화한(華翰)·총전(寵箋)·전찰(箋札)·전독(箋牘)·전찰(牋札)·척소(尺素)·서장(書狀)·편지(片紙)·편전(便箋)·타운(朶雲)·신식(信息)·신음(信音)·신편(信便)·함찰(緘札)·함서(緘書)·함한(緘翰)·함음(緘音)·적독(赤牘)·소간(小簡) 등이 있다.

간찰은 크게 피봉(皮封)과 내지(內紙)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봉투를 일반적으로 피봉이라고 불렀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 방식은 19 세기 후반 서양의 근대 우편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단, 먼 지방을 왕복할 경우나 특별히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 경우에는 피봉을 한 번 더 쌓는데, 이것을 중봉(重封)이라고 한다.

지금의 편지 봉투는 가로로 긴 장방형으로 상단 왼쪽에는 보내는 사람, 하단 오른쪽에는 받은 사람을 적는다. 간찰은 지금의 편지와 달리 세로로 긴 장방형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받는 사람·왼쪽에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는 것이 정격(定格)이지만, 가족이나 친척·사제간·동료 등에게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고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만 적기도 하고 때로는 받는 사람이 관직에 종사하는 경우 관직명이나 직소(直所)만 적기도 한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상서(上書)' 또는 '근배상후(謹拜上候)' 등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피봉의 위아래 종이가 접히는 곳을 봉함처(封緘處)라고 하는데, 여기에 '삼가 봉한다'는 뜻을 나타내거나 공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별한 글자를 쓴다. 근봉(謹封)을 비롯해서 경봉(敬封)·돈봉(頓封)·봉(封) 근돈(謹頓) 돈(頓)·완(完)·함(緘)·배(拜)·식(式)·경(敬)·숙(肅)·정(貞)·각(恪) 등이 그것이다. 한편, 봉함처에는 봉함인(封緘印)을 찍기도 하는데 주로 피봉의 상단에 찍는 경우가 많다. 봉함인으로는 근봉·함·봉·호봉(護封)·근기(謹記) 전신(傳信) 등의 글자를 쓰기도 하고, 각 집안 또는 개인마다 고유의 문구나 명문(名文)·수복(壽福)과 관련된 글자를 새겨서 쓰기도 한다. 그리고 피봉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피봉 하단 봉함처에 근봉의 글자 앞에 간찰을 보내는 사람의 착명(着名)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내지의 구성은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서두로 간찰의 머리말이다. 서두에는 오랫동안 소식이 막혀서, 그동안 안부를 여쭙지 못해서, 지난번 왕림(枉臨)해 주셔서, 지난번 만나 뵌

이후로, 우연히 만났던 이후로, 지난번 부친 간찰 이후로, 심부름꾼을 통해 보내준 간찰을 받고서, 평소에 교분(交分)이 없었지만, 절기와 계절 인사 등 각양각색의 사항에 따라서 간찰을 쓰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한다.

두 번째는 후문(候問)으로 받는 사람 즉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대목이다. 세 번째는 자서(自叙)로 간찰을 보내는 사람 자신의 근황(近況)을 서술하는 대목이다. 간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부를 곡진하면서 세세하게 정성을 다해 묻는 반면 보내는 사람은 근황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양쪽을 완전히 대조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술사(述事)로 사연을 적는 대목이다. 문집 속의 간찰은 대체로 술사만 수록되는 경우가 많다. 안부를 묻는 간찰은 '술사'의 단계가 생략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술사의 대상이다. 우선 옷·음식(과일, 고기, 생선 등)·지필묵연(紙筆墨硯)·약재(藥材)·서책·그림·달력·부채·각종 생필품 등 물건을 보내는 경우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하거나, 집안의 각종 행사와 질병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한 물품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옛 사람들은 과거가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과거를 준비하고 응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즉 소과(小科)와 문과(文科)와 같은 과거시험·초시(初試) 합격·과거 보러 가는 것[應擧] 과거시험 에 떨어지는 것[落榜]의 내용이 간찰에 많이 언급된다. 또한 시사(時事)나 학술적인 쟁점 사안, 관직 진출 국가의 경사(慶事)·득남(得男)과 생일 등에 대한 축하인사·관혼상제(冠婚喪祭)·문병(問病)·각종 재해(災害)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결미(結尾)로 간찰의 끝 부분이다. 결미도 일정한 격식이 있는데, 먼저 술사에서 사연을 다 말한 뒤에 간단히 끝맺는 말을 한다. 간찰의 머리말에서도 표현이 다양하였듯이 끝맺는 말도 사정에 따라 '언제쯤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질병·더위·손님·피곤·인편 등 여러 사정으로 간찰을 길게 적지 못하고 간략하게 적는다', 또는 절기·계절에 따른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적는다. 이처럼 끝맺는 말을 한 뒤에는 '나머지 여러 얘기는 우선 남겨둡니다. 간찰의 예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삼가 이 간찰의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간찰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격식적인 표현을 쓰고 그 뒤에 보낸 날짜·성명·올림[재배(再拜)]의 항목을 차례로 적는다.

옛 사람들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간찰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양의 간찰이 현재 낱장 또는 첩(帖)의 형태로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정명도(程明道)가 '간찰은 유자(儒者)가 가장 가까이 일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찰은 단순히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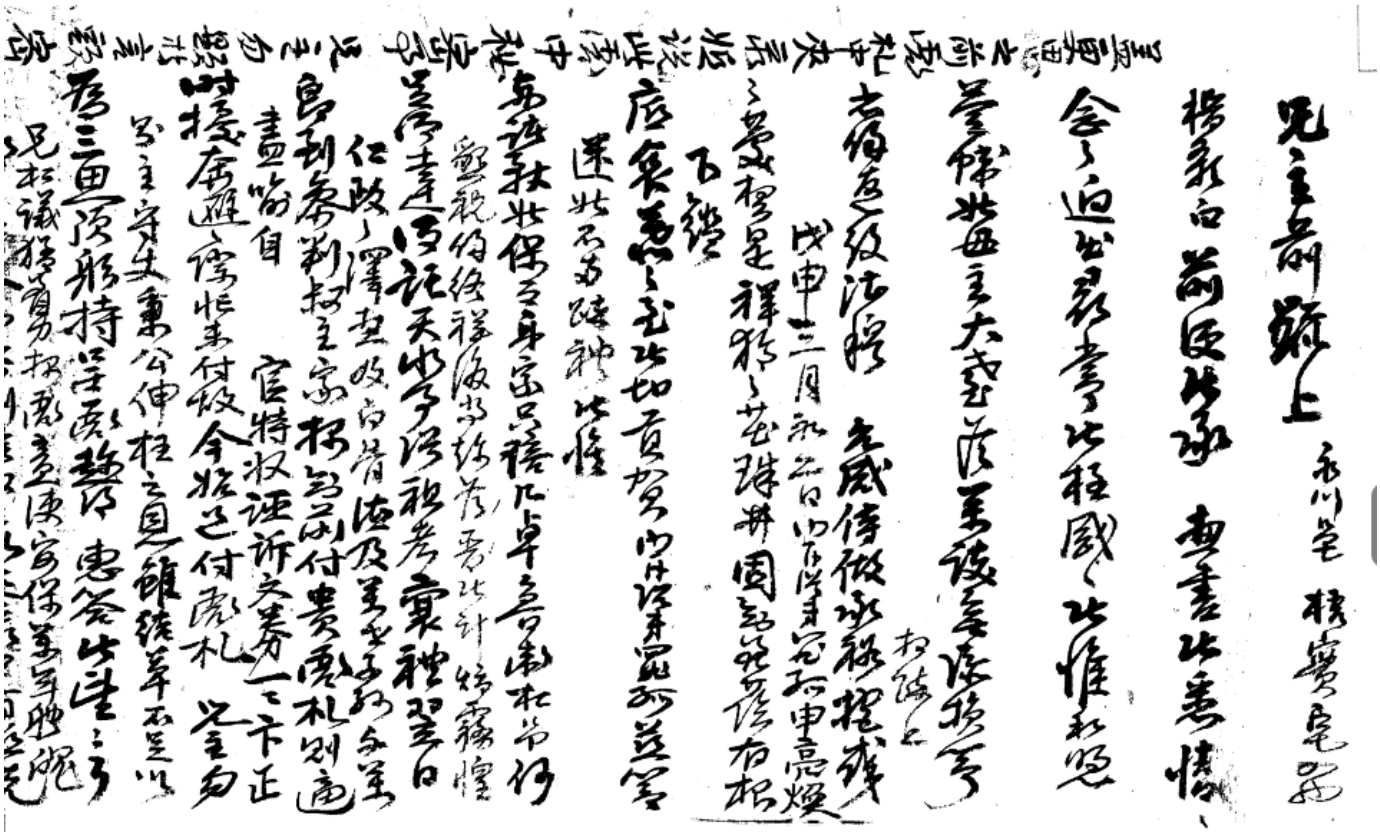
오늘날 간찰이 제자와 스승·동학(同學) 사이에서는 학술과 시사를 토론하는 치열한 담론의 도구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역사를 비롯하여 문학사, 사상사, 경제사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간찰의 글씨는 서예사의 흐름을 살필 수 있고, 봉함인·착명·시전지(詩箋紙) 등을 통해서도 그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는 데에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고문서에 남아 있는 간찰은 초서(草書)로 쓰여 있어서 판독은 물론 독특한 격식과 용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에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1908년 내재종제(內再從弟) 신양환(申亮煥)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신양환(申亮煥) / 수취: 영천 오관댁(永川 梧寬宅)
· 작성시기	1908년
· 형태사항	크기: 23x5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908년 내재종제(內再從弟) 신양환(申亮煥) 간찰(簡札)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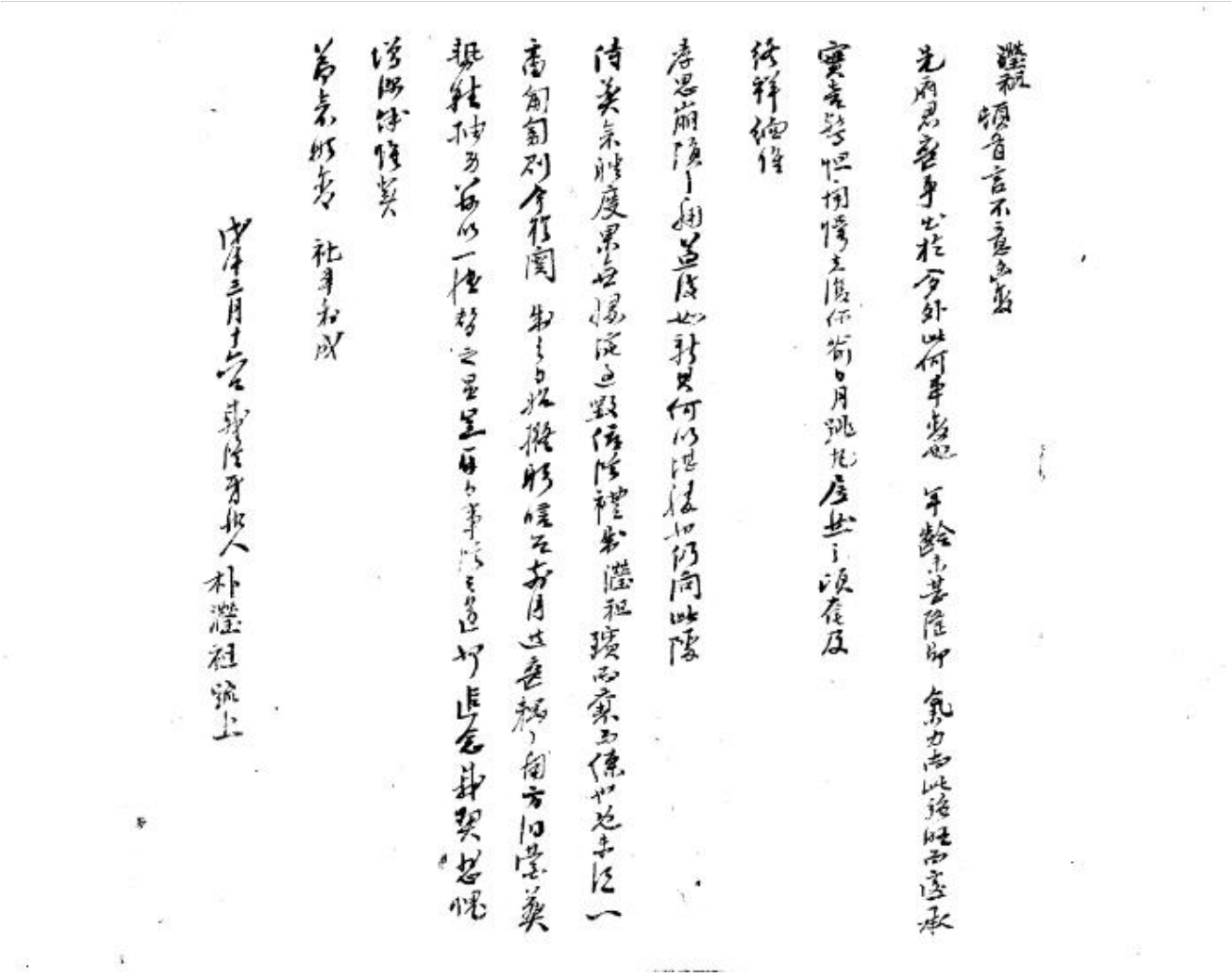


1908년 박영조(朴瀅祖)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영조(朴瀅祖)
· **작성시기**	1908 년
· **형태사항**	크기: 40x3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5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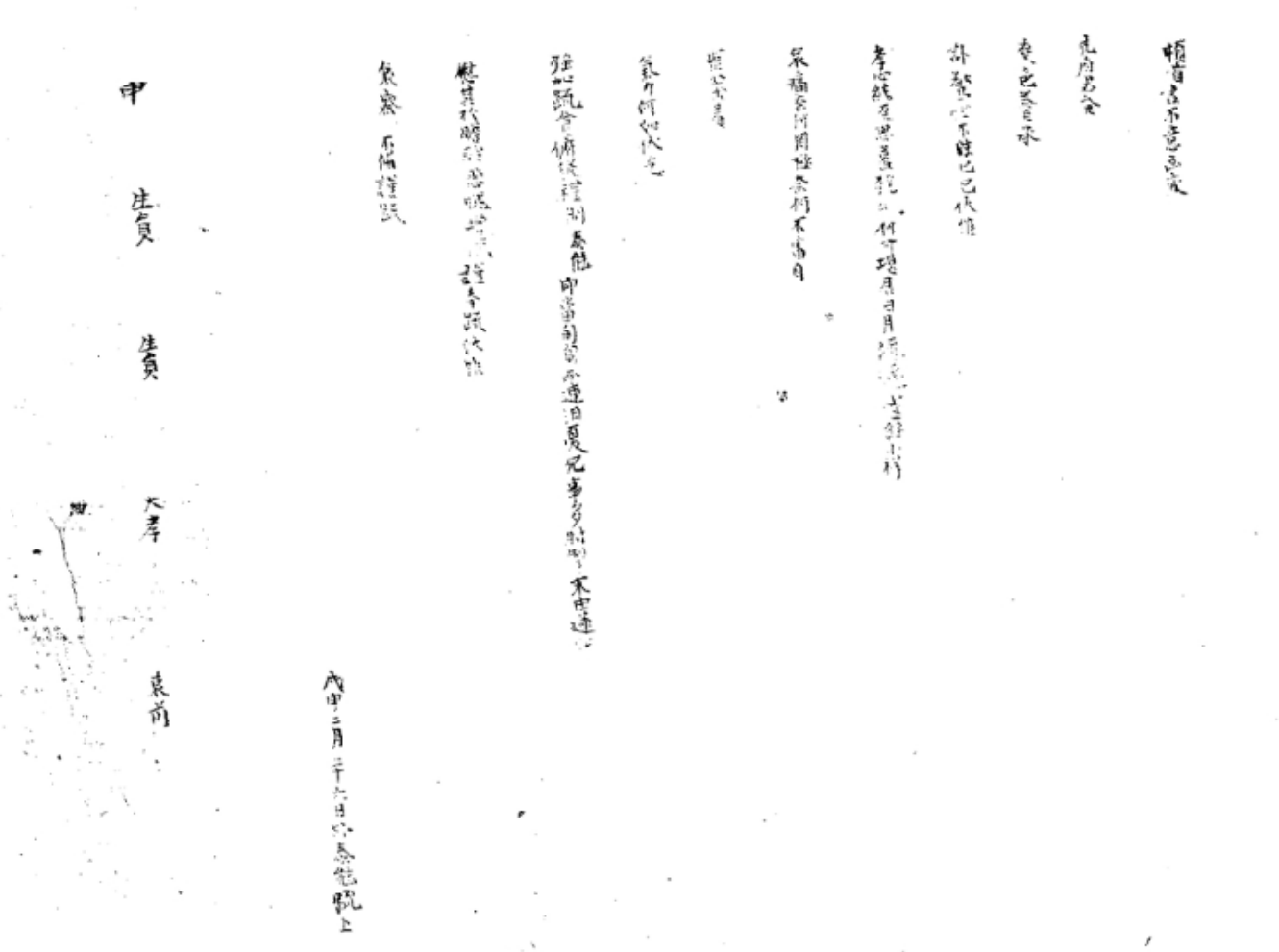


1908년 박태능(朴泰能)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태능(朴泰能)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8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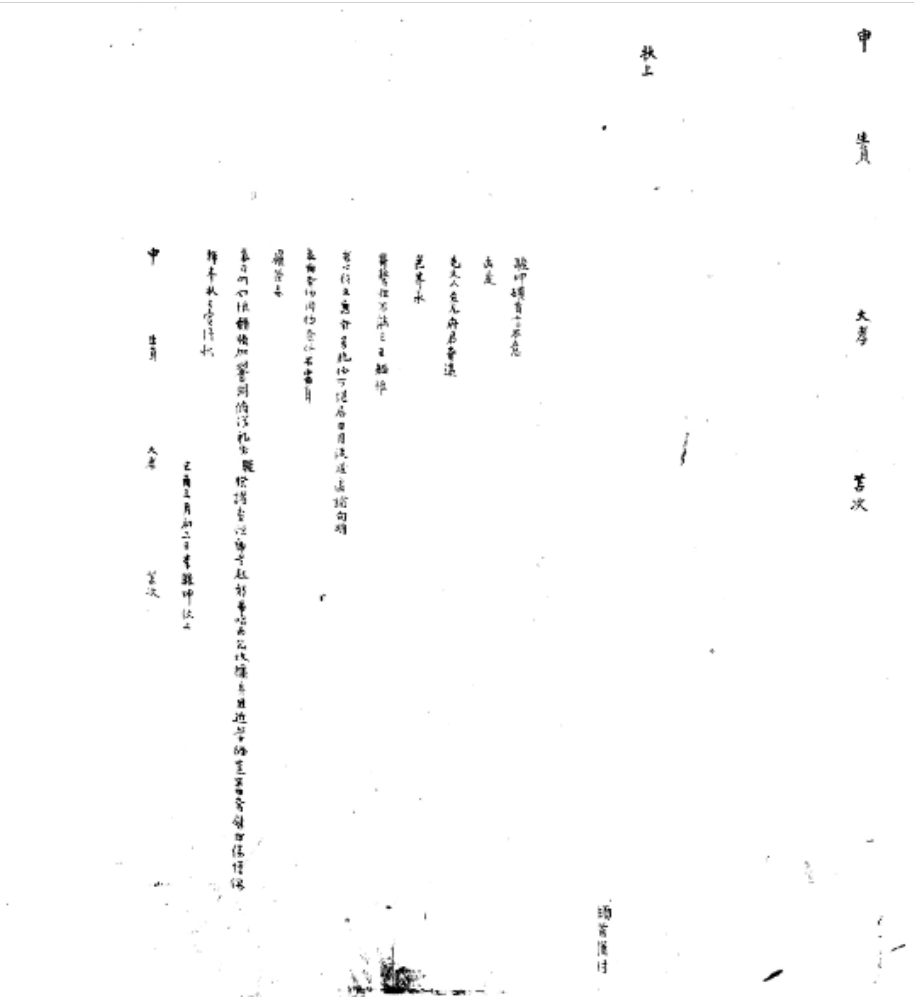


1909년 이준곤(李駿坤)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준곤(李駿坤)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9 년
· **형태사항**	크기: 60x3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6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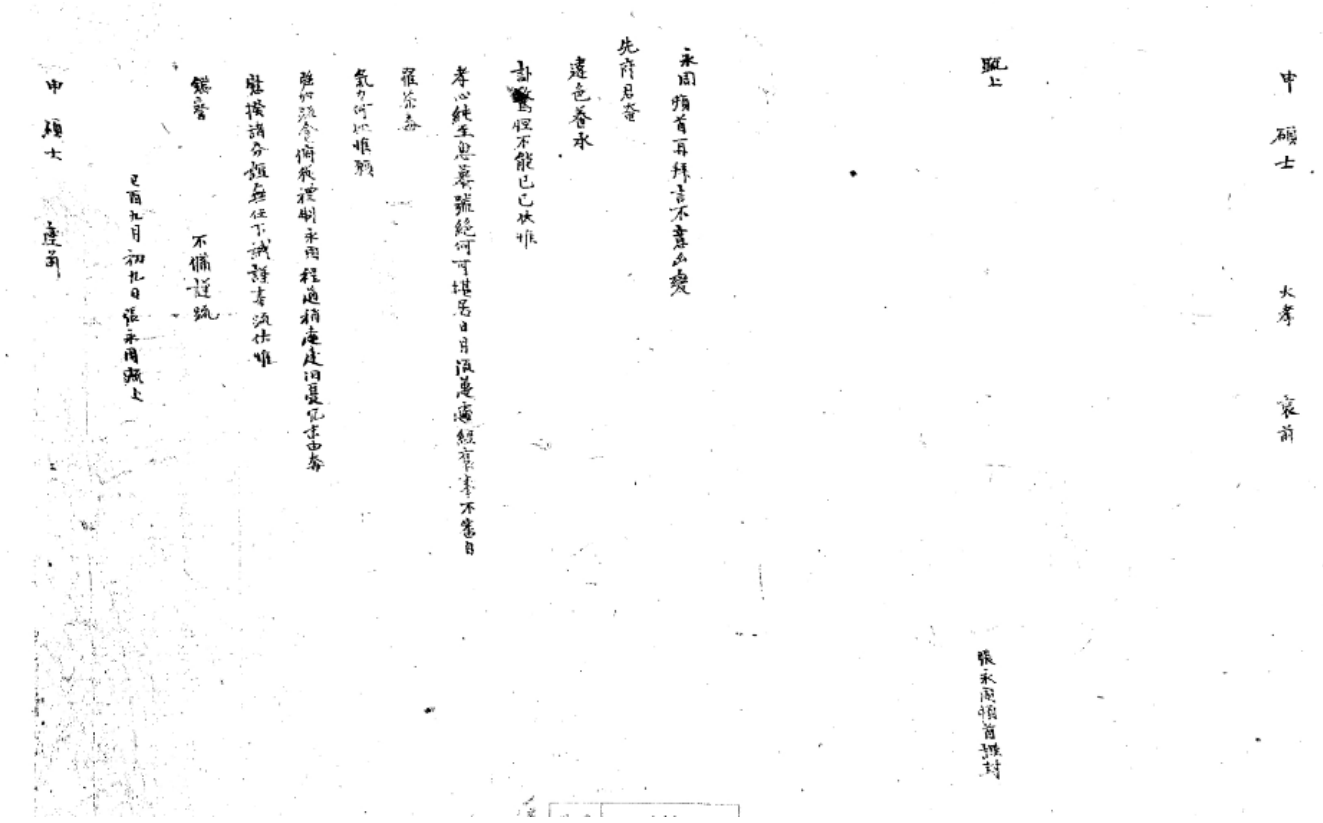


1909년 장영주(張永周)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장영주(張永周)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9 년
· **형태사항**	크기: 42x4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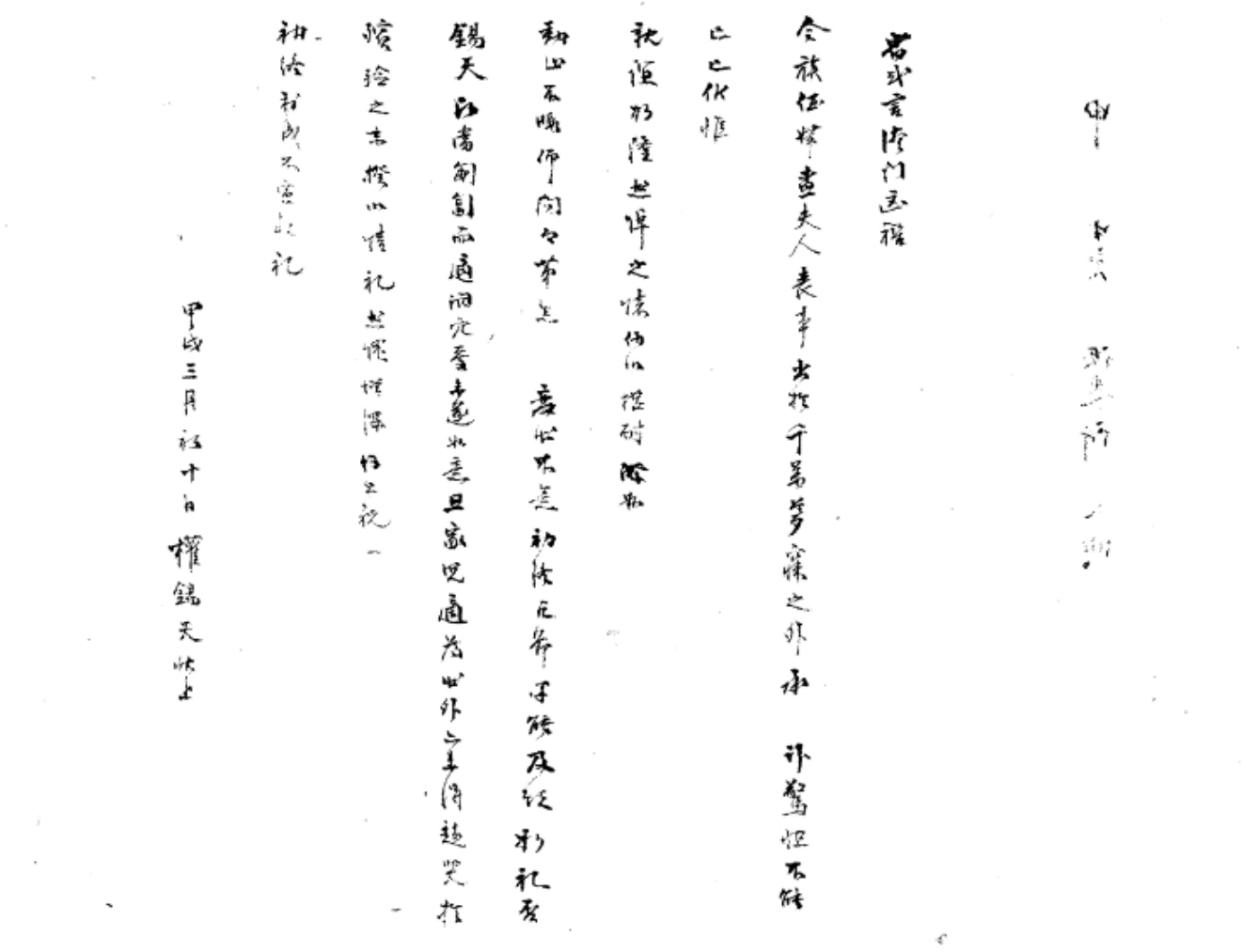


1974년 권석천(權錫天)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권석천(權錫天)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74 년
· **형태사항**	크기: 30x4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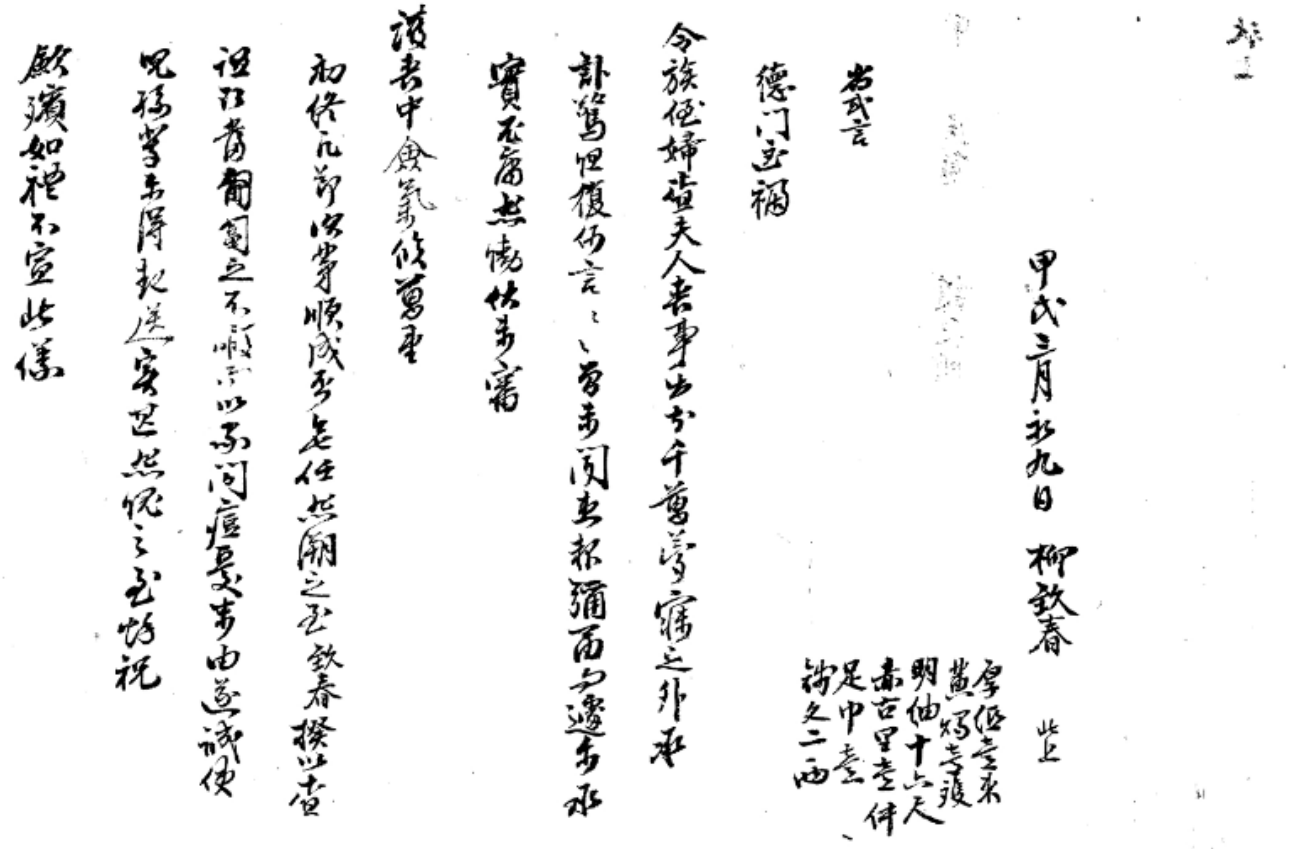


1974년 유치춘(柳致春)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유치춘(柳致春)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74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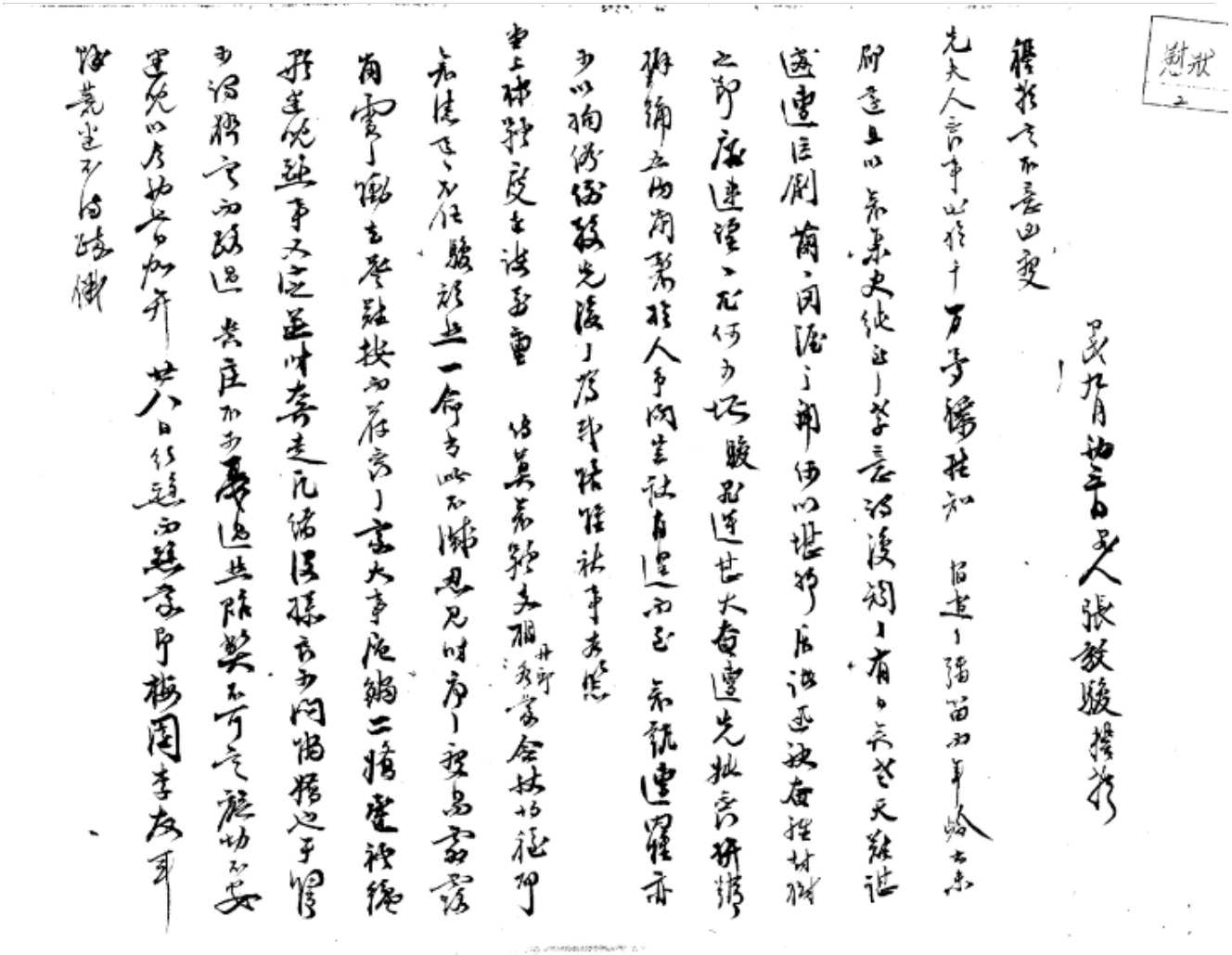


1974년 장방준(張放駿)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장방준(張放駿)
· **작성시기**	1974 년
· **형태사항**	크기: 21x2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5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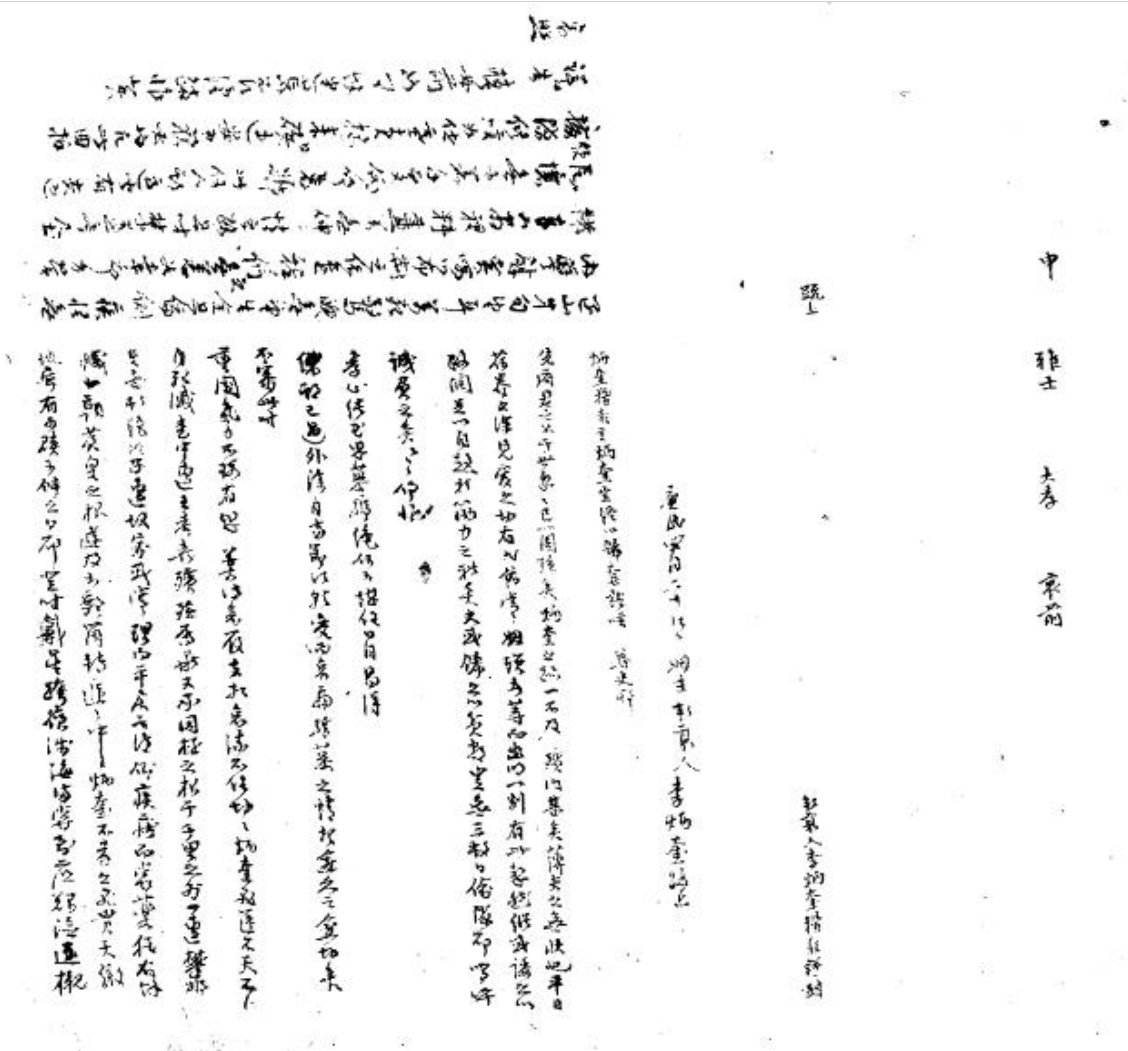


경술년 이병규(李炳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병규(李炳奎)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경술
· **형태사항**	크기: 50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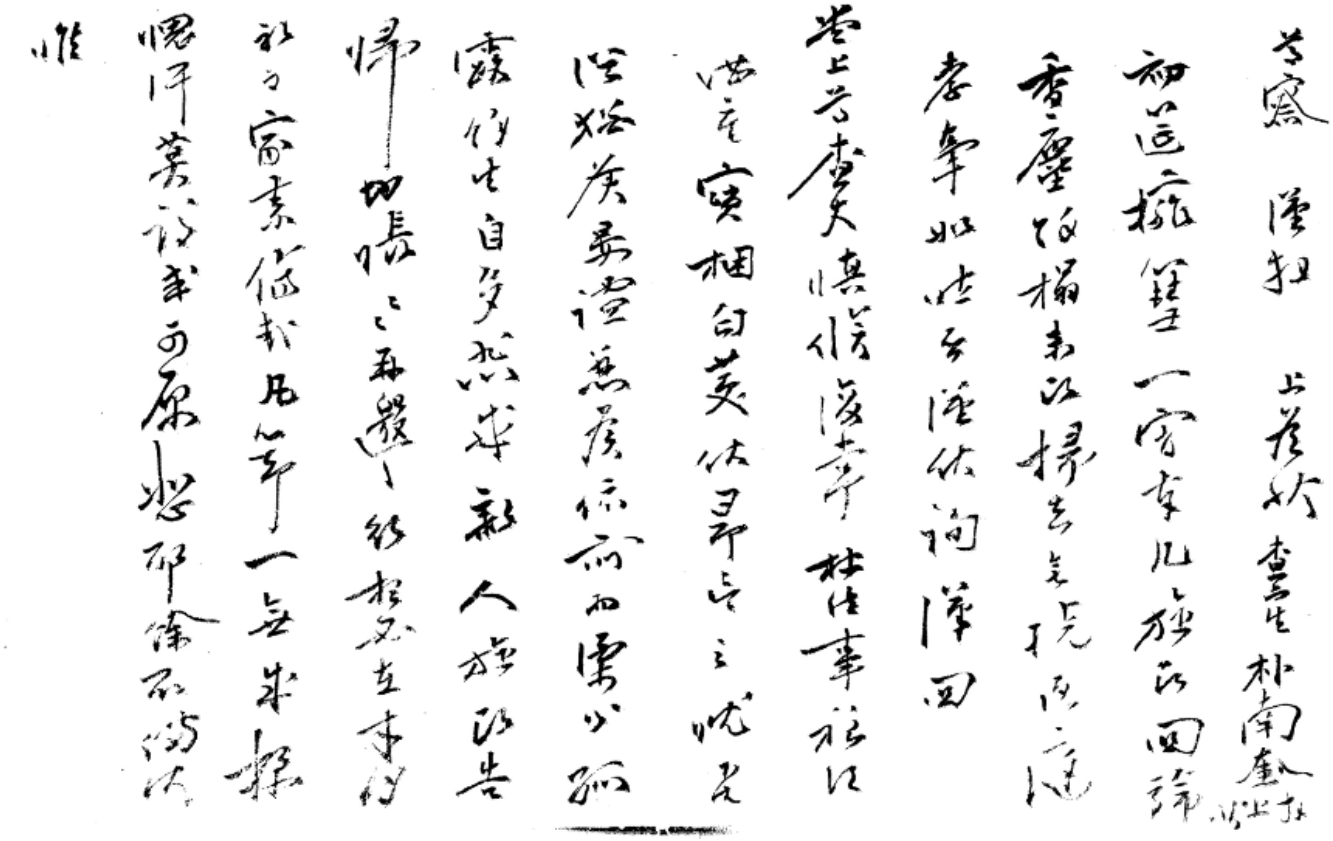


사하생(査下生) 박남규(朴南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남규(朴南奎)
· **형태사항**	크기: 20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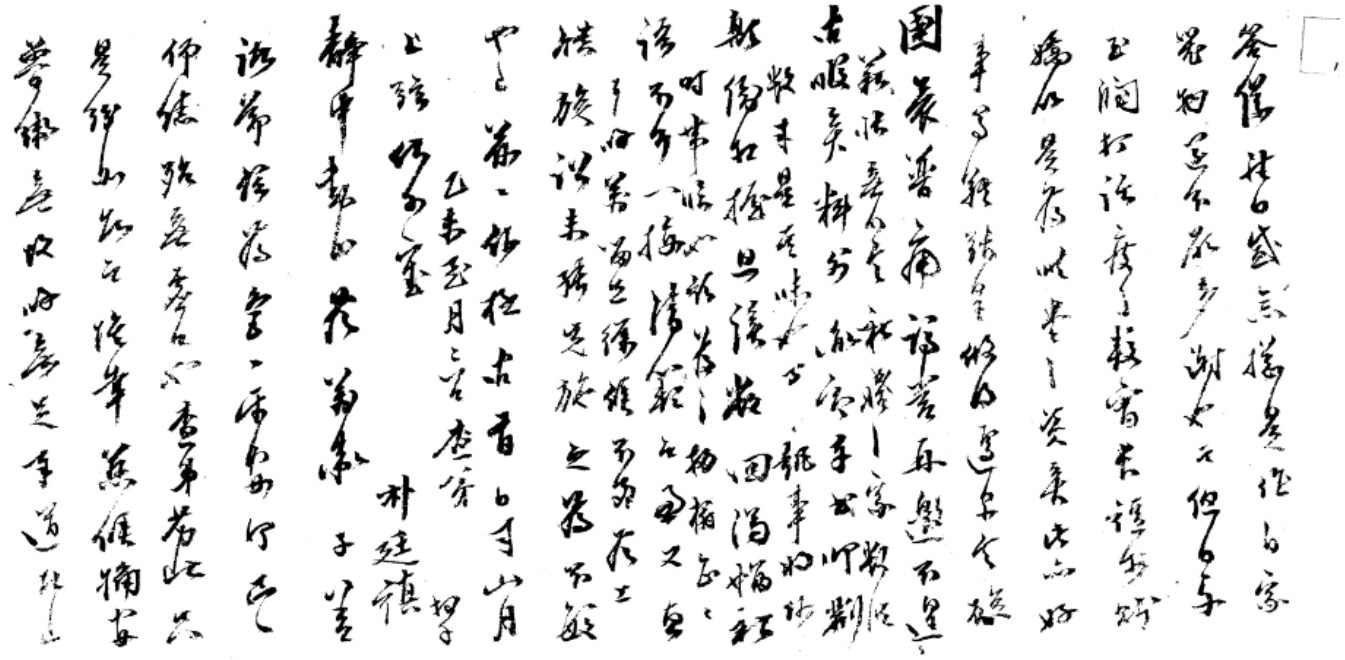


을미년 사제(査弟) 박정진(朴廷禛)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정진(朴廷禛)
· **작성시기**	을미
· **형태사항**	크기: 21x4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40 ~쪽



통문 (1)

조선시대에 민간단체나 개인이 같은 종류의 기관, 또는 관계가 있는 인사 등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통지하던 문서.

서원·향교·향청(鄕廳)·문중(門中)·유생(儒生)·결사(結社)와 의병, 혁명이나 민란의 주모자들이 대체로 연명(連名)으로 작성하여 보냈으며, 그 내용은 통지·문의·선동·권유 등 다양하다. 일반 서신과 다른 점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또한 백성의 억울한 사정이나 개인들간의 분쟁 해결을 관청에 호소하는 소지(所志)나 국왕에게 의견을 올리는 상소와 구별되는 점은 그 목적이 백성간에 서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통문은 송신자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통용된 것 중의 하나는 서원·향교·유림에서 보낸 것으로, 이를 '유통(儒通)'이라고 하였다.

유통은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유생들에게 돌리는 글로서, 서원의 건립이나 보수, 효자·열녀·충신들의 정문(旌門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는 붉은 문. 작설. 紅門) 건립 또는 증직(贈職) 등의 표창 건의, 문집의 발간, 향약계의 조직 등에 대한 내용이 많다.

특히 유회(儒會)·당회(堂會)에서 돌렸던 통문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였는데, 이들 기관들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이라는 서원의 주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것이나 정치·사회 문제 등에 대한 재야 유림들의 여론을 결집하여 공식화하는 거점이 되었다.

시국에 관한 중요 문제, 특히 대의명분에 관계되는 문제가 사림(士林)에 발생하였을 때 회합을 가졌는데, 그 날짜와 장소·의제, 회합의 결과까지 통문으로 발송하여 10 일이면 나라 안에 모두 전파되었다.

또 이들 유림들은 때로 이른바 '청의(淸議)'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여론을 조작하는가 하면, 당쟁에 뛰어들어 암투를 조장하는 동시에 반대파를 비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때에도 통문이 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626 년(인조 4) 6 월 영남의 유생들이 통문을 돌려 관찰사를 성토하여 마침내 방백(方伯), 원탁(元鐸)을 물러나게 한 일이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의 감사 김성일(金誠一)이 좌도의 감사로 제수(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일)되자 우도 사민(士民)들이 통문을 돌려서 향교에 모여, 김성일을 머물러 있게 하여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통문은 지방관의 진퇴문제를 논의하는 매체로도 이용되면서 숙종 이래 더욱 성행하여 국정을 좌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자, 이러한 폐단을 규제하기 위해 조정에서 이를 엄히 다스렸다.

즉, ≪속대전≫ 형전(刑典) 추단(推斷)에 "유생이 토주(土主 : 고을의 수령)에 발악하거나 성묘(聖廟) 또는 관문 밖에서 회곡(會哭)하는 경우에는 장 100 과 유형 3,000 리에 처한다. 다만 통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배(徒配 : 도형에 처한 뒤에 귀양을 보냄)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유는 집단적으로 호소하는 등장(等狀)이나 대궐문 밖에서 재야 유림들의 시위형태인 복궐(伏闕) 등도 미리 통문을 돌려 합의가 이루어져 행하여지는 것이었으며, 만인소(萬人疏)도 각 지방에 통문을 돌려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임진왜란·병자호란 때에는 모병(募兵)과 군량의 조달을 위하여 구국의 통문들이 작성되어 의병의 조직화에 이바지하였는가 하면, 민란이나 혁명을 일으키려 할 때에도 거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문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봉준(全琫準)은 각 처의 동학접주와 농민들에게 통문을 돌려 많은 호응을 받았고, 전봉준이 체포되자 동학도들은 교조의 신원(伸寃 : 원통한 일을 푸는 것) 운동을 전개하면서 역시 통문을 이용하였다.

그에 앞서 17, 18 세기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란 당시에도 그 주모자들이 통문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를 작성할 때 수모자(首謀者 : 주모자 중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사발(沙鉢)의 형태로 둥글게 돌아가면서 연명자들이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통문을 '사발통문'이라 하였다.

1893 년(고종 30) 11 월 전봉준도 20 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봉기(蜂起)를 맹약하는 내용을 알릴 때 사발통문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행위를 배척하는 내용의 통문들이 전하여오는데, 그 중 1895 년 안승우(安承禹)·유인석(柳寅錫)·곽종석(郭鍾錫)·권세연(權世淵) 등의 의병운동에서 나타난 각종의 격문(檄文)을 비롯한 창의문(倡義文), 예안·안동 등지의 통문 등이 그것이다.

또, 1904 년 6 월 김기우(金箕祐) 등 32 명이 발기하여 작성한 제 1 차 배일통문(排日通文)은 철도 부설에서 일어난 일본의 작폐를 비롯하여 국권의 침탈과 이권의 착취, 그리고 북진하는 일본군의 야욕 등을 지적하여 총궐기를 부르짖는 내용이다.

이 통문은 널리 배포되어 크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본은 그를 체포,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병(尹秉)·허위(許蔿) 등이 잇따라 전국에 배일 통문을 발송하였고, 또 1905 년 10 월 김동필(金東弼) 등 26 명이 발기한 유회소(儒會所)의 13 도 유생 대표의 배일 통문이 역시 작성된 바 있다.

이 밖에 문중에서 발하는 통문은 종중회의(문중회의)의 통보나 족보의 출판문제 등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보부상(褓負商)과 같은 결사에서 그 회원들에게 보내는 통문은 그 전달속도가 매우 신속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계 모임 등에서 그 계원에게 집회 일시 및 장소와 목적을 알리는 통지문도 통문의 일종인데, 이를 회문(回文)이라고도 불렀다.

통문은 대체로 여러 사람들의 연명으로 보내졌는데, 그 이름 앞에 직함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통문을 지은 사람을 제통(製通)이라 하고 필사한 사람을 사통(寫通)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의 명단이 명시된 경우도 있다.

간혹 통문을 위조하거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1777 년(정조 1) 홍천주(洪天柱)라는 사람이 충렬사(忠烈祠)를 중수한다고 빙자하여 금품을 거두어들이고, 빼앗기 위하여 재상 명의의 통문을 위조하여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거두어들인 사건이 있었다.

한편, 일부 서원에서도 통문을 악용하여 백성들에게 억지로 금품을 거두어 들이려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서원에 제수전(祭需錢)이 필요하니 모일(某日)까지 얼마를 봉납하라."는 내용에 이른바 까막패자〔墨牌〕라 불리던 묵인이 찍힌 통문을 돌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형(私刑)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화양서원(華陽書院)의 이러한 통문은 협박장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1862 년(철종 13) 3 월에 화양서원에서 원우(院宇)를 수리, 개축한다 하여 전라도지방까지 진출하여 재화를 징수하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대단하였다. 공주향교의 유림들이 분개를 느껴 그 진상을 상세히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이 전한다.

통문의 서식은 서두에 '通文'이라고 제호처럼 쓰고, 줄을 바꾸어 '右文爲通諭事段.....(우문위통유사단.....)'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본론을 말한 다음, 모일 장소나 일시를 쓰고 '.....千萬幸甚(.....천만행심)'이라는 글귀로 끝을 맺으며, 수신처·발신연월일·발신처 및 발신자 명단을 차례로 열기(列記)하였다.

간혹 통문 한쪽 모서리에 "이것을 일일이 돌려보되 고을 안에서 지체하지 말기를 바라오." 또는 "차례로 돌려본 뒤에 마지막에는 다시 보내주시오."라고 첨서되어 있었던 바, 이는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보도록 한 회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문체는 순한문이나 이두문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특색이었으며, 동네 계 모임 등의 통문 가운데에는 순한글로 쓰여진 것도 있었다. 통문은 특정한 내용을 널리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대중매체가 없었던 조선시대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고·통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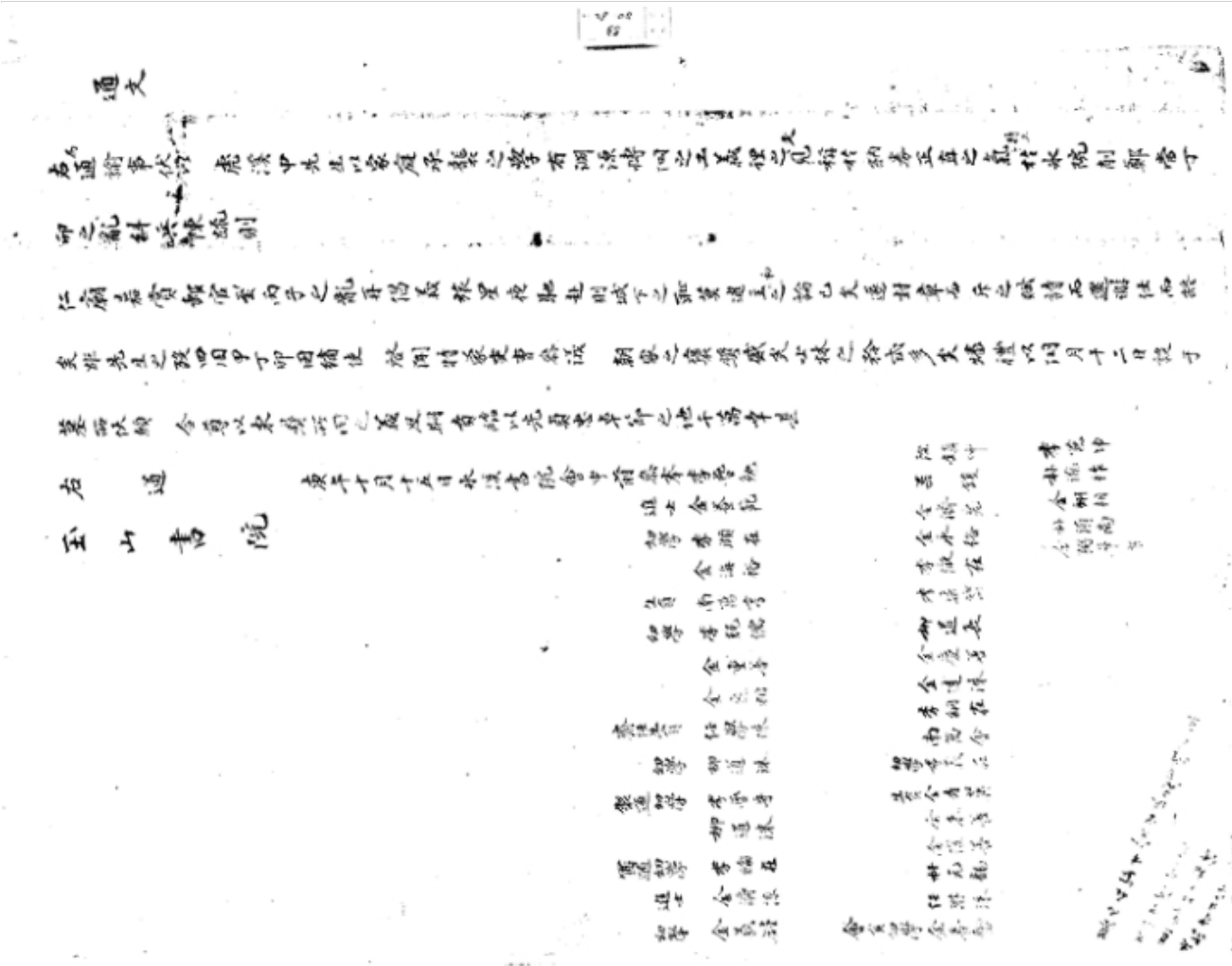
관에서는 통문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거의 순수한 민간매체였다는 점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870년 빙계서원(氷溪書院) 통문(通文)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 사회-조직운영-통문
· **작성주체**	발급: 빙계서원(氷溪書院) / 수취: 옥산서원(玉山書院)
· **작성시기**	1870 년
· **형태사항**	크기: 80x6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4) 통문 / 통문 / 14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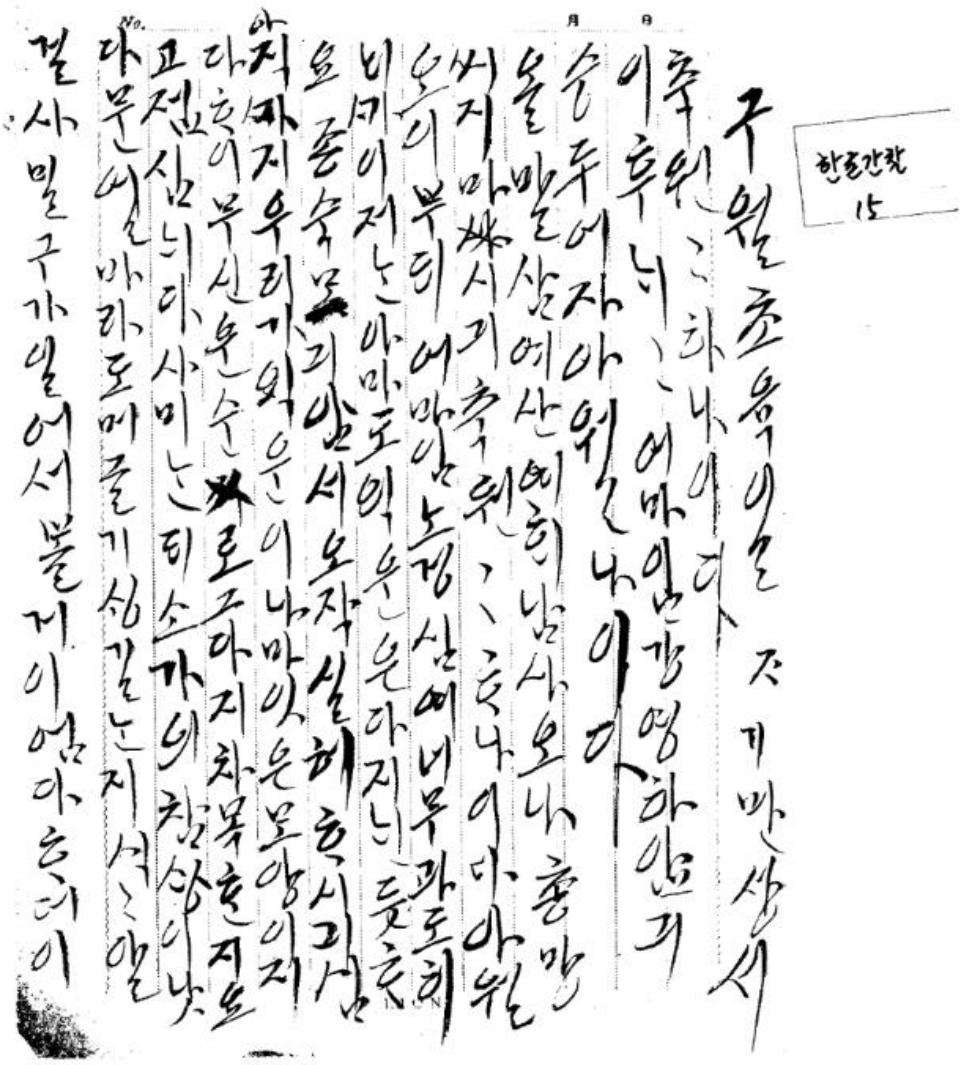
한글간찰 (1)

1870년 빙계서원(氷溪書院) 통문(通文)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신기만(申基萬) / 수취: 신양환(申亮煥)
· **형태사항**	크기: 19x14 / 낱장, 1 장 / 종이 / 한글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5) 한글간찰 / 한글간찰 / 14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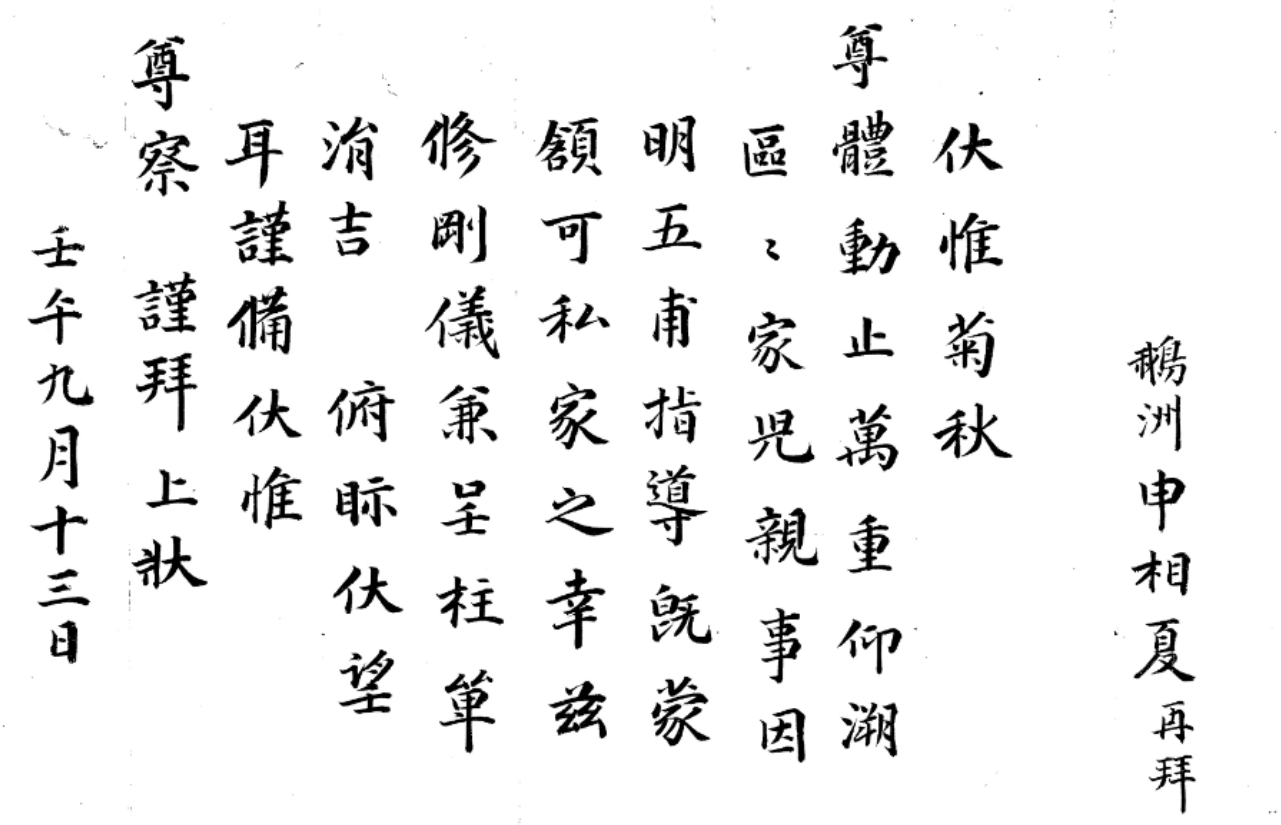
혼서 (2)

1882년 신상하(申相夏) 청연길서(請涓吉書)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40x6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6) 혼서 / 혼서 / 14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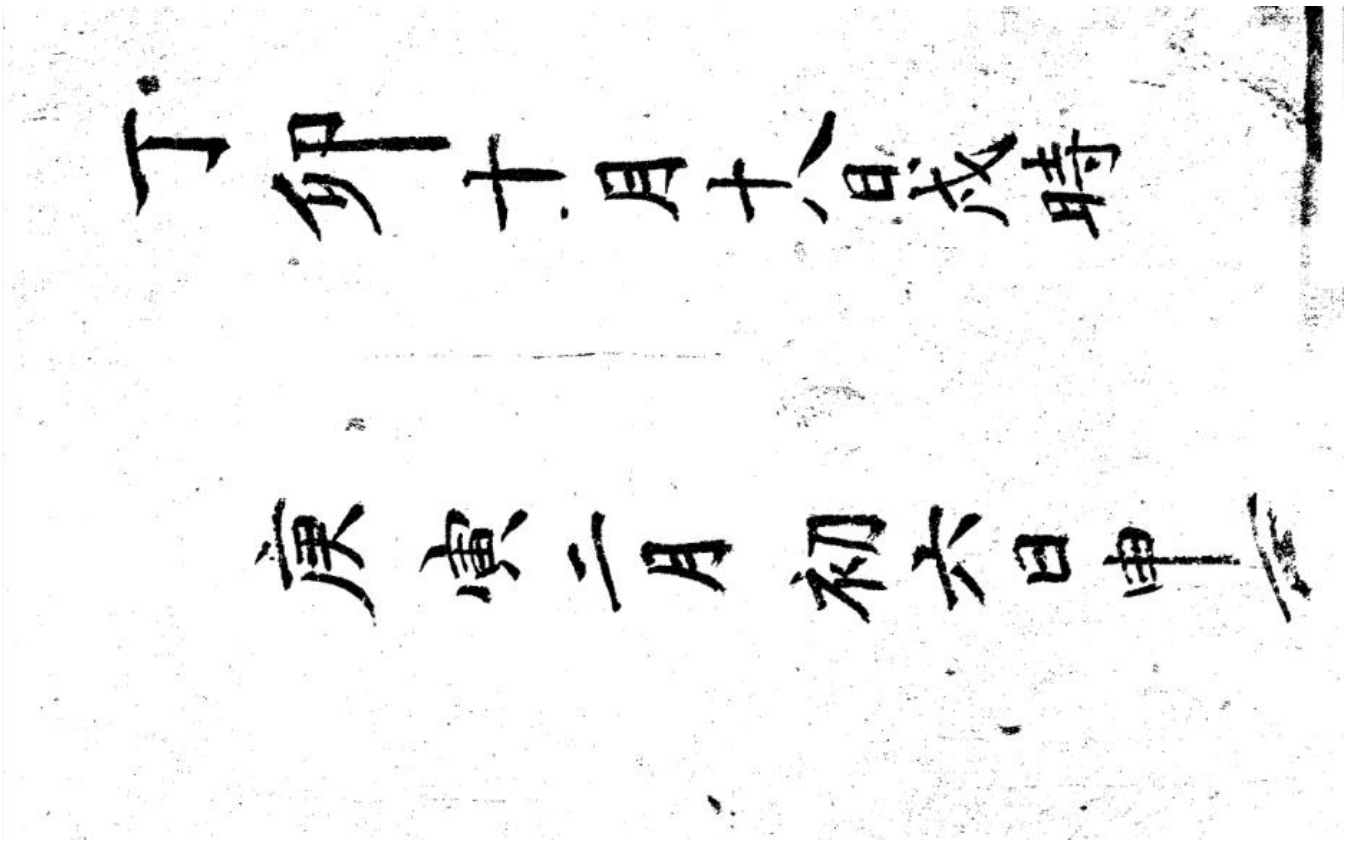

伏惟菊秋
尊體動止萬重仰溯
區〻家兒親事因
明五甫指導旣蒙
領可私家之幸玆
修剛儀兼呈柱單
消吉 俯賜伏望
耳謹備伏惟
尊察 謹拜上狀
壬午九月十三日
鵝洲 申相夏 再拜

경인년 신(申) 사주단자(四柱單子)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 **작성주체**	발급: 신(申)
· **작성시기**	경인
· **형태사항**	크기: 30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6) 혼서 / 혼서 / 143 ~쪽



사주단자(四柱單子)

정혼을 한 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간지(簡紙).

사주(四柱)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단자(單子)는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민간 습속에서 비롯된 사주단자는 혼인을 정한 후 신랑 집에서 신랑이 난 해〔年〕, 달〔月〕, 날〔日〕, 때〔時〕의 사주를 적어 신부 집으로 보내는 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뜻이 바뀐 말은 아니나 여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이기에 여기 실었다. '사주단자'를 '사주 단지'로 알고 있거나, '단자'라는 말에서 '단지'를 연상해 사주를 집어넣은 함 등속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속칭 '주단(柱單)거래', '단자(單子)보낸다', '사성(四星)보낸다'라고도 한다. 간지를 7 번 또는 5 번 접어서 그 복판에 신랑의 사주인 생년·월·일·시를 적고, 백지에 싸서 봉투에 넣고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띠를 붙이며, 봉투 앞면에는 사주라 쓰고 그 봉투는 봉하지 않는다.

그 뒤, 수숫대나 싸릿대를 끝부분이 붙은 채로 가운데를 쪼개 봉투를 그 속에 끼우고 양쪽 끝을 청실·홍실로 감는데,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서 위로 감고 끝매듭은 동심결로 맺는다. 이때 수숫대나 싸릿대 대신 대나무를 쪼개 끼우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끼우지 않고 보내는 지방도 있다.

수숫대나 싸릿대 혹은 대나무 등을 쪼개서 끼우게 된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옛날에는 가방 같은 것이 없고 손수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게 되는데, 혹 구겨질 염려가 있어서 끼우게 되었다는 말이 일부 지방에서 전하여 오고 있을 뿐이다.

신부쪽에서는 사주를 받은 뒤 곤자(坤字)의 아래에다 신부의 생년·월·일·시와 허혼주(許婚主)의 이름을 적어두는 사주 서식이 있고, 겉봉은 띠를 두르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한다. 사주는 청홍 겹으로 모서리에 청실·홍실을 단 사주보자기에 청색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싸서 보낸다. 이때 사주만을 싸서 보내기도 하고, 사주옷감이라 해서 옷 한 감 또는 청홍색 두 감을 사주와 같이 싸서 보내기도 한다.

이 사주를 신부집으로 보낼 때 가급적 방위를 보아 손이 없는 날을 골라 가게 되는데, 마을사람 중 혼인해서 첫 아들을 낳고 다복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이 상례이나, 혹 중매인이나 하인을 시켜 보내기도 하고, 신랑이 직접 가져가기도 한다. 신부집에서는 대청이나 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새 상에 사주를 받아놓는다. 이때 신부 아버지나 오빠 또는 어머니가 받아 놓았다가 개봉을 한다.

사주를 가져온 사람은 아주 푸짐한 주찬의 대접과 후한 노자를 받고 당일로 돌아간다. 신부집에서는 사주를 잘 보관했다가 혼수짐에 싸보내어, 신부의 옷장 속에 넣어 평생 간수케 한다.

치부기록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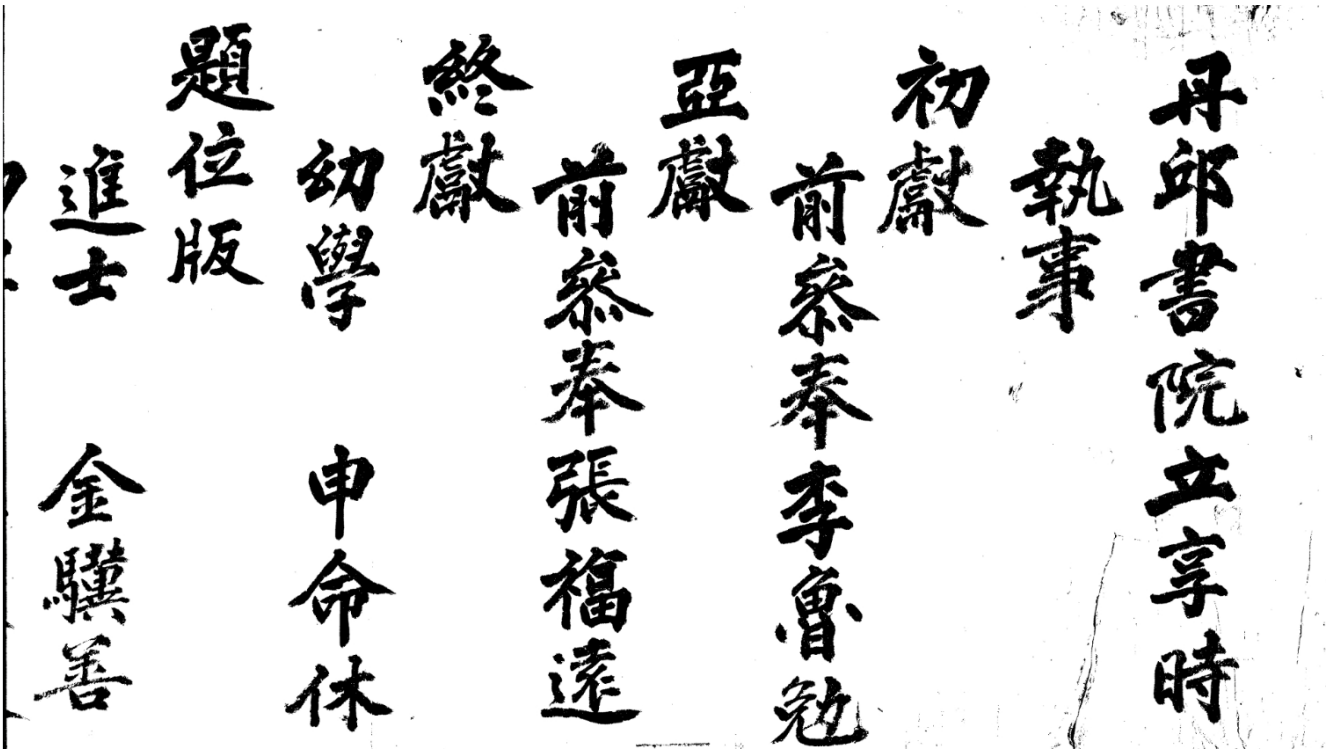
집사분정기 (1)

집사기(執事記)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 종교·풍속-관혼상제-분정기
· **형태사항**	크기: 50x5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1) 집사분정기 / 집사분정기 / 55 ~63 쪽



홀기(笏記) (1)

대중의 집회·제례 등 의식에서 그 진행 순서를 적어서 낭독하게 하는 기록.

홀(笏)은 중국에서는 이미 주대(周代)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에는 문관이 모양을 꾸미는 장식품의 일종으로, 임금에게 보고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간단히 적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비망하는 것이었다. 신분에 따라 규격과 색채와 질이 정해져서 중국에서는 옥·상아·서각(犀角) 등이 사용되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는 오래 전에 도입되었다. 조선조가 창건되어 유학이 국교로 채택되자 홀에 대한 제도도 확정되었다. 조선조에 제정된 홀은 한 자 정도의 길이에 두 치 정도의 너비로 얇은 것이며, 1 품에서 4 품까지는 상아로 만들고 5 품 이하는 나무로 만들어 쓰게 하였다.

홀기는 이 홀의 사용이 발달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문명이 발달될수록 생활의 방식도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생활을 통제하는 방법도 번잡해졌다.

인간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예는 점차 까다로워져서 자칫하면 착오를 범하기가 일쑤고, 그 착오는 실수로 좋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고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보고를 행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며, 그 필요에 따라 발달한 것이 홀기다.

홀기는 크게는 국가의 조참(朝參)과 상참에서부터 종묘·사직·배릉(拜陵) 등의 의식에 이용되고, 작게는 시학(視學)·입학(入學)·석전(釋奠)·전시(殿試)·방방(放榜)을 비롯해 양로연(養老宴) 등에도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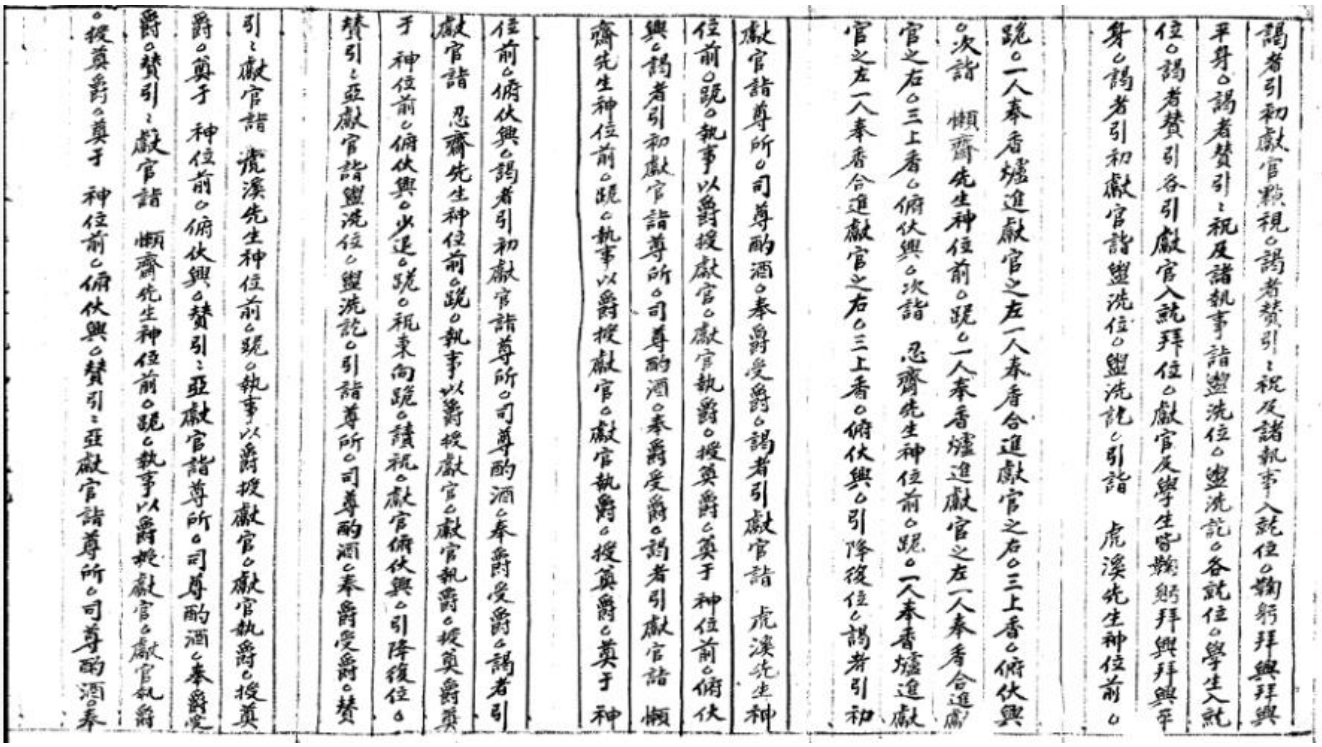
민가에서는 서원의 유회, 향회(鄕會)를 비롯해 향음주례(鄕飮酒禮)·강학례(講學禮) 등에도 이용되고 심지어 혼례·관례·제례 등 사가의 행사나 의식에까지도 이용되었다. 홀기는 절차를 미리 의정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오류를 막고 시비의 근원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무술년 단구서원(丹邱書院) 제향홀기(祭享笏記)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홀기 / 종교·풍속-관혼상제-홀기
· **작성주체**	발급: 단구서원(丹邱書院)
· **작성시기**	무술
· **형태사항**	크기: 30x12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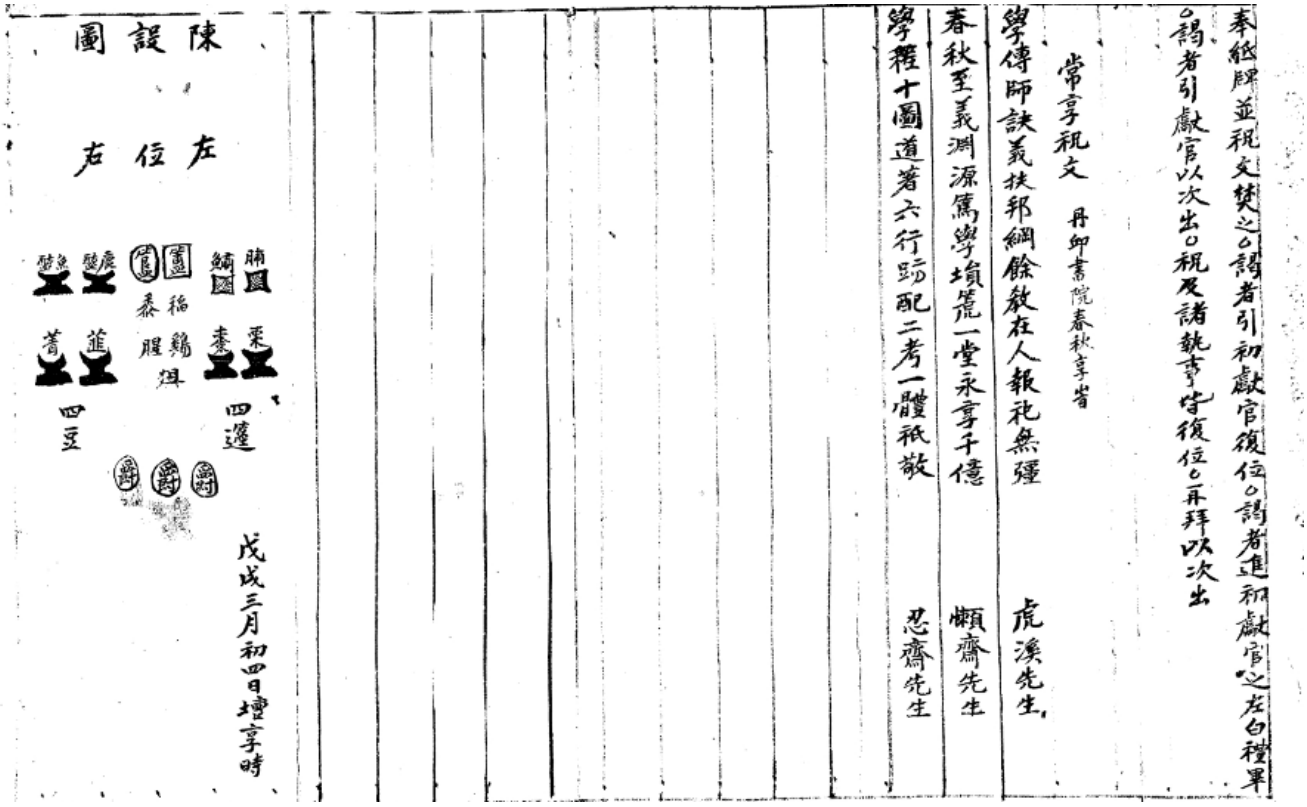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2) 홀기 / 홀기 / 64 ~66 쪽



謁者引初獻官黜視。謁者贊引〻祝及諸執事入就位。鞠躬拜興拜興
平身。謁者贊引〻祝及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學生入就
位。謁者贊引各引獻官入就拜位。獻官及學生皆鞠躬拜興拜興平
身。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盥洗訖。引詣 虎溪先生神位前。
跪。一人奉香爐進獻官之左一人奉香合進獻官之右。三上香。俯伏興
。次詣 懶齋先生神位前。跪。一人奉香爐進獻官之左一人奉香合進獻
官之右。三上香。俯伏興。次詣 忍齋先生神位前。跪。一人奉香爐進獻
官之左一人奉香合進獻官之右。三上香。俯伏興。引降復位。謁者引初
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爵。謁者引獻官詣 虎溪先生神
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奠爵。奠于 神位前。俯伏
興。謁者引初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爵。謁者引獻官詣 懶
齋先生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奠爵。奠于 神
位前。俯伏興。謁者引初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爵。謁者引
獻官詣 忍齋先生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奠爵奠
于 神位前。俯伏興。少退。跪。祝東向跪。讀祝。獻官俯伏興。引降復位。
贊引〻亞獻官詣盥洗位。盥洗訖。引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爵。贊
引〻獻官詣 虎溪先生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奠
爵。奠于 神位前。俯伏興。贊引〻亞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
爵。贊引〻獻官詣 懶齋先生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
。授奠爵。奠于 神位前。俯伏興。贊引〻亞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

爵。奠于 神位前。俯伏興。贊引〻亞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
爵。贊引〻獻官詣 懶齋先生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
。授奠爵。奠于 神位前。俯伏興。贊引〻亞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
爵受爵。贊引〻獻官詣 忍齋先生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
執爵。授奠爵。奠于 神位前。俯伏興。引降復位。贊引〻終獻官詣盥洗
位。盥洗訖。引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爵。贊引〻獻官詣 虎溪先生
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奠爵。奠于 神位前。俯伏
興。贊引〻終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爵。贊引〻獻官詣 懶齋
先生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奠爵。奠于 神位前
。俯伏興。贊引〻終獻官詣尊所。司尊酌酒。奉爵受爵。贊引〻獻官
詣 忍齋先生神位前。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奠爵。
奠于 神位前。俯伏興。引降復位。獻官及學生皆鞠躬拜興拜興。平
身。祝入撤籩豆。獻官及學生皆鞠躬平身。謁者引初獻官北向立。祝
奉爵詣尊所。以爵酌福酒。祝進減神位前胙肉。謁者引
初獻官詣飲福位。西向跪。祝進獻官之左。奉爵就獻官
之右。以爵授獻官。獻官飲卒爵。以爵授執事。祝北向以
胙授獻官。獻官受胙。以胙授執事。獻官俯伏興。引
降復位。獻官及學生鞠躬拜興拜興。平身。祝入徹籩豆。獻官
及學生皆鞠躬拜興拜興。平身。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
。祝取祝。降自西階。瘞坎。謁者引初獻官復位。謁者進初
獻官之左白樓畢。遂引獻官以次出。祝及諸執事皆復位。再
拜以次出



비망기(備忘記) (1)

조선시대 정령(政令)의 일부나 돈유·별유와 같은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문서.

비망기는 국왕의 명령을 하달하는 유형의 하나이다. 간략하게 기록하여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승정원(承政院)에 전달하였다. 비망기로 내리는 왕명의 내용은 다양하며, 간혹 중요한 정치적 국면 때에 비망기를 내려 국왕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조선시대 비망기가 언제부터 채용된 방식인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1529년(중종 24) 9월 15일 실록 기사에 '비망기가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없던 것인데 근래에 이를 통해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내용을 보면, 중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비망기 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16세기 이후 공론정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국왕의 입장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종조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비망기 하달 관행은 이후 선조대에 정착되었다.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비망기의 잦은 활용을 보면 비망기가 왕명을 하달하는 데 주요한 장치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비망기는 국왕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내시가 담당하는 승전색(承傳色)이 주로 작성하였다. 승전색과 함께 액정서(掖庭署) 소속 사알(司謁)이 작성하기도 하였다. 비망기는 대개 "전왈(傳曰)"로 시작되는 왕명으로, 전달되는 대상인 승정원을 비롯한 관서나 관원을 명시하여 하달하기도 하였다.

정조대에는 비망기의 하달 과정에 일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사알이 승정원에 비망기를 전달하면 승지는 비망기를 옮겨 적은 뒤에 이를 사알과 함께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원본은 도로 국왕께 보내도록 정식화하였다. 비망기는 대개 승정원에 전달된 뒤 해당 관서에 하달되었다. 즉 국왕→승전색(또는 사알)→승정원→해당 관서의 체계로 운영된 것이다. 간혹 승정원이 아닌 비변사(備邊司)나 정청(庭請), 의금부(義禁府) 등을 명시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비망기로 내려진 명령은 대신이나 고위 관원 혹은 산림(山林)들에게 국왕이 별도로 내리는 돈유나 별유 등과 함께 다양한 정령이었다. 정령 중 비망기로 내려지는 사항은 다양하다. 주제별로는 왕실, 인사, 외교, 군사,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비망기가 활용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망기가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에 활용되면서 국왕의 입장에서 정국의 전환을 꾀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680 년(숙종 6) 3 월, 공조판서 유혁연(柳赫然)과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 포도대장 신여철(申汝哲)을 불러 놓고 비망기로 유혁연의 총융사 직임을 해임시키고 대신 김만기를 훈련대장에, 신여철을 총융사에 제수한 바 있다. 이는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비망기가 활용된 것이다. 이런 점은 비망기가 다른 유형의 왕명에 비해서 정치적 사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비망기는 반포 뒤에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 내용 중 일부를 효주(爻周: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도 있다. 1722 년(경종 2) 4 월 국왕은 유배를 보낸 노론 측의 이이명(李頤命)과 김창집(金昌集)을 사사(賜死)하라는 명을 내렸다가 소론 측 대신인 조태구(趙泰耉)나 최석항(崔錫恒)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망기로 감사(減死)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소론 측 언관(言官)을 비롯해 동지의금부사 김일경(金一鏡) 등이 비망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비망기를 가지고 들어와 효주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종은 김일경 등의 의견에 따라 비망기의 내용 중 일부를 효주하였다.

비망기 중 비밀 비망기(秘密備忘記)라는 이름으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비밀 비망기는 봉함(封函)하여 하달하였는데, 비밀스럽게 하달된 것이므로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내용이 파악되는 몇몇 기사를 통해 보면, 중국이나 여진족과 관련해서 비밀스러운 내용을 문의하거나 지시할 때 또는 선위(禪位)와 같은 국가 중차대한 일을 지시할 때 비밀 비망기라는 이름으로 하달하였다.

비망기는 조선시대 다양한 왕명 유형 중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다. 조선시대 왕명의 유형에는 교문(敎文), 윤음(綸音), 비답(批答), 판부(判付)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교문이나 윤음은 국가의 문한(文翰) 제도라는 틀 속에서 작성되었기에 절제된 언어로 작성되어 국왕의 세밀한 심정까지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비답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간결하고 신중해야 하였다. 판부는 정형성을 갖고 있기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에 유효한 수단은 아니다. 이에 비해 비망기는 정령을 하달할 때 국왕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던 체계였다.

기타기록(其他記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비망기 / 개인-생활-비망기
· **형태사항**	크기: 11x7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3) 기타기록류 / 기타기록류 / 67 ~69 쪽

사성록(四星錄) (1)

사성(四星)과 납폐(納幣)는 요즘은 많이 잊혀 가고 혼인의 절차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전통 혼례에서는 사례(四禮 의혼-납채-납폐-친영)라 하여 혼인 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했다.

의혼(議婚)은 과거에는 혼인할 당사자보다는 먼저 부모들이 선을 보고 결정이 되면 당사자들은 결정에 따랐다. 이때를 의혼議婚)이라 한다. 의혼 과정에서 혼인이 결정되면 납채(納采) 의례가 있는데 사성을 적어서 신부집에 보내고 연길(涓吉)을 청하는 절차이다.

납채(納采)

1) 사성(四星)이라 함은 의혼(議婚) 과정에서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의 사주(四柱)를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서 신부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출생 태세(出生太歲)-출생 월건(出生月建)-출생 시(出生時)를 적고 규격은 30cmx29cm로 5면을 접어 쓴다. 봉투에 넣을 때는 오른쪽으로 8겹 되게 접어서 봉투에 넣는데 봉투는 봉하지 않는다.

2)납채문(納采文)

신부집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글을 사성과 함께 보자기에 싸서 보내는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는 절차다.(규격 36 cmx60cm 아홉 칸을 접어서 양쪽 한 칸을 비우고 적는다).

3) 연길(涓吉)

좋은 날짜를 정한다는 뜻이다.

신부집에서는 사성과 납채문을 받으면 궁합을 보고 신랑신부의 운세를 가늠해 보고 결혼식 날짜를 받아 백지에 써서 연길편지와 함께 신랑집에 보내는 절차이다.

4)의제장(衣製狀)

연길 편지를 받은 신랑댁에서는 신랑 의복의 길이와 품을 적어 의제장(衣製狀)을 보낸다.

이렇게 하여 전통혼례의 순서인 사성(四星)의 과정이 끝이나고 다음 단계인 납폐(納幣)의 과정이 진행된다.

납폐(納幣)

납채(納采)의 과정을 마치면 보통 결혼식 전날 혼수(婚需)와 혼서(婚書-禮狀),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낸다. 이것을 납채라 하며 혼서(婚書)는 소중히 여겨 신부가 죽을 때 관과 함께 묻었다.

요즘은 신랑이 직접 들고 가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심심찮게 하며 골목이 떠들썩하게 함을 팔기도 했다.

이럴 때 함을 지고 가는 함진아비는 아들을 낳고 내외간에 금슬이 좋은 사람이 맡았다.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함을 집안으로 들이면 신부 댁에서는 대청마루에 상을 놓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깐 후 봉치떡 시루를 올려놓고 그 위에 혼수 함을 정중히 올린다.

그리고 함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한다.

★봉치떡-신랑 신부 양가에서 준비한다. 신랑 측에서는 함이 출발할 때 봉치떡 위에서 들고 가고 신부 측에서도 함을 받아 봉치떡 위에 올린다.

찹쌀 두 켜에 팥고물을 넣고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아 만든다. 밤과 대추는 혼인 전날 신부가 먹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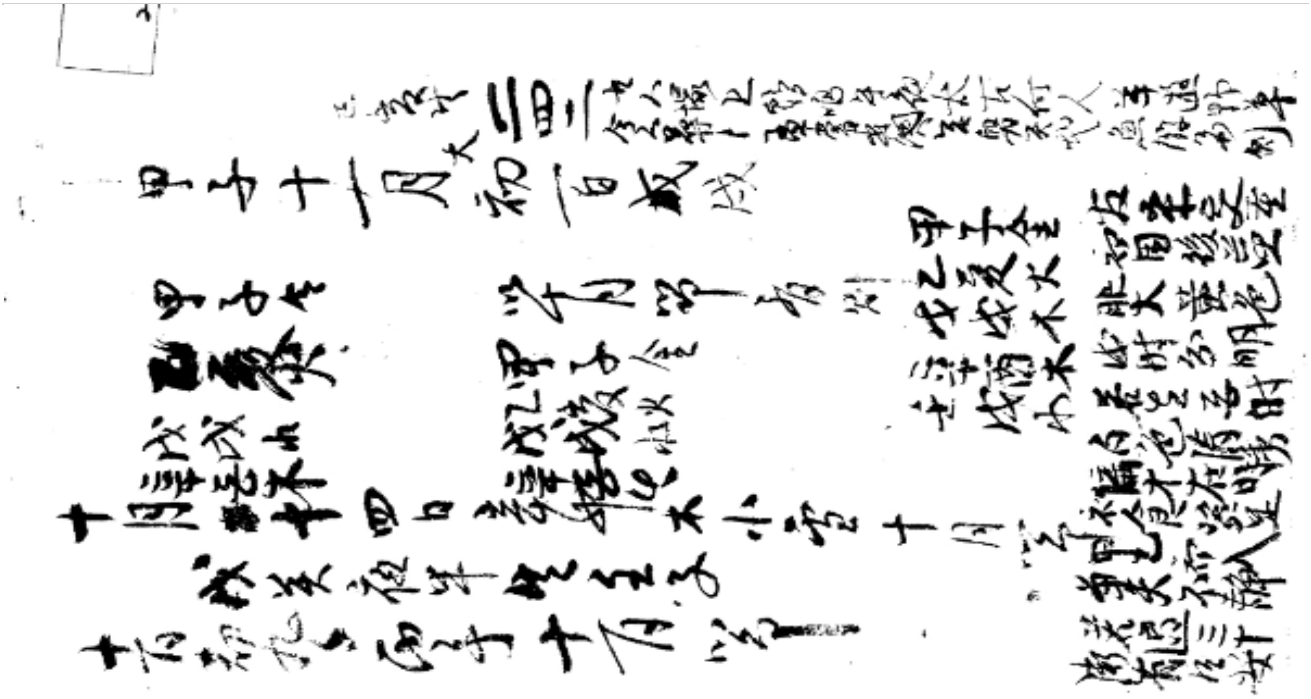
이렇게 사성(四星)과 납폐(納幣)의 과정을 거쳐 결혼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선남선녀가 서로 만나 사귀며 미래를 결정한 후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양가 집안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혼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사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때이다.

사성록(四星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사성록 / 종교·풍속-민간신앙-점복자료
· **형태사항**	크기: 24x1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3) 기타기록류 / 기타기록류 / 7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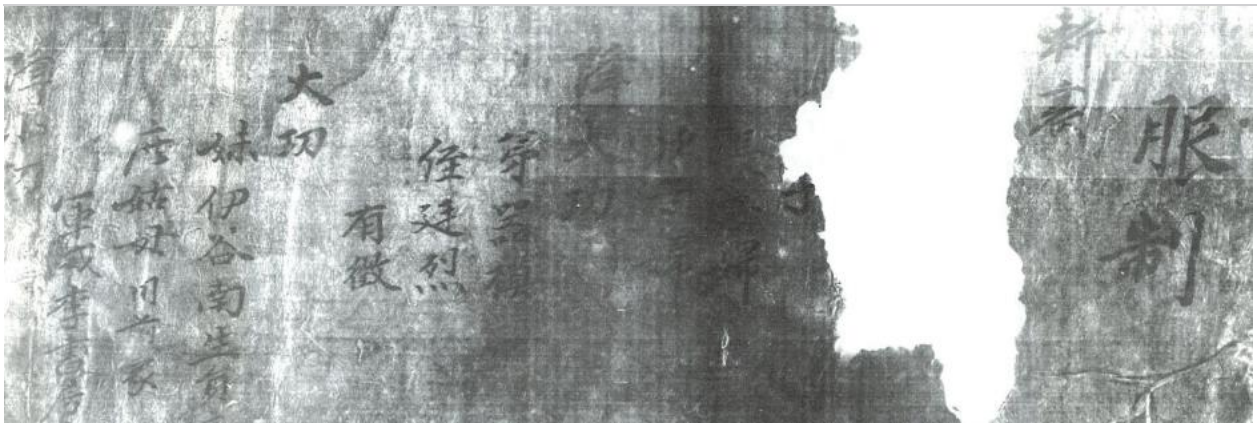
복차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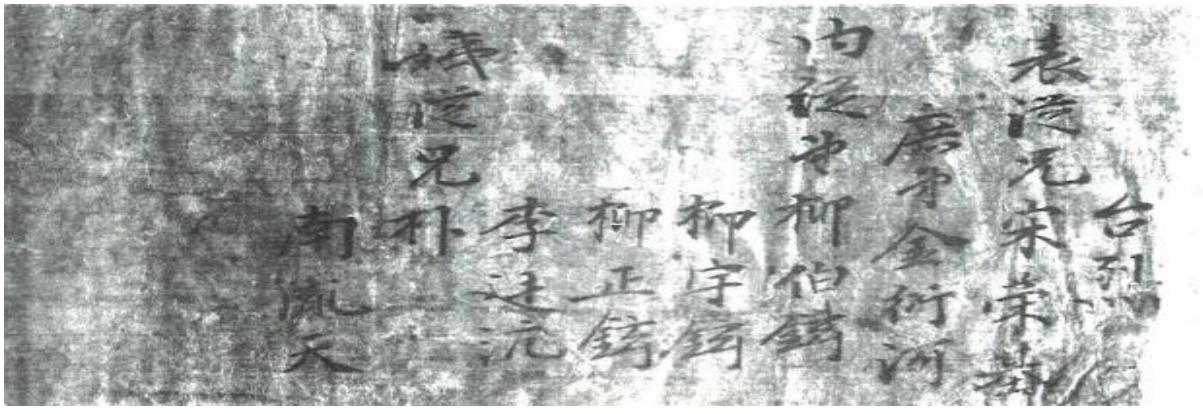
복차록(服次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복차록 / 종교·풍속-관혼상제-복차록
· **형태사항**	크기: 30x10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3) 기타기록류 / 기타기록류 / 77 ~7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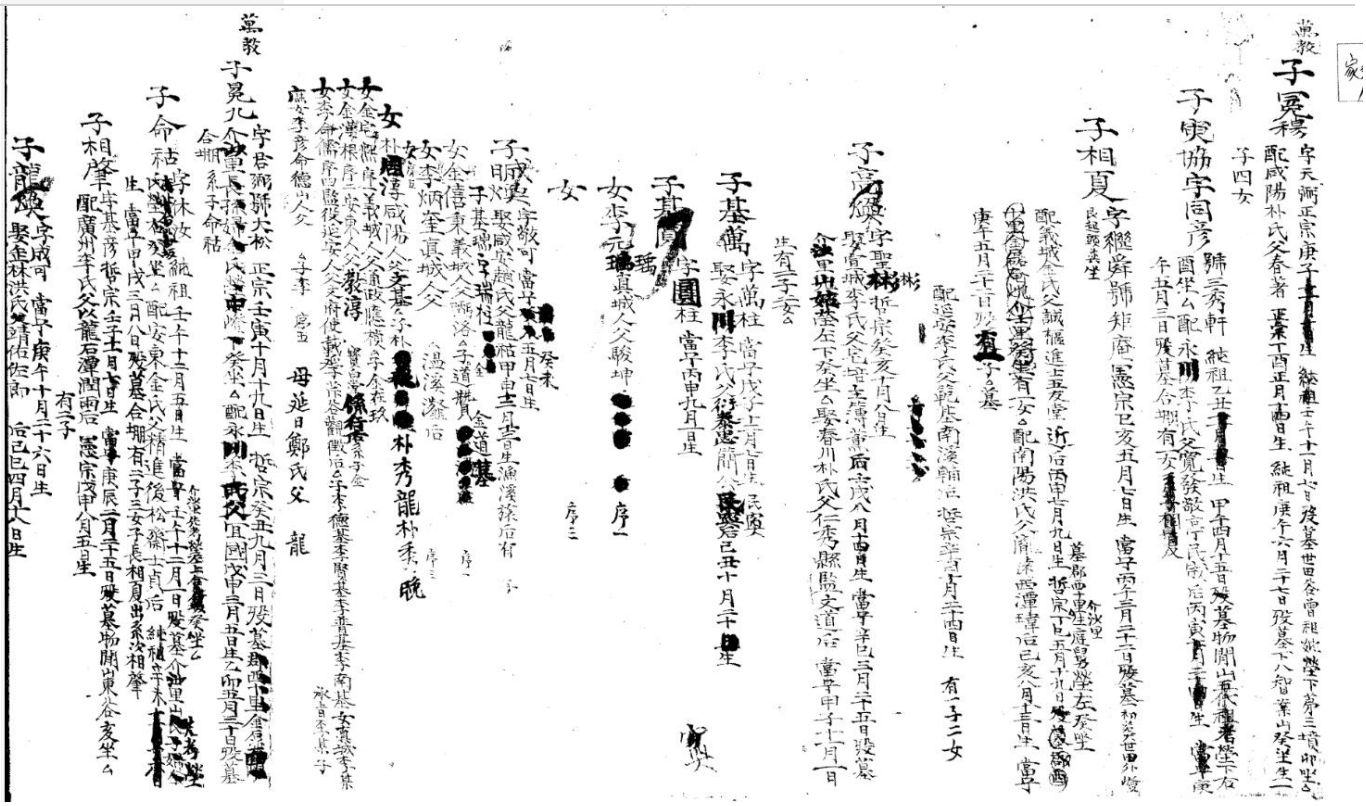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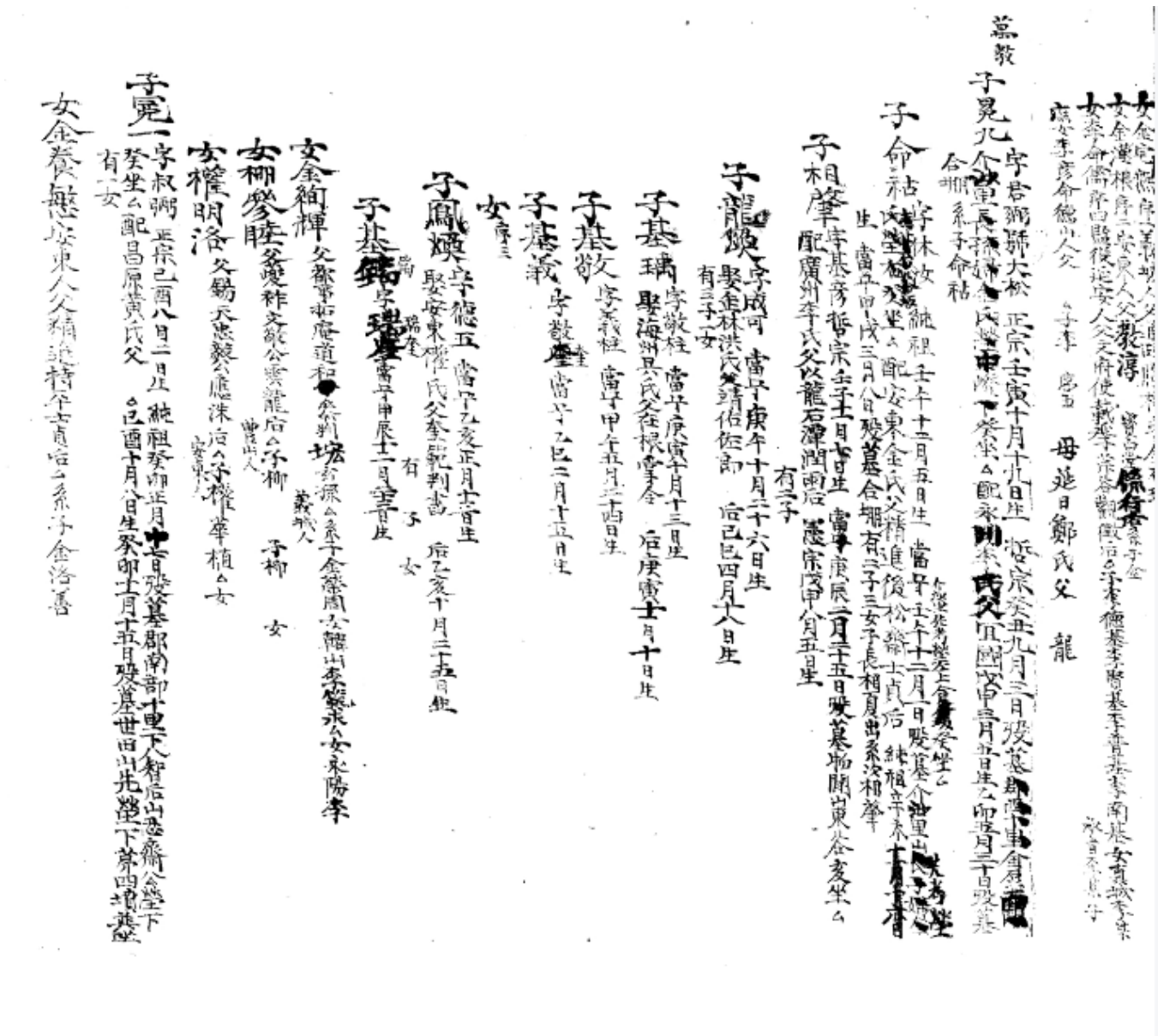
보첩류 (1)

보첩(譜牒)은 한 가문, 즉 씨족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계보학 또는 보학(譜學)에서 말하는 계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흔히 족보(族譜)라고 한다. 동일 혈족의 혈통을 존중하고 가통을 계승하여 명예로 삼기 위해 그 역사와 계통을 밝히는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서 족보에 수록된 인물이 본인의 친 조상이라고 100% 단정짓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부터 신분 제도가 붕괴되면서, 족보나 호적을 위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족보 위조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에는 조선 숙종 때의 경상남도 단성현의 노비 수봉과 그의 후손들이 이사와 족보, 호적세탁 등을 통해 본관과 족보를 사들이고 성씨에 편입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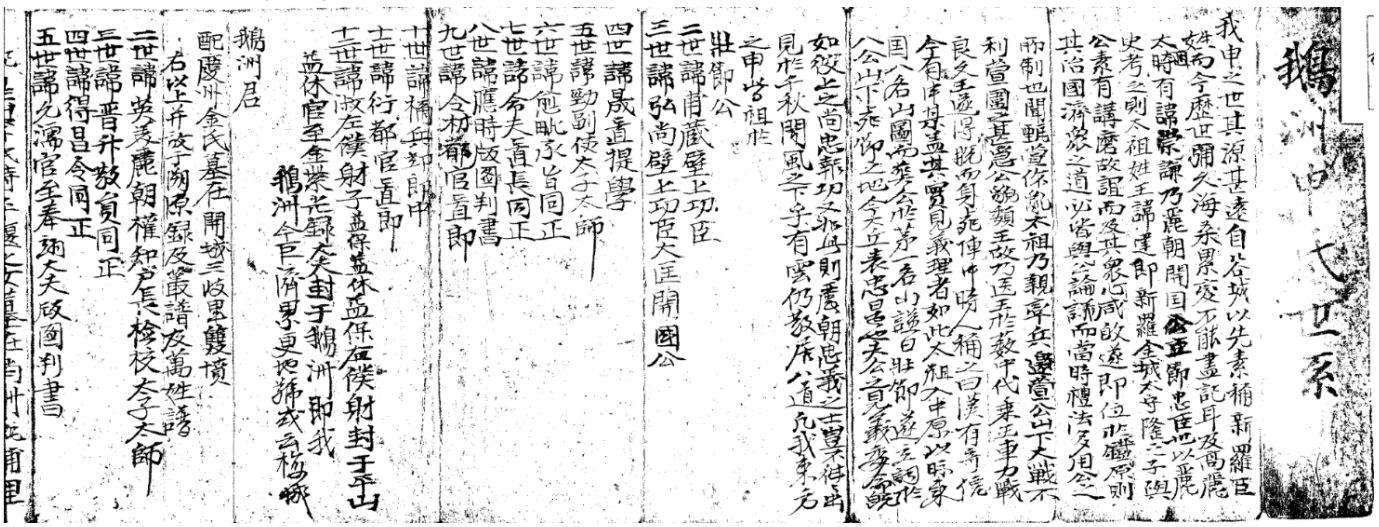
1900년대 후반 세계(世系)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보첩류 / 사회-가족친족-족보
· 형태사항	크기: 27x7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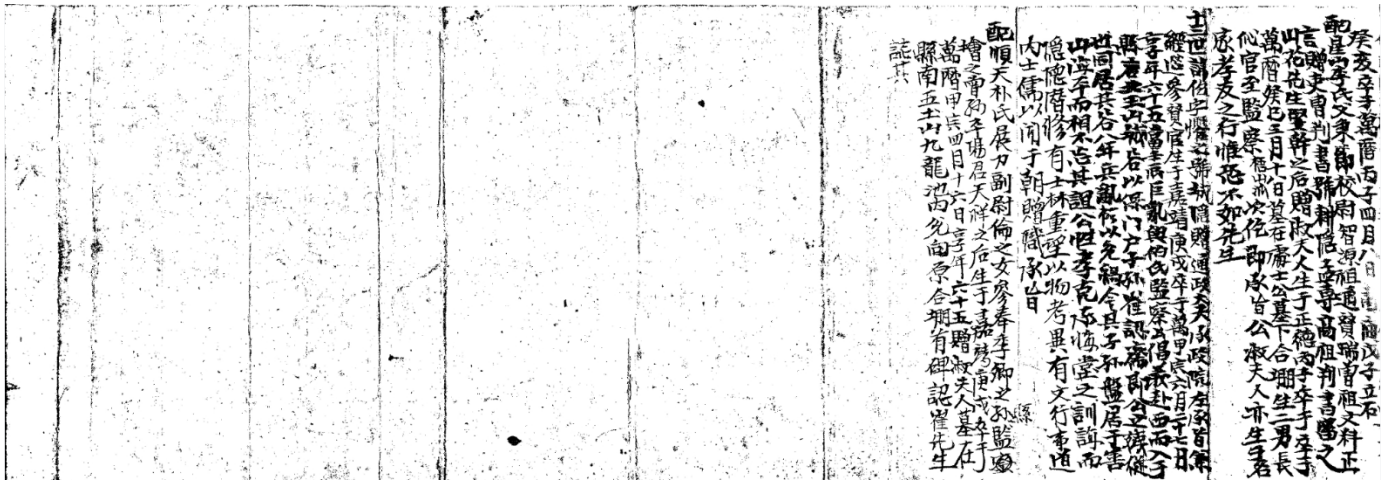


1900년대 후반 세계(世系)



並休官至參榮花錄公封于鵝洲即我
鵝洲令臣附學更地葬成弘楊帆
鵝洲居
配慶州金氏墓在閘城三岐里雙墳
右以上并改于陶原銀及嚴譜及萬姓譜
二世諱英老鹿朝權知奉檢校令子太師
三世諱晉升敦寧同正
四世諱得昌令同正
五世諱名漪官至奉翊公矢改圖判書
配星山李氏持平堰之女葬在尚州鮀浦里
失傳設壇祭系
高麗忠烈王六年正月壬辰以左宣由某除改圖判書兼重房別檢校事夏六月丙申元帝以東國即土素時辭戒不敢詔徵撰表人皆謂過不歎行判書公進啓其畧曰方今國事可謂無可爲已允爲人臣者不避虎險以殉王事是固其分也今廷臣黨欲固我心日鼠兩端顧爭有謀同愚寡若全重忘爲國犯諫庶之賤而終七一人臨敵者如是而國將何休臣請斬其輕國愛身之罪以厲其餘擇能使專對者使不生患事是於是命下集賢殿提學柳得敬等四人于廣
秋七月甲子晉文學李仁英觀元凱等赴京師
事載東國史纂要
六世諱祐官至奉常大夫司憲府掌令行宣禮
攺廟使生矣卯八月二十四日馬麗朝故事以時
分遣近侍于諸道察黜山川觀察民俗點陟守令進賢材名之曰投龍使公適
公廉良謹之世能欽潔其分事父母盡孝父
歿書公年庶基三年朝夕號哭有異於白
仰生于西行淚洒叢基前人皆謂孝感所
致事聞旌閭立石于丹嶺路左刻之曰孝子
里及聖朝閭里公與始猶吉冶信携手南次
不忍相捨公居丹嶺之居號曰恨嶺有遺跡
旧誼冶隱守金倫出入朝夕觀書儆公後不起
其忠節亦如此事載国史及輿地勝覽及三綱行
公忠孝補之墓在鮀浦里免向原愚伏鄭緻世本墓表
蔡相恭齋撰碑並碑銘享于尚州洙水書院常享又
爰告由文不盡記
配歸山君柳益貞之女生二男長光富即我內府令公
次光貴免尾派
七世諱光富宣中顧大夫內府令主簿
配金氏判官安道之女咸寧君儆之后生二男二女男長玉
贊縣令館洞派次孝廉即我縣監公安長遠提學下李
良號看齋次同林坡忠節在丹嶺失廟千春享齋公
又旨褒綱栢堂撰儆南方耶勤王事殺始不遑安不盡
記矣
八世諱士廉仕本朝官至秉陽縣監
配權氏判典閣守事自愚之女生一男一女即我生員公安
遠縣監洪行基在義城仍巖免向原配墓在倉基下初
葬于丹嶺生員公移居義城故陵葬于仍若
九世諱錫命累泰庚申成均生員自尚州府始移居
于義城先興洞古月二十九日辛卯以前日疾詩訓道對
人商君作月中桂詩曰誰把玲瓏樹移來極免
宮掃葉知余債拂枝似有功影分千里外香透一輪中何時先拓得領玉歸音空未知久格
與否
配宋氏縣監源之女生一男一女即訓道公女適
李承善宣忠義嗣墓在縣北丹村西畢坊
盤龍壁已乘效墳
十世諱俊積宣武保功郎教授義城訓導三員即
六日辛卯墓在倉基前向之原庚酉庚辰五石
配義城于氏文卿史有倫之女生一男二
女男即參奉府君女長適李世良次適李
叔幸于二月二十八日葬在墨坊生員公墓左下
南面庚辰立石
士一世諱壽孚字期公倜儻有氣節隱德階
修以訓誨為已任弘治甲子除陵基殿參奉
而宸文除敦寧參奉皆不赴遂以謝世有
歸有山林重望生于成化辛丑卒于嘉靖癸巳葬
二月二十九日享年五十三
配義興朴氏父生儒自儉祖郡守愼昌曾祖奉
良生成均館生員外祖郡守李俊孟行長水縣訓導守愼
訓導三嘉縣訓導守愼戶曹參議惟孚字南士效學小學事
士二男一女男長元福官至參奉老稽豐即
我臨壑公文孟朴祖樹墓在上八智乾向之原及
其妻也執禮者請書聖衛悔壑公注曰吾聞
事亡如事存父孝生母不顧者豈在施之報遂
墓誄文寄周恒齋先生恒齋亦嚴士書之
士二世諱元祿字季綏歸悔壑行長水縣訓導守愼
訓導三嘉縣訓導守愼戶曹參議惟孚字南士效學小學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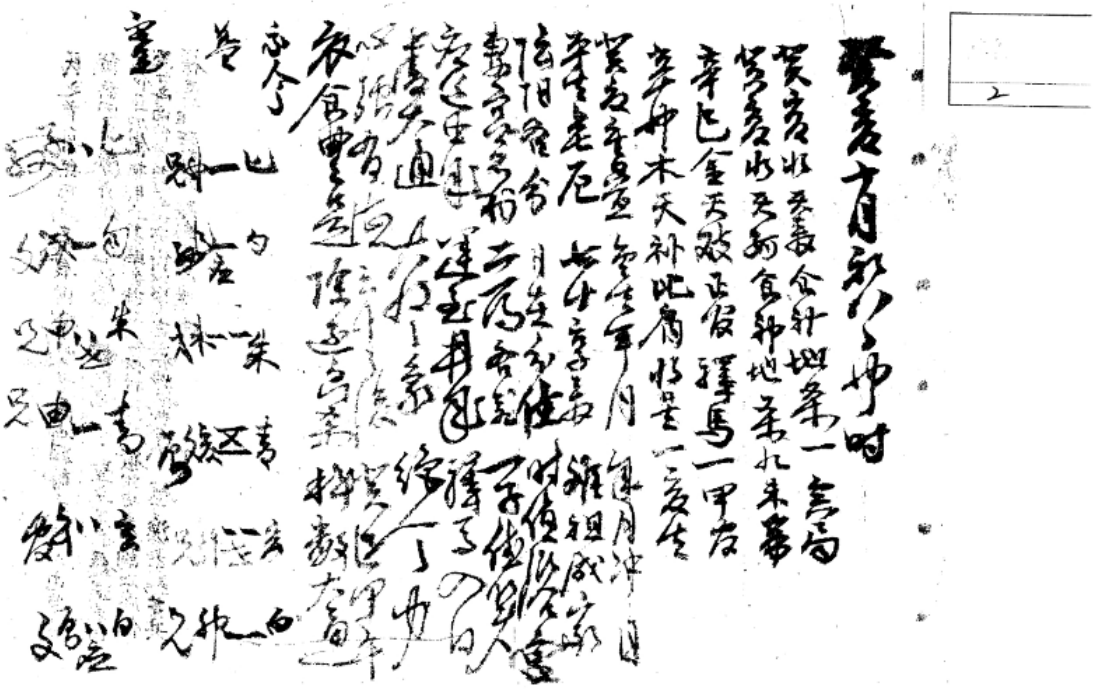
修以訓誨為已任弘治甲子除陵基殿參奉
而宸文除敦寧參奉皆不赴遂以謝世有
歸有山林重望生于成化辛丑卒于嘉靖癸巳葬
二月二十九日享年五十三
配義興朴氏父生儒自儉祖郡守愼昌曾祖奉
良生成均館生員外祖郡守李俊孟行長水縣訓導守愼
訓導三嘉縣訓導守愼戶曹參議惟孚字南士效學小學事
士二男一女男長元福官至參奉老稽豐即
我臨壑公文孟朴祖樹墓在上八智乾向之原及
其妻也執禮者請書聖衛悔壑公注曰吾聞
事亡如事存父孝生母不顧者豈在施之報遂
墓誄文寄周恒齋先生恒齋亦嚴士書之
士二世諱元祿字季綏歸悔壑行長水縣訓導守愼
訓導三嘉縣訓導守愼戶曹參議惟孚字南士效學小學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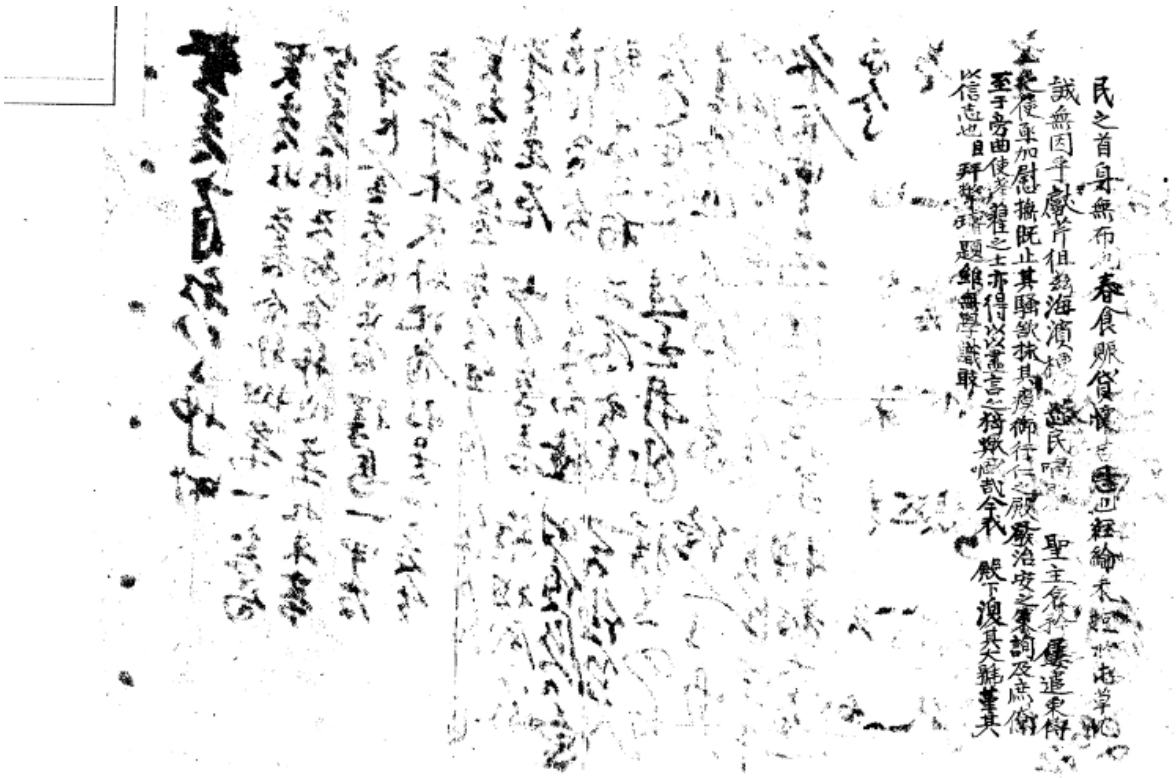


문복록 (1)

계해년 문복록(問卜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문복록 / 종교·풍속-민간신앙-점복자료
· **작성시기**	계해 10 월초 8 일
· **형태사항**	크기: 15x2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예로부터 모사(某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란 말이 있듯,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하는 일에 성사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뜻은 헤아릴 길이 없어 성패여부를 놓고 초조해하는 게, 한 치 앞도 가늠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 초라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헌헌장부(軒軒丈夫)라 한들, 자신에 대한 일생일대의 성패나 생사가 걸려있는 중대사를 눈앞에 놓고 초연(超然)해 할 장부가 몇이나 될까?

그러기에 대인도 문복(問卜)을 하고 소인도 문복(問卜)을 하되, 대인은 허물(咎)을 묻고, 소인은 복(福)을 묻나니, 안심입명(安心立命)에 생의 목표를 설정한 대인과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食以爲天) 소인과의 가치관의 차이요, 또한 생의 차원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고저차원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을 사는 지성인들이 점사(占事)를 마치 문명사회가 해결해내지 못한 영구 미제사건이거나, 아니면 타파해 버려야 할 원시잔존적 유물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곧 문명인의 횡포요, 자기기만이며, 동시에 독선인 것이다.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과학인이 고작 창해(滄海)의 일속(一粟)에 불과한 자기인생의 궁극적 향방 하나 제시해내지 못하고 신에게 예탁하거나, 아니면 소위, 팔자란 없는 것이다, 라는 독백이나 토해내는 허약한 군상들이 어찌 점사와 문복을 금기(禁忌)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점을 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물의 기징(機徵)인 것이며, 이 기징은 곧 천의(天意)인 것이므로, 이렇게 천의를 전달받을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으니, 현대인들의 종교행위처럼 소위 절대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스스로 기도하며 자문자답으로 구하려는 간구행위보다, 의문점을 점을 쳐서 밝히려 함은 동양인의 섬광과도 같은 예지가 번득이는 한층 간결하면서도 한 차원 높은 행위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통용함에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함은 물론이려니와, 이를 다루는 일종의 기술 같은 것도 익혀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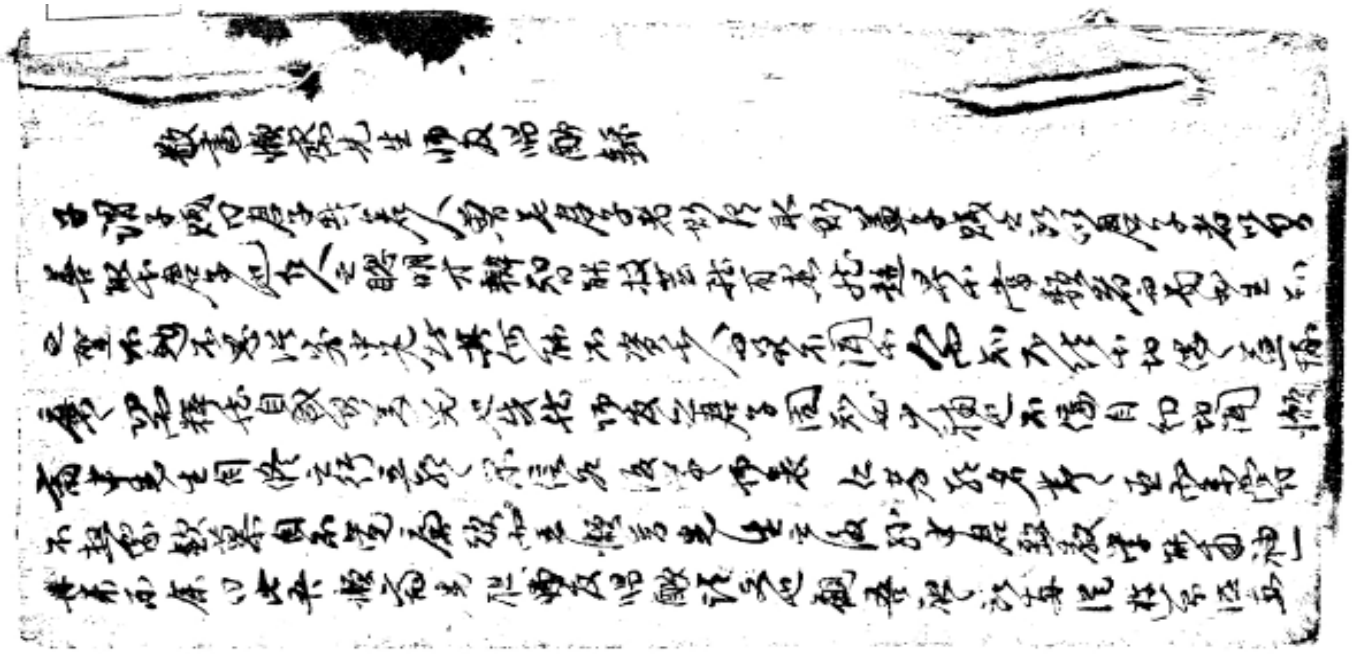
잡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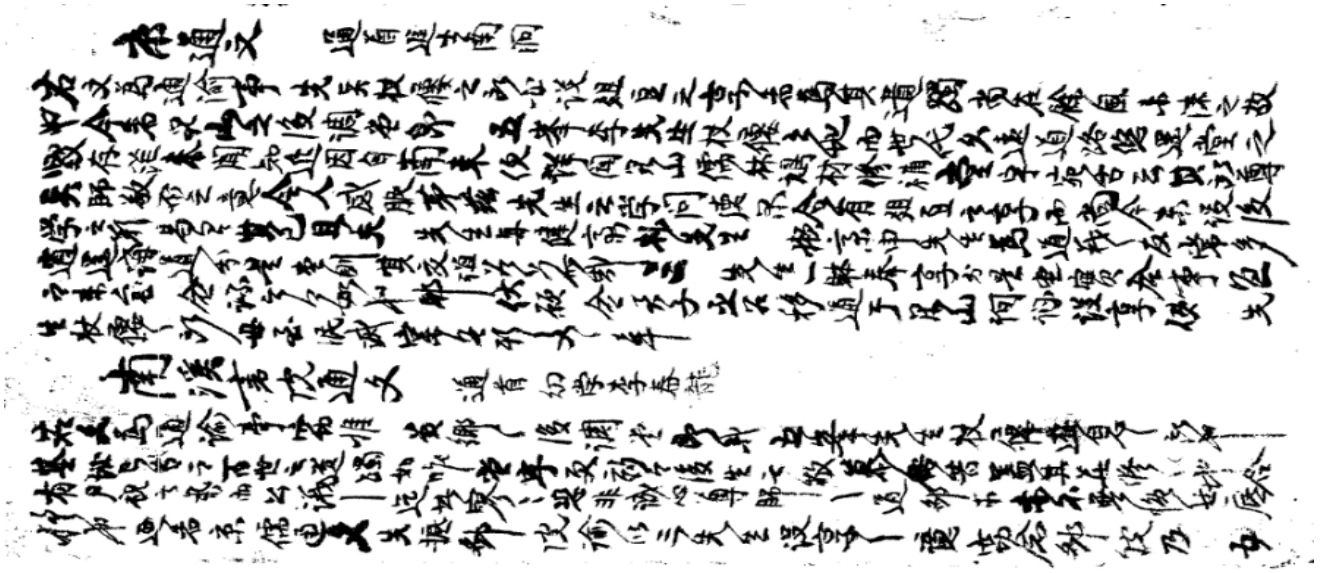
기문(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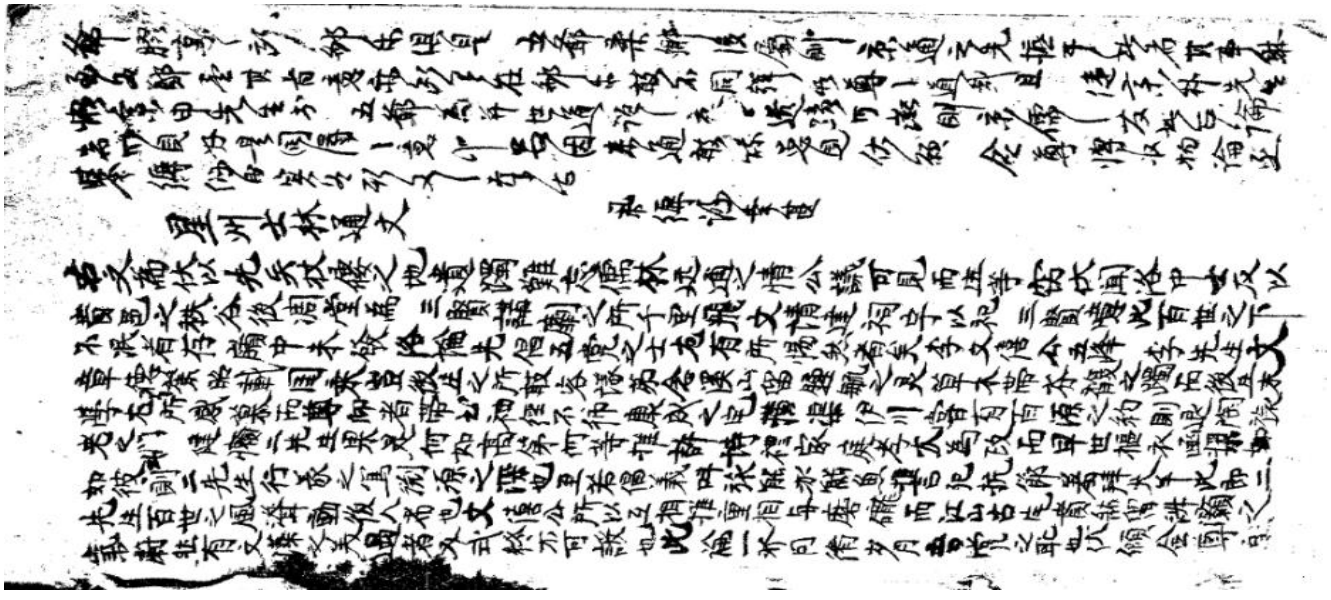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시문류-기 / 교육·문화-문학저술-기
· **형태사항**	크기: 20x9 / 합철, 1 책 8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1) 잡록 / 잡록 / 226 ~230 쪽







行若有患也余望乎而敬聞之則　瑞軒先生宗老師門而晉驪赤子
心一絕粒不能納之無貫倫續之計性復於自長宗八孔若愚伏奈不言
先祖數間及此遺孝寫鶴卿敬專慈天敬堂梅園詩贊華之紀經遺
清文調色如湧生之感慕而奮文之勝四世征知系流如名乳洲陵泝東海清
陰谿晴峯灘蒻靜秀長如聞公手遺跡生後從之流也嗟長德之際正當倫如堂
先生之園之賢而雲蘇露蔚芳時君子之欲果若是易且藏其卿先集之記以
生無文吟之念於眾賓偶也其蓋先生資禀之特美從行之德懿昭達
感仰若是得而知其不能使先生若不能表現所以之輔其化而資其學
尤要謙高光通併述舊稀積而論君子群名道修林錢太子之詩以依則
之字甫行其子賤之為君子合於是而益信能爲子孫之計以蒐集詩
先集編增進而續及叢刻詩作別爲一錄附之先集下以寄吾先生
平日高尚之遊於吟詠是道義之交而爲盛名表其善道之一助不其美摘寫草之
詠為之為也學術清修之實直翻之余以謝其人而敢於筆而系年矣文清
金闈義之德不備遺焉其君子以為安不淋之表其系豐城趙沭漆淮審

申君輿叔盆梅竹記

古人之觀物非玩物也乃格物也蓋萬物皆備於我而各具一太極則君子之於物也取其氣象之相似者而愛玩之以為自家之長物不然則仁者何必取於山智者何必取於水哉其必有以於其中乎至於一草一木各得天地之正氣而不失其性者則雖品彙之衆者寄以托於君子之材矣是故歲寒之松夫子取之海淡之蓮茂叔愛之者以其特立之氣有符於節義之士而中通外直暗合乎拔萃之人也然則其所以歎惜之封植之者寤格也非玩愒也明矣若可其知者道難再得人言也申君輿叔吾所畏之益友也行修而學純志高而趣雅訓承詩禮之教更有蓬麻之益其所樹立雲矣而培養亦可知矣猶以為未也乎植梅竹于盆以為玩物適情之媛靜室焚香目擊道在則其必以夫子之取之於玉立而茂叔之愛之於正色者也其觀物自得之未為如何耳

而非區區俗士心塵眼肉者比也若其孤根托盆中散為萬葉天香吐馥其生色也晬然則其惡可已之一理自然於瞀隱之中而吟咏之際觸類而長之則得無橫渠起新知之玩乎而斬旅之律以此而恨傳說之羹以此而潤則二卉之才恐無愧於君子之天植而君子之愛玩者矣此而所我吾君嘗以疾病有歉於日就月長而既有此淡泊之玩則吾知其身之疾不日瘳矣而心之病亦可祛矣是亦為學矣其為之學寤格之道於斯盡矣適而吟玩而發之者果永學步乎僕僕樗材也豈得列於勇議者而可再言詩者哉不量以蕪說酬之若日寤格之則吾必敢以是軒之梅升為自守之柯則故為之記

崇禎十三年庚辰孟秋　杞翁記

만제 (1)

1853년 이후 제만록(祭輓錄)

· **분류**	고문서-시문류-제문 / 종교·풍속-관혼상제-제문
· **형태사항**	크기: 23x20 / 합철, 1 책 31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2) 만제 / 만제 / 231 ~245 쪽

丹邸　皮封
中貴 孝廬入納 栗里洪戚 慰疏
疏上
中貴 大孝哀前
狀上 壹下庄 宗下生
情友上洛 通家弟
族侄 敎詞
皮封 謹疏
丹邸 孝廬 家上 慰疏
大孝哀前
丹邸
中貴 孝廬入納山齋 慰疏
輓

慰疏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大人杳丈府君奄違 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思慕號絶何可堪居日月奄及 襄奉茇痛罔極奈何不審自
罷荼毒 氣力何似惟願 強加饘粥俯從禮制 么等即當趍慰於歛殯之日而
素多身病且伺冗務末由遂忱今於襄禮未得晉參一紙替問並在人後 謹以狀陳悲
係增深 謹奉疏不備謹疏 哀察 謹拜疏上 癸丑十月初五日金養錢養重等疏上 少前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思慕
號絶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 襄奉茇痛罔極奈何不審 自罷荼毒 氣
力何似惟願 強加饘食俯從禮制 么褰病昕孳末由匍 慰 謹以狀陳悲愧增
深謹奉疏不備謹疏 甲寅正月十九日洪秉朝疏上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思
慕號絶何可堪居日月流逝遽經 襄奉茇痛罔極奈何不審 自罷荼毒
氣力何似惟願 強加饘食俯從禮制 么汨沒冗憂末由躬 慰 謹以狀陳悲愧
增深謹奉疏不備謹疏 甲寅正月十九日洪鍈修疏上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
至思慕號絶何可堪居日月流逝奄經 襄奉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

自罷荼毒 氣力何似惟願 強加饘食俯從禮制 么 即當趍慰而連汨憂冗
末由遂意謹以平素悲係增深 謹奉疏伏惟哀察不備謹疏 甲寅九月二十一日
孝曾勉疏上 中貴大孝哀前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緬惟 孝心純至思
慕號絶何可堪居日月易逝奄及 小祥哀痛罔極奈何奈何不審自 罷荼毒
氣力何似惟願 強加饘食俯從禮制 么即當趍唁而連汨憂病迄莫之遂
謹以謹狀悲愧增深謹奉疏不備謹疏伏惟 哀察疏上 甲寅九月二十七日金養植
養翼養迪等疏上 中貴大孝哀前 少前
么頓首拜言不意凶變 先府君尊丈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
惟 孝心純至思慕號絶何可堪居日月流逝遽及 小祥 哀痛奈何罔極奈
何不審自 罷荼毒 氣力何似伏乞 強加饘食俯從禮制 么謹以親徂即當
匍匐連汨憂冗末由奔 慰其於憂悳無任下誠謹奉疏伏惟鑒察不備謹疏金家善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尊丈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思慕
號絶何可堪居日月不居奄及 小祥 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 自罷荼毒 氣力何似
惟願 強加饘食俯從禮制 么即當趍慰而連汨親癠末由遂意 謹諸分意悲係增
深謹奉疏不備謹疏 哀察 甲寅九月初一日金壽疏上

么稽顙言不意凶變 先府君姻兄奄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何可堪居日月流邁奄經襄奉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罷
荼毒 氣力何似惟願 強加饘食俯從禮制 么即當躬慰之不暇而襄麻在
身末由遂誠只以替唁其於痰悳悲係增深謹奉疏不備伏惟哀察疏上
癸丑十一月初二日 李寅禧疏上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緬惟 孝心純至思慕
號絶何可堪居日月不居奄及 小祥 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 罷荼毒 氣力何似
惟願 強加饘食俯從禮制 么謹諸平素即當匍匐而老癃人事無路振刷一紙替
伸迄此遲措其於憂悳悲愧增深謹奉疏不備謹疏 哀照 甲寅九月十三日李德綱疏上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奄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思慕
號絶何可堪居日月流逝遽經中祥 哀慟奈何罔極奈何不審自 罷荼毒 氣力何如
伏乞 強加饘食俯從禮制 么宂故昕孳末由奔 慰其於憂悳無任遠誠謹奉疏伏惟
鑒察不備謹疏 乙卯正月二十五日成宗海宗濂等疏上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內從兄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
思慕號絶何可堪勝日月不居奄及襄奉茇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罷荼毒 氣力
何似惟願 強加饘粥俯從禮制 么即當趍唁於歛殯之日而老癃人事且伺身病末由豈

意謹諸戚誼悲愧增深謹奉疏不備謹疏 癸丑十月初六日戚叔洪秉瑜秉瑞秉耕等疏上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奄 違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思慕號絶何
可堪居日月流邁遽經 襄奉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罷荼毒 氣力何如伏乞
強加饘食俯從禮制 么後事昕孳末由奔 慰其於憂悳無任下誠謹奉疏伏惟鑒察
不備謹疏 癸丑十月十三日李彦命疏上
么頓首言不意凶變 先府君奄 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心純至思慕號
絶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中祥 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罷荼毒 氣力何似伏
願 強加饘食俯從禮制 么宂故昕孳末由趍 慰悲愧增深謹奉疏不備謹疏 乙卯
正月二十五日查弟成震運疏上

輓

悔老家中又我公於今得見古人風菽麻世業多營立莰葛親情久
感通八耋光陰如客過一鄉論議與誰同山南故宅嗟無主爲製輓
歌淚滿瞳　情友上洛金魯進

又其二

吾鄉最善士堪惜老巖扉應接無遺禄言論快是非一心相照
契千古與從違會失江頭哭泫然淚滿衣　情弟金友善

又

頎然身手毅然姿悔老家門一脉垂恢綽言談人共服睦姻篤義
我曾窺宣知齊席交承際爭與瑶都儇侶隨殘幅未能私慟攄
丹邸霜葉摠生悲　通家弟金精進

又其三

魁然氣宇杰然身忍心祖賢孫此一人塋墓措方皆有得
農桑本業未全貧芳蓀苗能抽槩令嗣克肯可析薪
環顧吾門門祈薄蔦寸行零落感靈辰　族侄申碩協

又其四

虎溪風節凜如霜曠世流傳字字光拳拳心期生室白
壹言誠難能每年歲院帶容會常說藍田呂氏鄉
邦意仲秋奉診後荒原此日送輶軒 宋生申祖憲

又其五

康寧壽福七餘旬門望家殷佩一身繼青禮傳王樹開素儀出
寒塵風情天稟魁格士德冤世稱老懇人可惜清儀難復奉 汪翹
泉輓淚盈巾

又其六

此有老成人素來稟不貧風情多好友氣岩出凡塵勤稽窮家饒扶
宗義宅新天年今已盡毋嫌向重泉吾門福後在吾分惜老人間八十
翁螟子猶孫能繼緒應無餘恨九原中 族末鳥教

又其七

生花智洞老居仁水山優遊君子五畝桑麻閑事業百篇詩禮大經
綸前川月冷觀魚石古岸花殘接客園餘慶許多行善後螟條或
葉滿庭蓁

鄉下生夏城曹錫坤

又其八

齊家治化及於蘇敦曲和風都是仁宛結蘭宮孤鶴杳慈深登砌一枝春
杞城日暮悲昏旻棟苑霜寒泣色淪望八年光非不足雲亭歸路淚添巾

族末晃旭

又其九

嗚呼惟公享七旬生平懿行接人仁齊家稼穡經綸潤蒲壁詩書事孝
新孫賀睦情無已梁鄉稱敦德共誄親鄰歌一曲青山路悚立徘徊不見真

族末仁協

祭文 其一

猗與悔翁奮起吾鄉學傳詩禮業尚箕弓世有名碩克嫻後禹賢
纘故家衣冠令族遠宗我公石承前緒神彩凝重言論紆餘盛德俱尊
脅力尚強脩友推望鄉隣咸仰顧予不佞重託奁奩契公有嗣子我女婿之
公有令姪我子娶之鴛鴦繡綿情誼調穆肅緘往來言笑款洽有事相議傾
倒廣困晚抱嬰孫左提右挈教以義方才智聰明間又治業頻立根宜退卜幽居
優游自適天報施庶幾慶增益意謂此生永言無歎夫何一疾偶復膏肓潛
銷暗鑠沉綿旬月刀圭無力遠至今日胡不慭遺使我長呼七十康強不為不壽半
世安養不為不福言念特孫心為愴遺髮之誓髮未及勝冠分貴賤且人有言
世安養不為不福言念特孫心為愴遺髮之誓髮未及勝冠分貴賤且人有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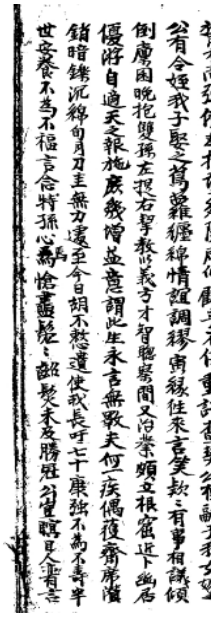
閱齋我衆惘俏以單鰥不昧者存款格敲窶嗚呼痛哉查下李氏墓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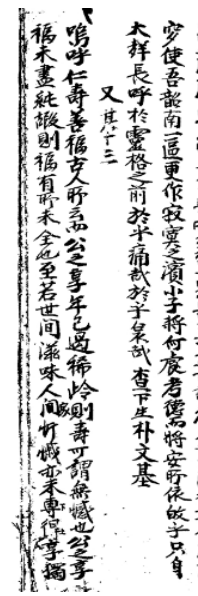
又其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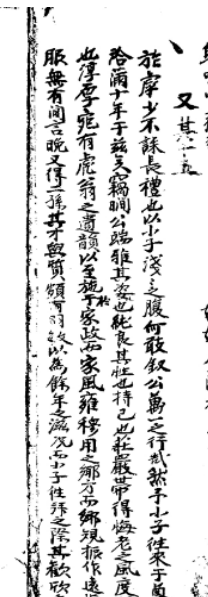
嗚呼公之享年得期稀之壽庭紫無朝晡之憂子姓有繁延之慶生康寧
也七老考終也則公之於五福可謂兼且全矣有何生死之感而小子自顧情私亦
有所不能已者於乎小子之長子歸即公從孫女也早失怙恃無所依賴自
幼至長自長至嫁莫非公之視育也且小子之於公世有鄉里之舊誼晚托姻好
之新好塗道不遠源泉往有無馬相資有誤馬銑食有患馬相救以
於鄉曲之事閨里之會送為居盛宵相視晨暮期旨年來嘗好云何尼遘
傷醯於兩家荐屢於月先存我歸何而公忍遽也此非徒公家之禍實小
子之厄也則小子今日之哀烏得不一倍悲慟乎於乎已矣今日即公大歸之日也公軒
昂之風度卓犖之氣宇寬弘之器量正直之言論特習之手段投之不藏之密
安使吾鄰南三區更作寂寞之濱小子將何處考儀焉將安所依敬乎只自
太拜長呼於靈格之前於乎嗚哉尚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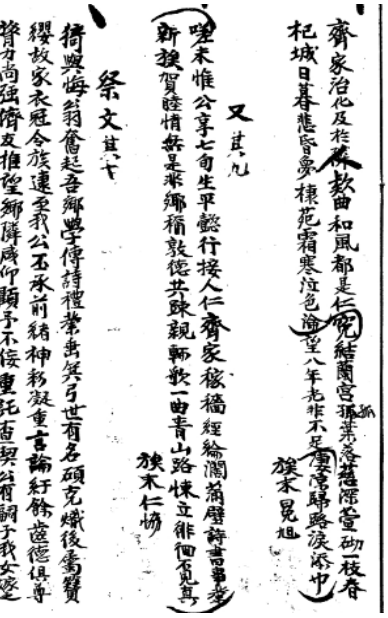
又其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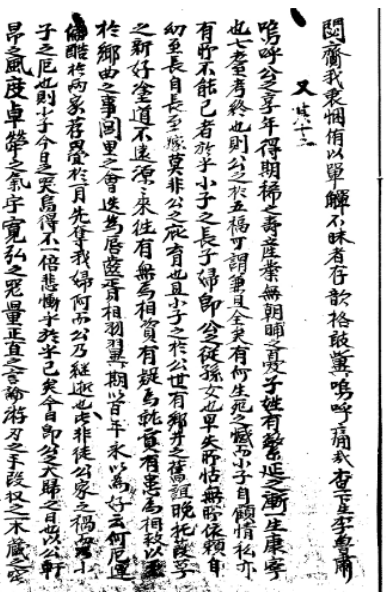
嗚呼仁壽善福古人所云公之享年已逾稀齡則壽可謂無憾也公之事
福未盡純嗟則福有所未全也至若世間漏來人間所憾而未專作者掌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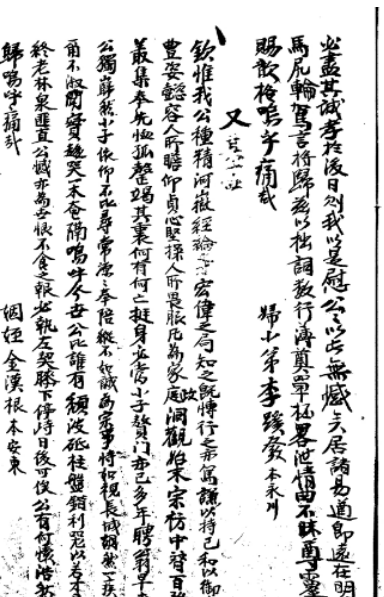












教訓之方自溢於言外雖予無似未嘗不感服于中矣奈之何一疾沉綿奄至不淑哀兄氣々之狀諸孫呼々之容不忍聞不忍言而今又小子來訪故宅但見丹崖之向々素帷之寞々滿壯悲懷書不盡言言不盡意只為一聲長呼而退公其知乎否乎於斗庠尹某哀哉嗚呼痛哉 查下上洛金河善

又 其六十六

嗚呼小子之委禽于府君之門下者于今八九年而有時拜候之際竊有所景仰於軒屏之下者間久矣公以古朴之儀奇偉之論入而為一門之長德出而為一鄉之矜式以至於接人應物之際莫不以誠心推施而至於小子則尤有所感鐫而不忘者語其事長之道則諭以孝悌語其居產之道則勉以農業教誨之方眷愛之情又匪他人之可比則此豈有所假飾而修飾之者哉嗚呼公之於世可謂享福之人而猶有所憾恨者存焉公晚得一孫教以義方課以文學庶幾及見其長大而成就矣奈之何偶然一疾竟不復神明之佑使我公至於有志未就則豈莫莫之為而為者耶嗚呼小子之於公未能樓々問候至於沉吟之日又未能親湯餌參於寢牀之夕入門而不復見前日之典刑披帷而不復聞前日之聲咳則此小子哭公之處而公庶幾歆小子之觴也耶嗚呼痛哉嗚呼哀哉 孫壻 上洛金養戀

又 其六十七

嗚呼小子生晚未及見母家全盛之日而始自省事後追陪軒下則王考府君已下世舅氏亦云歿而惟府君無恙在堂棟樑一室克幹家事使無主孤寡之家恃持扶護得至保有今日者實府君之力而府君遽至於斯耶府君嚴畏淵滿更無遺於世而然耶抑天故欲使吾母氏家不復更振而然耶天意未可測而人事亦未可知也嗚呼小子亦復巢之卵耳年甫弱齡奄哭我怙恃痛深風樹無所逮及每向西天瞻眺府君顏範如王考府君在世之日矣奈之何天不慭遺奄閱秋霜悠々人世更從何處而得承恩眷於姥之過今夜則千古缺而吟事已矣小子今日之痛豈止以母氏家庭下以哭吾私嗚呼痛哉 表從姪 閔[illegible]

又 其六十八

嗚呼小子即公之從孫壻也人孰無從孫壻而公之於小子既不以從孫而待之則小子之於公豈可以姻從祖而哭之乎嗚呼記昔小[illegible]委禽之日上以無恤門之主翁下以無應門之尺童而子々然惟我聘母而已其外內家事無不自公擔當小無間隔於已孫已壻而小子亦恃之而聘祖聘父而際々來往或一年四五次或一月三次而賜款若積年之嫺面然我惟日之不足及其拜退之日舉我以速來勸我以篤謹々敎誨之方特出於悃中親愛之意款款之情靡所不用其極若是者已五年于今矣雖以小子之無似安敢不銘心而服膺也耶嗚呼不意今年仲秋室人遘疾身無疾痛而筋骸內蕩臥不下楚而氣血暗鑠咳嗽之症午寒之病勢若非輕公聞其病報而馳來見其顏色之瘦瘠形容之困悴惕然而驚焉憫然而[illegible]之膝下盡家力以治藥而病益深適口味以補元而中反虛瘳以至於六七月之久而浸々然瘥疾竟不起乃八月念八日也嗚呼哀哉予見公病之篤雖不能親撫其尸而其歛襲之具送終之節無不周旋指揮以至於服殮斯葬斯而其於反魂之日余將拜公而公卧於榑中飲泣而言曰萬事已矣渠之無恤無持自此而絕乎予之行跡其亦自此而殊乎嘖々然不能定情矣余強面而復之曰人生世間死生有命壽夭不齊而壽夭中又有類多不同者我有年而天折夭折而無嗣無嗣[illegible]之草露水上漚泡而公從孫女雖年不享壽而幸遺一塊之可用者猶何惜乎渠母情之無型者過十數年歷歸於乾則前日缺界復圓渠母之精靈有賴不雷而向之無嗣無祀者而何[illegible]無益之恨乎添病中之疾悲哉公之應之之題[illegible]矣余乃拜退而於心終不能弃宿而還拜則公之益甚間我而知之所曰知之間我為龍門口葉也若有所言而喉而未能痛矣々邪知此日永訣者夜為明之永訣嗚呼哀哉我公恢廓之量嚴毅之度孝友之敦睦之確以小子拙文荒詞不敢模狀其萬一而但公之在世吾鄉重焉公之指在鄉事多[illegible]則何以知吾貞當世之重望[illegible]已矣々公之年今年為七十二則可謂得享稀壽而若假之數年使貴戚門高以吾聘家有[illegible]則吾不永無感於斯世而此意未遂想[illegible]眼恨有[illegible]之中哭嗚呼痛哉 從孫壻 咸陽 朴[illegible]淳

又 其六十九

於乎哀哉恭惟我公韶州巨族按廉遐胄悔老遺韻孝友傳家詩禮種學承々彬彬顯々令德公惟趾美隨分自適素優優閒丹邱泉石鄉望家聲一身佩服爰鍾康强七旬耆稀兒孫小子猥托贅處叨拜麗床特蒙容接堂々緒論儀[illegible]文席[illegible]而屈[illegible]寵有遐祝眷永並翼[illegible]屋庶幾源々陪侍喬陰小子無祿冈界[illegible]欽一朝[illegible]花鳳安[illegible]溷陳門赴弔馬市[illegible]哭況余情擊痛悼何極[illegible]陽古里兜後歸鶴[illegible]象克肖[illegible]業未艾[illegible]福善慶假[illegible]後[illegible]域[illegible]宅慶壬丹旐私[illegible]悱惻[illegible]展微忱以[illegible]來[illegible]小子無文難[illegible]一伏惟尊靈諒賜歆格於乎哀哉 孫壻 [illegible]

又 其七十

嗚呼人莫不[illegible]我見等而公於我雖有年紀之參差不齊而以其行則為三從兄弟之語其親則乃同高祖緦服也以三從同祖之親而居在同閈屋又連居則其情誼之緊密依賴而相須果何如也嗚呼公以仁厚之性倜儻之姿不拘小節而與流俗齊[illegible]有範[illegible]人以[illegible]我保宗之誠睦族之誼心[illegible]為我門中棟樑著[illegible]則[illegible]以小弟之不敏無似而其所感化裨益實是弘多矣余[illegible]公之寬仁宜享耄耋公之壽考必得遐齡而以[illegible]强健勇力精神[illegible]像而可過稀年未享令稀則天[illegible]於報施而理亦難諶而[illegible]公實[illegible]枚舉可稱而[illegible]之用心大過人也則教誨[illegible]嗣武毅[illegible]之[illegible]田園家[illegible]承先之道裕後之許無不畢舉而所可恨者只以宗嗣之未定特見[illegible]之未冠[illegible]然而嗣子克有幹蠱者則公不必以[illegible]根而我以是慰[illegible]公矣嗚呼[illegible]逾月有限大[illegible]在明[illegible]將[illegible]暑[illegible]情物不昧或存庶幾歆格嗚呼痛哉嗚呼哀哉 三從弟 申冕[illegible]

又 其七十一

嗚呼我公其知此哭之為我少弟權某之哭也耶余亦公族少弟而有子弟之愛公之於余族兄而為父兄之親積世同居服盡而情不盡自幼承訓耳淡而心飽治事無巨細而必於公禀決[illegible]有迷謬而必於公執正迄此蒙賜於門屏之下者有不可一二縷目而自公離[illegible]以來坐[illegible]一[illegible]之相望[illegible]其哉我遜矣邪意今日遽有此千古永別耶嗚呼天之生我公也其亦有意於吾門而天之喪我公也其亦有數於吾門耶昔公之在世也宗黨有所依賴[illegible]有所[illegible]所倚重則公之生與沒[illegible]吾門盛衰之運而又與夫[illegible]從孫[illegible]先後并命於一旬之內物[illegible]此極嗚呼公早年無兒不自[illegible]懷[illegible]宗[illegible]使之成立[illegible]年[illegible]遠近而[illegible]其朝昏見中[illegible]六世承祀之托[illegible]無其人矣[illegible]公負[illegible]嗣[illegible]特[illegible]其才[illegible]造詣可[illegible]家[illegible]海明[illegible]家而早晚立宗[illegible]其[illegible]兒[illegible]且賢[illegible]繼而頗復[illegible]身後食報亦[illegible]公於世[illegible]已為[illegible]特兒未冠之恨得而為泉路之[illegible]耶嗚呼今公之也非昔[illegible]一門[illegible]可長之人則其難[illegible]適先[illegible]我公[illegible]家[illegible]洲家無老[illegible]痛[illegible]人所謂[illegible]私三字[illegible]寫出[illegible]悼[illegible]也已不[illegible]靈[illegible]我情而歆我觴耶嗚呼痛哉哀哉 族弟 申冕義

又 其七十二

嗚呼我公昔與我先君為叔侄行而年紀不甚相上下志意亦頗相合自在黑頭以至白首緊密之誼愛好之情迥出尋常也則少弟之乎日所見而知者也嗚呼少弟不天早哭先君愚駿無賴惟有我公眷我恤我教之誨之使居閭里長享未得朝夕於公對而每歲時之節展省之暇周旋命盡之笑語之々穩自擬百年在前而且恃公神氣剛強宜料今日至於斯耶嗚呼惟公器宇軒昂性度寬確辭氣與重見識宏深友於兄弟睦於宗族處事則盛水不漏接人則歡喜若醉鄉鄰傳友莫不欽重村里雜卒無不畏信所以在家為長處世亦為羊瞻八旬享得稀齡之甲荷眷一子連抱孫家之盛天道福善果不爽矣而人家餘慶孰大是乎但門事多難宗嗣靡緒孫兒成童始未勝冠而奈之何天不慭遺遽路邃促則今日之不可恃者有如是耶嗚呼瞻魄歸于荒阜英霧遊於帝鄉從今以往何處尋公感舊悼新哽咽沾背一觴哭訣[illegible]倘灰靈知有知庶賜歆格嗚呼痛哉 三從少弟 申冕儉

又 其七十三

嗚呼吾門宗族雖四蕃衍而降自中葉家禍荐臻朞功之親鮮少緦服亦為不[illegible]而叔主之於先父兄行已為居長則顧念小子之早失所恃而無所依仰乎實賴叔主之左右眷顧而以至於成立之時則小子之依賴於叔主而望之若親父兄者果何如也嗚呼叔主之性度寬仁情誼款洽視門子侄無異於親子侄靈々之訓眷々之意未嘗不溢於容儀而露於辭色以至於齊

家之方睦族之道無不叙之尊之則雖以蒙蒙無以而其所裨益夲方何哉嗚呼叔主之生平云
爲無非人所不及而古所難能若初年遭遇崎嶇扶摇而負子拮据一念保宗以畢其
無父之侄子若姪女而小無間於親子女則古是人所不及處也值家運於板蕩之際而慮益
堅固暑年調度裁至國量剖出世所難能者也而惜乎琴床偕韵未穩兲淒之
餘慶徐弟九懷竟抱劉胖之至痛以中年經歷未免胡海光景而晚境顧養亦多生
甘哥滋况螟嗣克肖肯堂之貴有在特孫稍長承宗之望可期以古家風彝度可不隆而
瞑府靈英必無餘憾矣嗚呼光陰迅駛踰月奄迫禮制有限靈輀將駕情構抛訴痛
弟掛一伏惟尊靈庶戚鑑此嗚呼痛哉　三從侄申遠祜

又　二子

嗚呼痛哉公之禀質也賦性也剛健而柔順公之持身也發言也耿介而正直居家而家法之
肅肅不出顏氏之訓處鄉而鄉規之井井不外呂氏之約而至若一門之倫無小無大皆以誠
赤與四鄰之事無遠無近不以私敬有族人之貧窮者則竭心周恤有村氓之艱虞者則極
力極濟而接人則和而不流處己則儉而不嗇此皆公餘事進小子嚮日所見聞
言之則家素清寒身亦潦倒而奉先之道由於人保宗之誠自著於心宗侄冠笄之
節及其時祖廟豆籩之物粹有餘爲而奉之何天道無知使公無嗣而奉舍季孫
爲可賀有子有孫克家之貴升宗之訓非不感俑先集之利後是之裕而將有待而公之
若恨何於也公之陰騰何嗟嗚呼痛哉興言及此更念疇昔小子之先君不幸早世家事之難
易每倚於公家事之憂樂必問於公以至于今日耶竟百年壬擁無壽遽至三朝不做之痛
耶有淚澈泉第合俱灰單杯傾河一舜長咽何足慰我公平日第一之心哉伏惟尊靈分
以諒鑒而諒誠特此菜格而來歆嗚呼痛哉　三從侄申錫祜

右甲寅九月初三日小祥時祭文

嗚呼翳惟我公盖今世古人而貌古心古言古行郎嶺之本色也拔乎流俗之俗而不以外面而粉飾處
世衆論之中而不以顏私而阿附襟懷曠坦言論正直處宗族而宗族仰之處鄉黨而鄉黨推
之七耋偕老共享稀世之壽晚契稍饒老無衣食之憂螟嗣克肖亦既抱孫則今公之沒也
何有所感而戚哉然而小弟今日之哭一以哭公一以哭私何者弟之於公年忘甲乙之差契
托金蘭之交地步稍近舞雩相通韶楼之夕三齋之夜有事輒會有會輒喜視之爲莫
逆之交而又况不接寒暖猥托婚媾以公之從孫女婦余之長孫子而令伯氏査兄父子則已早世矣
以公爲親查兄爲綠徙來情月子而契可密談笑隱語窃瞷公用心處則不以己憂而每以伯氏
家爲憂撫養特孫曰此伯氏家而買之此公之誠心而人之所難
及也竟未見成就而公忽奄然此爲公而哭也不幸孫婦入門之四年以無何之疾殞歸于公家竟危
於公家穆遺一塊形影永絕此爲我而哭也及其孫婦之沒公亦在疾而病勢危劇矣聞孫婦之
喪適當其期甞雨晚發直從病而則公在床蓐攀呼而語余曰君何來乎意其將
來也敢来發日幽音靈室知此時此語永作千古之言耶嗚呼三十七日即孫婦葩日也今初三日即査兄
之祥日也小弟今日之哭非但哭公之沒而以哭孫婦之哭來哭于公公其知乎否乎靈若有知相訪於地下否
言今日甲也無恙言念及此不覺長痛聊奠一觴庶賜歆格於乎痛哉　查弟成陽朴元象

又　其八二

嗚呼基華已病星霜倏移此何人事之倥偬如是之甚也嗚呼公以高邁拔俗之姿耿介出塵之
標處渾濁而揚清素守約而安分至若修身齊家之方待人接物之道不露其圭角其於睦
族之誼保宗之誠無不周便不但爲鄉鄰之所推仰亦是爲儕類之所欽慕也顧余小子
早趨高風望之若泰山北斗矣越在辛冬得侍軒屏起居飲食與公共之如居然再經冬
也繼穩之意悠悠無情久而彌篤殆若親兄弟焉懷之間則此豈非公我之衰老境一好事也耶
舉之何好事多魔造物有猜遽使公與我居然作千古之永訣也嗚呼公之生平事業可謂無
憾矣世也壽首五福而壽過稀年少而安貧老而猶健螟嗣式穀幹蠱有人宗祧有嗣特
兒克嶷琴瑟諧音室家有慶則人世滿况別無恨處也而但孫兒之弟冠宗婦之于立必
餘憾而既有克承述志之賢胤則我以是慰公而公不必飲恨於冥冥之中矣於戲居諸易
邁祥期奄届疏將薦罷暑陳情由物既薄矣敢曰情孚不昧尊靈庶賜歆格於戲哀
哉嗚呼痛哉　婦小弟永川李頊發

又　其八三

嗚呼吾鄉大姓稍與維申梅老古家廓翁各门棠木為村家風遺傳天真輸局賢
能何必大做克著家政活計數畦事券晚年崦水効又浸生教子訓孫保族和门出而
友鄉一鄉推賢奇偉素論度口抵掌州南士儁氣不稱公顧余頗家姻親之分居同鄉井
往來殺頻纏綣之情向仰之悰惟公筋力老益強康誠禱默祝期以百歲如何一疾大
耋之嗟嘆復亂兄極倫傳斯克勤于家庭述遺謨嗟我特甥尚未頂冠才華夙就
未量其進天之報善此處可見顧念吾親老病吟呻自失公無意而小子今來吏
離依仰轉觸之頃餘期此辰書不盡言寧出情悃一哭長吁冥聽漠漠伏惟尊靈
庶賜臨格於乎哀於乎痛哉　通家侍下生上洛金養喜

又　其八四

於戲小子之委禽府君之門下者于今十年矣小子之迷劣雖未知府君平日行誼之見重於人
者爲如何而有時晉候之際窃有以誨之方而感艷而欽服者久矣公以剛毅沈潔之資風
範凝重言論紆餘出而一鄉士友莫不推仰入而一門子弟寫不率服則蓋其不徒性度之存此而抑
亦古家家範之有自來矣於乎公之於吾親乎紀略同査預烟綆雖不得種種相追而有事相濟有
急相救非若凡他烟婭間漠漠之視則小子雖愚駿茫識者其誰無慕爭帶感鎸于中哉於乎
府君即遠之日略以荒詞仰鑑則更不必復贈於冥漠之下而祥期迫矣未冠釋矣入门而
不復見前日之典型孩帷而不復聞前日之聲咳則小子今日之來也於何考向而更誰依仰也耶
夫天之報施善人理固可驗則胤兄克家之孝特孫經述之顯必有所陰隲而冥佑者矣更祈必長
呀永懷也嗚呼痛哉　姪婿上洛金養懋

又　其八五

嗚呼此何日也時維九月序屬三秋悲哉秋之爲氣也蕭瑟兮草木零落惨黯兮山川寂寥君
在登臨而送遠之将逝既老悲傷而感人生之星稀則雖孝常悲哀之情自不得不爲嗚呼我
公此何日也念少弟亦恨人也去年是月奄遭先妣終祥崩迫餘眔而益同極又當此日更
公將復何懷之可作痛惟傷我公以寔是叔未長老年而高而寔仰賢孝而志確孝又天性特感
祖遺風詩禮庭訓宴吾忍齋餘韻其中之寔殷甚多而無有親疎之別各抒之衣錦恒會而
遂成敦睦之規堂構孝友先之業爲式廓是懶此極于
良嚴一子克肯裕海螟之式穀賢孫之以第繼生而故家宗支雨得其全寅朋當遠近舉止而晚景
琴酒且樂無夾不願世上之浮榮無慍素履
考之休即是一朝遽奉重泉之路
门事之巍
不見喬嶽之運動而今於公即世之後
耶窃念特兒
失怙不可取
頻不可量也惟公勤勞之功於是為大而但其未冠之限得無恨乎嗚呼靈姿儀容無復知公
王言格論無復知公齊家處族無復知公斡事立義無復知公則痛矣乎吾將安仰已矣
余將那依見今天地秋殺晝夜而多飈飈冷颼叩人幽情咽咽寒泣使我何淚居然一奠
矮同嗟呼第事成禮伏惟不昧者靈庶幾歆此菲觴也耶嗚呼痛哉　四從少弟申宪義

又　其八六

嗚呼我公豎我先子世居一閈同室有誼自在黑頭以至白首出入必偕夏冬喜共
俱不飲雅操相長風極琴書月樹花樹愛好其情晚景尤倍自公移此一筋稍疏斯不
見思繼有思遂一生心期百歲猶壯嗚呼少侄不天奄又先君時維我公若嫜同氣長為嚬
殮極心看護於心銘感達總不已遽當今夕痛復如新嗚呼惟公氣宇軒昂性度確堅
刊落蟬槐絕意睃瞄言論正直見識爰邃依傳壽竟暮長年善必有慶螟螟式穀永爲崇抱
孫并是全哉宗祀有托易後將大公則何憾我保猶悲感舊悼今有淚法泩靈知不庶幾
歆顧嗚呼痛哉　族從侄申震協申天祐

又　其八七

嗚呼公稟端明之質生世德之家上承悔翁遺韻近襲虎溪高風遠近知爲苫塊不貸
公之舜華誦公之德美而以小子管見之見亦既家眷愛之至矣嗚呼與自甲午
姻親公之侄婦即小子之妹而小子之妹即公之侄婦也惟公則倫為叔侄小子則誼為兄

伏況之遐和於百年矣不幸公前之早逝於今則鳴呼十七之孫青春痛逸於千餘年之冊
公既明炯於在世之時而喜名至此深為之鳴呼嗚呼千古已矣為之奈何
之多而古經之或德必得其壽名年七十餘劍色大陸之又云穆善家必有慶公飛克
貞剛公已積善矣謹按年譜言之劍城都之二閭惟公有之而可以耕於子孫之近桐江之
七灘惟公鈞之而世以與於忠孝之業稱其名譽可謂南矣後何憾焉之何
限鳥嗚呼石既之窀泽之而在上下在左右子為明一理庶或感通過家侍集早文起八

乙卯九月六祥時祭文

於子余小子小子幸顏於公之公目不小子容耳不小子喜天小子今未天公而我公之和知
為誰宗子也痛矣孰則小子而哭我者而也告性氏達事由以明其可哭之義
可予知性名說祭聞報去歲之至月為我今孫掃者即吾女也嗚呼公
其知乎否乎伏惟尊靈名祖聖德自足相好之日月閻分之感庶鑑行不在
斯漆之稱以小子今以追根又易可勝道哉於子稱善之家到秋木之我公琴祥
備在教閨月也而賢舍人遠角遠亟在我公維帝京室六代儀型重之第
在東之室無陽累上郭天閻庭之臧心即知惟喜女馬鳥之行今定日而不近矣
所仰人門拜仇之陰我今之室陽帝之次儀賢閻夫人四吾家新婦也第恨為人
父祖而不見女孫新婦之孫於乎哀哉尚享

書 狀上 申生員 護喪所 八納 乙卯四月二十日初喪時

省式言德門荐禍今族嫂氏查夫人喪事實是千等慮外曾知之患但雖
積年痛留幸賴左右調護之道庶幾神明感回之於天不意遽永之實音驚
怛不能已伏惟親誼隆至悲慟何極矧前喪未闋又遭巨創其家同極之慟
不言可想而其在初終凡節尤何以移情而善慨也為之布慮而無已戴福節當前
圖而審何經救目事呻吟未由遂慮且旅舍卒不以禮馬探以細誼悲懷增深餘
惟冀初終利成不備謹狀 乙卯四月初百金載福狀上 曲阿

又

省式言德門荐禍今族嫂氏查夫人喪事出於千等慮外不復何言之雖
知患但之積月彌留而竟謂神明所佑庶幾回福天實料今者遽爾承實天
耶前科未闋而又當此凌厄不勝悲念之至伏惟庚炎比酷護喪諸節何
堪調精進授以查誼節當前圖而渠孀寒病家兒而有所礙未由迓致只增
悲慨而已且本家屢經大事之餘衰乏愈卒初終凡節萬何以移禮也歷深
不已餘惟冀順威禮伏惟 初百金精進狀上 曲阿

又

省式言德門荐禍 令族嫂氏查夫人喪事出於千等慮外不復何言之雖
知患但之積月彌留而竟謂神明所佑庶幾回福天實料今者遽爾承實天
耶前科未闋而又當此凌厄不勝悲念之至伏惟庚炎比酷護喪諸節何
堪調精進授以查誼節當前圖而渠孀寒病家兒而有所礙未由迓致只增
悲慨而已且本家屢經大事之餘衰乏愈卒初終凡節萬何以移禮也歷深
不已餘惟冀順威禮伏惟 初百金精進狀上 曲阿

又

省式言德門荐禍 令族嫂氏查夫人喪事出於千等慮外不復何言之雖
知患但之積月彌留而竟謂神明所佑庶幾回福天實料今者遽爾承實天
耶前科未闋而又當此凌厄不勝悲念之至伏惟庚炎比酷護喪諸節何
堪調精進授以查誼節當前圖而渠孀寒病家兒而有所礙未由迓致只增
悲慨而已且本家屢經大事之餘衰乏愈卒初終凡節萬何以移禮也歷深
不已餘惟冀順威禮伏惟 初百金精進狀上 曲阿

又

省式獻儒言罔知患但之況重年齡不至隆老竊記 裳之親孝以期壽享堂壽
今日誰承尊膏驚痛之極復何可慰衰自年弱落陳忠良威又至 所後前制
未闋孤處巨創初終之節能無有憾於 存心耶仰為衰地清淨莫投憂
名漆書之餘 苦復保無大損 今大老擁慶以若塊君返節何仍伏切態潮
之至厥儒年來痛憂相尋故 寢門之哭尚後於人室人頓均佐侍之地未歸
跳於裡括之日舉使情理處至厥氏月前積經女指宿業風痛絕粒席將
沈月祥事之時不擬今突而今番衰禮雖未送料惟俟啓期以為前
期第則往返授叙畏暑稽緩未克陽踐於敦事之末悲慨幽明奈何
自文惟祝穰食節衰無至傷孝餘不備慰禮初百姻弟李齡儒疏上
又

魅疏

蛾首再拜言不意玉寢 先府君春秋養及 訃聲恨不能已伏惟 孝
至思亦罪絕何可忍任月流遠遠旬朔 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
罹茶毒 答刀何極伏乞 猶加餐節俯俟私制 其次後事所應
魅其於虞殯葬祭下誠謹奉次伏惟 鑒察不備謹疏

年月日某位再拜謹上

答疏 式

某稽顙再拜言某罪逆積重不自死滅禍延先考 [illegible]
[illegible] 不勝陨絕謹奉疏 某遠不次謹疏

年月日 [illegible] 謹上

애감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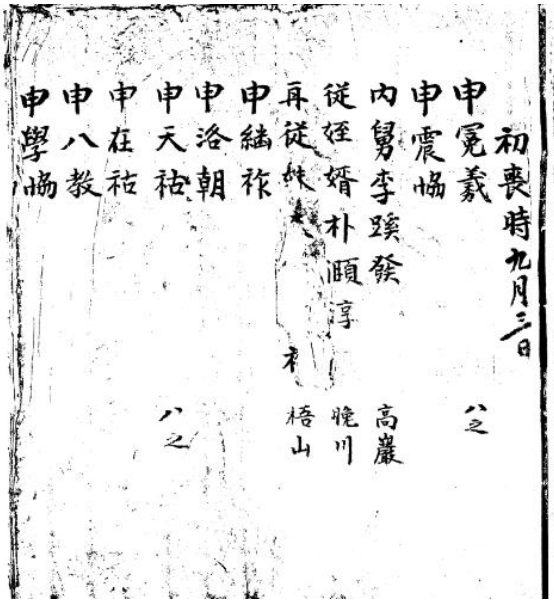
정조 6 년 임인(1782)생인 면구의 초상일(初喪日、철종 4 계축 9 월 초 3 일、 1853)과 소상일 (小祥日)인 이듬해 갑인년 9 월 초 3 일、대상일(大祥日)인 을묘년 9 월 초 3 일에 기록된 조의록으로 신씨 종중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친분이 있는 여타의 성씨들도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채미헌계안과 더불어 향리의 문중조직과 친교 관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1853~1856년 애감록(哀感錄)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조객록 / 종교·풍속-관혼상제-조객록
· 작성시기	1853 년 / 계축 9 월초 3 일
· 형태사항	크기: 20x19 / 합철, 1 책 39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3) 애감록 / 애감록 / 246 ~265 쪽



春[illegible]老[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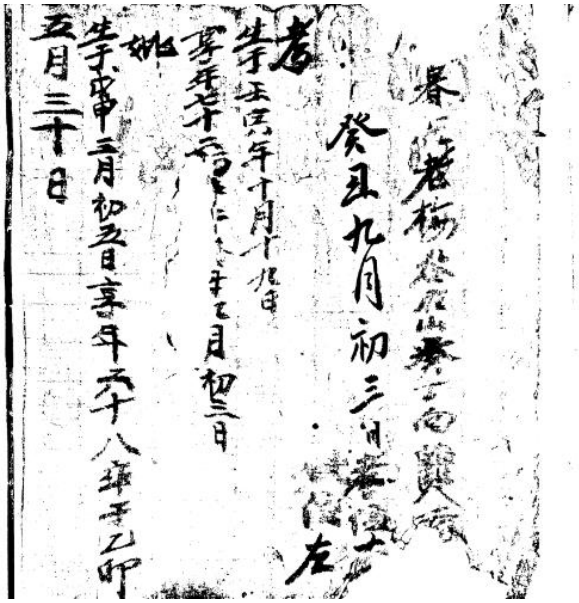
癸丑九月初三日[illegible]左

考

生于壬寅年十月十九日

享年七十[illegible]月初三日

妣



生于戊申三月初五日享年六十八年于乙卯

五月三十日

初喪時九月三日

申冕羲　八之

申震協

內舅李蹊發　高巖

從姪婿朴頤淳　晚川

再從妹[illegible]　梧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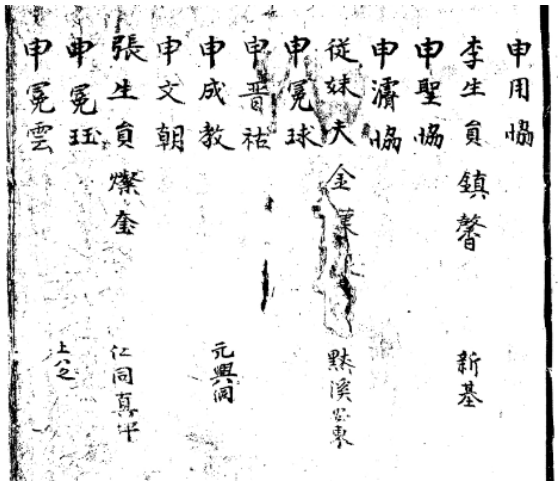
申緒祚

申洛朝

申天祐　八之

申在祐

申八教



申學協

申仁協

申文教　上八之　羅浮

申周協

姨母夫吳希祚　梨洞

曹生員錫坤　粉洞

申肇協

文生員起八　新堤

申冕祥

申英教　上八之

申冕商

申箕協

申泰祐

申用協

李生員鎮馨　新基

申聖協

申濟協

從妹夫金[illegible]　默溪安東

申冕球

申晉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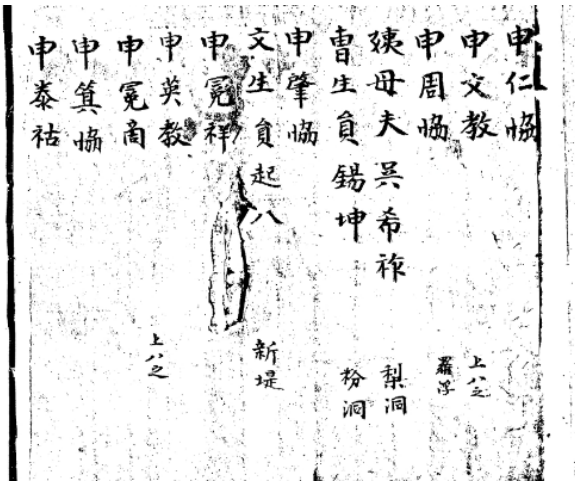
申成教　元興洞

申文朝

張生員燦奎　仁同真平

申冕珏　上八之

申冕雲



申冕震

申元植

金生員魯進　沙村

金生員羲善　沙村

金生員宅善　沙村

申冕璧

申一協　龜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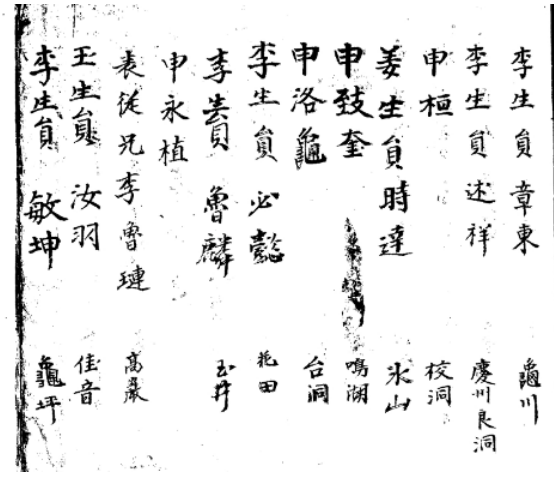
申熙伯　新堤

申洛文

金生員炳裕　沙村

從妹夫金養懋　沙村

李生員光鎬　梧桐



李生員章東　龜川

李生員述祥　慶州良洞

申桓　校洞

姜生員時達　氷山

申致奎　鳴湖

申洛龜　台洞

李生員必懿　花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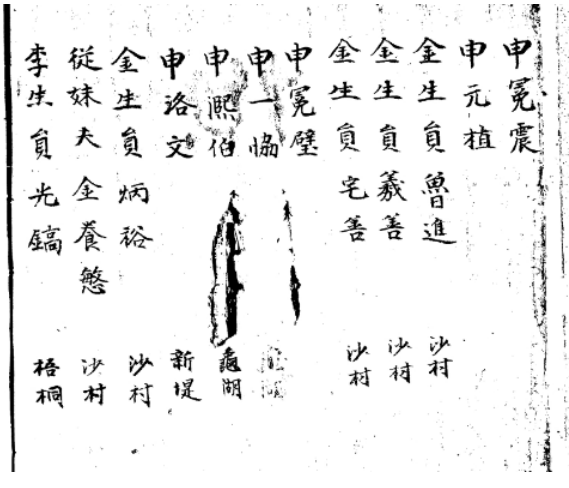
李生員魯麟　玉井

申永植

表從兄李魯璉　高巖

王生員汝羽　佳音

李生員敏坤　龜坪



申冕恒 開日
申塾教 舍谷
內舅 李佑發 高巖
表從兄李魯俊
外從叔李厚發
申冕魯 亭洞
申東協 傳巖
申冕喆 亭洞
曹正言 克承 新堂
朴生員 孝基 梧洞 初二日
朴生員 文佑 大里
朴生員 元翊 萬川

權生員 復 立巖 初三日
申文教
申冕瑗
申震協
申天祐
申洛朝
申文朝
姻兄金 養壽 沙村
申冕球
襄禮時 申晉祐
金生員 榎裕 十月初八日
金生員 壽甲 沙村

朴生員 流祚 梧山
申大朝 上新堤
申叔仁 光山
曹錫坤 粉洞
申鳳奎 水淨洞
申周協
申廷植
李生員 時觀 梧桐
李生員 時佐 龜尾
申服遠 龜尾
申相遠 菊洞
申鎮國

申冕聲 亭洞
申冕珽 老梅
申奉教 比安
洪生員之遠 軍威甫洞
申宜教 永川
申大教
申洛錫 新堤
洪生員 晚祐 義興栗里
查丈金養發 沙村紙間
金生員養重 沙村紙間
戚叔洪秉瑜 栗里紙間
戚叔洪秉瑞 栗里紙間 義興

戚叔洪秉赫 栗里紙間 義興
申桂 校洞
洪生員昊欽 甫洞
申命休 龜尾
申奭教 元興洞
李生員家淵 巨梅 軍威 至月初三日
李生員亨發 高巖
崔生員雲曄 默坪 善山
申楷 龜尾
金生員翼善 沙村
姜生員鳳煥 冰山
外舅金精進 沙村 奠乾

申光彥 愚呼
金生員壽德 沙村 二月廿六日
申 [illegible] 並方多
柳正言 光睦 河田 三月九日
李生員海峻 蓮湖
外舅金精進 沙村
查丈金養發 沙村
朴生員文表 大里
金生員興鐸 長洞
姨從金器 鳳溪 善山
洪生員 [illegible]海 甫洞 軍威 四月十日
柳生員致迪 安東 水多

李生員時弼 後坪
金生員養和 沙村
申正仁 龜尾 五月十日
柳生員英睦 河四
成生員學源 台洞
崔生員 海坪 善山
申桂 校洞
申 寺洞
申熙舜 新禮洞
金生員 旅巖 七月廿六
朴生員慶祐 比安 閏七月二十五日
從妹夫張炳九 真坪

申祖憲 龜尾 輓
申學周 花田
申益欽 遷尾 羅浮
申仁協
申冕旭 羅浮 輓
妹夫金河善 沙村
申禹教 愚坪 輓
申塾教
申八教
申俊協
從妹夫金養懋 沙村 奠
從姪婿朴順淳 曉川 奠

李生員曾甫 山雲
姨從吳載華 梨洞
申昌亨
申永植
朴生員文基 曉川 奠
朴生員厚基
朴生員渝基
李碩士善明 飛亭
申得文
申洛協
從妹夫金漢根 默溪 安東 奠
申永鎮

黃生員仁鉉 善山 夢堂 十二日
洪生員道修 義興 東里 十三日
朴生員周祐 比安 杜谷 十二日
金生員家裕 沙村 十五日
妹夫張教植 仁同 梧洞 二十日
金生員元善 沙村 二十一日
南生員有煜 後坪 二十三日
李生員淵發
李生員魯岱 山雲 十一月二十四日
李生員魯肅
南生員萬紀 尹谷 二十五日
申周翰 龜尾

申桂東 龜尾
申光綱 左坪
姨母夫吳希祚 梨洞
洪生員龍欽 禮洞
姨母夫李寅禧 軍威中里 紙間
申休仁 泉洞
洪生員崇鎮 軍威甫洞
申致仁 龜尾
金生員魯恂 大丘 甲寅 正月初三日
申漢宗 愚坪
申鍾協 校洞
從妹夫張炳九 仁同 真坪 十七日

全生員基赫 玄谷
申標 龜尾
金生員炳龜 安東 嶽洞
金生員炳善 沙村
申博教 愚坪 輓
申肇協

甲寅九月初三日小祥時

李生員 承憲 台洞

申學周 花田

查丈 朴元象 茅川 奠

內舅 李蹊發 皐岩 奠

從侄壻 朴顒淳 茅川

姻兄 金養憙 沙村 奠

從妹夫 金養愍 沙村

申晉祜

申冕璧

申冕羲 八智 奠

[illegible]教

申英教

申文教

申冕瑗

申冕魯

申冕喆 亭洞

進士 申冕直 [illegible]山

申洛協 台洞

申龍奎 大里

申冕疏

朴生員 文郁 大里

朴生員 梧山

朴生員

朴生員 漢長 佳音

申祖憲 魚尾

申休仁 龍洞

申冕雲

申冕邈

申震協

申天祜 八智 奠

曹生員 錫坤 彩洞

南生員 履祚 文興

李生員 駙行 禮安

申[illegible]協

文生員 起八

金進士 養植

金生員 養翼

金生員 養迪 歷洞

金生員 家善

金生員 宅善

金生員 燾 歷洞

金碩士

李生員 德綱 庭洞

申用協

李生員 述祥 慶州良洞

孫生員 德恒 尚州[illegible]居新堤

姜生員 鳳燠 氷山

成生員 學源 台洞

申楷 龜尾

申祖枰 江亭

申冕昇

丁生員 德奎 高峴

申致仁 龜尾

申命休

李參奉 魯勉 山雲慰洞

李生員 山雲

申漢宗 恩坪
申禹教
李生員熺福 知禮上佐院
李生員熺震
再從妹夫朴漢祚 梧山
申冕俊 梧洞
申冕鑑 梧山
申祖楗 江亭
申致奎
金生員濟秉 鳴湖
朴生員元八
朴生員春殷

朴生員文基 芳川
朴生員禎基
朴生員来基
朴生員升吉
朴生員胄宅 大里
朴生員慶基
朴生員孝基
金生員若洙 安東飛尾
金生員華鎮 青松旅巖
李生員象德 安東周村
金生員聖和 安東飛尾
申台協 善山 十八里

姻兄金養憙
從姪壻朴頤淳
表從兄李曾璉
申冕鑑 梧山
吳生員鍑 梨洞
李生員錫禹 皐岩
徐生員秉翼 書堂里
林生員相紘
金生員炳龜 安東飛尾
朴生員元龍 芳川
金進士廷瑞
金生員憲裕 沙村

趙生員基仁 大邱院堂
金生員秉華 開目 乙卯元月十四
金生員炳善 沙村 乙卯
南生員處強 尹家 乙卯
南生員萬會 尹家 乙卯
查兄成宗海
成生員宗海 永川慈洞
姪壻成宗勗 永川 乙卯百
任生員相尹
查兄金誠樞 安東飛尾
成生員宗濂 永川慈洞
金生員文杰 安東飛尾 查家

李生員寅文 軍威十里 三百廿
李生員海發 山雲 乙卯四月十
權生員泓 立岩
權生員大章 立岩 廿六
權生員大宇 沙村
查丈洪璞修 栗里
尹生員致周 軍威鳳里 五月四
李生員寅煥 安東縣洞 八月十三
申東協 皐岩

乙卯九月三日大祥時
吳生員希祚 梨洞
李生員魯彥 山雲
宋生員基善
李生員魯振
族兄碩協 長洞
楷協
朴生員流祚
申冕璡
金生員養甲 沙村
朴生員元龍
金生員翼駉 里林

夫復何言久遠之餘未聞患恨之報而尚冀年後永慕慶禧之未文私自祝慰
于心耶意人事之變至於此耶數年之間再遭巨創初終凡節其何以經紀也
漢根即當趨慰於免括之前而適以暑病呻吟不已只得俟後而控諸情禮提
切惡悚之餘惟冀節哀順變初終利成不備狀上 初七日金漢根狀上 鄭溪

又

疏上 哀前 武陵姻弟慰疏

省式獻儒古固知患恨之沉重年齡不至隆老竊謂集之純孝以期遐享豈意
今日遽承奄音驚痛之極復何可慰哀自年弱存遭喪感又至 所後前制
未闋猝當巨創初終之節能無有憾於孝心耶仰為哀地清泠莫收處
出除暑之餘苫履保無大損令大宅痛嫂化若亂君近節何似伏切悲溯
之至獻儒年來痛憂相尋故寢門之哭尚後於人室人誼均怙恃之地亦未躬
跪於裡括之日鼻使情理變至斷矣月前移經女婿宿崇風痘絕粒粘席將
世九月祥事之時亦擬奔哭而今番襄禮雖未逆料惟俟啓期以為前
匍弟則從近極叙畏暑褐蟄未克踴踊於敦事之末悲愧幽明無以
自文惟願疆食節哀無至傷孝餘不備慰禮 初七日姻弟李獻儒疏上

又

慰疏

頓首再拜言不意凶變 先府君奄違色養承 訃驚怛不能已已伏惟 孝[illegible]
至思罔極號絕何可堪居月月流逝遽踰旬朔 哀痛奈何 伏奈何 不審自[illegible]
羅荼毒 氣力何似 伏乞 強加饘粥俯從禮制 某[illegible] 從事所[illegible]
慰 某於[illegible]無[illegible]下誠謹奉疏伏惟 鑒察不備謹疏
年月日 某位 某姓 某 疏上

答疏上

某稽顙再拜言 某罪逆深重不自死滅禍延先考 攀號擗踊五內分崩 [illegible]
叩天無所逮及日月不居奄踰旬朔 酷罰罪苦無望生全即日蒙 恩[illegible]
[illegible] 伏蒙 尊慈[illegible] 俯賜慰問哀感之至無任下誠 [illegible]
從前不次謹疏
不勝隕絕謹奉疏 荒迷不次謹疏
年月日 孤哀子 某名 疏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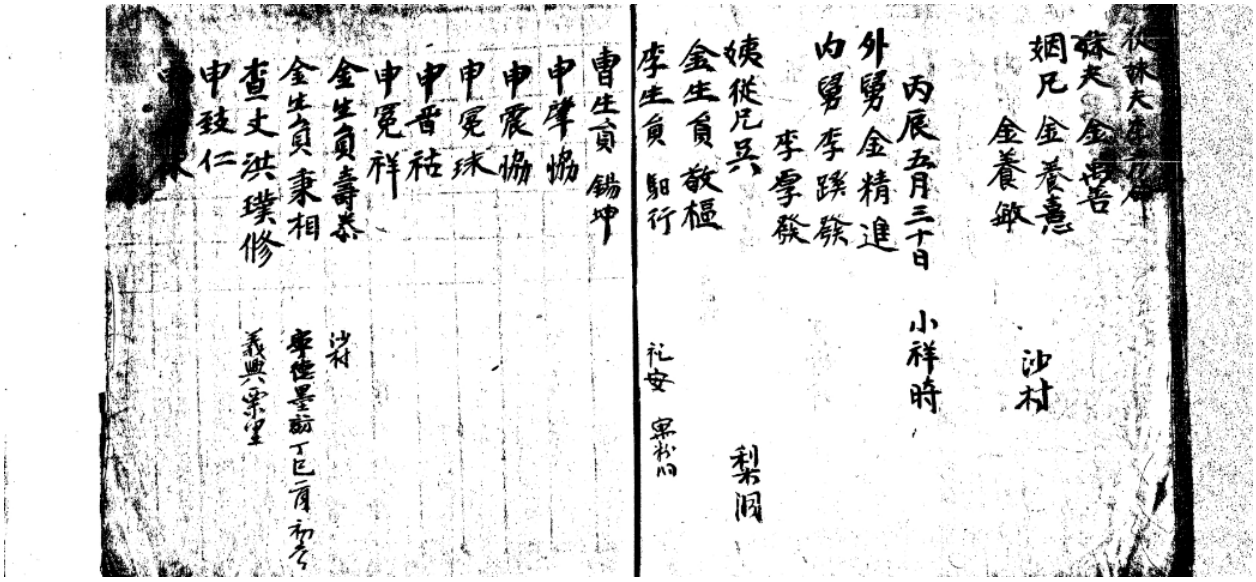
文生員 起八 新池
李生員 星民 梧洞
申冕震
申文教
申冕瑗
申漢宗
朴進士 璋文 陽地 乙卯十月
金生員 誠樞 大祥時 龜湖

哀感錄 乙卯五月三十日初喪時

申冕羲 下宅
申天祐
申冕祥
申祖協
申晉祐
申商祐 下八智
申仁協
申恭祐
申震協 下八之 高岩
[illegible]李曾建
申冕球

申冕[illegible]
申冕僖
申周祐
申在祐
申英教
申冕瑗
申冕儀
申冕昌
申瑞祚
申肇協
申箕協
申洛朝

申用協
申克協 大也谷
李生員 曾甫
文生員 起八
從姪壻 朴灝淳 襄禮時
金生員 仁杰
妹夫 張奎燦
姪壻 成宗勛 九月初三日
內舅 李瑛發
李佑發
[illegible]李曾俊
從妹夫 金[illegible]根 安東 鄭溪



채미헌계안 (1)

채미(採薇)에 대한 고사는 백이·숙제(伯夷·叔齊)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은(殷)나라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던 백이·숙제가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멸하고 주왕조를 세우자、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를 반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었다. 그 뒤부터 청절지사(淸節之士)를 주로 채미 고사에 비겨 말하였다.

그러나 이 채미헌은 백이·숙제의 그러한 뜻에 비겨서 이름한 것이 아니라、정묘호란 시 영남의 병장을 역임하였던 호계 신적도가 병자호란 때에 다시 창의한 뒤 의성의 학소대(鶴巢臺)에 모헌 (茅軒)을 짓고 채소를 키우고 고사리를 뜯어 자족하며 곤경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이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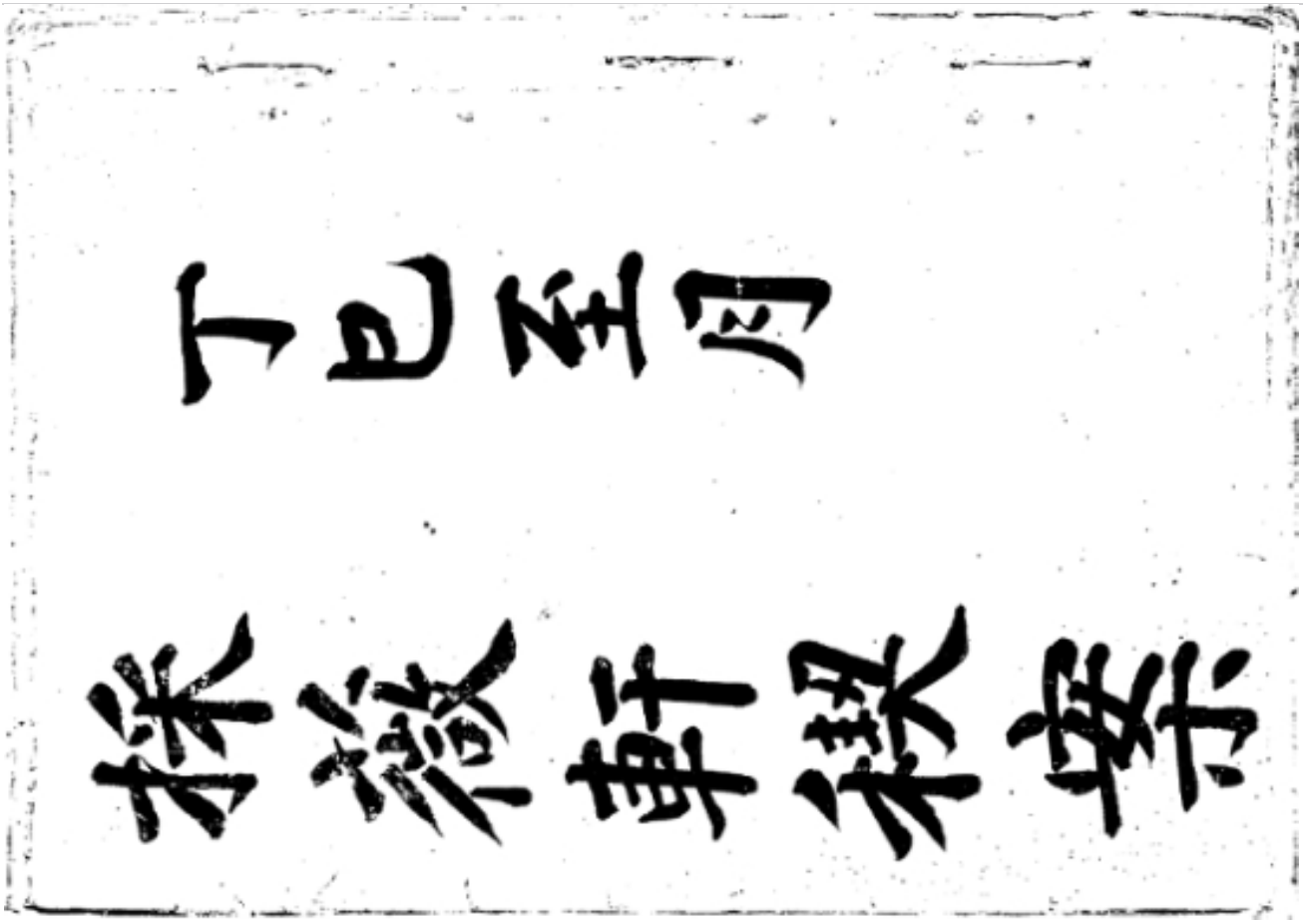
그 뒤 고종 병자년(1876)에 향리의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단구(丹邱)에 이건하였는데 채미헌 계안은 바로 이러한 당초의 뜻을 이어받고자 만든 계안으로서、1917 년(정사) l1 월에 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미헌계안의 좌목에 기록된 인원은 총 467 인으로 의성의 아주신씨를 비롯하여 인근 향리의 여러 성씨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계가 발족한 일제시기에는 각종계가 성행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식리(殖利)、식산(殖産)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 계였다. 이 같은 계는 어떤면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상품 시장화 하여 식민지적 상업자본주의에 이용하고자 한 면이 강하였다. 그런데 비하여 이 채미헌계안은 절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안의 제영(題詠)에 나타나는 뜻으로 볼 때 상호부조 보다는 선현의 정충(貞忠)과 충절(忠節)을 기리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던 것 같다.

끝장에 「인재종가장(忍齋宗家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재는 바로 채미헌을 세운 호계의 제 3 자 채이다.

1917년 채미헌계안(採薇軒稧安)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사회-조직운영-계문서
· **작성지역**	인재종가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917 년
· **형태사항**	크기: 29x20 / 합철, 1 책 83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4) 채미헌계안 / 채미헌계안 / 266 ~307 쪽



丁巳至月發起

採薇軒禊案草

薇軒題詠

卓彼西山復海東　貞忠獨戴雙明社　后孫　敦植
薇歌一曲古今同　清節曾傳百世風

隱蹤桐翁倻峽邊　煌煌亭額令人凜
道瞻軒老立巖崇　誰識神宗再造功

皇明日月鶴山東　出海寧論魯連月　金州許　墉
張鄭先生秉義同　歌薇更有伯夷風

君亡國破遭斯厄　興廢斯亭關氣數
懦立頑廉仰復崇　重修應有告成功

座目

金壽鶴 雲瑞庚子　安東人　沙村
朴昌植 聖文庚子　義興人　義興后洞
李正洛 叙五癸卯　永川人　山雲
朴貞宅 應元癸卯　咸陽人　晩川
申纘祜 贊文癸卯　鵝洲人　八智

金顯相 佐殷乙巳 光山人 草田
朴海重 明五丙午 順天人 梧山
李聖鉉 致九丙午 永川人
徐英洙 聖源丙午 達城人
權啓洛 允明丁未 安東人 新寧甲峴
柳海潤 佐郎 景茂丁未 晋州人 月沼
申建植 極瑞丁未 鵝洲人 霞洞
李中協 用休戊申 眞城人 禮安對村
金壽瑚 重伯戊申 安東人 沙村
朴岱鎭 順若戊申 南山人 明湖
申敦植 敬安戊申 鵝洲人 兩亭
柳厦榮 支伯己酉 豐山人 台洞

金禹鍾 夏賢己酉 安東人 沙村
申運植 克遵己酉 鵝洲人 霞洞
李中久 正甫庚戌 驪州人 匡岩
權象鉉 泰亨庚戌 安東人 新寧甲峴
申榮植 仁仲庚戌 鵝洲人 緯項
金鎭應 順卿辛亥 聞韶人 金溪

黃河錫 乃禾辛亥 昌原人 戊通
柳光道 國甫辛亥 豐山人 河回
朴禹鉉 象三辛亥 順天人 梧山
南石鎭 圭瑞辛亥 英陽人
申炳俊 致萬辛亥 鵝洲人 丹邱
申隨祜 閏玉辛亥 鵝洲人 丹邱

崔永基 錫光 壬子 完山人 上林
柳存榮 璇七 壬子 豊山人 河回
金翼周 西綱 壬子 聞韶人 龜尾
金範裕 致錫 壬子 安東人 汝村
朴義東 和伯 壬子 順天人 梧山
徐相樂 國彦 壬子 達城人

申熙福 永謙 壬子 鵝洲人 龜尾
金壽定 天老 癸丑 安東人 汝村
任宏寧 德弼 癸丑 豊川人 龜山
金壽國 邦彦 癸丑 安東人 松內
金壽璉 致器 癸丑 安東人 汝村
柳周榮 晴伯 癸丑 豊山人 台洞

李承驥 瑞翼 甲寅 全州人 后坪
李相夏 大彦 甲寅 月城人 慶州柯亭
朴迁弼 士敬 甲寅 咸陽人 晩川
柳鳳熙 德允 乙卯 完山人 三山
郭成業 永彦 甲寅 玄風人 永川五福
李章翊 佑三 乙卯 永川人 山雲

金佑默 賢汝 乙卯 安東人 汝村
李夏榮 仁可 乙卯 月城人
申相翊 弼之 乙卯 鵝洲人 丹邱
洪明佑 德可 丙辰 缶林人 大栗
金翰周 翼夫 丙辰 聞韶人 龜尾
朴元植 敬實 丙辰 義興人 梨亭

朴暉東 軍日丙辰 順天人 梧山
李圭怙 敬變丙辰 月城人
申壽祜 敬九丙辰 鵝洲人 上八
李賢珪 布聖丁巳 韓山人 蘋湖
議官 金俊熙 孟欽丁巳 鷄林人 黃岡
主事 金在錫 極中丁巳 英陽人 蓮堤

金壽爀 文赫丁巳 安東人 沙村
權景銖 福汝丁巳 安東人 鳴洞
柳元根 士奎丁巳 全州人
金昞洙 景章丁巳 義城人
權用和 子由丁巳 安東人 鳴洞
申命植 用休丁巳 鵝洲人 甲庄

申聖煥 舜必丁巳 鵝洲人 豐里
李卷一 聖河戊午 永川人 山雲
金翯周 應天戊午 聞韶人 龜尾
柳道集 大卿戊午 豐山人 愚泉
洪龍燮 文見戊午 南陽人 良谷
李鎭萬 致一戊午 星山人 新禮

李世植 重昊戊午 永川人 山雲
金壽八 漢卿戊午 安東人 沙村
張奎燮 應五戊午 順天人 南山
康明燮 聖瑞戊午 信川人 唐坪
申相泰 景淑戊午 鵝洲人 豐里
李心求 學汝己未 韓山人 丹邱

李泰斗 文若己未 永川人 山雲
金有鍾 晦伯己未 安東人 沙村
李鍾珪 文玉己未 韓山人 藾湖
朴夏鉉 禹謙己未 順天人 梧山
金壽耇 德老己未 安東人 沙村
許墉 崇卿庚申 金州人 甘谷

金輝鍾 聖述庚申 安東人 沙村
李錫權 致萬庚申 驪州人 沙谷
曹秉武 致壽庚申 昌寧人 龜溪
金翽周 尚文庚申 聞韶人 龜尾
李庭濩 殷禹庚申 鐵城人 松峴
權重榮 景萬庚申 安東人 鳴洞

朴奭東 魯瞻庚申 順天人 梧山
洪在三 輝伯庚申 南陽人 杜蘭
金尚默 用汝庚申 安東人 沙村
申漢禹 武弘庚申 鵝洲人 鳴湖
叅奉 曹世煥 顯之辛酉 昌寧人 龜逸
李泰麟 鍾元辛酉 永川人 山雲

權用稷 子文辛酉 安東人
朴榮壽 瑞一辛酉 咸陽人 王井
朴弘穆 可遠辛酉 密陽人
金泰榮 仕源辛酉 義城人
趙性寅 極五辛酉 咸安人
申利植 善康辛酉 鵝洲人 杜谷

申炳奎 流祿辛酉 鵝洲人 丹邱
申聖基 四彥辛酉 鵝洲人
申洛琱 致允辛酉 鵝洲人 丹邱
委員 朴彩淳 繪受壬戌 咸陽人 晩川
金壽曄 子昇壬戌 安東人 沙村
金圭陽 光叔壬戌 潘南人 玉井

金晋鍾 致乾壬戌 安東人 沙村
金正器 士悅壬戌 慶州人
鄭源國 聖孝壬戌 東萊人
委員 申基燮 德元壬戌 鵝洲人 開日
鄭基壽 福汝壬戌 延日人 石井
鄭基鎬 致都壬戌 延日人 石井

申世煥 明達壬戌 鵝洲人 八智
申斗炫 若七壬戌 鵝洲人
李章國 乃範癸亥 永川人 山雲
朴廷勗 而敬癸亥 咸陽人 晩川
金璧鍾 鳴可癸亥 安東人 沙村
孫廷滿 佐卿癸亥 一直人 龜溪

金斗煉 振玉癸亥 聞韶人 粉土
申鶴枯 慶有癸亥 鵝洲人 竹洞
申效植 致安癸亥 鵝洲人 八智
申泰遠 章玉癸亥 鵝洲人 馬山
金河鍾 應瑞甲子 安東人 沙村
李東坤 寅伯甲子 真城人 土峴

金圭洛 仲瑞 甲子 義城人
朴海連 義仲 甲子 順天人
朴恭學 而悅 甲子 義興人 霞洞
全相彬 佑賢 甲子 龍宮人 粉土
朴桂東 春可 甲子 順天人 格山
金奎鍾 君五 甲子 安東人

申奭煥 錫允 甲子 鵝洲人 屯台
金基河 瑀範 甲子 聞韶人 上八
申貞植 善天 甲子 鵝洲人 丹卯
申九炫 重三 甲子 鵝洲人 丹卯
權準華 宅申 乙丑 安東人 枝谷
金冑和 斐八 乙丑 義城人 龜尾

柳先榮 寶斐 乙丑 豐山人 台洞
洪在敬 明仲 乙丑 南陽人 杜蘭
李鍾聞 聲振 乙丑 月城人
張璣煥 舜瑞 乙丑 順天人 石井
金基浩 敬道 乙丑 義城人 丹卯
申鍾善 弘汝 乙丑 鵝洲人 藏待 本貫

申仲植 敬流 乙丑 鵝洲人 丹卯
金驥洛 景業 丙寅 義城人
李丰永 拱七 丙寅 延安人 中里
金璣鍊 應先 丙寅 一善人
李重雨 潤若 丙寅 月城人
金駿河 文若 丙寅 聞韶人 粉吐洞

申台協 德佑丙寅 鵝洲人 丹卯
申眷基 聖和丙寅 鵝洲人 丹卯
張哲相 清海丁卯 玉山人 新谷
李學求 時甫丁卯 韓山人 藾湖
金璣鍾 弊衡丁卯 安東人 沙村
李顯洛 大潔丁卯 永川人

主事 朴廷昌 大若丁卯 咸陽人 晩川
金翮周 聲林丁卯 聞韶人 龜尾
李炳圭 明瑞丁卯 陽山人 沙川
裵寧稷 蒼民丁卯 興海人 丹卯
南興淳 景天戊辰 英陽人 尹巖
主事 李章和 克中戊辰 永川人 蓴湖

李龍均 大五戊辰 延安人
鄭基範 士洪戊辰 延日人
孫聖遠 士禹戊辰 一直人 龜溪
申宗漢 命叔戊辰 鵝洲人 龜尾
申光鎬 昭伯戊辰 鵝洲人 花田
申周奭 國彦戊辰 鵝洲人 龍峰

申相龍 正三戊辰 鵝洲人 亭子
申鶴燮 聖翼戊辰 鵝洲人 龍峰
金俊相 醒京己巳 光山人 草田
朴大植 章五己巳 義興人 石洞
朴秀俊 學八己巳 咸陽人 龜內
徐相道 聖由己巳 達城人

李養鳳 慶九己巳 永川人

金洪鍾 應韶己巳 安東人 沙村

申 燾 漢京己巳 鵝洲人 大里

柳祖佑 聖述庚午 豊山人 河回

金壽殷 景守庚午 安東人 沙村

洪在協 紀卿庚午 南陽人 杜蘭

博士

金斗鉉 應初庚午 海平人 政洞

李剛浩 善直庚午 星山人 上里

朴鍾振 聲遠庚午 密陽人 霞洞

徐圭煥 國卿庚午 達城人 德隱

朴鍾聲 振玉庚午 密陽人 霞洞

申英祜 樂三庚午 鵝洲人 甲丈

申河燮 清一庚午 鵝洲人 粉土

申龍煥 成可庚午 鵝洲人 思美

申明煥 道汝庚午 鵝洲人 豊里

李鍾台 泰敬庚午 月城人

申炳旭 文甫庚午 鵝洲人

主事

李鴻九 汝達辛未 延安人 梧山

李 琪 其玉辛未 固城人 八智

朴敬植 子惺辛未 義興人 后洞

權濟熙 應明辛未 安東人

金海鎮 極瑞辛未 義城人 西面

李鎮善 聖宅辛未 固城人 月村

李鍾武 周烈辛未 慶州人

申相鎬 武卿辛未 鵝洲人 龜尾
申啓煥 景禹辛未 鵝洲人 仁智
金麟鍾 振若壬申 安東人 沙村
權秉哲 德明壬申 安東人 外良
徐相稷 佐卿壬申 達城人 山雲
李珪煥 瑞五壬申 廣州人

殷熙聖 道源壬申 幸州人 花谷
徐載純 致光壬申 達城人
李寅炯 德中壬申 月城人 慶州柯亭
申鍾夏 而大壬申 鵝洲人 蔵待
梁柱憲 元美壬申 清溪
申鍾達 公三壬申 鵝洲人 龜尾

黃祺錫 敬受癸酉 昌原人 六通
金庸洛 恭愛癸酉 義城人 川前
朴海永 允元癸酉 順天人
金壽佺 箕伯癸酉 安東人 沙村
朴佑植 聖天癸酉 義興人
李元朮 善一癸酉 韓山人

南龍佑 義瑞癸酉 英陽人 尹谷
李喜在 叔晦癸酉 永川人 山雲
南述淵 而聖癸酉 英陽人 安谷
金興魯 聖應癸酉 義城人 大邱
申 樟 聖活癸酉 鵝洲人 月明
申漢圭 應文癸酉 鵝洲人 杜堤

申紀煥 成達 光酉 鵝洲人 八智
申琪煥 聖九 光酉 鵝洲人 丹印
進士 金浩直 孟集 甲戌 安東人 沙村
朴世煥 性夫 甲戌 咸陽人 大里
李 濘 夏卿 甲戌 永川人 位梅
金浩仁 聖初 甲戌 安東人 沙村

李 潤 舜希 甲戌 永川人 尊湖
洪在寬 舜敬 甲戌 南陽人 升良
任錫淳 夏範 甲戌 豊川人 龜山
金相漢 鳴玉 甲戌 義城人 開日
金永鍾 應涵 甲戌 安東人 沙村
洪鍾極 泰汝 甲戌 南陽人 內良

朴宗漢 禹彦 甲戌 商山人 羅湖
李兌坤 亨珎 甲戌 真城人 梧洞
柳淵晋 敬進 甲戌 完山人
鄭鎮華 舜九 甲戌 東萊人
金在衡 舜文 甲戌 海平人 政洞
申相範 聖柱 甲戌 鵝洲人 亭子

申晃瑋 和玉 甲戌 鵝洲人 玉井
議官 金熙國 景民 乙亥 光山人 草田
金浩天 聖奈 乙亥 安東人 沙村
李章瓚 贊玉 乙亥 永川人 山雲
博士 朴文植 天一 乙亥 義興人 后洞
朴善東 光旭 乙亥 順天人 梧山

張一壽 箕五 乙亥 順天人 南山
鄭寅煥 敬元 乙亥 東萊人 新梅
申聲遠 鷺洲 乙亥 鵝洲人 龜庵
申鳳煥 賢可 乙亥 鵝洲人 愚矣
申星煥 明可 乙亥 鵝洲人 霞洞
李 澐 辨九 丙子 永川人 葦湖

李博鎬 應享 丙子 真城人 漢南
柳喆佑 仲謙 丙子 豊山人 河回
金萬鍾 舜初 丙子 安東人 汝村
金愛相 聖初 丙子 光山人 草田
金浩淵 景深 丙子 安東人 汝村
金大鉉 尚寶 丙子 海平人 政洞

金熙燦 輝玉 丙子 光山人 草田
金壽民 福卿 丙子 安東人 汝村
柳永善 錫胤 丙子 文化人 屏湖
鄭道欽 貫一 丙子 延日人 屏
康在鎬 國亮 丙子 信川人 唐坪
孫周遠 箕五 丙子 一直人 龜溪

金穆煉 文瑞 丙子 開韶人 粉土
申相玉 衡七 丙子 鵝洲人 八智
任默淳 善可 丁丑 豊川人 龜山
權五悳 直心 丁丑 安東人
朴萬基 重卞 丁丑 春川人 分明
李燾容 致極 丁丑 嘉平人

申相稷 舜佐 丁丑 鵝洲人 松山

參奉 柳相佑 聖朝 戊寅 豊山人 台洞

洪在奭 周顯 戊寅 南陽人 鈒嶺

李章復 圭伯 戊寅 永川人 山雲

郡守 任弘宰 汝賢 戊寅 豊川人 龜山

金濱鎮 禹八 戊寅 安東人 谷蘭

金浩善 孟大 戊寅 安東人 沙村

金鳳鍾 元瑞 戊寅 安東人 沙村

洪圭錫 子善 戊寅 南陽人 良谷

柳灝根 仲如 戊寅 全州人 五木

廉致洙 敬學 戊寅 南原郡 [illegible]

朴彌基 元一 戊寅 春川人 分明

金鳳禧 賢集 戊寅 海平人 政洞

丁和燮 舜克 戊寅 羅州人 古縣

張守滈 致遠 戊寅 順天人 長善

鄭永祜 錫彦 戊寅 延日人 石井

張台胤 極三 戊寅 順天人 安定

申鍾五 應善 戊寅 鵝洲人

申倫植 長應 戊寅 鵝洲人 霞洞

申相悌 恭伯 戊寅 鵝洲人 智

申東煥 君澤 戊寅 鵝洲人 智

申珽煥 達玉 戊寅 鵝洲人 六

李泰吉 道亨 己卯 永川人 山雲

洪淳燮 聖叔 己卯 南陽人 鈒嶺

李祥坤 敬達己卯 真城人 梧洞
金在輝 敬執己卯 義城人
鄭箕壽 範卿己卯 東萊人
委員 李章埴 載厚己卯 永川人 山雲
金興範 忠卿己卯 光山人 草田
殷炯杓 尹吉己卯 幸州人 不老

康基德 允一己卯 信川人 庚坪
孫廷泰 仁敬己卯 一直人 竹洞
申厚榮 致瑞己卯 鵝洲人 龜內
申鍾聖 道彥己卯 鵝洲人 藏待
申廷植 相三己卯 鵝洲人 藏待
金烈 景徽庚辰 光山人 草田

洪在秀 應五庚辰 南陽人 薪城
李弼禾 聖賚庚辰 韓山人 蘋湘
權寧學 敬所庚辰 安東人 甲峴
鄭珠煥 明彥庚辰 東萊人 新梅
任士彬 寓煥庚辰 豐川人 龜山
金壽山 泰敬庚辰 安東人 沙村

朴雨植 時若庚辰 義興人 霞洞
朴源植 活能庚辰 義興人 霞洞
申湜祜 樂中庚辰 鵝洲人 甲丈
申仁協 舜華庚辰 鵝洲人
申相文 德七庚辰 鵝洲人 八智
申命煥 義淳庚辰 鵝洲人 霞洞

申圭燮 王汝庚辰 鵝洲人 新堤
申周煥 周相庚辰 鵝洲人 霞洞
鄭載德 聖咸辛巳 清州人 三江
柳壇佑 德夫辛巳 豊山人 河回
金善鍾 鳴可辛巳 安東人 沙村
金鍾會 應遠辛巳 安東人 沙村

李承駿 景玉辛巳 全州人 辰坪
朴浩陽 應八辛巳 潘南人 丹崖
李貞植 士元辛巳 永川人 山雲
權五瑞 聞遠辛巳 安東人
柳治玉 孟卿辛巳 全州人 梧木
洪秉元 子善辛巳 南陽人

申相爽 明王壬午 鵝洲人 豊里
申承煥 益三壬午 鵝洲人 丹邱
李泰大 允錫生員 永川人 雲
李文杰 士賢生員 真城人 一直
金振鍾 聲遠生員 安東人 沙村
金澤鍾 景涵生員 安東人 沙村

李道炯 聞善參未 月城人 慶州柯亭
金壽玟 允範參未 安東人 沙村
申瑜煥 明仲參未 鵝洲人 霞洞
金在淵 利見參未 龍宮人 梨洞
朴始陽 羲建參未 潘南人 丹崖
朴世基 士賢參未 春川人 分明

安道鎭 余章 癸未 順興人 丹卯
申成煥 敬可 癸未 鵝洲人 丹卯
申元煥 仁彦 癸未 鵝洲人 寫尾
洪甫佑 子敬 甲申 缶林人 大栗
李鍾恳 晦可 甲申 固城人 茂朱
任慶寧 子善 甲申 豐川人 龜山

康義燮 在暉 甲申 信川人 唐坪
申潤煥 文相 甲申 鵝洲人 霞洞
金鍾燮 聲遠 乙酉 義城人 開日
許峻遠 克明 乙酉 河陽人 河陽峯谷
申駿基 周善 乙酉 鵝洲人 丹卯
李成杰 李賢 丙戌 真城人 一直

權寧復 聖來 丙戌 安東人 佳日
李蘭馥 聲遠 丙戌 韓山人 藕湖
南炳丰 暉中 丙戌 英陽人 一直
朴晛顯 景老 丙戌 義興人
李建植 聖極 丙戌 永川人 山雲
李永泰 固永 丙戌 永川人 山雲

南雨淵 順若 丙戌 英陽人 回巖
金浩耆 孟吾 丙戌 安東人 沙村
金善慶 天心 丙戌 聞慶人
金昌鉉 而大 丙戌 英陽人 蓮堤
鄭蒼煥 章伯 丙戌 東萊人 新梅
金浩成 聖來 丙戌 安東人 沙村

柳永瑞 洛瑞丙戌 全州人 梧木
金時國 台賢丙戌 義城人
申熙植 道明丁亥 鵝洲人 鳴湖
申相義 正夫丁亥 鵝洲人 八智
申楨植 汝立丁亥 鵝洲人 亭子
崔鍾晩 子京戊子 完山人 海平

張弼相 武卿戊子 玉山人 南山
任斗淳 建七戊子 豊川人 龜山
李炳銓 佑衡戊子 永川人 山雲
趙奎宋 德隆戊子 咸安人 安德
金基昌 大休戊子 光山人 草田
金壽錫 大如戊子 安東人 沙村

金熙淳 孝可戊子 光山人 草田
李光永 暉到戊子 延安人 八智
金建洙 應魯戊子 義城人 開日
朴魯鍾 孔善戊子 順天人 梧山
金在軾 允執戊子 安東人
申鍾億 聲玉戊子 鵝洲人 藏待

申煥翼 明鴻戊子 鵝洲人 愚坪
申相鳳 敬朝戊子 鵝洲人 鳴皐
申基萬 閏明戊子 鵝洲人 八智
金憲洙 殷祿己丑 慶州人 沙村
金洪圭 範九己丑 安東人 月村
申漢宣 君宣己丑 鵝洲人 愚坪

申相達 與民己丑 鵝洲人 八智

李恭軾 應瞻庚寅 永川人 山雲

柳進九 致五庚寅 豊山人 河回

權五榮 慶夫庚寅 安東人

金秉翼 致萬庚寅 義城人

朴龍煥 德七庚寅 咸陽人 玉井

權甲春 仁元庚寅 安東人

李英植 聖淑庚寅 永川人 山雲

李鳳雲 德一庚寅 慶州人 霞洞

洪鍾顯 乃文庚寅 南陽人 外良

金浩濯 纓可庚寅 安東人 村村

朴永壽 明彦庚寅 密陽人 丹邱

申載鳳 舜韶庚寅 鵝洲人 長洞

申基奭 敬源庚寅 鵝洲人

申在說 周京庚寅 鵝洲人

申景煥 潤若庚寅 鵝洲人 八智

梁世煥 道明庚寅 清溪

申基完 敬源庚寅 鵝洲人 丹邱

朴在圭 成瑞辛卯 咸陽人 玉井

朴鳴煥 舜民辛卯 咸陽人 晩川

金弼根 極元辛卯 義城人 開日

文相哲 以善辛卯 南平人

申炳植 致順辛卯 鵝洲人

申尚遠 成一辛卯 鵝洲人

申煥文 章郁 辛卯 鵝洲人 愚坪
洪鍾洙 聖源 壬辰 南陽人 外良
金秉煥 世重 壬辰 義城人
鄭重煥 仁叔 壬辰 東萊人 新梅
李坤植 士極 壬辰 永川人 山雲
蔣海鯨 聖觀 壬辰 牙山人 杜北

申定植 星中 壬辰 鵝洲人 霞洞
柳致根 叔如 壬辰 全州人 梧木
南鎮栻 希敬 壬辰 英陽人 丹溪
申漢東 仁彥 壬辰 鵝洲人 愚坪
申幹植 威五 壬辰 鵝洲人 亭子
權寧達 德八 癸巳 安東人

張斗煥 国瑞 癸巳 丹山人 醴泉
任恭淳 建一 甲午 豊山人 亀山
朴魯爀 周顯 甲午 順天人 梧山
洪淳恪 先可 甲午 缶林人 大栗
申鍾樂 友遠 甲午 鵝洲人
李丕鎬 子承 乙未 真城人

孫晋榮 国一 乙未 慶州人
金熙鍾 明甫 乙未 安東人
梁興煥 德源 乙未 清溪
吳在燮 敬玉 乙未 海州人 龍峰
李鍾仁 晦春 丙申 固城人 八智
申珉煥 玉汝 丙午 鵝洲人 丹邱

鄭載岳 聖詢 丁酉 清州人 三江

洪遠錫 士有 丁酉 南陽人 外良

鄭圭澤 復汝 丁酉 東萊人 新梅

李世永 大汝 戊戌 延安人

安熙舜 重咸 戊戌 順興人

申梧植 風棲 戊戌 鵝洲人

李教植 敬賢 庚子 永川人

許克遠 孟謙 庚子 河陽人

申國煥 用賓 辛丑 鵝洲人 竹洞

鄭震煥 明淑 壬寅 東萊人 新梅

申琪源 成澤 壬寅 鵝洲人 藏待

洪厚錫 德載 癸卯 南陽人 蕤嶺

鄭圭燦 仲文 癸卯 東萊人 新梅

申濬燮 行陌 癸卯 鵝洲人 亭子

林世鎮 又顯 甲辰 醴泉人 山頭

鄭圭文 可郁 丙午 東萊人 新梅

洪暻佑 壹 戊申 岳林人 大栗

洪甲欽 子元 辛亥 岳林人 大栗

忍齋宗家 蓋

本四七人

빙계서원전답안 (1)

빙계서원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1556 년(명종 Ⅱ)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안국(金安國)·이언적(李彦迪)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1576 년(선조 9)에 장천서원(長川書院)이라고 사액되었다가、1600 년(선조 33)에 이건하면서 빙계서원으로 개칭 하였다.

1689 년(숙종 15) 김성일(金誠一)·류성룡·장현광을 추가로 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충효사(忠孝祠)· 명교당(明教堂)· 동재(東齋)· 서재(西齋)· 신문(神門)· 전사청(奠祀廳)·주소(廚所) 등이 있었다 하나、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1868 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이 전답안은 빙계서원이 서원전으로 소유하고 있던 전답기록으로서、양식은 양안(量案)의 기재 방식을 일부 준용한 것 같다. 토지대장인 양안은 국가가 토지의 등급·면적·소유자 등을 조사하는 양전(量田) 사업을 통하여 그 토지가 지니고 있는 자호(字號)와 지번(地番)、비옥도에 의한 등급 토지의 모양새、토지면적、사표(四標)、토지 소유주 등을 조사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수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안의 기재가 상당히 정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먼저 토지의 자호와 지번은 그 토지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호는 대개 천자문 순으로 매겨졌고、한자호 내의 매 필지는 양전 순서에 따라 지번이 붙여졌다. 이어 측량하는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표기하고、그 토지의 등급을 매겼다. 이때 비옥도에 따라 I~6 등급을 산정하고、이를 결·부·속(結·負·束)이라는 면적 단위를 이용 하여 결부를 책정하였다.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각종 세를 부과하였다. 대개 18~19 세기 정도 에는 1 부에 1 두의 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의 모양새는 보통 반듯한 직전(直田) 직답(直畓)으로 많이 표기되고 있으나、경우에 따라서는 제전(梯田)、구전(句田)、방전(方田)、규전(圭田) 등으로 표기하여 삼각형、정사각형、마름모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토지의 면적은 동서장(東西長)、남북광(南北廣)이나 남북장(南北長)、동서광(東西廣)으로 하여、가로 세로의 길이를 척(尺)으로 표기하였으며、한 필지에 대한 사방의 경계를 사표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주를 경작 중인 땅이면 기주(起主)、묵히는 땅이면 진주(陳主)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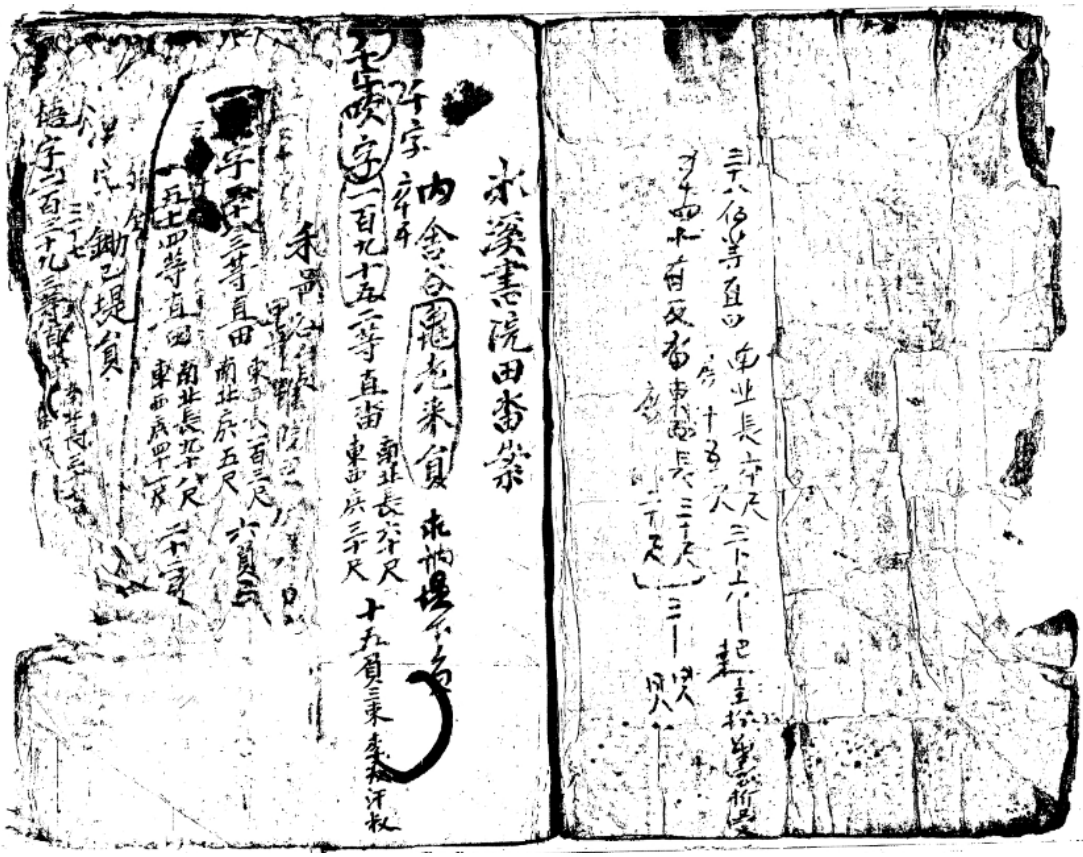
대개 이 같은 기재 방식에 의하여 양안이 작성되었는데、빙계서원전답안은 바로 이 같은 양안의 기재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즉 토지의 구획명과 자호、지번을 기록하고、이어 등급과 토지 모양새 지목을 기록한 다음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로·세로의 길이를 장 ·광 몇 자로 나타내고 이를 결부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起)와 진(陳)이나 사경(私耕) 등을 부기하였다. 이 전답안은 파손으로 부분적인 결락이 있기는 하나 빙계서원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빙계서원전답안(氷溪書院田畓案)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 경제-농수산업-전답안
· **작성지역**	빙계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 **형태사항**	크기: 30x21 / 합철, 1 책 27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5) 빙계서원전답안 / 빙계서원전답안 / 308 ~321 쪽



八三等直田 東西廣十尺

九四等直田 南北長一百二十尺 東西廣二十八尺 十七負

十四等直田 南北長二十二尺 東西廣十尺 一負二束

十一四等直田 南北長一百二十五尺 東西廣四十四尺 三十負二束

十三四等直田 東西廣二百三尺 南北廣八尺 八負九束

十九四等圭田 東西長一百四十一尺 南北廣五十八尺 二十二負五束

二十四等直反田 東西長八十二尺 南北廣二十五尺 十一負八束

長尺百負

庶字三十六三等直畨 東西長三十三尺 南北廣十四尺 三負二束

三十七三等直畨 東西長二十五尺 南北廣十四尺 二負四束

字六十五四等直畨 東西長五十四尺 南北廣十尺 三負

幾字四三等梯田 東西長九十七尺 大頭四十六尺 小頭十一尺 十九負三束

五三等直田 東西長一百四十二尺 南北廣五十四尺 五十四負

六日二徒命畨 東西長二十五尺 南北廣十四尺 二負

中字一五等直田 南北長[illegible]

城隍堂台

勞字五十七四等直反畨 東西長六 南北廣四十七尺

勅字十一四等直田 東西長三十四尺 南北廣四尺 七束

十二四等直田 東西長三十四尺 南北廣十二尺 二負二束

公尾泉負

理字十四等直田 南北長六十尺 東西廣十八尺 五負九束

十一四等直田 南北長七十三尺 東西廣四尺 一負六束

十二四等直反畨 南北長六十尺 東西廣四尺 一負三束

大坪負

嘉字十八三等直反畨 東西長四十四尺 南北廣十九尺 五負八束

十九三等裁直田 東西長六十八尺 南北廣二十八尺 十三負三束

四十三等直田 東西長一百二十二尺 南北廣六尺 五負[illegible]

猷字十七四等直田 東西長四十五尺 南北廣二十七尺 六負七束

祇字二十五四等圭田 東西長四十四尺 南北闊三十五尺 四負二束

二十六四等直田 東西長五十九尺 南北廣三十六尺 十一負

中里孫厚邑氏

孫厚邑氏

中里以三四[illegible]

辱字十三三等裁直番 東西庶十四尺

九十七二等直番 南北長二十九尺 東西庶二十七尺 六負七束

九十八二等直番 東西長三十七尺 南北庶三十一尺 九負七束

恥字五十二三等直番 南北長六十五尺 東西庶八尺 八負二束

林字四二等直番 南北長二十八尺 東西庶二十一尺 五負

三十三三等直田 東西長九十八尺 南北庶十三尺 八負九束

三十四三等直田 東西長五十三尺 南北庶十七尺 六負三束

五十七四等裁直田 東西長四十三尺 南北庶二十尺 四負七

五十八四等直田 東西長八十一尺 南北庶六十尺 三負一束

車子員

辜字三十四四等直田 南北長六十六尺 東西庶八尺 二負九束

三十五四等直田 南北長四十尺 東西庶五尺 六負六束

七十八四等直田 八負

八十三等直田 東西長五十九尺 南北庶二十尺 八負三束

八十一三等裁直番 東西長六十一尺 南北庶三十二尺 十三

八十二三等裁直番 南北長

辜字十五三等直田 東西庶二十二尺

四十五四等直田 東西長一百五尺 南北庶十六尺 九負二束

四十六四等直田 東西長一百十尺 南北庶四十尺 二十負

五十一四等直田 東西長九十尺 南北庶五十尺 二十七負二束

五十四四等直田 東西長四十三尺 南北庶五尺 一負九束

五十五四等直田 東西長一百三十尺 南北庶二十五尺 十七負九束

五十七四等直田 東西長九十尺 南北庶二十尺 九負九束

五十八四等直田 南北長二十九尺 東西庶十四尺 一負六束

六十二五等直 南北長四十尺 東西庶十二尺 一負九束

院前員

六十三三等直田 南北長一百六尺 東西庶十四尺 十負四束

六十六二等直田 南北長三十六尺 東西庶二十七尺 八負三束

六十七二等直田 南北長六十七尺 東西庶三十六尺 二十負五束

六十八三等直田 南北長六十八尺 東西庶六十七尺 三十一負九束

七十三等直田 南北長九十七尺 東西庶九十四尺 六十二負五束

即字一三等直田 東西長八十九尺 南北

二院基地四等 [illegible]

三五等直田 南北長五十尺 東西廣二十三尺 四負六束

四三等直田 東西長七十九尺 南北廣十八尺 九負九束

七四等直田 東西長二十尺 南北廣七尺 三束

上思美員

疏字二十三等畓 東西長七十三尺 南北廣十尺 五負一束

見字七十五三等直畓 南北長二十尺 東西廣十九尺 二負七束

八十五三等裁 畓 南北長四十尺 東西廣二十二尺 六負二束

差使私畊二斗

誰字七十四二等田 南北長六十九尺 東西廣二十一尺 十二負三束

逼字三十八三等直畓 南北長五十尺 東西廣二十一尺 七負三束

居字三十二三等直畓 南北長七十六尺 東西廣十五尺 八負 上思美印 [illegible]

閑字七十五三等直畓 南北長五十九尺 東西廣七尺 二負九束

七十九三等直畓 南北長六十八尺 東西廣十二尺 五負七束

八十三等直畓 南北長二十二尺 東西廣十六尺 二負五束

孝仙員

論字六十六三等直畓 東西長五十九

二院基地四等 [illegible]

三五等直田 南北長五十尺 東西廣二十三尺 四負六束

四三等直田 東西長七十九尺 南北廣十八尺 九負九束

七四等直田 東西長二十尺 南北廣七尺 三束

上思美員

疏字二十三等畓 東西長七十三尺 南北廣十尺 五負一束

見字七十五三等直畓 南北長二十尺 東西廣十九尺 二負七束

八十五三等裁 畓 南北長四十尺 東西廣二十二尺 六負二束

差使私畊二斗

誰字七十四二等田 南北長六十九尺 東西廣二十一尺 十二負三束

逼字三十八三等直畓 南北長五十尺 東西廣二十一尺 七負三束

居字三十二三等直畓 南北長七十六尺 東西廣十五尺 八負 上思美印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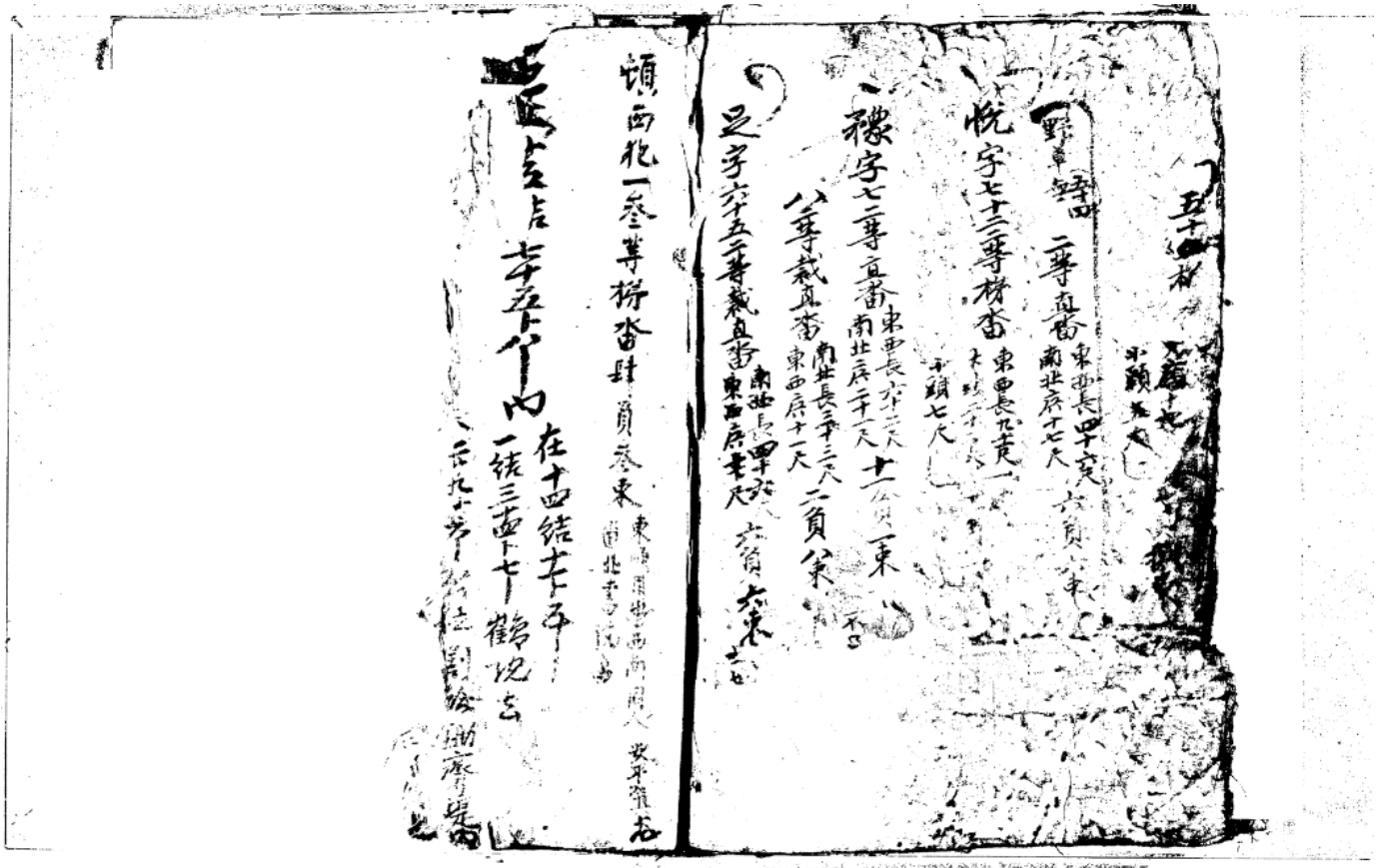
閑字七十五三等直畓 南北長五十九尺 東西廣七尺 二負九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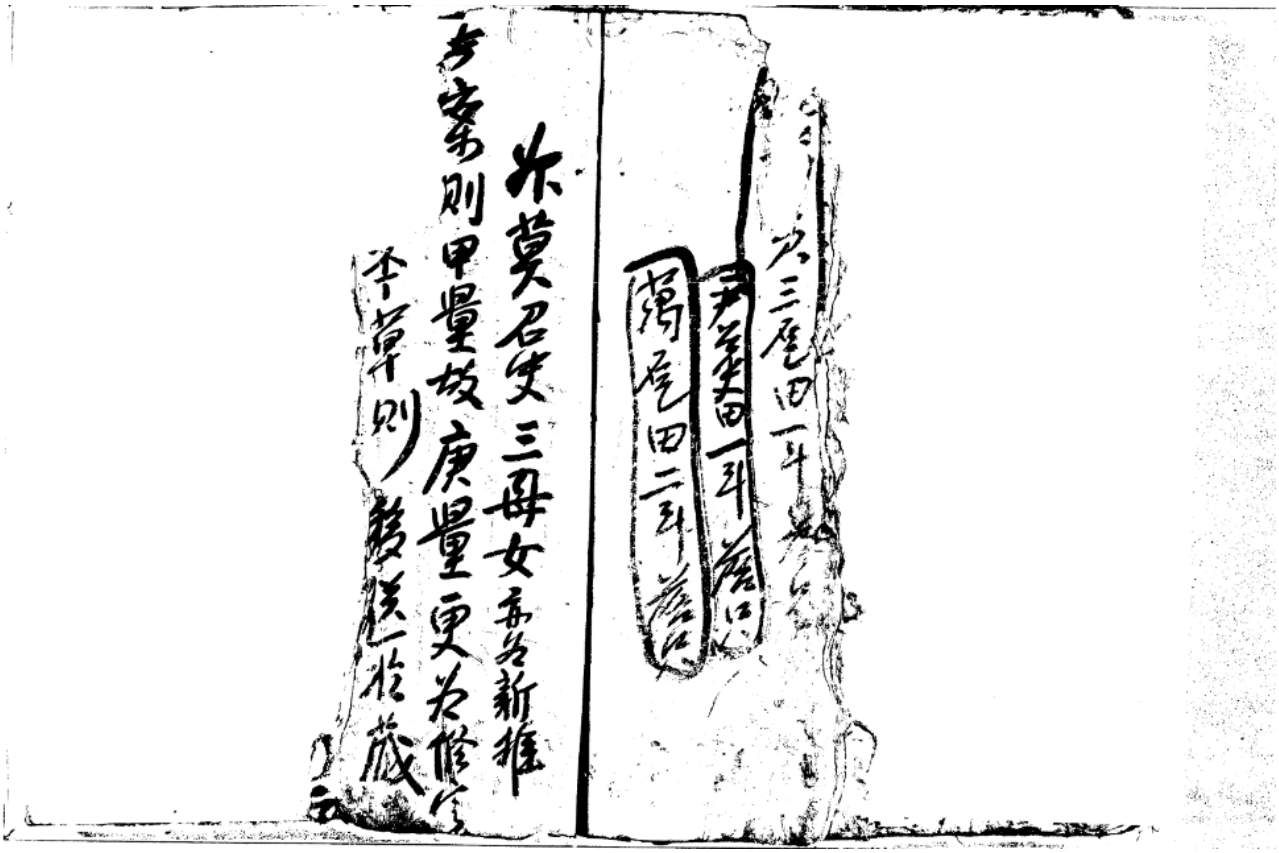
七十九三等直畓 南北長六十八尺 東西廣十二尺 五負七束

八十三等直畓 南北長二十二尺 東西廣十六尺 二負五束

孝仙員

論字六十六三等直畓 東西長五十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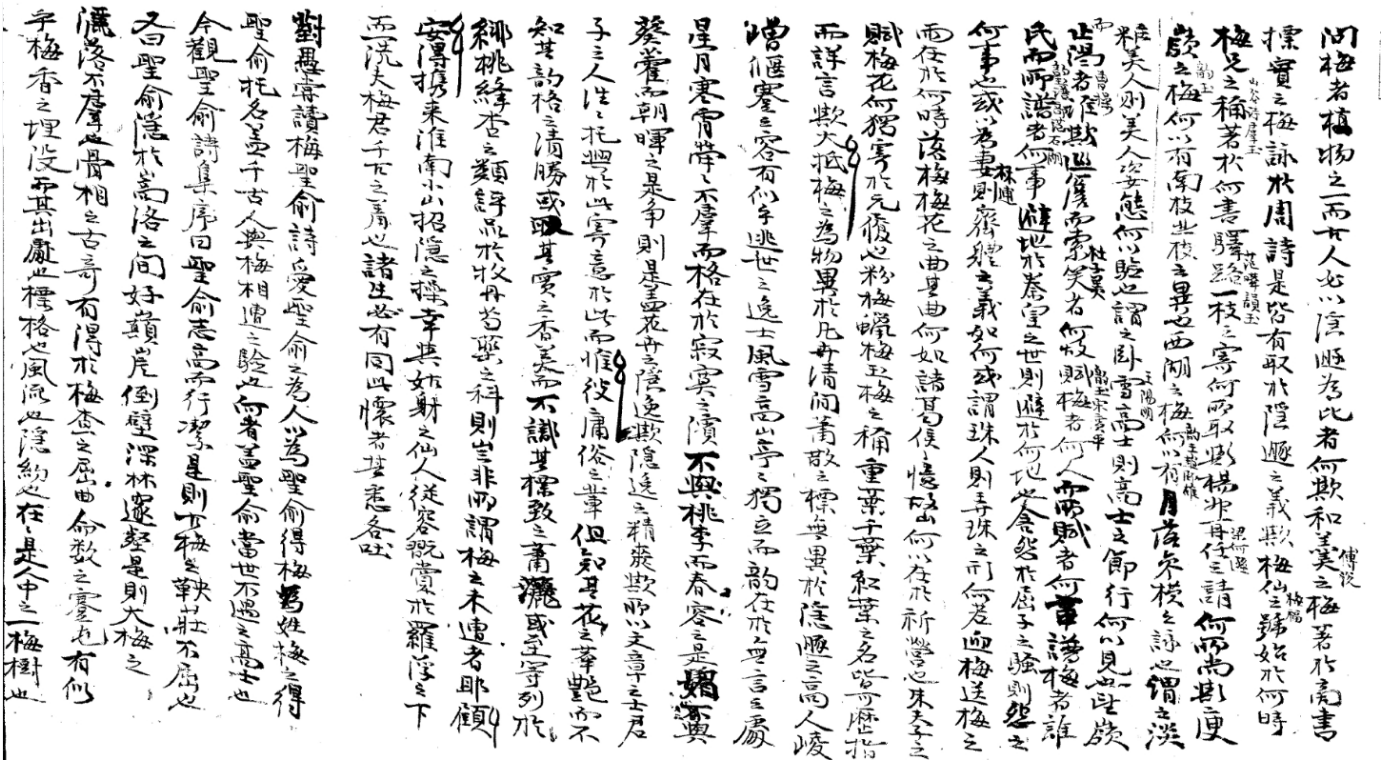
시문류 (16)

문 (1)

기타기록(其他記錄

· **분류**	고문서-시문류-문 / 교육·문화-문학저술-문
· **형태사항**	크기: 24x19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3) 기타기록류 / 기타기록류 / 71 ~76 쪽



聖俞托名妻子古人與梅相遇之驗此句者當聖俞當世不遇之高士也
今觀聖俞詩集序曰聖俞憲臺行潔是則平梅之缺壯不爲過
否聖俞隱於嵩洛之間好奇峰倒壁深林邃壑是則大梅之
瀟洛不廣過相之古寺有渭水梅香之屋曲命數之處而有似
乎梅香之埋沒而其出處之標格心風流之隱約之在是人中之一梅樹也
且以其詩考之其韵也清其味也酸其格也苦其調也奇宜月交輝
隨處品題之宛如病鶴之未栖風霜雪雨寄而詠之依然
翠羽之鬧啾雅雪之皓皓香浮動句語之中清風尚激筆
端若大冬之實艷之大若早春之香意采則以又章中一
梅花也是以當時好梅之君子如歐陽永叔石曼卿富子固之
徒皓好之偏愛之以其志之修潔或以其詩之清艷之詠之於
山水寂寞之濱徙迹於窮月峰巒之天愛之如護祖命之如
水雪不待他物之料侍言外之意句不當唱嘆之知其酷
外之佳味則此詩直知梅之標格而以是愛聖俞也宜
則聖俞之於歐陽諸公可謂深書之又可見梅與聖俞
之相遇出處悲歡使聖俞之筆其梅韻之清抱其梅香之深
終老于洛濱之中而友梅花嫉家李氏楊氏之而矣
若出九聖俞之不幸耶仍或古梅之灵托於聖俞之文
幸以鳴其不平之氣聖俞死後其精魂之未散在處爲
梅樹耶愚故曰不知聖俞之爲人則不可得梅矣不讀
聖俞之文事則不足以知梅矣梅之韵梅精神盡在於
謂之梅在徒取乎寂寞之枯枝眷眷於已摽之廣葉
不知聖俞詩意之爲別般梅韵則是而謂淺知梅者
何足道也墨嵩讀是詩當思欲共富貴安梅之君子與
之評品哉雅矣今何幸　明何之及也
竊謂植物之有梅猶人之有臣逸何則夫際已離俗之謂隱
避世高蹈之謂逸而忠烈勇退不保綿祚於淳逸之事
萬山深交自高標致於臣逸之士也愛其植物之清香
而以寄寿淡泊之真趣取其植物之古奇而以托委高堂
素壁則梅之於臣逸已自有暗契之標矣是以古今臣逸
之士莫不托契於梅綺麗文人不爭等步之春風之逸
於之逸跡仙之玉帳香風吹動頂人之冀門而臣逸之
去尚近之古香疎韵不讓乎公山之空瓢老枝清香
彷彿乎釣於之風縹偃仰於仲之態自露於烟霧屋
舍之中樂飢渴於之跡宛在於風霜星月之淡則去人煙
比之於臣逸於誠以是也雖於梅韵常在而臣逸之全
梅格依旧而臣逸之士寥寥未見林下之一人而徒舍梅脩
之於龜或回山村之似士而還惜梅林之深雖由是而環
一世尚梅之全人此古今百年之全梅之臣士則宜乎
梅不能獨倚於花林而好梅君子之情亦興傷於
以先仗以尚寧等重臣驅爲勵似之士愚意云爾

請奈之高宗得說而書有和美之喻貞女自寺詩有揮空
之誦遠坂等傳嚴若水絃身則治雖和美而其身必遠遠近花
行岐雪鳴琴碧幕若懷春而其志愈堅飲心雖曰有取於隱逸
鳥安其不可以時事爲而勝似風於梅福謀讀書之進而托天倫
於裏梅達喜爭門寧非太平可者則梅仙猶其可在於漢朱乎
余統山樊若非仙女之邪言則梅之於其不於山谷乎塊頑
歸人波逢一枝之寄梅梅仲太守迓請再任之寄嘻范
華之清標敢人所知則梅花一枝不可以不寄也何遜之詩趣不
在官職則梅軒再任不可以不請也欽梅之事枝世枝更使
有言落落之月淡寒疎影師雄當確遠欽外之寒暖不均
則事枝或其枝其其踪四越天涯舍之美人至遇則春枝
月淡枝其事舍之夫殘月淡的美人凝粧凍雪映山寒至
共則遠步春之花英方露而月色清映則美人姿態可於
步從大冬之天愛個寒而雪膚色堅則君子節行可見於時
雖止渴而美遠漢城之女姑計則不免者梅林之當取必花能
而笑而事值詩句之晚契則而是為梅叢之成事必數陳梅
臧出於宋廣平手撰次梅譜於范至能之家遠古今梅韵者作則宋之臧梅之
梅格既古作則宋之臧梅之格之詩範
徒行吟梅詩見亦遠行殿小者犯僧而閑之孤僧何似乎
逸之處之淡湘筆法不備杜若之芬香則梅仙之字
逸之獨備其已齋者謂之齋鞋則梅即有梅妻其義不
淑矣梁山之孤謂鶴之梁鞋則詩之寿逸人其形可想矣遠三
月為臣梅一雨和五月為美梅一雨則雨水為雪梅街之
雪度梅之曲宴今雪美梅花曲則曲亦有法規遠祈雪月
夜放山梅影依然玉老風霜元復清標宛劉遠三國
異蜀事采善美則武侯之德操放山不可深知未業
祈山之躬韵則成衿懷灑落則獨寄元復不得其
如果書之通到此梅為梅但取其色而不聞梅一枝可見
清標不假重華子華之筆言貴實而江梅一枝善知美

唱落梅之曲寒食梅花丶曲則曲亦有浣風嗟丶祈皆月
夜故山梅影依然丑屯凡霜元復丶清標宛對嗟三國
鼻崎事東為鄭則武侯丶逸情故山不可不深其未業
丶祈山也璟韶將咸衿懷潘落則獨寒元復不得不然
其來書丶遍到也移梅至梅但取其色而臘梅一枝可見
清標丶不似重第子第六言其實而江梅一株為知美
然丶不凡則執事丶問其無出其襄也寄名丶未乎
大抵梅之為物不其凡卉而同列不其衆植而不群清而常散丶趣
得俳乎至人峻嶒偃蹇丶然是異於陸流亭丶乎歲暮丶
天而啛風雪而為儔石丶乎寂寞丶濱而其是月而為友至
同桃李丶媚春而異作東君丶其宮不背樊籬丶爭
嗷而反結黃昏丶佳期則所以君子之人不晞其托趣行徑丶士
為鄙其結契扶四污似丶清潔洗滌霜雪丶閑淡而
夫何叔季以降山林空虛而未見隱逸丶高士巖穴寂寞而不覩遁世
丶君子滔丶乎名利之是求而不為梅韻丶清絶泪丶乎危埃丶是
趨而不識梅格丶孤落不但不取而視之如絳桃丶妖艶不徒
不愛而比之於苔菜丶凡庸則宜乎梅林有未遺之感而好梅君
子之為世道深慨也
愚也得其說矣夫勵世之方莫切於尚氣而崇節揚俗之道
莫緊於存廉而知恥人心丶淳雜皆由於氣節之尚與不尚士趨
清濁專在於廉恥丶存與不存則世豈有氣節之不消盡而能
知隱逸丶趣在乎人豈有廉恥都喪而能知梅韻丶深者乎
識夫世丶君子不患梅韻丶埋沒而惟患氣節丶之無人不憂梅格
丶不售而但憂廉隅丶未喪氣節苟足尚而山林有高蹈丶士廉
恥是保而朝廷有勇退丶人家有尚節丶似人有知恥丶心則將見陋
巷之人能知梅標丶可愛五尺丶童無不梅韻丶可尚不待招隱而
梅丶精英自反矣不勞一洗而梅丶茜韻自開矣
更以一言尾之勵世拯俗丶方莫急於尚節廉而當其難感丶標致欽
尚丶風韻則安得消去鄙吝之萌而洗滌其衷丶茜卿尚意欲其一二

丶不售而但憂廉隅丶未喪氣節苟足尚而山林有高蹈丶士廉
恥是保而朝廷有勇退丶人家有尚節丶似人有知恥丶心則將見陋
巷之人能知梅標丶可愛五尺丶童無不梅韻丶可尚不待招隱而
梅丶精英自反矣不勞一洗而梅丶茜韻自開矣
更以一言尾之勵世拯俗丶方莫急於尚節廉而當其難感丶標致欽
尚丶風韻則安得消去鄙吝之萌而洗滌其衷丶茜卿尚意欲其一二
因志丶人相推如其寂寞丶濱植種寒梅一株而朝夕點檢早晚
托契於樸手凡霜歲暮丶時排徊焉竊弼為丶中深知標格為何
風韻之在何處則其之腦中自然清雅吾之氣節自然高尚梅
之事足以為吾丶談輔矣

執事以為如何

만사(輓詞) (11)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을 지칭하는 용어. 만장.

만장(輓章)이라고도 한다. 만(輓)이란 앞에서 끈다는 뜻으로 상여가 떠날 때 만장을 앞세워 장지로 향한다는 뜻에서 만장이라고 부르며, 망인이 살았을 때의 공덕을 기려 좋은 곳으로 갈 것을 인도하게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친척이나 친구가 죽으면 상여의 뒤를 따라가며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만가(輓歌)라고 했으며, 옆에 따르던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이 만사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만사의 규격은 일정하지 않다. 오언절구와 오언율시 또는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시체를 본떠서 장문시의 글을 짓거나 4 자체로 쓰는 경우도 있다.

내용은 일반적으로 망인의 학덕·이력·선행·문장·직위 등에 대한 칭송과 망인과 자기와의 친분 관계 등을 표시하고, 평소에 다정하게 지냈던 일이나 특별한 일을 떠올려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기도 한다. 또한 자기와의 관계가 없고 친면이 없으나 평소에 존경하거나 흠모해 교제를 원한 사이에도 그 뜻을 밝히는 만장을 지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만 그 죽음 자체를 슬퍼해 인생의 허무를 말하기도 한다.

만장의 길이와 폭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대체로 길이는 8 자, 폭은 2 자 내외이며, 색상도 백·청·홍·황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 만장의 위와 아래는 적은 축대를 사용하고 대나무로 깃대를 만든다. 깃대의 머리에는 약간의 수식을 하고 아래쪽의 공란에는 연꽃 무늬를 그려 넣는다. 장례의 행렬에서 반드시 영정의 뒤를 따르게 하고, 장례가 끝난 뒤에는 빈청(殯廳)에 보관하며, 망인의 문집을 발간할 경우 부록에 원문을 수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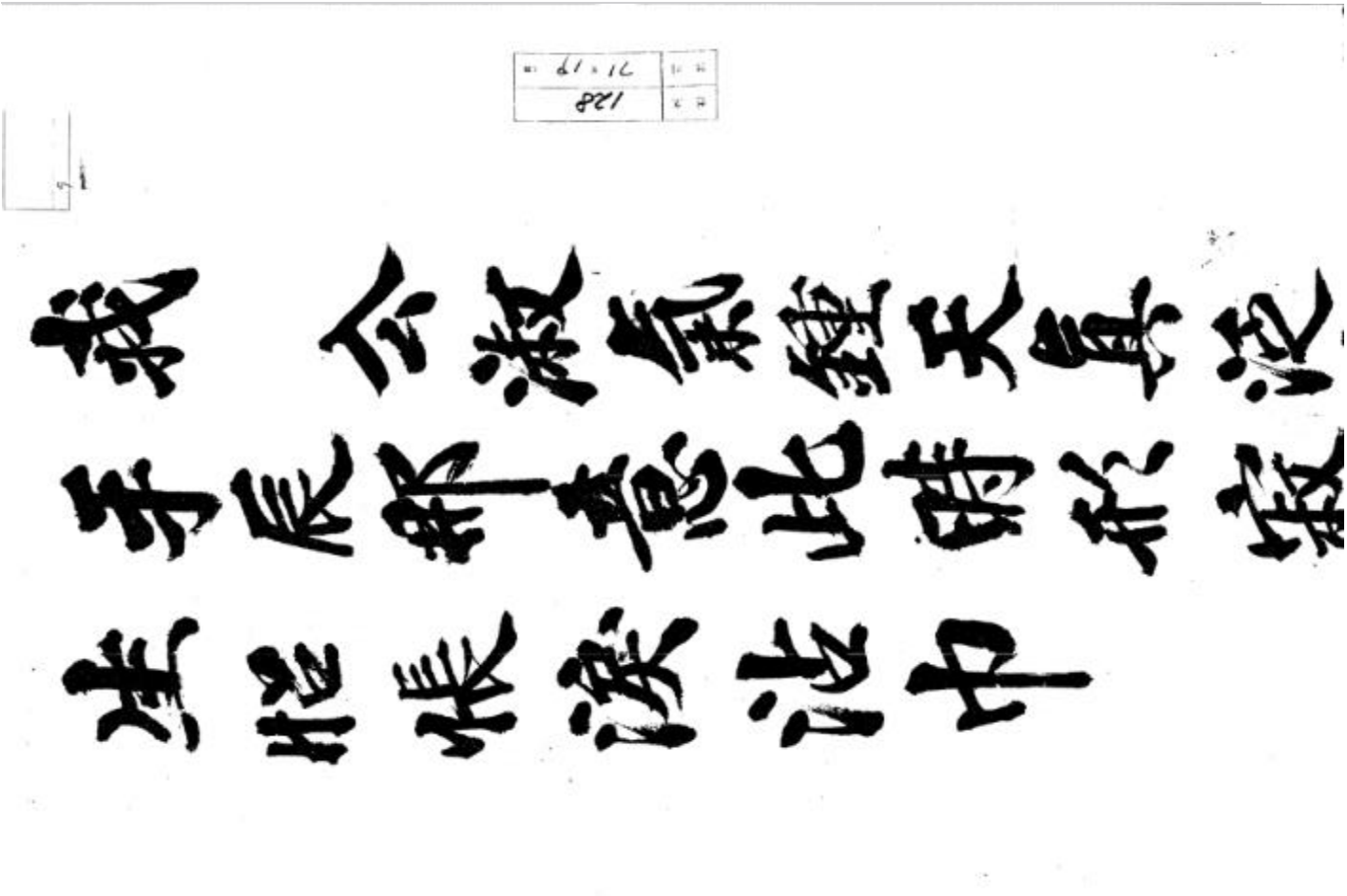
만장 또는 만사(輓詞)는 죽은 이를 애도해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명주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으로서 장사 때 상여를 따라 들고 간다. 만장은 통상적으로 상례가 끝나면 대부분 태우기 때문에 후세에 전달되는 예는 흔하지 않다.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1

· **분류**	고문서-시문류-만사 /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 **작성주체**	발급: 상효(相孝)
· **형태사항**	크기: 71x1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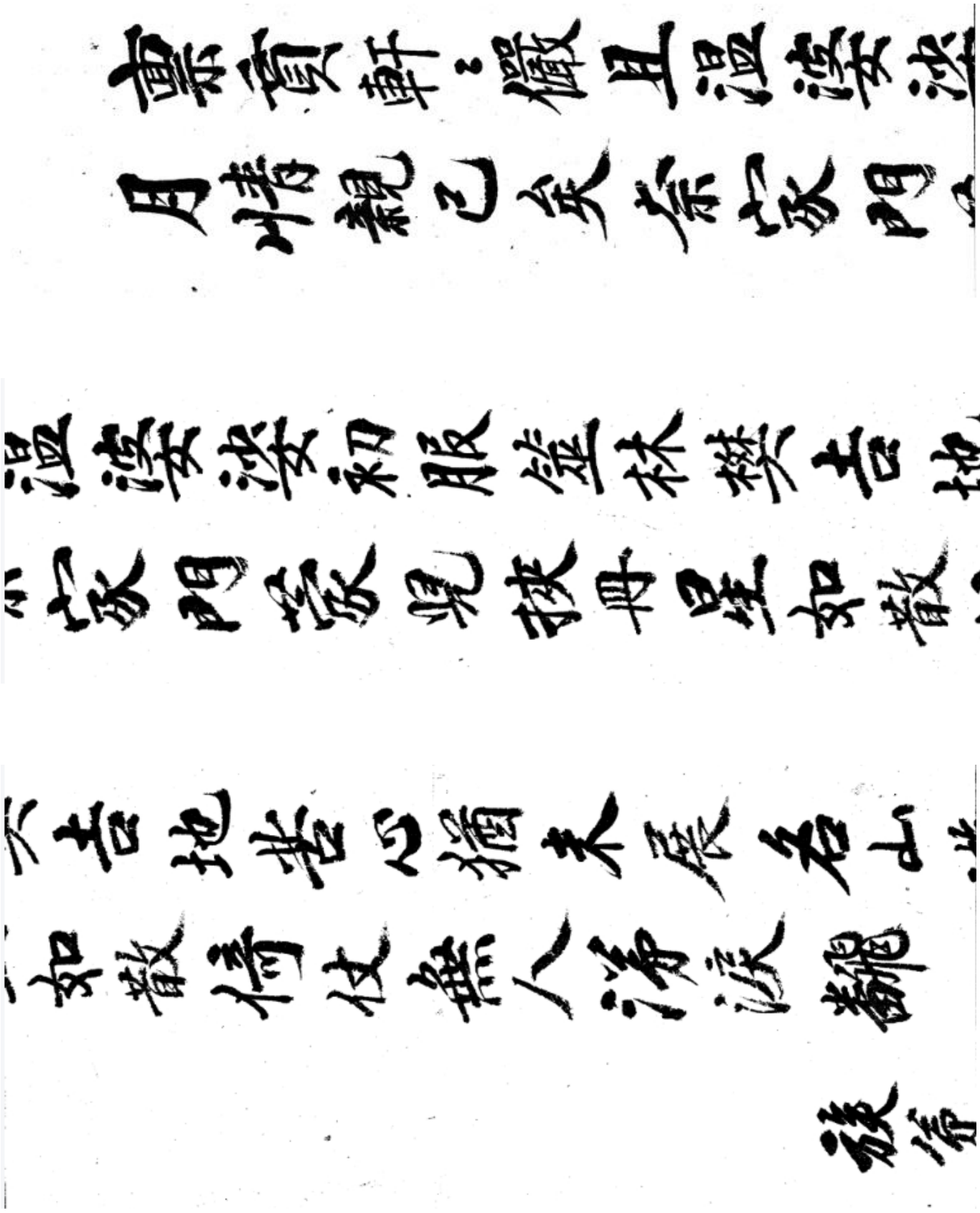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1) 만사 / 만사 / 161 ~16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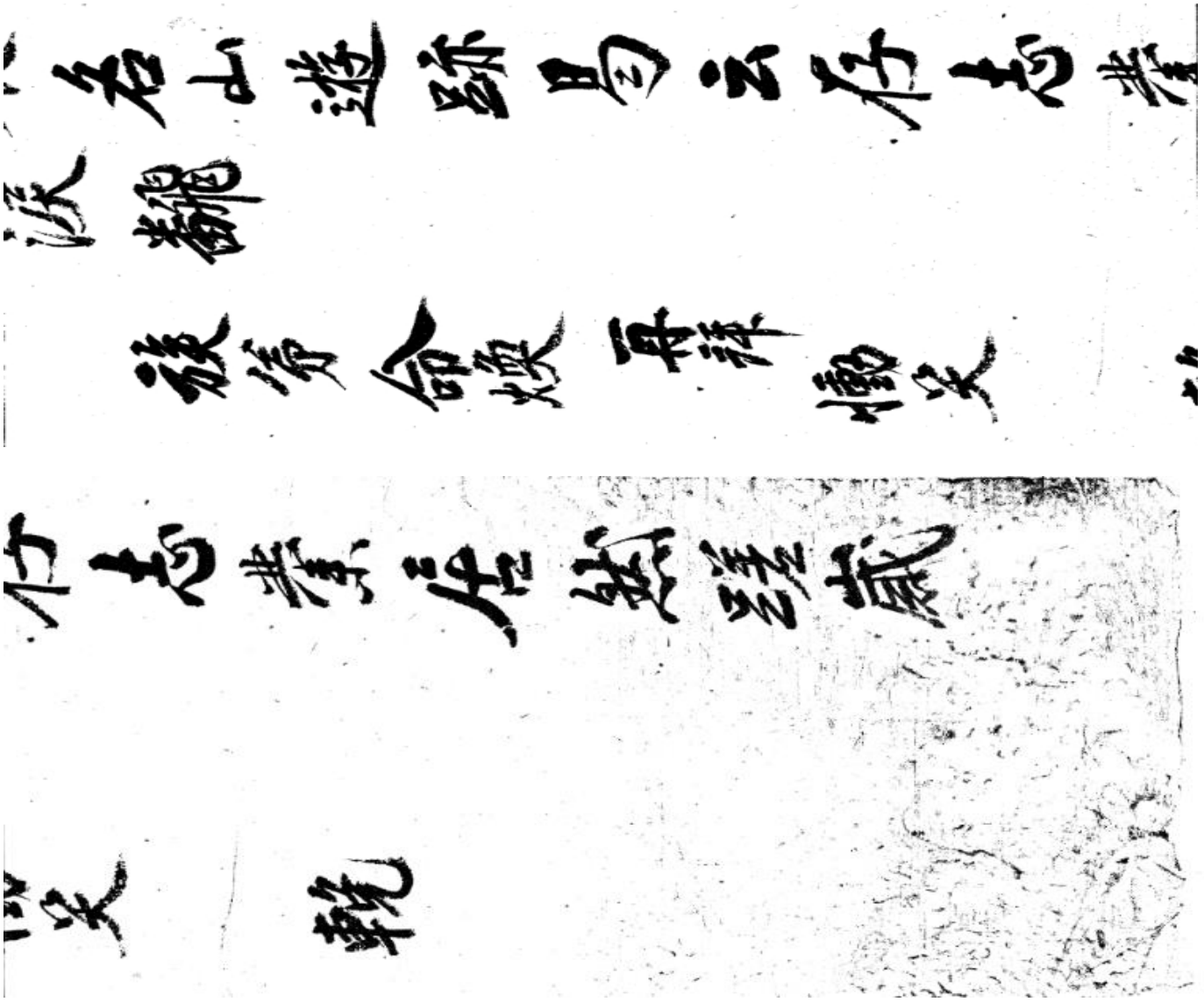


眞泛〻儀容逈出倫誠心未
形寂〻更聞何處語諄
誠心未盡求山日世事還
語諄〻一曲籤歌山北
三從叔相孝　慟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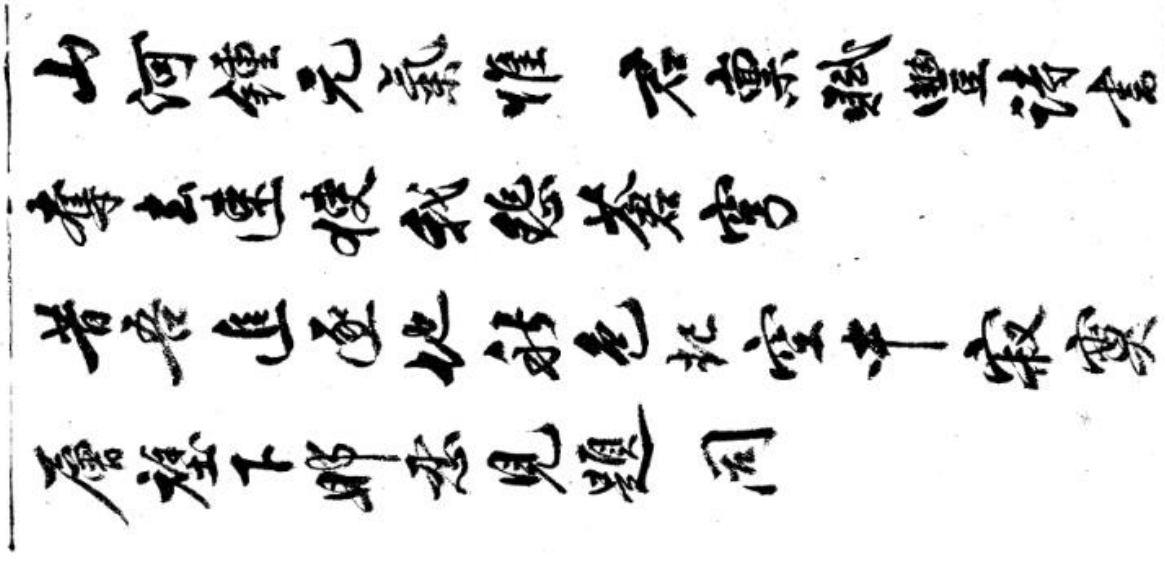
事還忙啓
歌山北市餘
慟哭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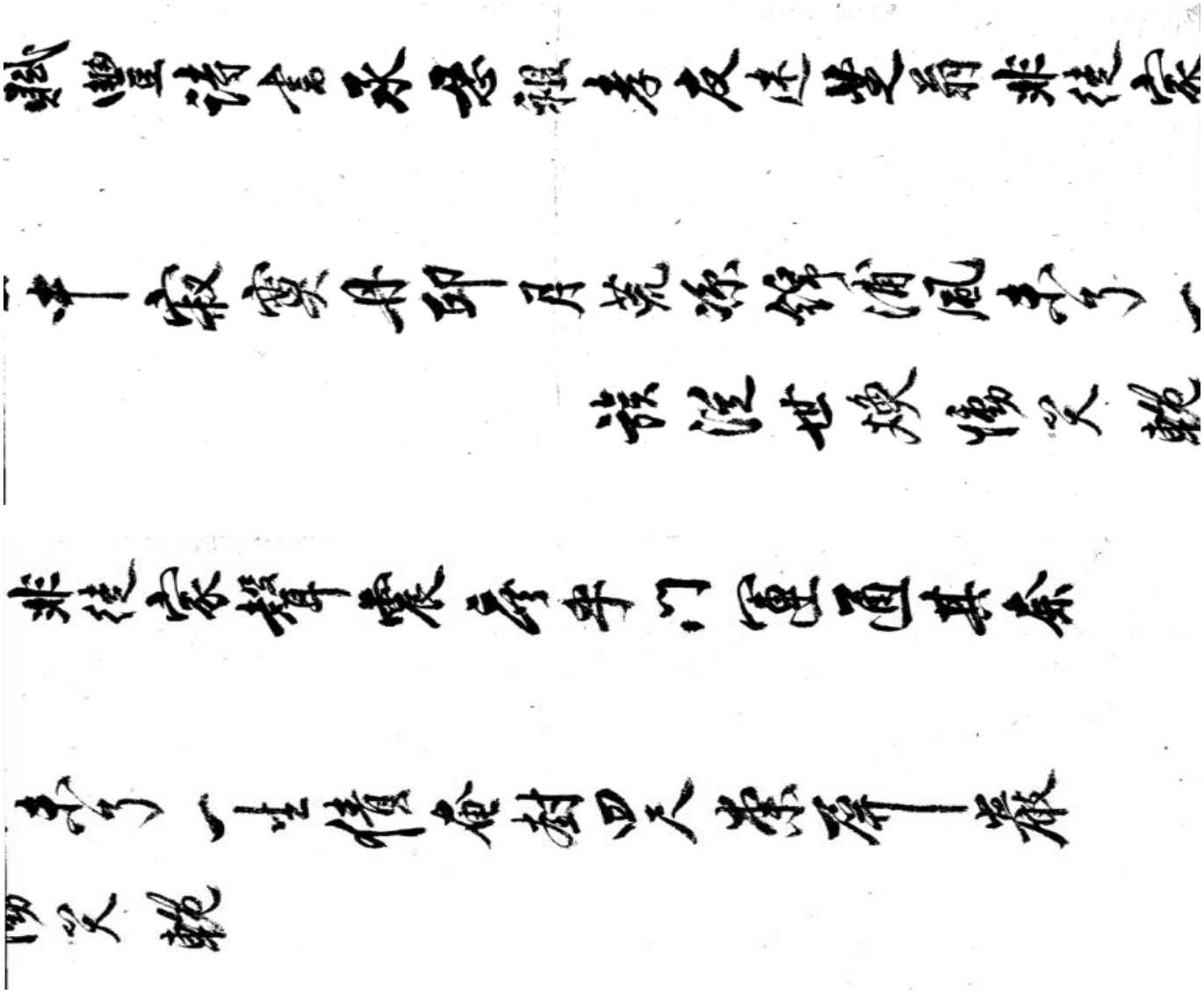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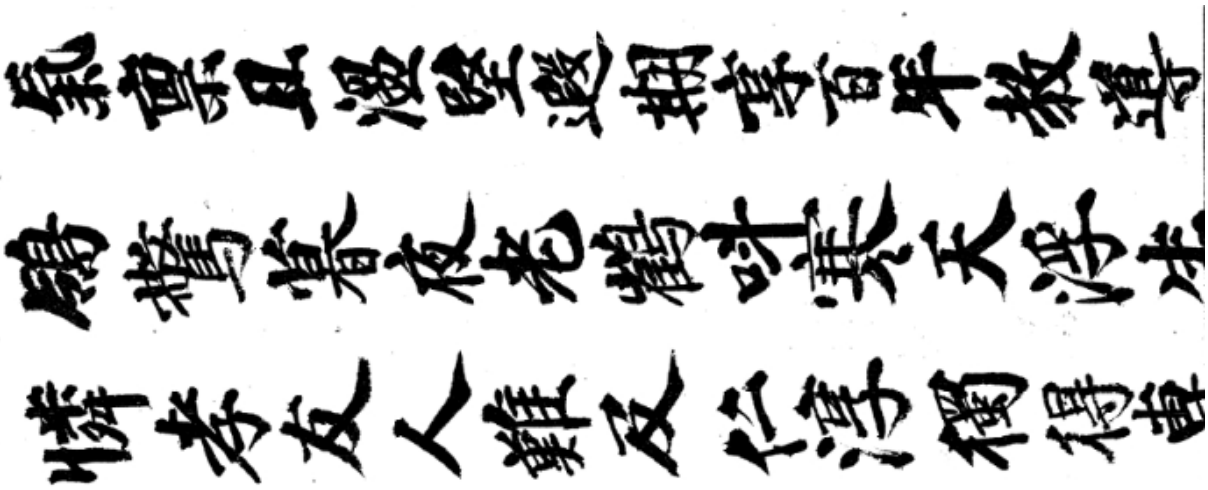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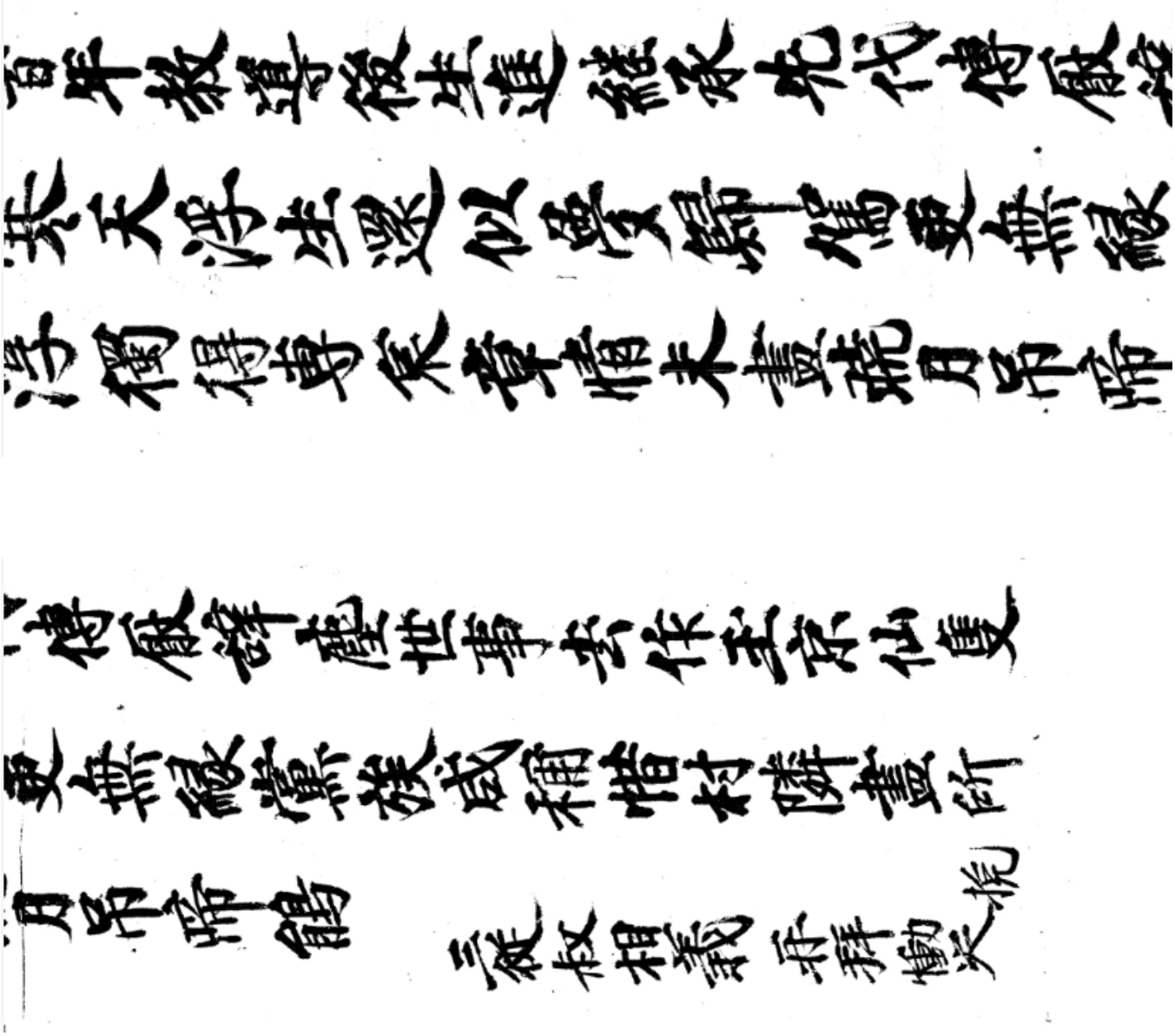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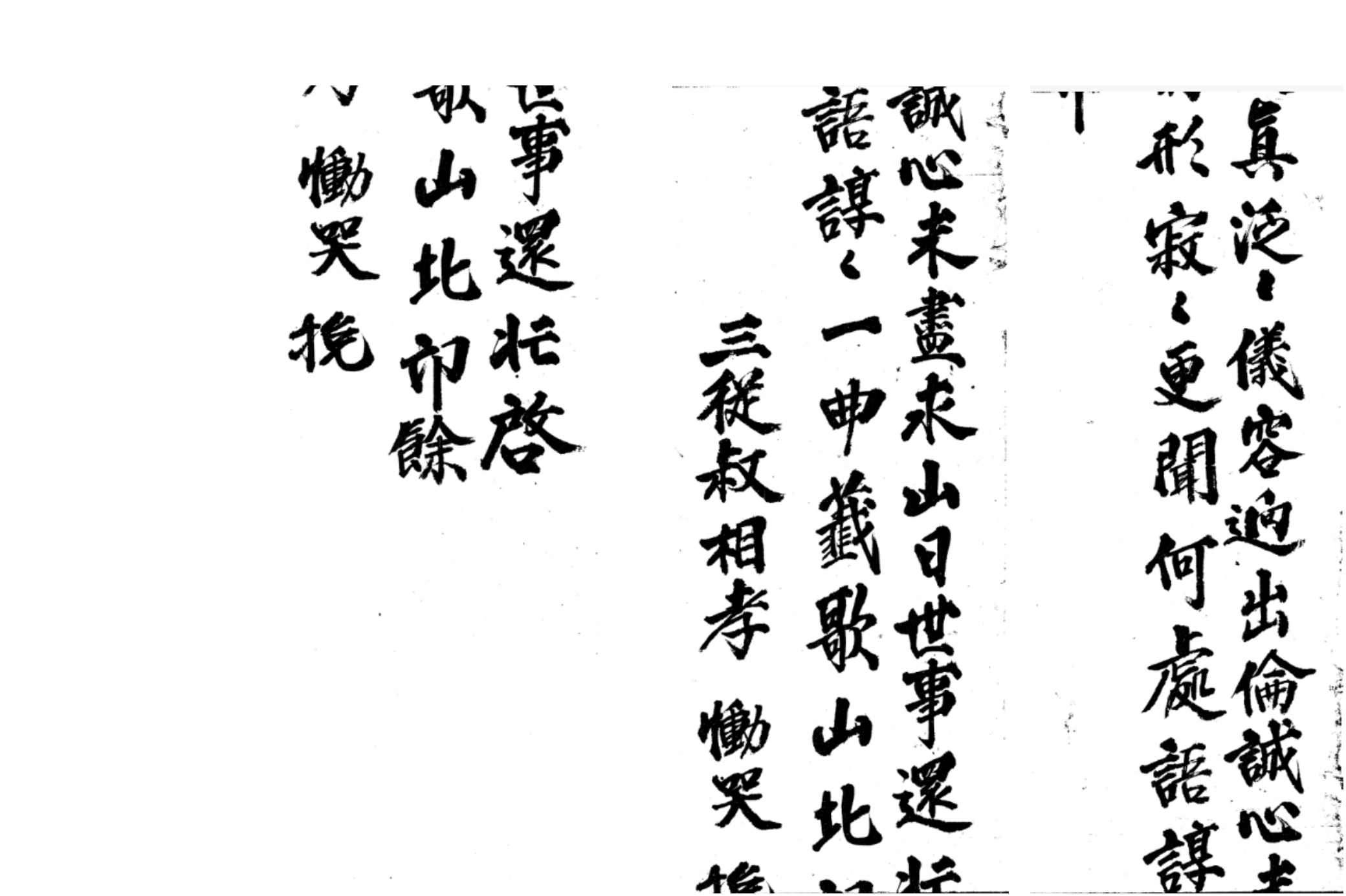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4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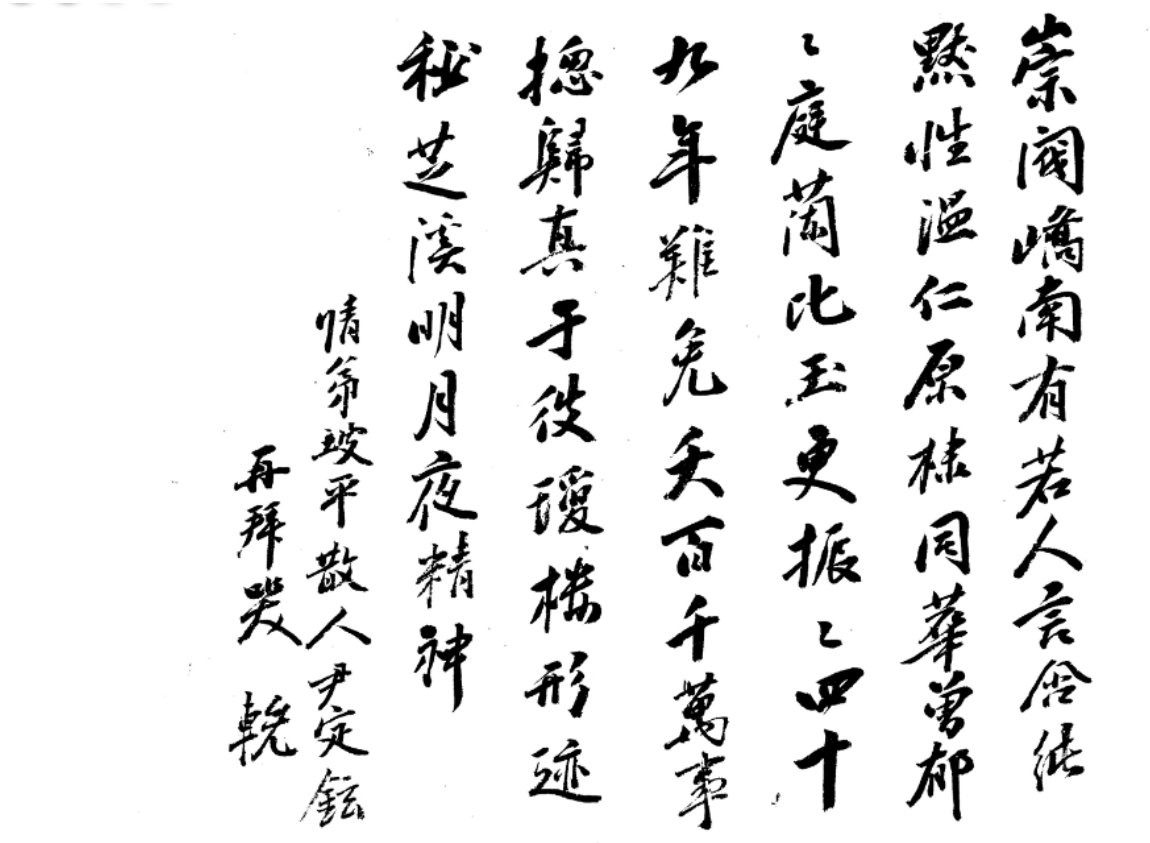


만사(輓詞) 1

· **분류**	고문서-시문류-만사 /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 **작성주체**	발급: 남용진(南龍鎭)
· **형태사항**	크기: 120x2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1) 만사 / 만사 / 171 ~17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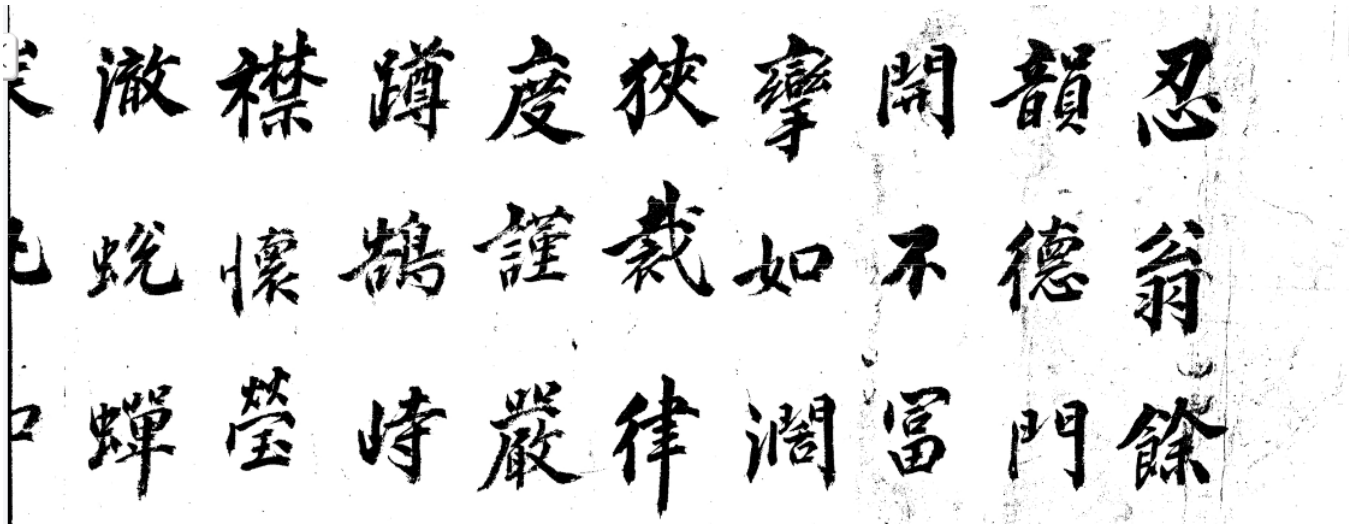


擬為今日哭不語淚先垂十載相須
不應斯酷為家聲承世德名望早文
粵自臨河路與　公始得知蓬麻雖
損益不為歧自我南移後幸得數相
已到分張路丁寧說後期才經數
猶謂富強時蘭室衆幼哭萱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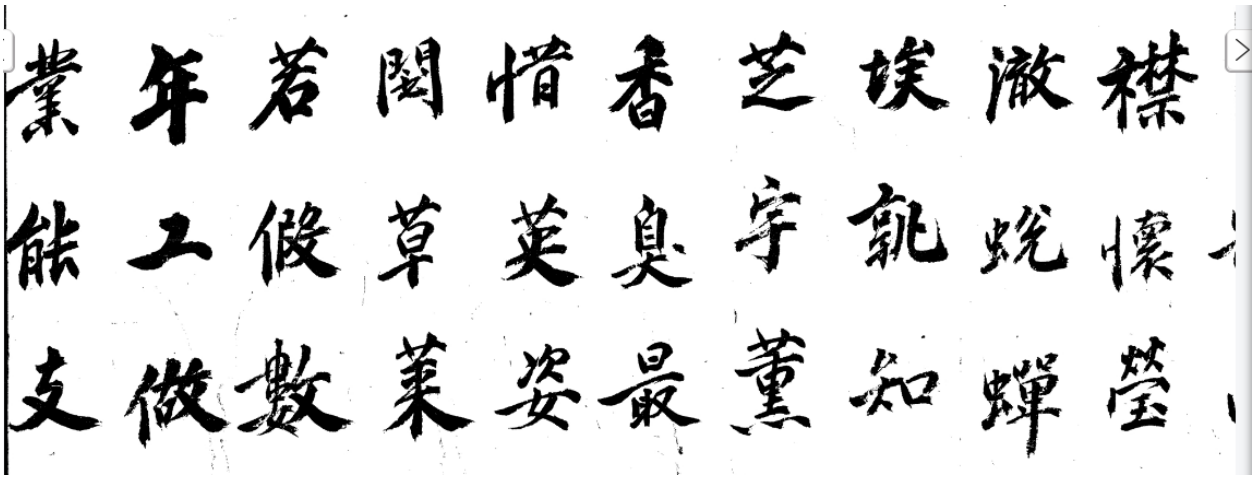
十載相須誼一朝此別悲忍爺春草岩
德名望早文詞揚確談論重沉淚負抱意
知蓬麻雖不較鳥鶴實難比許我忘形
幸得數相追頃者惠臨日終宵共對甚
期才經數十日訃報是何其豈慮一傷
哭萱堂悲老思　靈魂知也否是岩

英陽南龍鎮　慟

만사(輓詞)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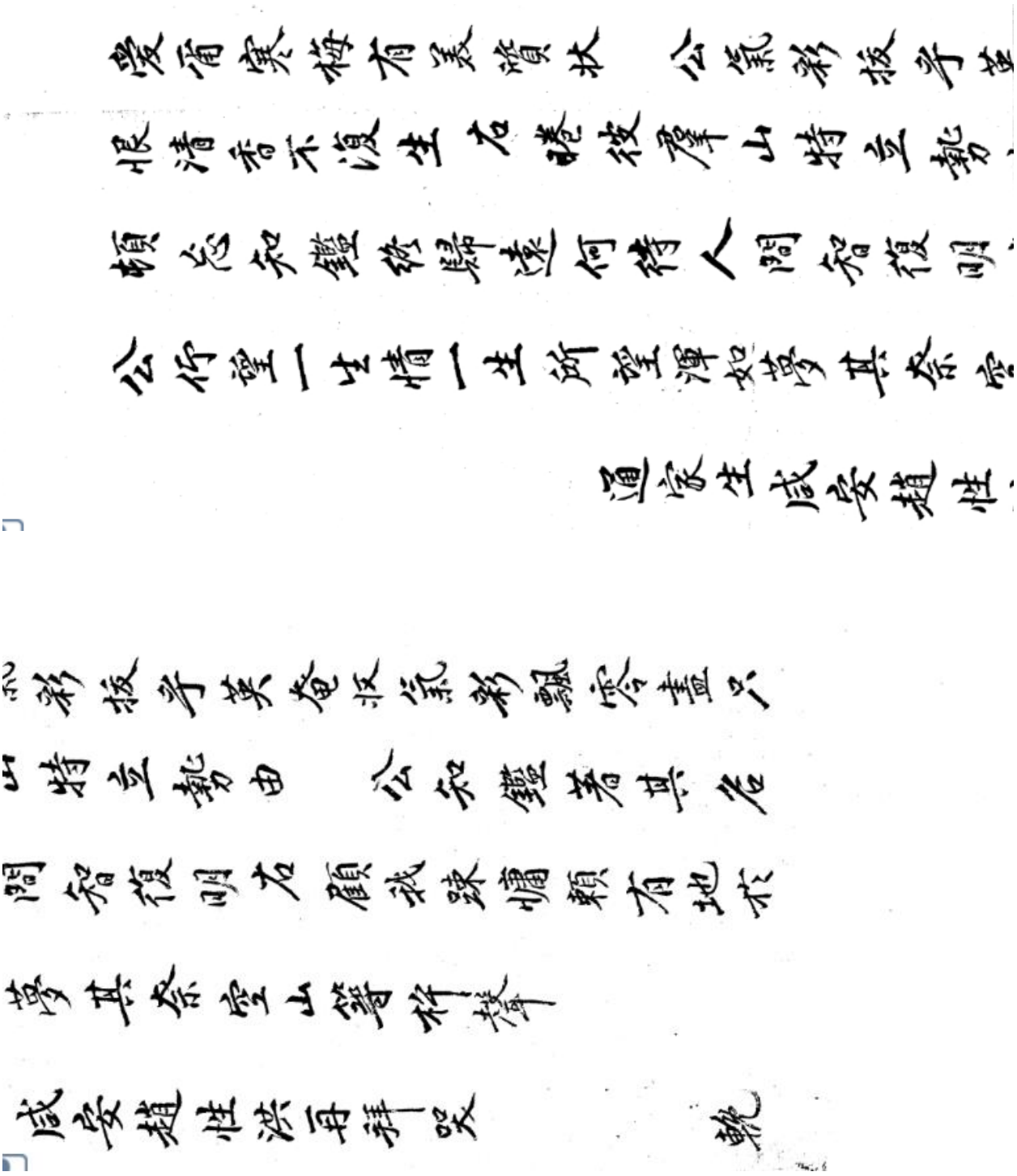
忍翁餘韻德門開不富攣如濶狹裁律度謹嚴蹲鵠峙襟懷瑩澈蛻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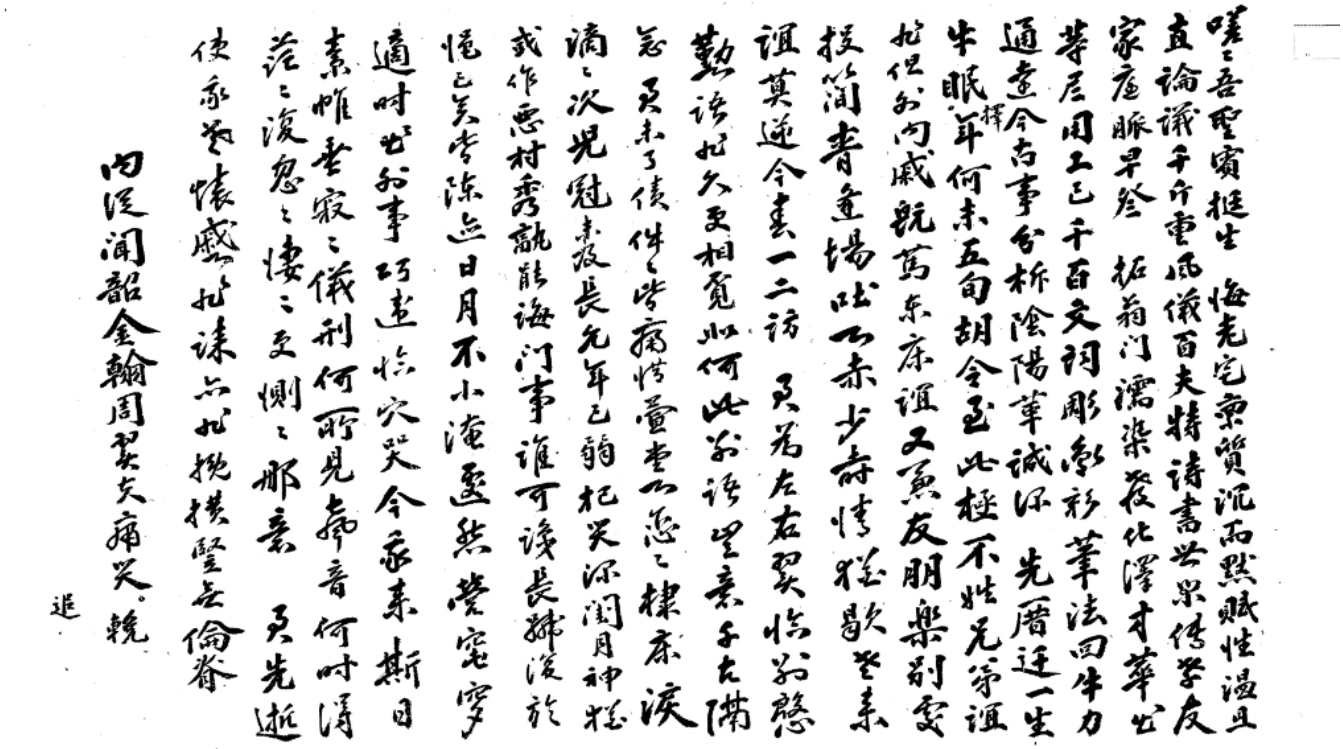
襟懷瑩澈蛻蟬埃孰知芝宇薰香臭最惜英姿閟草萊若假數年工做業能支

年工做業能支大厦擅良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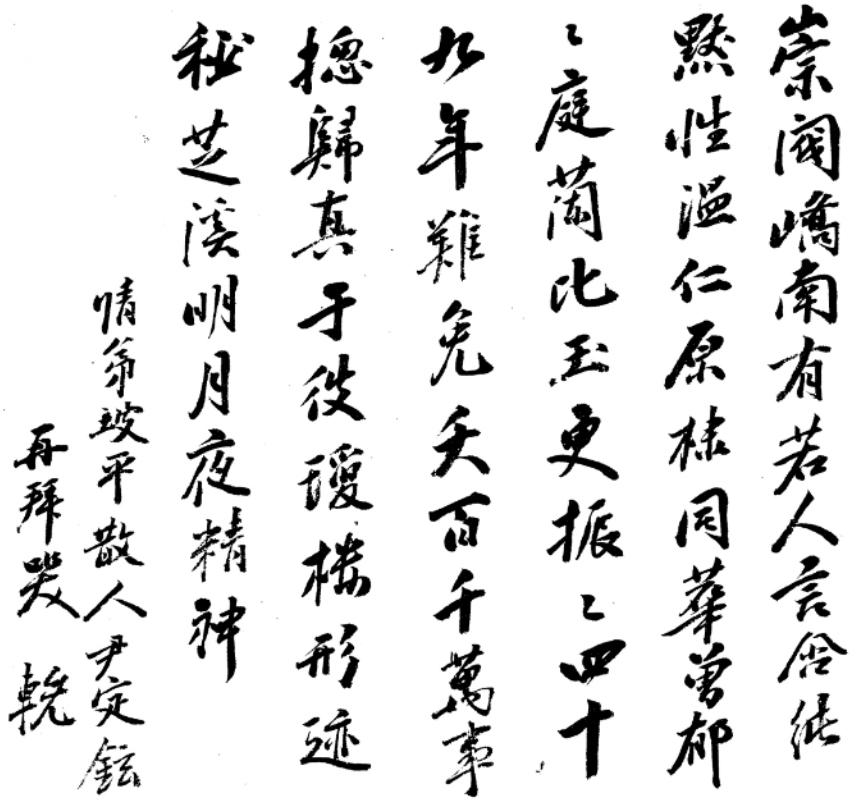
晉山后人姜永璇再拜追哭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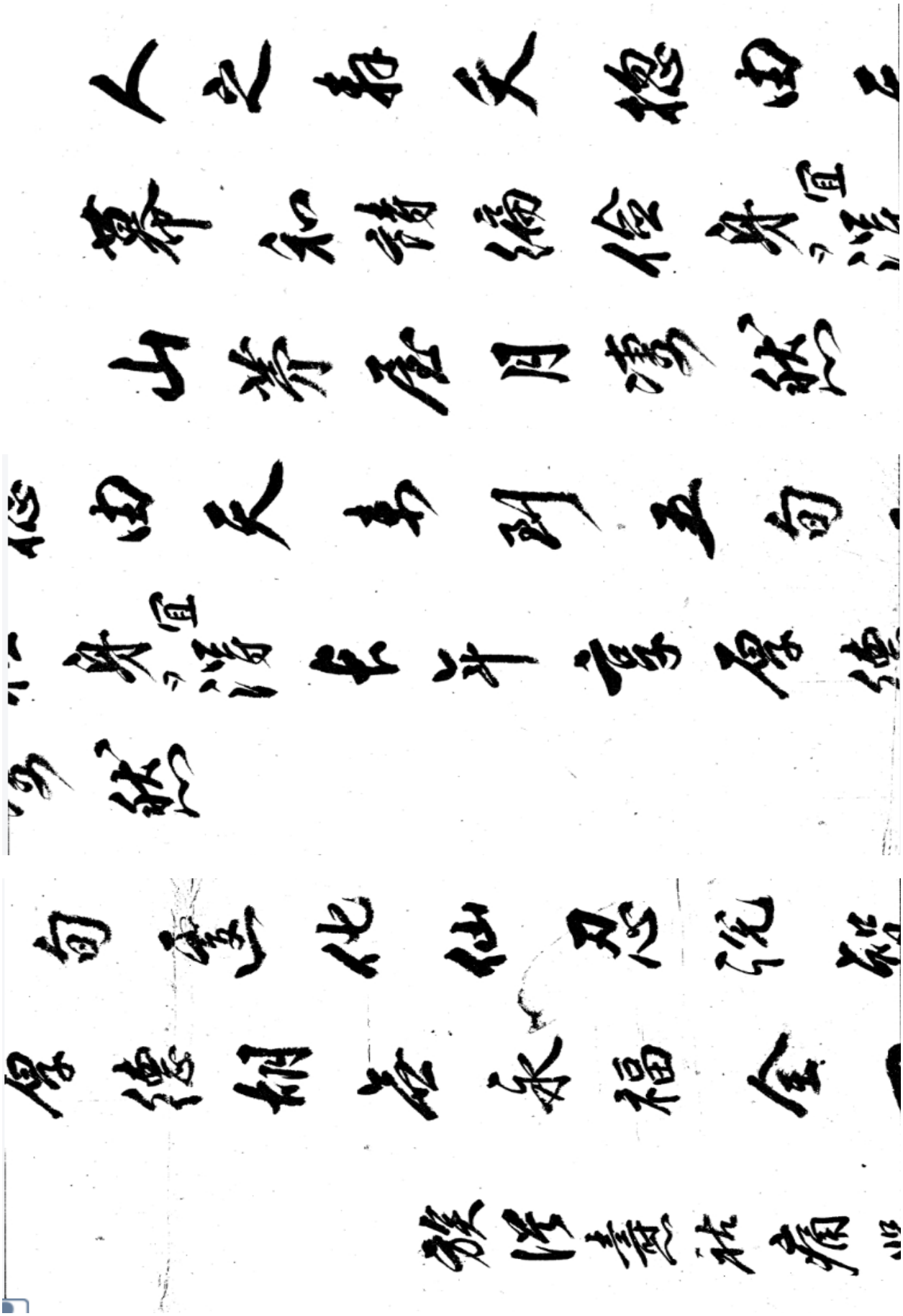
만사(輓詞)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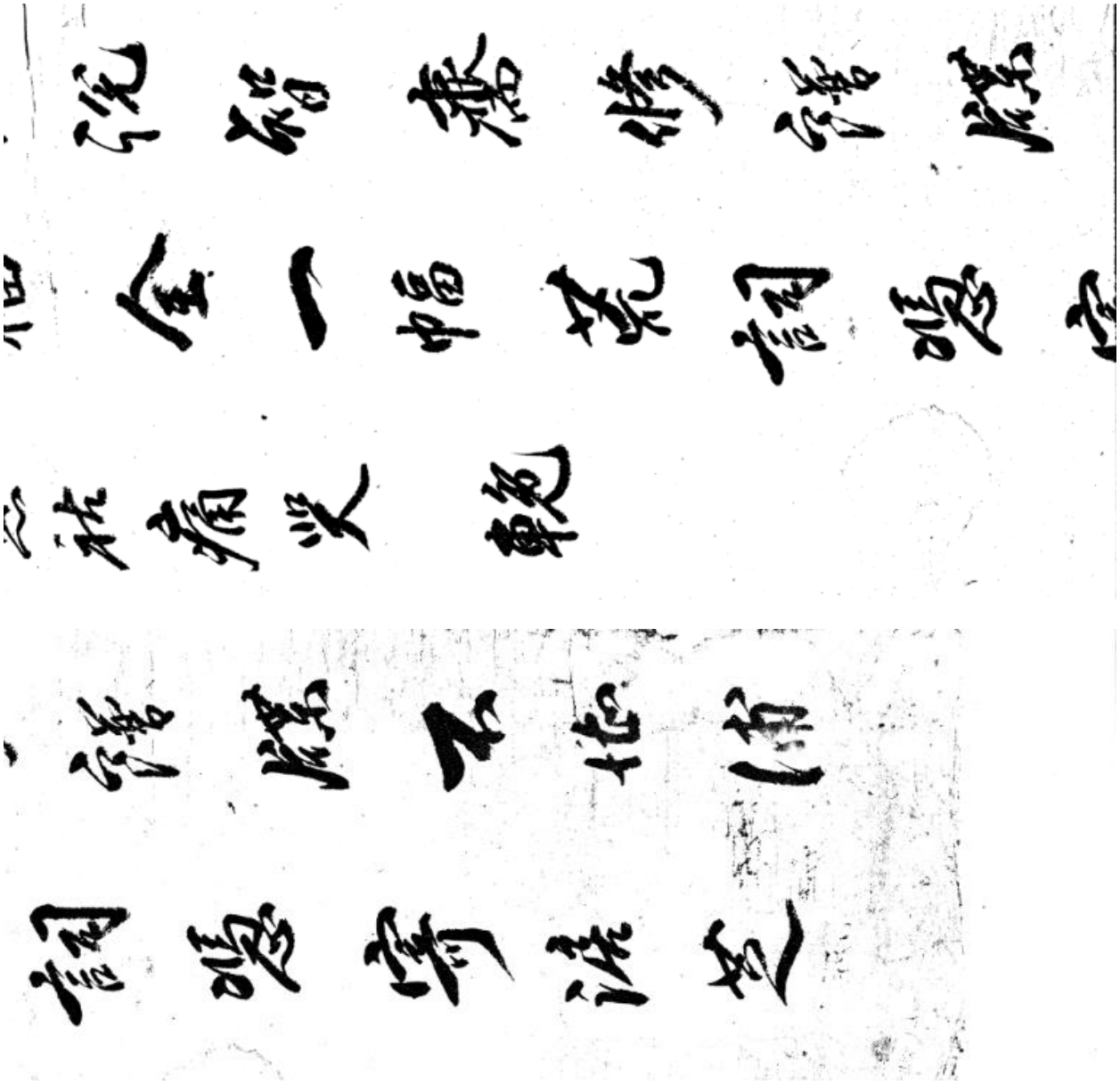


만사(輓詞) 6



만사(輓詞) 7





상량문(上樑文) (1)

새로 짓거나 고친 집의 내력, 공역 일시 등을 적어둔 문서.

창건상량문·중수상량문·중건상량문 등이 되는데, 상량대를 새로 올리게 될 때만 새로 글씨를 쓰게 된다.

원래는 집의 상량대에 붓글씨로 간략하게 써서 내보이게 하였던 것이나, 써야 할 내용이 많은 궁실·관아·학교·사원 등에서는 상량대의 한정된 면적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별지에 상량문을 적어서 상량대에 홈을 파고 넣어 보장하는 방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상량대는 각 채 [棟] 마다의 어간(御間 : 가운데칸)에 가구한 마루도리 [宗道里] 나 받침장여인데, 상량문을 쓸 때는 도리의 배바닥(장혀폭만큼의 넓이를 반듯하게 대패질해서 평평하게 만든 부분)이나 장여의 등덜미 혹은 배바닥을 다듬어 매끈하게 만들어 준다.

여염집에서는 장여 배바닥에 먹글씨로 써서 마루에서 올려다볼 수 있게 하지만, 공공건물에서는 대부분 마루도리 배바닥이나 받침장여의 등덜미에 써서 결구(結構)하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수가 많다. 붓글씨로 쓴 상량대의 글귀를 묵서명(墨書銘)이라 부르기도 한다.

묵서명의 내용은 집 또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조영(造營)의 사실을 적고 집 지은 뒤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찬문(讚文)을 쓰고, 이어 공역에 관계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차례로 쓰고, 끝에 글을 쓴 시기를 적는다.

서울의 남대문(崇禮門)을 1962 년에 해체 중수할 때 상량문을 쓴 묵서명들이 발견되었는데, 1396 년(태조 5) 10 월 6 일 초창(初創)한 내용(太祖實錄에는 七年二月八日에 남대문이 완성되었다고 하였다.)과
"正統十三年戊辰三月十七日壬寅巽時立柱上樑(정통 13 년무진 3 월 17 일임인손시입주상량)"으로 시작되는 1448 년(세종 30) 중건상량문, 그리고
"成化十五年己亥四月初二日卯時立柱上樑(성화 15 년기해 4 월초 2 일묘시입주상량)"하였다는 내용의 1479 년(성종 10) 중수상량문 등이 그것이다.

잔글씨로 상량대 가득하게 썼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찼다. 현존하는 목조건물에서 발견된 상량문으로는 도리바닥에 묵서된 부석사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 국보 제 18 호)의 고려 말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이 많은 글귀를 지었을 때엔 종이에 따로 써서 통에 넣어 밀봉하고 그 통을 상량대에 판 홈 속에 넣어 다시 밀봉하여 기록을 보장하게 한다. 종이 대신 비단에 붓글씨로 상량문을 적기도 하며, 통도 대나무·나무·구리 등으로 가늘게 만들어 사용한다.

통을 넣은 아래위에 패물이나 부적 등을 함께 넣기도 하는데, 패물들은 집을 중수하는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배려가 함축되어 있다. 다락집 [亭簷] 등에서는 상량문의 내용을 현판에 새겨 걸어두기도 하고, 선비들은 문집에 자기가 지은 상량문을 싣든지 자기가 읽은 명문장인 상량문을 수록하기도 한다.

여염집의 상량대에는 집의 좌향과 개기(開基)·입주·상량한 날짜와 시각을 한 줄로 내려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기원하는 바의 내용이 담긴 글귀를 적는다. 더러는 집주인의 방명(芳名)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들 글의 아래위에 '龍(용)·龜(귀)'자를 써서 천리에 순응하는 집을 지었음을 하늘에 고한다.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상량)를 놓을 때 행하는 제의가 상량고사인데, 집 짓는 고사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지내며 이때 상량문도 올리게 된다.

큰 집의 상량문에는 신축이나 중창 여부, 집 짓는 책임자인 도편수와 중편수의 이름까지 쓴다. 특수한 건물이나 일반 가옥에는 상량의 받침도리 바닥에 먹으로 써서 상량 도리 장혀에 구멍을 파서 넣고 도리를 얹으므로 도리를 빼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러한 건물에는 상량문을 새긴 현판을 따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한다.

일반 가옥의 상량문 좌우 양끝에는 용자·구(龜)자를 서로 마주 대하도록 써둔다. 이는 용과 거북이가 수신이므로 화재를 예방해주리라는 속신에서 비롯된다. 갑을병정 등의 10 간과 자축인묘 등의 12 지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나, 건물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고 10 간(古十干)이나 고 12 지(古十二支)로 쓰기도 한다. "하늘의 해·달·별님은 감응하시어 인간의 오복을 내려주소서"하는 축원이나, "용은 날고 봉은 춤춘다"라는 서구(瑞句), 또는 경신목(庚申木)·경진금(庚辰金)·경인목(庚寅木)과 같은 오행을 나타내는 글을 적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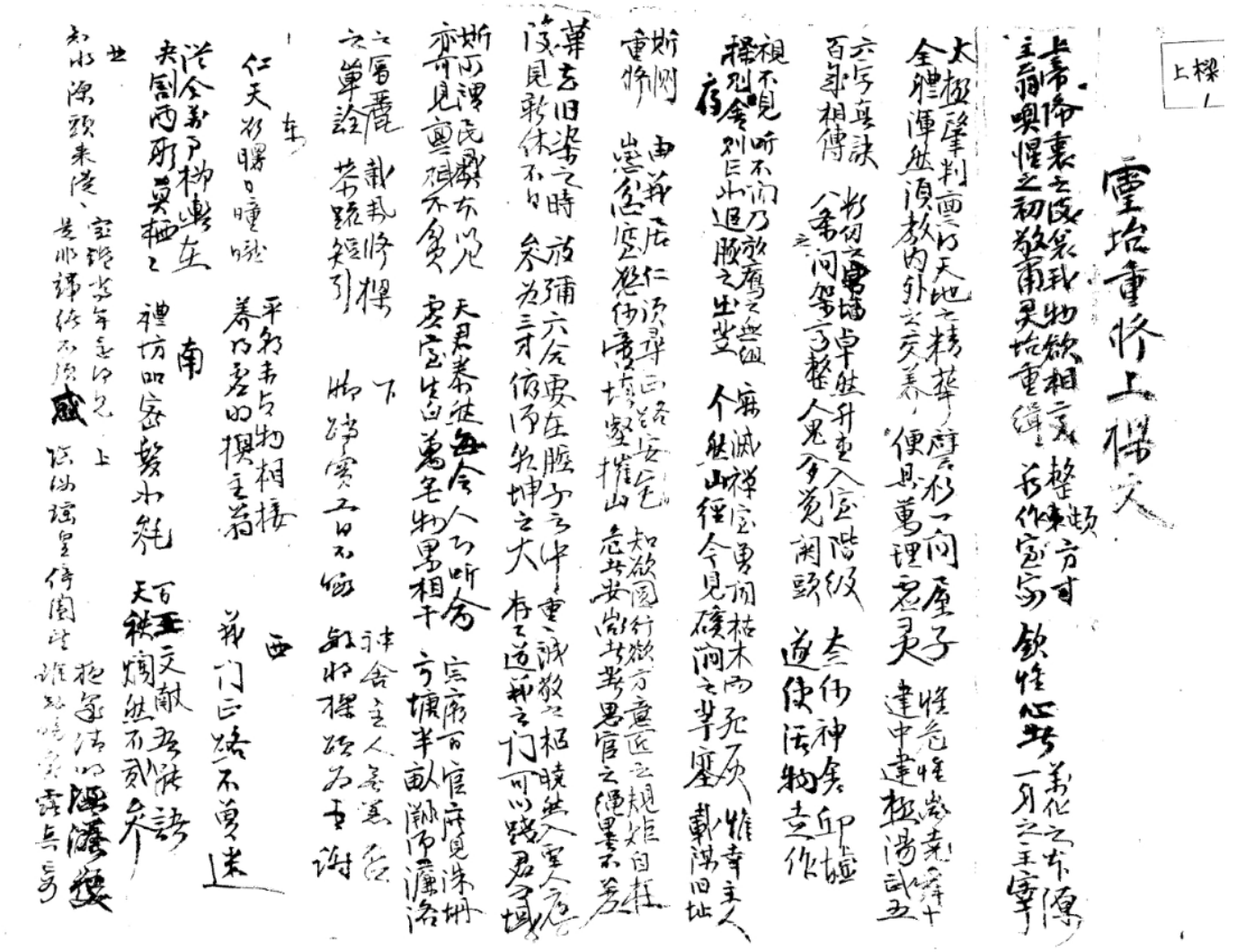
상량을 올리는 날은 반드시 성대하게 상량고사를 올리며, 주인은 집 짓는 데 사고가 없고 짓고 나서도 부귀공명을 누리게 해달라는 따위의 축원을 올리며 술을 집 네 귀퉁이에 조금씩 붓는다.

상량문(上樑文)

· **분류**	고문서-시문류-상량문 / 경제-토목건축-상량문
· **형태사항**	크기: 24x2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2) 상량문 / 상량문 / 180 ~쪽



제문(祭文) (3)

죽은 사람이나 천지 산천의 신에 대해 애도의 뜻, 또는 어떤 목적의 생각을 표한 글.
제문과 축문(祝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문과 축문은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글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다. 제문은 축문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종류가 많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宗廟)·사직(社稷)에 올리는 제사였고, 풍(風)·운(雲)·뇌(雷)·우(雨)·악(岳)·해(海)·독(瀆)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文宣王)·역대시조·마조(馬祖)·선목(先牧)·영성(靈星)·명산대천 등 제사의 대상이 많았다. 그에 따라 제문 또는 축문이 있었다.

사서(士庶)의 사례(四禮)를 정리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 四禮便覽≫에 의하면, 상례(喪禮)의 조(弔)·천구(遷柩)·발인(發引)에는 제문이 있고, 치장(治葬)·급묘(及墓)·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祔祭) 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에는 축문이 있으며, 제례(祭禮)의 시제(時祭)·이제(禰祭)

기제(忌祭)·묘제(墓祭)에도 축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과 대상에는 축문뿐만 아니라 제문도 쓰는 경우가 많다.

대개 축문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또는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수(祭需)를 드리니 받으라는 내용의 간단한 글이지만, 제문은 죽은 사람을 추도,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자연히 길어지게 마련이다.

현존하는 제문 중에는 유학(幼學) 이상위(李相渭)가 30 세 전에 죽은 부인 장씨(張氏)의 탈상을 당해 쓴 것이 있는데, 1,000 여 자의 긴 글이다. 정경세(鄭經世)의 ≪우복집 愚伏集≫에는 <제종숙참봉문 祭從叔參奉文>이 있는데, 1,320 여 자나 된다. 제문은 한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녀자가 지은 것은 한글로 되어 있다. 이재의 ≪사례편람≫ 상례 조(弔)의 제문 서식은 다음과 같다.

유(維)

年號幾年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忝親(備要隨所稱) 某官姓某謹以淸酌庶羞之奠致祭于某親某官某公之柩云云(別爲文字以敍情意)尙

년호기년세차모년모월간지삭모일간지첨친(비요수소칭) 모관성모근이청작서수지전치제우모친모관모공지구운운(별위문자이서정의)상

향(饗)

축문의 서식도 기두(起頭)와 결사(結辭)는 제문과 같으나 제사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대부분의 문집에는 제문과 축문이 실려 있다.

≪동문선≫에는 제문 52 편, 축문 14 편이 있는데, <제오방문 祭五方文>·<제김상서문 祭金尙書文>·<제우사문 祭雨師文>·<기우우사원단제문 祈雨雩祀圓壇祭文> <양촌선생권문충공근제문 陽村先生權文忠公近祭文>·<후토축 后土祝>·<풍사축 風師祝>·<기청축 祈晴祝> <종묘기우제축문 宗廟祈雨祭祝文> 등이다.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이라고 한다. 현재 전하는 고문서에도 제문·치제문·축문 등이 많이 있다.

제사를 올릴 때 읽는 고문(告文)·축문(祝文), 불교나 도교 의식에 사용하던 재사(齋辭)·원문(願文)·초사(醮辭)·청사(靑詞)는 물론, 제사와 상관없이 인물이 살았을 때의 행적을 기록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뇌(誄)·애사(哀辭)·조문(弔文) 등도 모두 제문의 범위에 들어간다.

초기에는 주로 신을 대상으로 하는 축문이 많았으며, 그 내용은 신에게 공물을 보고하고 소원을 비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점차 관심의 대상이 인간으로 옮겨가면서 인간의 일생을 서술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긴 글의 제문이 성행했다. 후대에는 뇌·애사·조문이 점차 줄어들고 축문·고문도 제문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이는 제전(祭奠)이라는 특수한 의식을 매개로 하여 창작되기 시작한 좁은 의미의 제문이 애제(哀祭)의 글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 적용된 사정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제문은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세차연월일'(維歲次年月日)을 필두로 고향(告饗)의 동기와 제문 창작의 배경을 밝히는 도입 부분, 본 내용이 실리는 전개 부분, 그리고 고향한 사실을 확인하고 흠향(歆饗)을 바라는 종결부분이 그것이다. 도입과 종결부는 형식구이며, 문집에 실릴 경우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문에서 전개 부분은 크게 2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하나가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고 그 공적을 찬양하는 부분이라면 또 하나는 살아 있는 작자의 슬픈 심정을 알리는 부분이다.

죽은 사람의 행적을 드러내는 대목에서는 성품과 자질·용모, 그리고 활동 사항과 타인의 평가 등을 기술하며, 작자의 감정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각별한 감정이나 죽음에 대한 의견 등을 표현한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때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을 대신해서 짓는 대행제문(代行祭文)이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쓰는 치제문(致祭文), 그리고 의례적이거나 집단으로 올리는 제문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칭송 부분에 더 중점이 놓이게 된다.

반면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문은 애틋하고 절실한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잘된 제문의 요건으로는 경건한 마음과 공손한 언사, 그리고 진실한 애도를 우선으로 꼽는다. 말만 번드레하고 내용이 없거나, 슬픔이 도를 넘어 자제력을 잃으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절제와 조화를 갖추고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짓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제문의 역사가 상당히 깊으며, 시대에 따라 많은 변모를 겪어왔다.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제문은 신농씨(神農氏) 또는 요(堯)임금으로 추정되는 이기(伊耆)의 기도문이며, 그밖에 순(舜)임금이 지었다는 축문과 주(周)의 대신관(大神官)의 축사(祝詞)가 기록에 남아 있다. 한나라 때에는 제문 형식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경건한 제문 이외에 신을 꾸짖어 욕하는 식의 장난이 가미된 제문이 등장했다. 위진남북조시대에는 군사행동과 왕위찬탈 등이 잦아지면서 통치자는 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지식인은 세상을 애닯아하고 비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각각 제문의 칭송과 애상의 기능을 활용했다.

당·송대는 문풍의 영향을 받아 정(情)이 뛰어나거나 의론(議論)이 강화되는 등 특색 있는 작품을 낳았다. 남송시대는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 한족의 정통성과 자존감이 위협을 받던 시기로, 이때

제문은 나라를 위해 죽은 인물을 찬양하고 애국정신을 노래하며 봉건도덕을 표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도 제의의 시작과 함께 소박하나마 원시적인 형태의 제문이 있어왔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실존 자료는 훨씬 후대인 신라 말기 최치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치원은 〈제오방문 祭五方文〉·〈축양마성제토지문 築羊馬城祭土地文〉·〈제초주진망장사문 祭楚州陳亡將士文〉·〈한식제진망장사문 寒食祭陳亡將士文〉 등 5 편의 제문을 남기고 있는데, 앞의 세 작품은 각각 오방·토지·산신에 올린 제문이고 뒤의 두 작품은 전사한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문이다.

그후 300 여 년 간은 자료의 절대 빈곤으로 인해 제문을 찾을 수 없고 고려 후기에 가서야 작품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의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제문이나, 문장력이 뛰어난 문인이 남을 대신해서 지은 제문이 많다. 이런 현상은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혈연의식이 강조되고 사제 및 붕우의 관계가 중시되기 시작하는 16 세기경부터 절친한 관계의 가족이나 동료를 대상으로 많은 제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글 제문은 18 세기말부터 주로 영남지방에서 부녀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가사체의 글이다. 초기에는 주로 한문 제문을 번역, 또는 번안하여 낭송하다가 점차 순수한 창작으로 나아가면서 규방가사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산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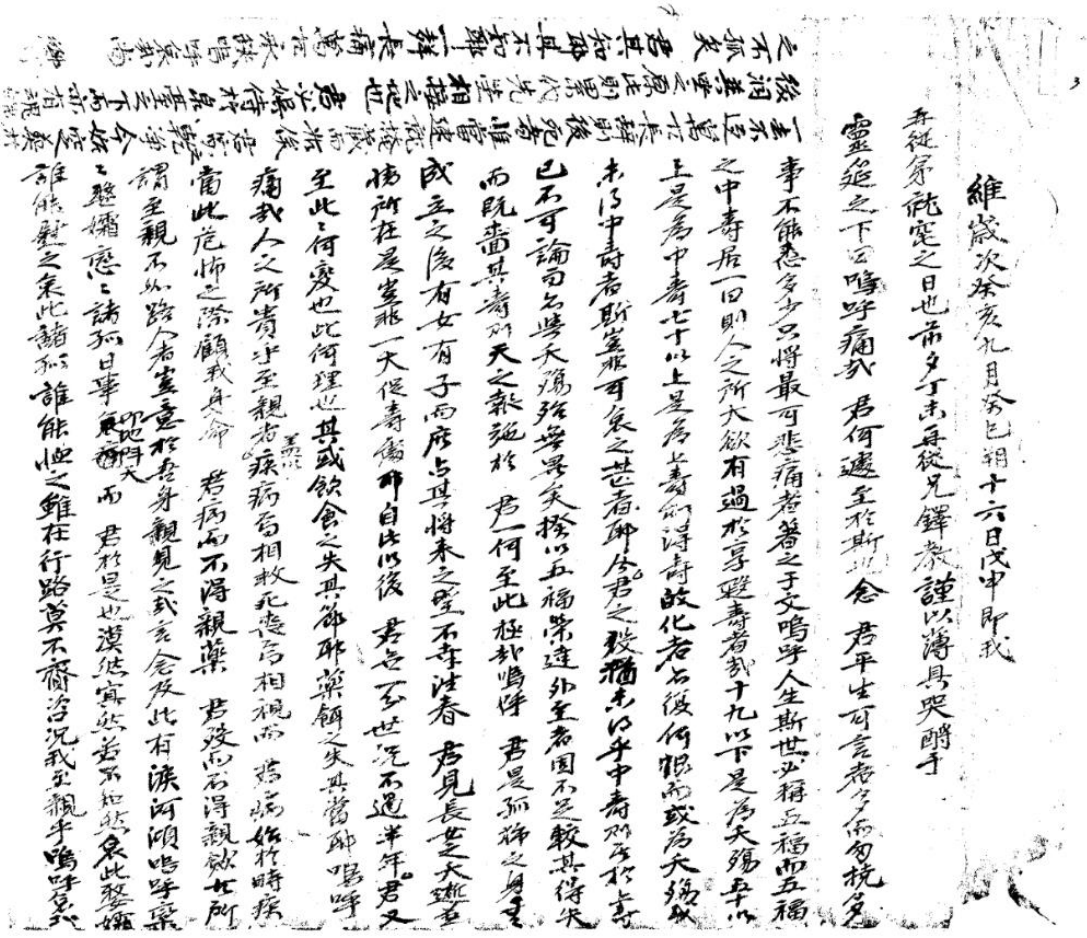
1704년 제문(祭文)

분류	고문서-시문류-제문 / 종교·풍속-관혼상제-제문
· 작성주체	발급: 신덕윤(申德潤)
· 작성시기	1704 년
· 형태사항	크기: 35x7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4) 제문 / 제문 / 222 ~223 쪽

維歲次甲申九月戊戌朔二十三日庚申舍兄羲中以酒果哭奠于
汝之靈嗚呼哀哉汝之生於世二十有七年矣有生有死生有命
短一定於稟氣之初而天不能假易於其間歟將醫治養護之未得其
事之未盡者或有以相奈歟汝之生於世其止於此耶汝之生也甚憐
七七先塗真如弱草之栖座與其如此而死不如無生之為愈也嗚呼哀哉賦命
[illegible]風遭風對之痛不自死滅而兄弟之相繼奪命慶於一室之內衰必同年
共衾而為壯盛吾亦未暮前頭歲月不甚促迫尚以此為恃庶盡懽樂之期豈
今日壯盛遽已使我永失平生之望而抱此無涯之痛耶春初痘患悴茂維邸
與仲弟奔避他村雖屬一嶺一日不相見則余心齎悵逾往叙懷而來倏過數
宿遂頓汝未久嬰疾疢勢日漸危重余以寒疾為祟過三四日汝茂棣則一家驚動
汝奈此謂余曰此是一症之疢何其驚動也余聞汝語大覺憂慮病勢雖重言語
平常人事不変余以是為恃豈意一疾不瘳竟作泉下之人乎初表殞殮之際
寒到骨既不能無感而且多有未及之兒不能成殯於家內旅木之後不獲已遷
柩於外汝若有知雖不飲恨於冥之中而余實忍為不忍之事至今思之心胸
膏而長痛也人之將死心知雖起之境則必言日後之事汝則不然火無驚懾之慈
亦無身後之語至今思之汝處余心之驚動而終無一言於將死之日也嗟我如此奈
我如此而余行負神明禍及汝身言念及此痛若割肌嗚呼哀哉人孰無生誰
有如汝之生人孰無死誰有如汝之死在室青孀竟誰依仰襁褓幼兒竟誰撫
育哀之一辭不絶於耳余雖欲暫時而理遣其何以得也今余年迫五十
未有一子居常所恃者以汝方強兄弟之情孰不相等而汝之愛我靡所不
至身後之事庶無所憂而汝青年先我夭逝今日之所以痛情者不獨
情愛之間而已也自余喪汝之後精魄俱喪形骸枵虛存羊脽昏耄之境
而髮盡白齒亦搖以汝之壯盛不能保如我之衰病其能久在於斯世乎今
汝卜葬之地乃鉄牧先壠之側也汝其即安而亦必宜有泉壤之下生
死可謂不違孝矣倘有餘地則日後葵我而以盡兄弟之情於未生者是
吾之願而茫側陋後事未期此余之所以嗚咽雖抑者也汝之二子倘得長
成則有後之事不至於無托而壯盛者不能保如此稚弱者其可情乎理必不

계해년 제문(祭文)



維歲次癸亥九月癸巳朔十六日戊申即我
舍從父兄鍾敎謹以薄具哭酹于
靈筵之下嗚呼痛哉 君何遽至於斯耶念 君平生可言者多而匆匆挽
事不能悉多少只將最可悲痛者著之于文嗚呼人生斯世必得五福而五福
之中壽居一曰則人之所大欲有過於享壽壽者數十九以下是為夭殤年
上是為中壽七十以上是為上壽而得壽故化者古今彼何恨而或為夭殤或
未及中壽者則實罹可哀之甚者耶今君之歿雖未及乎中壽然在於壽
已不可論而古稱夭殤猶曰受享以五福常達外至者固不之較其得失
而既盡其壽則天之報施於 君一何至此極耶嗚呼 君是孤孫之身主
成立之後有女有子而庶占其將來之望不幸注春 君見長女之大嫁者
物所在是豈非一大促壽傷耶自比以後 君意至於世況不過半年君又
至此何忍也此何理也其或飲食之失其節醉樂顧之失其當耶嗚呼
痛我人之所貴乎至親者疾病相救死喪相視而 君病始於時疾
當此危怖之際顧我身命 君病而不得親藥 君沒而不得親斂此所
謂至親不如路人者豈意於君身親見之哉言念及此有淚河頽嗚呼哀
哉 壑牖慈誨日華 而 君於是也漠然寘然若不知然衆此聚嫗
誰能慰之衆此諠譁誰能止之雖在行路莫不酸泣況我至親乎嗚呼哀

維歲次丁亥十月丙申朔十六日辛亥卽吾
李妹夫處士鵝州申公終祥之日也前夕庚戌婦弟慶州金
教憲謹以菲薄之著一毋祥慟哭于
之否嗚呼痛哉
尚饗
靈床將掇之前曰嗚呼儲昨年今日倏焉已至耶夫人之生而死
理而其有脩短厚薄之不齊者何也卽天之分劑有期而然
耶福善仁壽是可天道之常也而又或善不享其福仁不克其
壽是其天之理乎哉今於君之歸不可無憾於天曾黑晰眇仰
問無梯矣嗚呼嗚呼惟君孝友人也上有從祖父白首晩年不可死
也又有萱堂不可死也下有衰錫侄髮男兄弟未免襁褓而不可死
也身係一室之契活而不可死也身被九原幾何其遠渾一去而葬
音未聞洽三年而形影不返毋在而定省之禮闕焉弟在而偕祖之樂
而絕焉子在而撫育之情蔑焉是其君心之所可忍也惟天奪君
之速其於天則無如之何矣嗚呼〻〻昔我來期欣然迎接眷〻
談笑今我來斯剝啄而君不出長呼君而不應君乎〻〻捨我何
去捨我何去抑未知昭〻耿〻永不泯滅而著見者在此乎在彼乎
室堂庭宇與諸父親戚周旋乎其在空山夜月惡子規之啼血乎
人情易變衰敬寢衰忘日猶多生者如斯自可經時而逝彼冥
漠尚誰與樂是則衰死之衰甚於衰生之衰而長呼君而
痛者無涯也嗚呼輦騮胡仆於中道松楠何彫於未寒撫
念疇昔我心傷悲怨天乎怨鬼乎使此百年依仰之人
永作天壤之別嗚呼痛哉奈何〻〻今君之歸妻寡而拚乎